

2023년 도
회 의 록
[Ⅲ]



완도군의회
Wando County Council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 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I

제9대 완도군의회의원

가 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박 성 규 직 위 부의장 연락처 061-550-5942		박 재 선 직 위 행정자치위원장 연락처 061-550-5947
	최 정 욱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4		조 영 식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8

나 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김 양 훈 직 위 의장 연락처 061-550-5910		조 인 호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5

다 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박 병 수 직 위 산업건설위원장 연락처 061-550-5941		허 공 희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6

비례대표

	지 민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3

II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현황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24. 7. 4. ~ '26. 6. 30.
김 양 훈	박 성 규	

III

제9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 위 원 회				
	지 민	조 인 호	최 정 욱	허 궁 희
행정자치 위 원 회				
	박 재 선	조 영 식	조 인 호	지 민
산업건설 위 원 회				
	박 병 수	박 성 규	최 정 욱	허 궁 희

IV

의원별 조례발의 현황

의 원	조 례 명	처리결과
허 공 희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조 영 식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조 인 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김 양 훈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 재 선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박 성 규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 정 욱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 병 수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 민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동발의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회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목 차

I . 제30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

개회식 3

제1차 본회의회의록 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8

II . 제30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3

개회식 25

제1차 본회의회의록 27

제2차 본회의회의록 52

제3차 본회의회의록 47

제4차 본회의회의록 53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5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9

III . 제31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75

개회식 77

제1차 본회의회의록 80

제2차 본회의회의록 8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6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8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8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87

IV. 제31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95

개회식	197
제1차 본회의회의록	199
제2차 본회의회의록	201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10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21

V. 제312회 완도군의회(정례회) 227

개회식	229
제1차 본회의회의록	232
제2차 본회의회의록	24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6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74

VI. 제31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97

개회식	299
제1차 본회의회의록	302
제2차 본회의회의록	342
제3차 본회의회의록	372
제4차 본회의회의록	404
제5차 본회의회의록	434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44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4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460

VII. 제31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467

개회식	469
제1차 본회의회의록	472
제2차 본회의회의록	478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48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8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492

VIII. 제31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497

개회식	499
제1차 본회의회의록	501
제2차 본회의회의록	543
제3차 본회의회의록	608
제4차 본회의회의록	63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3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42

IX.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653

개회식	655
제1차 본회의회의록	658
제2차 본회의회의록	663
제3차 본회의회의록	666
제4차 본회의회의록	683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69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1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4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76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98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816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835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906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997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73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138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17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188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23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2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27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53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67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09시59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허궁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의장 허궁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

직자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의회 발전에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해양치유센터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4일이면 해양치유산업의 첫 포문으로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합니다. 긴 시간 준비한 만큼 준비한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문체부의 지침을 깨고 통과했고 소안~구도 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강진-완도 구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정월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및 2024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인 ‘힐링해완도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반면,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가

뭍으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전북 소비 부진과 가격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의회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안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4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의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계획하는

사업이 완도군의 비전과 군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겨울철 민생 안전대책은 물론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모든 군민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9명의 의원은 군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고 군민 여러분의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고견과 관심은 완도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열려있고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민의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율식

이상으로 제316회 완도군의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조영식 의원 외 8명)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0시11분 개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완도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

○사무과장 최정환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

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최정욱 의원과 지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4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안번호 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

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182억 1,93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4억 7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88억 8,709만 6,000원으로 53억 3,6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3억 3,229만 8,000원으로 40억 7,0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888억 8,709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3,62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3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5,37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1,785만 5,000원, 행정제재금 1억 4,694만 3,000원 등 50억 1,8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여 462억 1,25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91억 9,258만 1,000원 증액, 도비 29억 9,850만 3,000원 증액하여 총 221억 9,10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167억 8,846만 7,000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입금 68억 75만 2,000원으로 총 235억 8,921만 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3억 3,629만 9,000원 증액된 6,888억 8,709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억 3,786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6억 691만 6,000원, 교육비 9,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 12억 9,526만 1,000원, 환경비 135억 1,181만 8,000원, 사회복지비 74억 3,568만 8,000원 각각 감액 보건비 1억 1,570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비 245억 910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14억 8,543만원, 교통 및 물류비 13억 3,426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4억 5,011만 7,000원 각각 증액, 예비비 106억 7,396만 8,000원, 기타비용 35억 6,788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30억 8,867만 5,000원 감액 물건비 19억 502만 8,000원 경상이전비 136억 4,971만 1,000원, 자본지출비 136억 4,468만 5,000원 각각 증액, 내부거래 101억 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6억 7,436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886억 6,055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300억 6,5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801억 1,516만 6,000원으로 245억 5,88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937억 5,452만 6,000원으로 23억 2,35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3억 6,085만 9,000원으로 31억 8,30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45쪽부터 6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72억 9,909만 3천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93억 3,22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7,09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5억 1,825만 4,000원 증액,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8,062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5,55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126만 3,000원 감액,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4억 5,77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90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090억 589만 3,000원에서 229억 4,3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6,319억 4,939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722억원에서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738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11쪽부터 25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77건에 683억 9,54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33억 9,95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7쪽부터 4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

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2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에서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신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서 동북아 물류·관광 및 국제교류·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완도군의회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에 큰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동시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21세기 한반도 성장을 위한 대역사의 하나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서고 그중에서도 전남과 제주 양 지역이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무궁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항공과 선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상변화에 민감하고, 관광비용 및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발전의 한계와 제주 해저터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장차 21세기 새로운 연륙 교통수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대륙의 섬이 될 제주와 전남의 연계 관광상품 개발,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내륙 문화유적과의 연계, 농수특산물의 교류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신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서 동북아 물류·관광 및 국제교류·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한국판 그린뉴딜로 글로벌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응적 시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주시기를 5만여 군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궁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울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완도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2억 1,93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888억 8,70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3억 3,22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4억 7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페이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7,182억 1,939만 4,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계수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분야에서 181만원, 자본지출분야에서 1,619만원, 총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및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886억 6,05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군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3,886억 4,255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3억 8,553만원 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97억 3,565만원이고, 지출은 468억 1,510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총 370억 7,9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들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이 다소 많은 부분은 집행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군의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투명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
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김현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

산림휴양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장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운영팀장

속 기 사

안환옥

천종실

김희수

우홍래

추교훈

박미정

허동조

오현철

한지영

박창희

김현란

박은재

위남환

이기석

이용신

고영권

문경선

최정환

서울식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의사일정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4.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25.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6.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8.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9.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0.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 발의)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4.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5.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6.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8.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2.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24.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25.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 26.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 2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28.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29.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30.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관한 보고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에 관한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하고,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회부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1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제안설명의 건 (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만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완도의 백년대계를 짚어질 해양치유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난 달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면서 마침내 ‘해양치유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또한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준공과 조선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단번에 통과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설군 이래 처음 개최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선수단 등 3만 7천 명이 방문하여 4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며 도민 대통합과 안전, 경제 체전으로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변에서 개최된 정원 페스티벌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호평 속에 ‘완도다움’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주시고 높은 군민 의식을 보여주셔서 가능한 값진 결실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미 항공우주국(NASA)에 우리

지역 해조류 양식장 사진이 소개된 후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완도산 해조류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후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은행(WB)과 기업, NGO 단체 등의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해조류 양식과 음식, 빼어난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완도풀'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영토를 확장하며 모국 발전에 기여한 한상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인「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올해까지 17개국, 43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288개 슬로시티 중 우리 군이 해양치유 정책으로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해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인 완도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군이 전남도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남 최초 「군내버스 무료 운행」과 약산~금일에 이은 「완도~노화~소안 여객선 야간운행」 시행은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등 평가에서 23개 분야 수상과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1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은 잣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내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복 소비 감소와 홍수 출하로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한 바 있고, 원전수 방류와 고수온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제한급수를 시행해야만 했고, 군민들은 수개월 동

안 식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귀농·귀어 인구와 청년 유입 정책 등 각가지 처방에도 인구 감소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는 길엔 어쩌면 또 다른 위기가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민 행복과 완도 대도약만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날로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에는 7대 핵심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한껏 드높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였다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군이 가진 비교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한 단계 앞서나가는 전략으로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의 독자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건강 상태 측정과 질환 예측 등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암 환자, 만성 질환자에게는 솔루션을 제공해「완도에서 한 달 살아 보기」등 완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겠습니다. 해양기후치

유와 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해안치유의 숲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해양치유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이 경영하는 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대기업·여행사·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부처·각 지자체, 학교 등 대상별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치유객이 완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등 국내 굴지의 업체와 맺은 6,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협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숙박 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치유객을 유입하겠습니다.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어업 소득 증대와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000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해양, 수산, 산림, 기후 등 비교 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국비 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치유산업과 연계하여 더 큰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청산도 범바위를 소재로 한 氣 치유와 더불어 예술, 소리, 경관, 문학, 역사 등 섬마다 지닌 치유 자원과 관광자원을 특화해 완도 전역을「치유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가리포진 복원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가리포 노을길 등 해안도로 명소화 사업과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길도 예약도를 예술섬으로 만들고, 「힐링海 프로젝트」를 통해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산·학 연계 연구 체계를 탄탄히 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은 ‘25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바이오 소재 대량생산과 기업의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의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대량생산의 물꼬를 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사업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해조류와 전복 내장 추출물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입증한 활성물질을 국제 특허 출원한 데 이어 기능성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용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다시마, 미역,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을 확대 개발해 미국, 러시아, 두바이 외에도 더 많은 해외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청각, 감태 등을 활용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 등 해조류 기반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과 공급, 제품 개발 등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갖춰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수산군담계 해양바이오산업을 고도화하여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군 경제의 뿌리 산업인 전복과 해조류 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겠습니다. 기존 수산 양식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양식 빌리지, 양식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전복 생애주기 분석 등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전복 신품종 개발·보급과 어장 재배치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식량과 바이오산업, 블루카본의 소재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완도 해조류 가치와 해조류산업의 잠재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조류가 탄소흡수원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노력해 나가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해조류 대량 양식을 위해 해상 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해조류 양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 다시마, 곰피 등 해조류 우량 품종과 뜬부기, 바다고리풀 등 신품종을 개발·보급해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지역 핵심 산업인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고 더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와 특화 작목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고, 스마트팜 6차 산업, 스마트 축사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더 경쟁력있는 농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판로 개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해풍과 맥반석 등 비교우위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CJ푸드빌과 마니커, 위메프 등 기업과의 공동 브랜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히트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완도 청정 마켓'과

대형 유통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쇼핑몰 등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연도교 등 대규모 SOC 사업이 국토교통망과 연결을 통해 지역 발전의 호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예타가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우선 국도 건설계획 반영과 더불어 예타 면제 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구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등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상권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무역항, 연안항, 국가·지방 어항은 어업활동의 전진기지 기능 강화는 물론 관광, 해양, 레저, 휴식 공간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어촌뉴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 어촌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활기 넘치는 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 수원지 개발과 해수 담수화 시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섬마을까

지 LPG 배관망 구축을 확대하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과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군내 지구 침수 예방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조기 건립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속 지원,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 1만 원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창업 공간과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교육과 경력 이음 이용권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비, 아동수당과 급식비, 초중고 입학 축하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 지원은 물론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센터를 건립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 건강검진비, 행복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체감하는 복지 공공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남 최초 무료 군내버스를 지속 운영하고, 군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여객선 무료 운임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금일·노화·소안·보길 방면 여객선 야간운행 지속 운영 등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노화, 청산 국

민체육센터 준공에 이어 금일, 약산, 소안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속도를 내고, 노소보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 말 완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과 카드 수수료,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겠습니다.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대형 선망 선단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유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해 상권과 지역 경기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전남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경험을 발판 삼아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대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뜨거운 호응으로 10월 말까지 연장했던 정원 페스티벌은「해양치유정원 페스티벌」로 확대 운영하여 다시 한번 군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 슬로건기축제, 청정완도가을섬여행이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버금가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65% 감소한 5,980억 원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감소 여파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역점 시책과 현안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건전재정 기조 속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군민 복리 증진 사업과 농수축산업, 민생경제 살리기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완도가 장보고 대사의 해안처럼 바다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닳을 올렸습니다.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군정의 핵심은 '군민 행복'입니다.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정',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는 '희망 군정'을 이끌겠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인다면 반드시 희망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 발의)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6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36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5.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6.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8.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

군수 제출)

22.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

례의 체계 정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으나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관시간 조정 및 시설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적용 조문을 정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

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복지위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변경하고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내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없고 지정 가능성도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금거점 세척 소독시설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토지 1필지 1,088제곱미터 2,900만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완도 고금 역사공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남문)재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매입, 농업시험포장 국화 및 꽃묘 육성 편입 토지 매입으로 토지 23필지, 3만 4,174제곱미터, 14억 5,500만원, 건물 12동 28억 5,8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1필지 2,466제곱미터, 3,000만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인재육성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보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

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완도군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2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어·패류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기술 이전 등 관내 영세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해양치유 시설물

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 하고자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출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해양치유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6.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8.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9.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

출)

30.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잘못 기재한 출연금액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선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3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김현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속 기 사

서울식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

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완도읍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 모임에서 발굴된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전복과 해조류의 생산지로 완도읍은 생산을 위한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자, 판매를 위한 상업 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했던 곳입니다. 현재는 전복과 해조류의 수요 감소, 해양 환경의 국제적인 이슈, 공공시설 이전과 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기능까지 점차 상실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특히, 골목상권은 쇠퇴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도읍의 상권 쇠퇴를 막고자 완도군의회 의정연구모임으로 구성된 4명의 의원들이 전문가들과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도읍 구도심 골목 상권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완도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완도읍 구도심 골목상권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완도읍과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 기반이 구축되어 골목상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완도군 구도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완도읍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읍 상권 분석 결과, 상권 등급 5개 등급 중 2등급으로 현장 검토를 통한 예측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권등급 2등급은 전반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대상지 내 완도 중앙시장이 위치하여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도읍 상권 평가지수는 구매력은 높으나,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점포별 매출 편차가 컸으며, 상권 내 유동 인구는 주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완도읍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완도읍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사업(HW) 6개, 소프트웨어 사업(SW) 6개, 휴먼웨어사업(HW) 2개로 총 14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하드웨어사업(HW)은 상권의 인지도 증진 사업, 이용객 편의성 증진 사업, 지역 소상공인 활동 공간 지원 사업,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소프트웨어(SW) 사업은 상점가 소식을 발신하는 사업,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기존 축제를 연계한 사업, 소규모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휴먼웨어(HW) 사업도 발굴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엇이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생활,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니즈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계획된 사업의 생명력은 일반 지역의 종합발전계획과는 다르게 1년에서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즉, 실효성 있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 실행해야만 효과적으로 완도읍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완도읍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발굴한 실효성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이벤트 ‘빙그레 야시장’, 주도 달마당입니다. 여름철 야시장을 개최를 통해 완도읍의 야간 즐길거리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에서 1인 메뉴개발과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9시 이후 운영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광객들의 완도 구도심 식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완도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를 유도하는 ‘기념품 및 패키징 완도꾸러미 개발사업’과 완도읍 상점가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월간완도 매거진 발행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철 군수님! 소개해드린 우선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며, 완도읍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완도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의장 허궁희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 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7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1억 7,390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고향사랑 기금 5억원, 청사신축기금 85억 9,96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0만 5,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199억 4,246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1,586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1,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

8,368만 8,000원, 지출이 2억 7,360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16억 1,00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17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84억 9,555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820억 8,90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6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7억 8,533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5,984억 9,555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억 1,83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176만 1,000원, 보건 분야에서 1,8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9억 1,745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000만원, 기타 분야에서 2억 5,454만 5,000원, 총 16억 4,71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분야에서 2억 8,294만 2,000원, 물건비 분야에서 2억 520만원, 자본지출 분야에서 16억 4,246만 7,000원 내부거래 분야에서

3,176만 1,000원, 총 21억 6,237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이전 분야에서 5억 1,521만 6,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16억 4,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645억 3,5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액 1억 208만원, 도비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액 4억 3,037만 1,000원을 삭감하여 3,640억 313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 정부의 교부세마저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됨으로써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더디기만 한 경기 회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안전망 확보, 소비와 투자 진작 등 군민의 요구와 정서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예산은 전략적·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홍보전담부서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은 홍보전담 부서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서별 중점사업들의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위해 분리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이런 홍보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홍보전담 부서에서는 예산이 중복·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군 자체 사업들은 예산편성 전부터 타당성 검토, 사업효과 예측, 주민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실정과 군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군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군에 꼭 필요한 보조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해양바이오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우리군의 백년대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이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고,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그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SOC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건설, 연륙·연도교 건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주요 SOC사업들과 대형 국책사업들은 우리군의 지리적 약점을 개선하고 천혜의 해양자원을 널리 알리는 군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의 유동성이 커진 만큼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적극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이 건전성 유지와 수지 균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됨은 물론 무엇보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규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는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67건, 권고 51건, 제안 13건으로 총134

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운영 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렬불부합 인사 개선등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성복지정책 적극 추진, 장애인복지관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7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도서지역 전지훈련 유치 추진 및 스포츠인프라 확충, 완도항 확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력, 어촌뉴딜300 권역단위사업 신속 추진,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정비 적극 추진 등 77건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한 군민제보로 총 12건의 제보를 받아 8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13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생산성 있는 감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회의식으로 하는 등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군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제보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직렬 배치 및 필수 보직기간 미준수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부분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의 성과분석 없이 안일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금만 관

심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면 주민 불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제보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도와 군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발령시 업무에 맞는 인력배치와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함은 물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군민 편의를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질책이라기보다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완도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뒤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가족행복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운영팀장
속 기 사

박미정
허동조
오현철
한지영
최광윤
박창희
박은재
위남환
이기석
김진원
이복선
고영권
한광일
황승미
이홍용

최정환
서울식
정현중

○출석의원(9인)

허궁희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 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설명에 앞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 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 경안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 및 국도비사업 변 경 등 세입·세출 차액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의 신규 도비사업 교부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 등 당초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 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83억 6,534만 8,000원,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 674억 6,498만 8,000원, 이자수입, 4억 6,930만 2,000원, 기타수입 5억 100만원으로 총 772억 63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23억 5,630만원, 예치금 303억 8,553만원, 기타지출 444억 5,880만 8,000원으로 총 772억 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4억 6,498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97억 3,565만원, 지출이 468억 1,510만 8,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70억 7,945만 8,000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03억 8,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

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44억 3,717만 4,000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2,163만 4,000원을 합한 2023년 기금 조성총액은 444억 5,8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444억 3,717만 4,000원, 이자수입, 2,163만 4,000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5억 6,719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382억 6,250만 1,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나머지 61억 9,630만 7,000원을 추가 전출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5억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박병수 위원

당초 계획은 한 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미치지 못했네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는데요. 목표 금

액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때그때 소비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은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일반기금처럼 기금사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및 주민참여 그리고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5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3년도 수

입금은 5억원입니다.

당초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1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기부금 추이를 고려하여 당초 수입액에 대해서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운영비인가 뭔가 그런 걸 내게 하고 있죠? 기부금 얼마씩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김양훈 위원

그거는 이거 기부금에서 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에서 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별도 예산입니다.

○김양훈 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김양훈 위원

여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운영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방금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만약에 5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금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봤더니 그렇고요. 전국 지자체 중 광역을 포함해서 243개 상위 30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 20위 안에 들어가지 않냐 그런데 운영비는 2,300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많이 걷어도 운영비를 많이 내야지 그것도 부담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김양훈 위원

많이 기부금이 들어와도 운영비로 많이 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첫 시행됐는데 법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김양훈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은 걷어놓고 운영비를 따로 관리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걸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이 위에도 상위법 건의를 해서 이걸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해서 회의를 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열악한데 그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다 녀보면 지자체마다 혈안이더라고요. 광고, 홍보 적극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완도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면 어떤 걸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문제점은 법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법의 한계가 뭐냐면 홍보를 못하게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못하게 하고 있고, 향우회를 통해서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경향우회 총회하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법의 한계를 어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입이 정부에서 60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이지 않습니까?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지만 국세가 감된 것도 합니다. 이것도 한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려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재하기 애매하고 그런 상황 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걸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정착하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우리도 다녀보면 시군 지자체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게 보여요. 우리군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인 것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뭐해서 우리들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보면, 네이버에 보면 러닝페이지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완도군고향사랑기부제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상위 20위 안에 랭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올해 전복가격이 굉장히 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산품이 좋으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을 10만원당 예를 들어서 3만원 특산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복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기부했을 때 약 2킬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부자들이 보면 10만원을 기부했는데 전복을 2킬로 받아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만원 기부하고 전복 2킬로 받아버리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상위 20위 안에 전국 지자체에 랭크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희 완도는 수산물 특산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내놓은 특산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우리군이 경쟁력이 있는 게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55억 6,7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청사신축기금 총 조성액은 85억 9,961만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입계획은 전입금 53억 6,300만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4,307만 3,000원으로 총 97억 1,961만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출계획은 비용자사성 사업비 11억 2,000만원, 예치금 85억

9,961만원으로 총 97억 1,61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억 437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6,300만원 등 97억 1,961만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제2청사신축 10억 9,510만원,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85억 9,961만원 등 총 97억 1,961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20년도 40억 6,000만원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0억 7,0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용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2회 추경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84억 7,8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9,961만원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41억 5,223만 7,000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44억 4,733만 3,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3년도 예치금은 85억 9,9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23년도 2회 추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은 2005년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0.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2년 동안 조성액은 170억 3,859만 2,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주요활용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3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26억 7,381만 1,000원과 예금이자 2억 3,006만원을 합한 총 199억 4,2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3년도 2회 추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환경수질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3,070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총액은 2,200만원, 지출총액은 4,0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에 기인합니다. 올 연말까지 기금총액은 1억 1,2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3,070만 4,000원, 이자수입은

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270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1억 1,270만 4,000원으로 총 지출은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27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설명의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6억 818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총액은 7억 1,677만 2,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1억 9,630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억 7,952만 8,000원 감소한 11억 2,865만 4,000원입니다. 6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853만 7,000원,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액 16억 818만 2,000원, 이자수입 823만 5,000원으

로 총 23억 2,495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11억 9,630만원, 예치금 11억 2,865만 4,000원으로 총 23억 2,495만 4,000원입니다.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액은 48억 9,459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6,593만 6,000원, 잔액은 11억 2,865만 4,000원입니다.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영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예산서, 추경예산서 오면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리추경하고 본예산

이 겹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요즘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잘해서 의원들한테 먼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줘야죠. 그래야 보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촉박하게 뭐든지 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줘야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준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 순군비 300만원 이상 예산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 변

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는 삭감해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3억원 감액, 저축 이자수입 28억 등 세외수입이 50억 1,800만원 증액되어 47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466억 8,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2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지방교부세는 총 460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21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모두 229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2년도 순세계잉여금 157억 2,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62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4억 5,700만원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해서 총 235억 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88억 3,200만원 등 35억 1,8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억 5,008만원, 주택자금융자 8,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5,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4,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4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088억원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7,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역시

7,1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888억 8,700만원으로 53억 3,600만원이 특별회계는 293억 3,200만원으로 4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2,722억 2,400만원으로 25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군비부담금은 1,073억 300만원으로 25억 4,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7억원으로 편성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7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출을 조정해서 금번 추경 예산에 총 20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 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4억 5,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 9,100만원을 감액했고, 청사신축기금 9억 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91억 2,000만원의 전출금을 감액 편성해서 퇴직자 증가로 연금부담금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대응 해야 할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 15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시급하게 발주해야 할 필요사업비만 반영해 총 3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해주세요.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예산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최정욱

예산실 약 100억 가까이 지금 감액 됐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최정욱

100억 정도 감액되었을 때 어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대부분 예비비 70억을 감액 하다 보니까요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국도비 반환금이 원래 추경결산에 하게 되었는데 그게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최정욱

그 내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번 2회추경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부내시 됐던 교부세 삭감률이 4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상

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회 추경하면서 국도비 부담금과 군비 부담금이 300억 정도 늘어나게 된 상황이며 올해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부담금을 편성해야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부담금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93억 정도 되고요. 그 외 국도비 반환에 대한 75억에서 168억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자료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고요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한 번 볼게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 지원 700만원 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신학마을이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홍보하는 박스제작이나 홍보비 등으로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주체는 어딘가요? 여기 체험휴양마을 하고 있는 주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주체는 신학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분이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한테 한 거죠? 마을의 전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농촌중심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있다가 법인에서 소한석 사장님한테 위탁을 일종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탁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도내에서 그쪽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절차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군외분도 아니거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병수 위원

군외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운

영을 하고 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년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원님, 그 부분은 소한석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한테 운영권을 넘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신학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그나마 운영이 우리 군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까지 지원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감이됐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뭐 때문에 감이됐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내년도 사업발굴하는 용역비를 했는데 용역비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다보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럼 24년도 지방소멸기금 결과가 나왔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2등급 받았습니다.

○박재선 위원

금액이 얼마나 깎였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당초에 S등급이 144억인데요, 2등급은 80억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2등급 받아가지고 80억으로 깎여 그것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박재선 위원

당초에 했던 계획이 많을 건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144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구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80억으로 사업비가 감이 되면서 일부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이 불가능할상 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다른 공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지방소멸기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완도군의 발전이 될 거라고 몇 번 더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B등급으로 해서 80억 정도를 못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감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용역비는 3,000만원 세워놔었는데 실제 저희들하고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하려면 3,000만원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용역은 했거든요. 금액가지고 좋은 업체랑 사업 발굴한 구상하기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들하고 실제 안하는 업체들하고 일하다보니 잔액이 발생 돼서 이런 감액됐습니다.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군정질의 때도 인구일자리정책실 변해야 된다는 말을 몇차례 했는데 사실 우리 기금 조금만 더 받으면 직원 몇 명 쓰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내요. 그러려면 무조건 용역만 줄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걸 많이 받을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니까 그런 직원들 팀을 따로 두란 얘기에요. 그러면 몇 억만 받아버리면 훨씬 효과적이고 이익이고 우리군에 발전되고 하는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참고해서 과하게 직원들 배치를 하는 물론 감사 때도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그런 거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음 제안 없으시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옥

해양치유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61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자체 추가분 1억 5000 했는데 이게 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부분은 센터 주변에 정원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예. 해양치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지원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옥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에 청산면 당리 농로 정비공사 성립전인데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이제 전남사랑에서포터즈라고 해가

지고 전남도에서 전남도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전남을 사랑해주라고해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시하고 군하고 구분해가지고 상위 시는 3개소, 군은 6개소 했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해가지고 상위 6위안에 들어서 시상으로 받은 겁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상위 세 군데에다가 상사업비를 하는.....

○박병수 위원

그럼 도 조정 교부금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우홍래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옥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비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특별히 할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행사장에 가봤는데 정비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 돈도 없다는데 군비를 2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도비 1억 4,000만원 해서 이렇게 군비가 매칭이 많이 된 사업을 추경에 합니까? 이런 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정비공사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관리동을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합니까? 이런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도비가 늦게 확보가 돼가지고요. 당초 회사내에 열다가 그때 의원님들이 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박성규 위원

조그만 사업도 군비 부담 못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2억 4,000만원을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런 사업들을 2억 4,000만원을 여기다가 급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도 보조가 내시워서 이번에 도비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도비 했더라도 반납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

○박성규 위원

다른 중요한사업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일단 알았어요.

○박병수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주민간담회 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사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1억 6,000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군비로 2억 4,000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에 여기서 딜레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

○박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

대변하십니까?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설명해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정욱

복지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삭감 장애인들한테 주로 중점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삭감이요?

○위원장 최정욱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보조금 요구 편성할 때 여유 있게 요구를 합니다. 부족하면 안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전체 삭감한 게 아니라 일부 삭감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정욱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 재료비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독거노인 김장담그기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매년 김장철이 되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양훈 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읍면에 일반 단체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 단체, 새마을이건 적십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는 거를 해서 읍면 자치회에서 단체들에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배정 안한 단체들도 다 하던데? 이거 처음으로 올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뇨, 매년있던 사업입니다.

○김양훈 위원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닙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은 매년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거 12개 읍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이 돈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어떻게 분배하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김양훈 위원

아니, 아니 단체들한테 어떻게 어느 단체들한테 이 돈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저희 군에서는 읍면으로 배정하고 단체에 주는 것은 각 읍면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250명이면 더 많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배가 잘 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분배는 잘, 사실 김장담그기 사업.....

○김양훈 위원

지금 250명만 대상으로 정확히 읍면 파악은 잘 안 됐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요. 원래 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주면 좋은 일이지만 현 재정상황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단체, 읍면에 배부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가면 생활개선부터 시작해서 적십자고 여성단체고 단체들이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돈가지고 분배를 한다 그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보니까 일부 특정 단체

만 받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자기네들 재능기부 아니면 자기네들 이렇게 사서 계속 하더라고요. 반찬봉사를 엄청 많이 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단체마다 열 몇 개 단체가 다해요, 한 면에서 보면 매년. 그리고 수시로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년마다 저소득 독거노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김장담그기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5일날인가? 김장담그기 해주는 거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김장담그기 있던데 25일날인가 며칠날인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거기는 아마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런 곳도 돈이 가나요, 자금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여성단체하고 저희 여성단체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걸로.....

○김양훈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는 이제.....

○김양훈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게 이게 잘못하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는 우리는 독거노인들.....

○김양훈 위원

중복이 많이 된다는 얘데요. 그런 단체들도 예산 없이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읍면에 또 나눠줘요.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중복 안 되게끔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단체들하고 읍면장하고 얘기를 해서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 어쨌든 읍면에서 전부 하더라도 중복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맨 밑에 금일소망의집 증축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금일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요양시설이 권역별로 있거든요 권역별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열악한 부분이 금일 권역이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6인 시설인데 16인 시설로써는 너무 감당하는 인원이 작아서 증축을 해야 돼서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운영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운영은 이제 소망의집에 있는 법인.

○박병수 위원

법인은 대표가 누구예요? 종교단체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종교단체는 아마 아닌 걸로.....

○조인호 위원

종교단체가 맞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교회, 아! 대부분 요양시설은 교회, 종교 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민간위탁을 한 건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탁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병수 위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런데 자담하고 같이 자담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자담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박병수 위원

기준에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것도 부족하죠.

○박병수 위원

얼마나 크게 짓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이제 지금 현재 16인 시설인데 30인 시설로 지금 좀 늘리는 정원을 좀 늘리는.....

○박병수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들이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원하시면 요양시

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은 저기 뒤 페이지 하나 질문할게요. 333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337페이지 이 부분 설명 한번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돌봄센터가 준공이 돼야 그 속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이 사업이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요.

○박병수 위원

그거와는 다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를 파하고 나서 학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있잖습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애들을 한정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건축이 준공을 덜한 상태에서 약간 보류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구소방서 뒤에 짓고 있는 건물 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삭감이 70억 5,400만원 맞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70억이요? 예.

○위원장 최정욱

이렇게 많이 삭감을 가족행복과 해도 상관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수치조정에 따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욱

수치라니 어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기존에 국도비사업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가내시로 왔을 때, 내시를 확정내시가 왔는데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최종 내시확정액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른 수치조정 때문에 감이 났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어린이집 애들 지원하는 그 금액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거는 증액됐습니다, 대체 인건비가 거기만. 어린이집 선생님 대체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고, 기초연금 부분들이, 기초연금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알았습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해맞이 행사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놨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이 어렵다하고 다 쪼이는 상태에서 해맞이행사 하는데 꼭 4,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의원님께 저희들도 이제 2,000만원 증액을 고민했던 것은 그동안 코로나이전에는 해맞이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작년에도 준비했다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본격적인 일상생활 회복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떡국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세리모니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원님.

○김양훈 위원

그래도 2,000만원만 갖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56쪽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도비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넣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넣는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안전장비 구입은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가고 어떤 거는 자산취득비로 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자산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예산인데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신지명사십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트스키가 노후화 돼서요 제트스키를 자산물품취득비는 제트스키를 구입을 할 겁니다.

○김양훈 위원

사무관리비 그거 안전장비 그거는요?

○관광과장 오현철

사무관리비 안전장비.....

○김양훈 위원

그것도 1,600만원인데 도비하고 했잖아요.

○박재선 위원

100만원.

○김양훈 위원

아, 그 위에 예상액이 1,600만원..... 밑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은 똑같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금방 제트스키 산다 해서 자산취득비는 했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는 안전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관광과장 오현철

안전장비 사무관리비는 레스큐튜브라든지 구명조끼 안전성 이런 소모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도 원래 취득비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안 맞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사무관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은 수상워터가 제트스키는 자산취득물품이 되어가지고.....

○김양훈 위원

위에꺼는 아까 그 구명조끼라고 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구명조끼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데 이제 의원님 소모성이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

소모성이라 구명조끼 같은 것도 몇 년씩 써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이거를 소모품으로 보면 안 되죠. 몇 년씩 쓰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일회용 1년에 끝났을 때 소모품이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 한번 배치 해놓으면 그때그때 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써요.

○관광과장 오현철

올해 구입한 것 중에 내년에도 쓸 수 있지만 올해 분실이라든가 훼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소모성으로 사무관리비로 조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양훈 위원

실장님, 이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부기를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 입장에서는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그 한 해 쓸 수 있는 소모품 형태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 같고, 금방 제트스키같이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물품으로 한 것 같은데 부기를 쓰실 때 표현을 달리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김양훈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전장비구입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소모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 의원님.

○지민 위원

여쭙볼게요. 여기 355페이지에 사무 이쪽을 보시면 명사십리 레포츠광장 경관도색이라고 있어요 레포츠광장이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이벤트 광장 있잖습니까? 해양치유센터 쪽에서 바라보면 이벤트광장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일명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완토리니로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색안 경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366쪽에요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보고대사 글로벌정신선양사업은 500만원 삭감, 장보고대사 업적알리기사업 5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장보고연구회에서 장보고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관련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모아보겠다고 해서 자료화하겠더라고요 해서 500만원을 더 대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결산시킨 겁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글로벌정신 선양사업에서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과

예

○조영식 위원

그리고 363쪽 제일 위에 보길 마이크행사 지원 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문화가 있는 날에 시군보조사업 중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보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문화행사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도에서 도비 100프로 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행사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공연 같은 거, 음악공연.....

○조영식 위원

명칭을 그냥 보길 마이크.....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정욱

김양훈 의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364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총무공 탄신제 순국제 300만원인데 그것을 100만원씩 까가지고 200만원을 내놨네요. 그쪽에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많은 예산

도 아니고 거기서 또 깎아요? 뭐 진짜 예산이 없어서 깎 겁니까? 아니면 뭐가 안 맞아서 깎 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이 정도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김양훈 위원

실상적으로 가보면 지금도 앞으로는 경찰서장 해경서장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오시는 분들 참석을 하고 하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스폰 받고 합니다. 스폰 받고 근데 이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 좀 더 아끼고 이런 거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거는 다시 삭감 없이..... 실장님, 큰돈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의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깎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삭감 없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 해양문화시설 제일 하단에요. 해양문화시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403쪽 제일 밑이요?

○김양훈 위원

제일 하단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다음페이지에 404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양훈 위원

이게 전체가.....

○위원장 최정욱

403쪽?

○김양훈 위원

예. 403쪽 제일 하단에 해양문화시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용이, 세부사업이 그다음페이지 404쪽에 사무관리비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그리고 어업인 그 내용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 부분 아는데 해양문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억 4,6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군비가 2억 2,600인데 1억 3,000에서 2억 2,600.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니까 지금 해양문화시설은 정책사업이고 그 밑으로 다른 사업 세부사업이 그다음페이지 404페이지에 정책사업은 해양문화시설이고 정례사업이 국립해양수산물관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다 넘어버리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한다 하면 금액이 다 넘어버리는데.....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해양수산물관 건립해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해양문화시설은 뭐가 없어요. 2억 2,000, 아니 3억 4,600이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국립해양수산물관 404페이지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이 세부사업이고, 그 위에 그 단위사업인데 그 위에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공기관사업 거기까지 포함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위원장 최정옥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금액이 안 맞긴 안 맞는데.

○김양훈 위원

다음부터 예산실은 이런 거 할 때 이거 숨긴 돈같이 보여요. 그래서 딱 봐보면 완전 숨긴 돈이에요. 그 칸이..... 언뜻 보니까 다른 거 같아서요. 숨긴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위에 하든가 제일 밑에다 하든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옥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옥

산림휴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환경수질관리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예요. 사무관리비 정부관리 양곡이고 운송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동부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협토백창고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매입에 따른 250톤 가량을 이고를 시켜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쪽으로 이고시키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양훈 위원

정부양곡은 원래 국비로 받죠? 운송비고 뭐고.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잘 못 들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정부양곡, 정부양곡은 전부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 이구요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저희들은 매입에 따라서 거기에 보관돼있는 토백을.....

○김양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양곡인데 기술센터에서 정부양곡을 처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예. 그런 부분도.....

○김양훈 위원

기술센터에서 올라와서 이걸 좀 안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부양곡 전체적으

로 하는 거 전부 다 국비로 받아서 농업축산과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니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그 부분에서는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농촌지원팀장 서정국

지원팀장 서정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경에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창고 내에서 양곡을 다른 데로 이고를 해야 창고에 쌓이 없어야만이 도에서는 승인해줄란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빼내야 그 창고를 사계끔 매입하게끔 있다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러면 좋다 이고비는 기술센터에서 비용주기로 하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축산과에서 할 일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야죠. 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되죠. 안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운영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된 거예요 정부양곡은 특히나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쪽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선을 그려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다 이쪽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기획실장님 예전에도 이런 일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목을 제대로 잡으라 했었거든요. 거기서 글로써 해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혀 안 맞는 것은 갖고 이쪽에다가 해버리고 이러면 의원들이 이런 설명이 자주 오니까 예산실장님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에서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정부양곡은 농업축산과인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도 안 맞죠. 목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안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두 부서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과 상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개선.....

○위원장 최정욱

그래서 예산실에서 잡으라 했었어요. 잘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삭감이에요.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련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관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체육진흥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앞번 의원별로 개별로 했더라고요. 그대로 할까요?

○위원장 최정욱

그렇게 하고, 별 의견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삭감 대상 조사를 작성하여 4시 1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4시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4시? 고맙습니다. 삭감대상조사를 작성하여 4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별 축조심사와 삭감대상조

사목록을 작성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위원

지금 금액 이대로 삭감하는 거예요?

○조인호 위원

아니죠. 소상공인 이거는 완도군 요양원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어느 위원인지 몰라도.

○박재선 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예요. 유기동물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신지에 더 크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라버리면.

○김양훈 위원

지금 이거 직영이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김양훈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직영이에요. 위탁 준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정욱

잠깐만요, 그러면.

○박성규 위원

한 건씩 해나가요.

○박재선 위원

4건이니까.

○위원장 최정욱

4건에 대하여 다시 할게요. 아까 아무 말 없어서 바로 넘어갔는데.....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재개)

1차 축조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고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16시51분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재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착오로 표기된 계수로 수정하고, 세출예산은 1건에 1,800만원을 삭감과 착오편성된 예산과목 2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만한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치유담당관

수산경영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체육진흥과장

의회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천종실

김희수

위남환

김진원

이용신

정인호

안환옥

천종실

우홍래

추교훈

박미정

허동조

오현철

한지영

박창희

안환옥

김일

위남환

이기석

김진원

이용신

이복선

황승미

이홍용

정기호

최광윤

최정환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해양치유담당관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해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서류와 경중을 신중히 따져 면

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세부운영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2,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301억 7,390만 9,000원, 이자수입 10억 5,115만 1,000원, 기타수입 5억 400만 원으로 총 320억 5,759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360만원, 예치금 317억 8,399만 7,000원으로 총 320억 5,759만 7,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1억 7,390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8,368만 8,000원, 지출이 2억 7,360만원으로, 순수익은 16억 1,008만 8,000원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 예상되는,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17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및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조성계획액은 10억원이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원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예치금회수 5억원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수입금 전액을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액 및 집행 현황 그리고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에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4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90억 1,85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5억 9,961만원, 이자수입금 4억 1,895만 8,000원으로 총 90억 1,856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지출계획으로 90억 1,856만 8,000원 전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억 1,895만 8,000원, 예치금회수 85억 9,961만원으로 수입합계액은 총 90억 1,8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사신축예치금 90억 1,856만 8,000원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40억 6,0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도별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 총 175억 3,1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비용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 25억 487만 3,000원, 2023년도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1,2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집행계획 없이 잔액 90억 1,856만 8,000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급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 85억 9,961만원 중 2024년도 이자수입으로 4억 1,895만 8,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도말 예치금은 90억 1,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금조성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징수 과징금과 기금의 정기예치를 통한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1억 300만 5,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예상수입으로 과징금 400만원, 이자수입 320만원으로 총 720만원 수입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20만원, 과징금수입 400만원을 해서 총 규모는 1억 1,020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연도별 설명도 안 했는데 끝내버려요?

○위원장 박성규

끝났다고 이렇게.....

○김양훈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성규

다시 해요?

○김양훈 위원

아니요. 넘어가요.

○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42페이지, 24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3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199억 4,246만

2,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년 조성액은 23년말 조성액에서 대금이자 6억 1,899만 3,000원을 합한 총 205억 6,14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4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환경수질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1,586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총액은 2,200만원, 지출총액은 5,000만원입니다.

2024년말까지 기금조성총액은 8,7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액 1억 1,586만 7,000원, 이

자수입은 200만원으로 총수입은 23년 본예산 대비 3,476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5,786만 7,000원으로 총지출은 23년 본예산 대비 3,476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1,296만 5,000원이며 2022년 수입총액은 3억 1,653만 7,000원, 지출총액은 2억 1,360만원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293만

7,000원 증가된 10억 5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3억 853만 7,000원, 예치금회수액은 9억 1,296만 5,000원, 이자수입은 800만원, 총 12억 2,950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2억 1,360만원, 예치금 10억 1,590만 2,000원, 총 12억 2,9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6,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집행액은 40억 5,258만 2,000원이며, 잔액은 10억 1,5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6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 국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은 군비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로 어려워진 재정여건에 대응하고자 긴축재정 전환과 효율적 예산편성을 기조로,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내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내년도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년과 같은 갑작스런 교부세 감액에 대비하고자, 23년도 정리추경에 최종 반영된 2,800억원 규모로 교부세를 편성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이 교부세는 23년도 2,988억원 대비 127억이 감액된 2,861억으로 편성해 내년 불확실한 교부세 감액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총세입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406억원 대비 6.5% 감소한 5,98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내시가 되지 않았어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98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20억 8,900만원으로 41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 6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금은 2,376억 9,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1,11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순군비 재원의 법적 의무경비와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326억 9,600만원, 특별회계 103억 400만원으로 총 2,4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24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을 등을 참고해 부서와 읍면별로 요구한도액을 설정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경비는 한도 외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한 예산액은 총 3,364억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규정을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요구액의 69%인 2,326억 9,600만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및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해 68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 71억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75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 한도 내로 편성하

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29억 6,300만원을, 포상금은 2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160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3억 2,900만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사업 등 2개 특별회계에 7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재차 검토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일정 부문 삭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을 최소화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은 전년대비 52억 3,300만원 감액된 99억 3,000만원,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15억 4,200만원 감액된 1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9억 5,100만원, 여비 36억 9,100만원, 일반보전금 125억 7,700만원 등 총 554억 8,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 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상대적 비교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진행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81억 8,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8억 3,800만원, 자산취득비 15억 5,4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억 2,300만원, 재료비 36억 2,200만원, 민간위탁금 48억 4,300만원 등 총 69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세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한편, 세계경제의 환경적 불확실성도 여전하여 우리군의 전체적인 세입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수 감소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 감소로 이어져 우리군 재정상황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군 역점 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제자리걸음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자원배분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군정발전 효과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실장님, 18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세워져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업무추진비요?

○최정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정욱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시책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최정욱 위원

실과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실과에 들어있고요. 같이 공통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300을 삭감했는데 왜 300을 삭감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원래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 30억만 편성해서 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 80억 정도 줄였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건 알겠는데 보통 플러스를 하는데 300을

해냈어요. 300만원 밖에, 안 하려면 안 하는데 300만원만..... 그리고 191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작년에 2억 5,000해서 1,800 세웠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어디든 말씀하실까요?

○최정욱 위원

91페이지 제일 밑에요, 192쪽 제일 위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2억 5,000 세웠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자체평가 지표 개발용역이요? 연구용역비에요?

○최정욱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여기도 삭감 큰 요인이 기획팀장님 어떤 금액이 빠졌나요? 아,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공동브랜드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연구용역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공동브랜드.

○최정욱 위원

공동브랜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연구개발 용역비.

○최정욱 위원

올해는 그게 크게 필요가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올해 사업을 진행중이어서 내년에 거기 목이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12억이 줄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11억 2,000.

○박병수 위원

11억 2,000?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이게 과거에는 홍보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홍보예산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공기관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홍보예산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병수 위원

하단부 프리미엄 뉴스서비스사용료 6,000만원인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프리미엄 뉴스라고 해서 우리군에 정기적으로 연합뉴스라든지 프레시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프리미엄뉴스라고 제공되는 언론사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병수 위원

광고, 홍보비용일까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광고, 홍보성도 되고요.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우리군 언론 쪽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계약을 맺어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상단 지역이미지마케팅 영상홍보 있죠? 2개소네요. 서울역, 용산역 그런

터미널 그쪽에서 한단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현재는 용산역 쪽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 쪽에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박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9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특별방송, 특집방송 이런 게 있네요. 6억 8,500. 이게 홍보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홍보예산, 작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다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목이 이렇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우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특별예비비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1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말입니다. 갑작스런 일에 대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 세입규모가 너무 줄다 보니까 우선은 30억만, 일반예비비에 10억, 그리고 재난예비비에 20억, 30억을 편성하고요. 저희들이 예치하는데 6, 7월경에 어차피 추경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 그 시기에 봐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예비비가 본예산에 몇 프로 하게 돼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1% 이내에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원래는 한도액을 좀 넓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원상태가 안 좋아서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한 77%가 감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14억원 기타보상금 군민제안시상금이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랐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상금이 많이 줄 계획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지금 군민제안 1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편성요구를 더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군민제안이 오면 그 많은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되던데 그런 증액이 돼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군민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제안에 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하고요. 이 예산은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집행도 같이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19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군정주요역점사항 홍보에 1억원, 또 방송사

완도홍보캠페인광고에 2억원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예산들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해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저희들 스스로 30% 정도는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선에서 편성해서 내년도에 홍보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30% 삭감하는 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 걷기축제, 청정완도가을섬여행축제 전부 다 5,500만원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관광과나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잡혀 있던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을 홍보팀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게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방 쪽 정도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조금 역할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가 수산물축제 4,000만원, 청산도슬로걷기에 1,000만원, 청정완도가을섬여행 1,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할 뿐이지 자세히 보면 양쪽이 분산돼

서 있으니까 홍보비라고 똑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홍보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대부분 언론사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이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언론사 외에 다른 홍보파트를 고민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SNS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조영식 위원

아니, 장보고수산물축제는 기획예산실 5,500만원, 관광과에 4,000만원 돼 있거든요. 같이 합치면 거의 1억인데 1억을 한 번에 쓰면 목도 좋고 더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왜 5,500, 4000 차라리 슬로걷기축제라든가 청정가을섬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1,000만원밖에 아니니까 과에서 한다 하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 5,500만원, 관광과 4,000만원 이거 납득이 쉽게 안 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실과하고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홍보예산은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의 의견은 홍보팀에서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방송사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 자기들이 독특한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자기들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차피 홍보라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수단은, 홍보이용수단은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리고 수도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수도권 터미널 지역이미지마케팅 홍보와 온라인매체활용 및 수산과에도 있던데 이게 1억 5,000만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는 건 수산물마케팅지원사업 2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홍보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 부분을 예산이 넉넉하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기획실 예산도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삭감하다 보면 내년도 핵심사업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다 해줄 수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실과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영식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작년대비 지금 현재 본 예산은 114억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큰 금액 같은 거는 통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서 보는 것도 좋고 설명도 좋고 알아먹기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비 같은 거는 물론 과에서 조그맣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지만 5,000만원, 4,000만원 크면 같이 모아서 한 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조금만 배려해주신다면 올해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 저희 실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삭감폭을 감수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방송이나 이런 것 외에 다양한 홍보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관광과나 수산과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금액에 똑같은 홍보비, 광고, 명칭만 기획예산실은 광고라고 하고 관광과는 홍보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명칭도 목도 정확한 거 아니고 광고, 홍보비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이 4,000만원, 5,500만원 아주 크지 않습니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실장님, 실과 통일이 안 됐구먼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솔직히 다른 실과 예산까지 저희가 못 들여다 봤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요?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 검토해서 이거 안 된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조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거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홍보 계획을 짤 때 같이 짜는 거예요. 대신에 예산 집행을 기획실에서 하게끔 통솔해서 하자고 해서 기획실 홍보팀을 새로 만든 거예요. 8대 때 그거 가지고 찢어서 목을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해양치유산업과 또 있어요, 홍보비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가면 기획예산실 홍보팀 있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실과별로 홍보 찢어져야죠, 이렇게 하려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이름을 주고 홍보팀에서 맡아서 해라.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과는 몰라도 기획실에서 파악을 왜 못해요. 다 알죠. 실과관리를 제대로 통솔을 못하겠단 얘기죠,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작년까지, 올해 예산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올해 규모 정도였으면 저희들도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이게 그만큼 기획실로 온 만큼 다른 실과에 기획실에 할 말이 없어 집니다.

너희들은 삭감하지 않고 우리보고 삭감하라고 하나 이런 말들이 솔직히 듣기가 어려워서 자, 그러면 우리부터 삭감하겠다, 우리예산부터 삭감할 테니 부서들도 삭감 고민을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 홍보예산을 100% 다 세웠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있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작년에도 실장님 실과에 하다 보니까 꼭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줬습니다. 항상 이유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홍보비 다른과 다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잡힐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금액을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최정욱 위원

치고 나면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올라오면 다시 추경 때 기획실에서 짜서 해야 다음에 실과들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몇 번이에요? 실장님한테 하는 게. 항상 이유가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시다마는.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

아니, 실장님 방금 말 뒤에 홍보예산은 갑갑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거 자꾸 8대 때도 나온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큰 축제만큼이라도 상시축제, 수산물축제라든가 슬로건기축제 이런 것은 충분히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난리입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주세요, 차라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홍보팀을 만들어서 관광과에 차라리 주세요. 자꾸 이중으로 되니까 말이 나온 거 같고 저도 막 보고 작년에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올해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니 작년에도 방금 최정욱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번 또 넘어가야 됩니까?

제가 감사 때도 아니고 작년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서 올해는 일관성 있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면 관광과에서 그러면 관광과로 넘기고 그 홍보팀이라든가 주무관 한두 분 배치해서 거기다 수산물축제고 이런 거 청정가을섬, 너희가 해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홍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실과에서는 아마 기획실 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벌린다는 생각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 예산 자체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6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너희들 예산까지 우리가 감당해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홍보예산 삭감 안하고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겠습니까?

○조영식 위원

지금 말한 것은 예산, 금액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목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은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영식 위원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니요. 부의장님 그게 아니라 홍보예산에 대해서 해년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예산인 것 같아요. 그걸 허투루 쓰냐, 효율적으로 쓰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홍보예산은 잘 쓰면 완도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실장님, 어렵더라도 장보고수산물축제만큼이라도 일원화시켜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면 한쪽에 몰아서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10쪽 상단에 시설비 외국인 문화쉼터 조성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내년도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야간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우선 노화 권역에 외국인 문화쉼터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됐었고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아, 노화에다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노화 그쪽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노화, 보길 외국인들은 그 운영을 같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208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청년의 날 행사에 예산 3,000 세워졌거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올해 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했었죠. 그때는 예산 얼마가 들었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올해는 2,000만원이 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청년공동체가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첫째 하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를 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민간이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준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올해 예산이 행사가 조금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19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9,984만원 이거 예산 언제 했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지 울 모래마을과 군외 스마트치유마을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군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떤가요? 사는 사람 있어요? 내려와서 살아 보겠다는 사람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분들은 살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는 있고요. 이분들은 농촌에 살아보고 우리 완도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정욱 위원

그만큼 수요자는 있단 얘기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15만원 20명 신청자가 없는가요? 안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원 할 신혼부부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오늘 조례안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 도비는 25만원돼 있는데 15만원 돼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추경에 25만원 조정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오늘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25만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25만원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210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센터장 여기는 어디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신영균 전 국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박병수 위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외국인 문화쉼터 조성은

20억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군단위로 한단 얘기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노화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 그 공간, 같은 공간에 합니다.

○박병수 위원

부지는 있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217페이지 행사운영비 해양치유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1,000만원 이거는 치유센터가 개관도 되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부기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투자유치파트에서 설명회를 해서 최대한 투자자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기상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투자유치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25페이지, 장학사업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 지원 얼마인가요? 1억 5,300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은 장학사업에 준 게 아니고 왜 군비가 나가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이 부분은 장학사업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밑에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이건 지자체 부담이 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조영식 위원

작년에 150만원씩 해서 인솔차량 임차비입니다.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횟수가 금년도 말씀하시죠?

○조영식 위원

예, 금년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작년에 계절근로자가 400명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4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40명 정도가 한 차로 옵니다.

훨씬 횟수는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50만원씩 해서 50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40회 해서 작

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1,000만원으로 예산서에 세운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1,400명이 들어왔는데 2,300만원 정도 수요가 상반기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해설가, 해설가가 지금 우리 해양치유산업 해설가 따로 지금 있다는 얘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거기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상해보험, 이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활동을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안내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저희들이 미리 가입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옥 위원

해설사.....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해설사 수당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수당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수당, 보수 교육도 있고,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5시간 이상이 되면 7만원이고, 5시간 미만이면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게 전체예산 2,000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게 해설가 활동비는 1,000만원이고 민간위탁보수교육비는 2,000만원입니다.

○최정옥 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요. 지금 보면 치유 방송 홍보비가 4,400, 주요언론사 광고비가 5,280, 옥외광고 홍보비가 6,000 이렇게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비는 우리 기획실로 더해서 일괄해야 되는데 해양치유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이런 줄 아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기획실로 합쳐서 그래야 위원들이 적어도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된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광고비로 나눠지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8대 때 바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을 기획실에 신설하

고 했는데 작년에 이걸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거 해양치유담당관 사실 광고가 급하긴 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관심을 유도시키고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홍보와는 차별화를 두고 예를 들어서 신년 되면 신년맞이 특별이벤트 신청되면 설맞이 특별이벤트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야 일반인들이 보고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홍보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정옥 위원

금방 말한 대로 홍보비가 아주 급한 건 아니네요, 지금.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홍보 스팟광고는 일부 나갔는데 동영상 부분은 다시 용역을 해서 12월 중순 되면 끝납니다.

그 부분 가지고 홍보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어쨌든 홍보비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 잡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도 홍보팀장을 해봤는데요. 홍보팀 예산을 갖고 있으면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광고를 주라 이런 청탁을 상당히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다고 보고 주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홍보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치유센터 부분은 일반 공공시설하고 차별화를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즉시 홍

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팀에 가서 요청을 하다 보면 홍보팀 내 애로사항이 있어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다 실과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울 때 마다 실과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세웠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눈에 파악해야 되고, 예산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는 예산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그다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 2,800,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라는 건 보통 뭘 사고 구입하고 제작하고 이런 건데 슬리퍼 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렇게 깎아버리면 될까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기존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다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예산이 오히려 이런 거는 더 필요할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오히려 예산 깎아서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부풀려서 세웠다는 얘기밖에 아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요. 전년 예산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이번 사무관리비는 절감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최정욱 위원

233페이지에 지역특화자원 활용 화장품 생산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용어가, 부기가 화장품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치유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32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테라피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1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책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예산이 약 6억 9,200 되죠? 그런데 이걸 매년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거 필요하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화장품이 아니라 치유센터에서 몸에 바르고 이런 제품들 말하는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33페이지 시설비예요. 거품발생장치 추가 설치, 테라피 스팀 추가 설치, 전기조명 재료비 설치, 해수취수 배관 연장공사, 센터 공원 조성사업 해서 대략 4억 9,0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또 필요한가요? 원래 이런 거 다 안 했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게 설계 부분을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설계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을 시켜놓은 거고요. 해수취수 배수관 연장공사는 현재 저희 센터에서 모래사장을 통해서 해수를 인입하기 위해서 150m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물이 나게 되면 그 시설물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100m를 더 연장을 시켜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234페이지에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설계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해서 하다가 해보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또 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실내 들어가 보면 2층 같은 경우에 벽면들이 너무 험하게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를 퀄리티를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좀 깔끔하게 보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 났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실내 쪽에 로비에서부터 2층 쪽 통로 벽면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게 지금 시작 안 했는데도 그게 필요한가요, 볼 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너무 벽면이 하얀 벽면만 남아있어서 좀 꾸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사무관리비 235페이지요. 밑에 행사운영비 해양치유산업 홍보팸투어라고 해서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인플루언서나 기업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군 해양치유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홍보도 해주시고 아니면 기업직원들을 이쪽으로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의 팸투어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기업인들 상대로 초청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여기에는 여행사도 포함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 보면 236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요. 여기도 재료비가 나오는데요. 아까 거기서도 화중품이라고 명목 써있는데도 그런 걸 위해서 한 거다 했는데 여기 재료비는 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청산치유공원에 소요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를 말합니다.

○최정욱 위원

이거는 청산 것을 말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했어야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공원이 청산입니다.

○최정욱 위원

마지막 237페이지요. 지자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지원센터 지자체 부담금해서 9억 8,000이거든요. 이게 해년마다 들어가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계속비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유효성실증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설장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해조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 해놓은 걸 가지고 논문발표하고 연구실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쉽게 말하자면 조대 교수들한테 이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품생산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걸 우리 지역에 보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면 1년에 매년 들어가는, 지금 4년째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은 뭐 했어요, 실적이 있다면? 적은 돈이 아니고 9억 8,000인데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뭐가 있냐고요, 실적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자세한 부분은 바이오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팀장 지민규

현재까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실증센터에서 기술이전, 학술대회 발표 등 그리고 실증센터 분석의뢰, 총 25건에 해조류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소재개발 등 지금 현재까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각활용해서 토너패드라든가 이너클린저 개발, 미역, 다시마 활용해서 고보습 세럼, 토너개발, 팡생이모자반 활용해서 선크

림이나 클린저 그런 실적을.....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위원님 성과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이거를 매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계속비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최정옥 위원

내년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내년하면 마지막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지금까지 특별하게 뭐 하나 성과는 없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게 나타난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정옥 위원

우리가 피부로 개발했던 생산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운영 53억 7,800 이것은 공단 예산인가요? 5억 3,780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단 별도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단은 별도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 뒤쪽에 해양치유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234쪽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와 관리비 전부 다 운영관리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공단운영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이거 24억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게 치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현재 청산 인건비인가요? 청산치유센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 6명.....

○박병수 위원

6명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238페이지 인건비.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거기는.....

○박병수 위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운영해가지고 이것도 인건비로 지급해준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2명 인부를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여태까지 동의안이 되든 관리공단 설립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25페이지 제일 하단에 해양치유센터 생기면 수입 주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 이용료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19억 5,300만원 돼 있네요. 12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해양치유센터 이용료에 19억 5,3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해양치유관리공단 동의안 올라올 때는 영업이익을 2024년 35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그런데 또 해양관리공단 설립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서에서는 32억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영업이익이.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르니까?

예측해서 2023년, 4년 영업이익을 산출해서 했을 건데, 예측해서. 19억 5,300만원, 35억 2,800만원, 32억 1,200만원 각자 세 가지 다 들려요. 예산서에서도 주요 수입원이 이용료 일 것인데 19억 5,300만원 돼 있어요. 각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해 주시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해양치유산업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죠,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680만원 이게 기존에 했으면 사무관리비로 갔었겠죠? 이게 위탁하니까 위탁사업비로 빠지는 거죠? 아까 최정옥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부분은 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위탁사업비로 한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된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용에서 오늘 홍보에 대해서 말이 많습시다마는 해양치유 홍보팸플릿 제작 4,000만원, 경상비 제작 5,000만원, 해양치유모델비 또 5,000만원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뒤에 230쪽 보면 해양치유 홍보방송 광고비 4,400, 5,280, 6,000만원, 이런 거 자꾸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짚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 해양치유센터가 개관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양치유 주요언론사 광고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도 언론사에 광고 안 할까요? 두 군데 하면 두 군데 다 속된 말로 뺏기잖아요. 한 군데에서 주된 쪽에서 하면 다른 거는 빼놓더라도 언론광고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5,200,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있었거든요, 언론 홍보비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언론을 상대하고 또 해양치유센터에서 언론을 상대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까 전에 최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아무튼 해양치유센터는 일반 군행정 다른 시설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 파트도 물론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일반광고나 홍보,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하고는 내용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각종 이벤트 행사 할 때 마다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해서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해양치유담당관실에도 홍보팀이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홍보팀은 없고 홍보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홍보팀장님은 할 일이 좀 없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서로 논의하면서.....

○조영식 위원

실과가 17개 실과가 다 나뉘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팀장, 물론 업무분장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말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금액이 500만원 가지면, 소액이면 담당관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홍보실, 기획예산실 그만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상대하는 것은 홍보에 초점을 두고 상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데 각 실과마다 언론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요? 이 문제도 이따 같이 영업이익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눠볼까요? 다른 것은 각자 방송사 광고비고 홍보비고 기차, 버스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말은 안 하겠는데 언론 상대하는 이 부분들은 군정홍보, 군청에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조영식 위원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축조심사하기 전에 늦지 않기 때문에 한 실과에다가 홍보업무를 맡긴다든가 다 전적으로 토탈 못 맡기면 주요언론사 광고비, 홍보비라도 한 군데 해서 목 정해서 오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야 더구나 예산도 다 줄줄이 삭감이 돼서 하는데, 그래야만 해줄 거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인스타그램 업그레이드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스타그램 어플이라는 게 비용이 발생이 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2,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인스타그램 운영하는데 따로 거기에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관광과장	오현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주민복지과
- 가족행복과
- 경제교통과
- 체육진흥과
- 보건행정과
- 농업축산과
- 해양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오늘 여비에 대해서요. 한상대회 연계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습니까? 한상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한상들을 투자유치상담을 하거든요. 관련 부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해냈고요. 이 부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소요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한상어워드에 대한 직원들 출장비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보니까 행정지원과 23억 8,500만원, 아 증감이구나..... 다른 과는 다 마이너스인데 증액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증액된 예산은 공모사업 공모사업이고요.

○최정욱 위원

다음 246페이지에 LA한인축제 및 한상대회 연계 판촉전이라고 돼있거든요, 3,0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건 마찬가지로 한인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완도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국외여비입니다.

○최정욱 위원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LA한인축제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했던 거? 그런데 이거 어때요? 실적이 돼요? 이거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건 방금 말씀드렸드시피 저희 과에서 국외여비를 총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각 부서에서 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소요를 파악한 다음에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정책을 통해서 하고 실적관계는 그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도 참고하세요. 이게 원래는 20년 전에 했던 건데 뒤로는 도 지역, 무슨 도에서 운영한 거 있죠. 무슨 공사인가 거기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옮긴 것 같은데 오래돼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나는..... 그다음 2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치단체 등 이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 장애인인 공무원도 뽑습니다. 일정 비율 뽑는데 저희들이 총원요구를 하지만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보면 정원에 3.6%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3.6% 미달됐거든요. 미달돼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부담금입니다.

○최정욱 위원

부담금 이거 어디에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공단에서, 장애인 공무원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급을 합니다.

○최정욱 위원

이런 거는 혹시 장애인들 공무원직이나 계약직으로 써도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건 필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정규직 관련해서입니다.

○최정욱 위원

정규직. 그다음에 보면 이장단 한마음 행사에 행사비가 3,000만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5만원 245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그날 온 사람들 입장을 준다는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좀 더 이장들에 대한 후생복지 쪽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근 같은 경우 핸드폰 사용료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니까 행사 때 어떤 식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245명이 넘지 않나요? 전체 이장단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마음이 245개.

○최정욱 위원

245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어차피 일당 5만원씩 지급하네요? 이 돈으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정마을이 지정이 되면 500만원을 3개년 동안 지원하는 그거 관련해서 한 겁니다.

○최정욱 위원

으뜸마을 선정을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매년 저희들이 40개에서 50개 그렇게 하고 있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꽃길조성이라든가 소공원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138개소라는 뜻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3년 동안 지정된 마을 개수입니다.

○최정욱 위원

3년?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단년도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25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운영
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4억 7,400만원이
감면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된.....

○최정욱 위원

이게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마다
홍보에 지금 열중인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
장.

○교류협력팀장 박준홍

답례품비에 대해서 10억에서 5억으로 감액
돼가지고 답례품비 감액된 겁니다.

○최정욱 위원

답례품 감액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당초에 그렇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
번에 기금 할 때 5억으로 하향조정 했잖습니
까? 답례품도 다운돼서 답례품 구입비가 감된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광고비로 해가지고
옥외전광판 광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위치는 선정이 안 됐었는데요. 보면 예를 들
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홍보 관련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첫해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11월달 한 달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한 한 400 했거든요. 이
게 뭐냐면 연말소득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
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
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연말쯤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쨌든 이게 광고비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에서 세운 거 원래 광고팀이
기획실에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진행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러다가 실과마다 다 해야 되거든
요? 광고를. 원래 8대 때 나눠져 있어서 위원
들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광고비가 얼마지 직
원들도 몰라서 빼보니까 그 때 30 몇 억 나
와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광고를

한 군데로 합쳐서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게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광고에 하게끔 대비해라 해서 광고팀이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점점 실과들이 광고비가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광고비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아까 246쪽 상단.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246페이지요?

○김양훈 위원

예. 제일로 상단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여비인데요. 경제교통과에서 올해도 덴마크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직원 출장비입니다.

○김양훈 위원

갔다 왔는데 또 가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거기 안 가도 국내도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모든 여건들이 그쪽 여건하고 우리나라 여건하고 다르다 보니 꼭 거기까지 안 가도 국내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꼭 거기까지 가야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선진지 가서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

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훈 위원

선진지 가서 볼 거 있어요? 네덜란드나 독일 가면 기둥만 세워져 있지, 그 큰 예산 들여서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낫죠. 이거 다시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245페이지 국외업무여비인데요. 한상대회 관련 여비하고 거의 1,000만원 했죠? 24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45페이지.

○박병수 위원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246페이지 보면 장한상수상자 협의회 세계대회 참가 3,000만원 있고, 또 아까 전에 최정욱 위원님 이야기 했던 LA한인축제 및 한상대회 연계 판촉전 이런 예산이 3,000만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뭘니까 글로벌 업무를 그쪽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곤 다른가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 예산입니다.

○박병수 위원

관련 예산이에요? 거기는 운영비를 위탁한 것이고, 운영을 위탁한 것이고, 이런 예산 지원은 여기에서 별도로 따로 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직원들 여비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직원들 여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상단에 국제슬로시티
총회 및 워크숍 참가 6명이, 5명인가요? 5명
이 지금 매년 간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매년 갑니다.

○박병수 위원

가서 뭐를 하죠? 거기 가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슬로시티 관련해서 총회를 하고 거기서 관련
자치단체들이 슬로시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슬로시티가 완도 전체가 맞나
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슬로시티 하면 청산도 그렇게 지정이 됐었는
데 전체 군으로 풀어졌어요. 그런데 완도군
슬로시티 하면 알아줄까요? 완도군 슬로시티,
슬로시티 청산도 하면 다 국제적으로도 알려
지고 홍보돼 있지만 슬로시티 완도군 그러면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 완도군에서는 슬로시티 청산도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청정하
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슬로시티로 지정한 거죠.

○박병수 위원

그러면 6명씩, 5명씩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담당자.....

○박병수 위원

매년 가는데 민간인은 안 가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매년가지만 또 실무자도 바뀌고 그러잖습니
까?

○박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
입니다, 청산주민들. 지금 청산도슬로시티 하
면 청산도 아닙니까? 그쪽에 모든 걸 처음부
터 이뤄놓은 업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빼더라
고요. 금년에 장한상 받았는가요? 상 받았죠,
또?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달팽이.....

○박병수 위원

달팽이, 그런데 주민들은 뺐어요. 주민들이 모
든 걸 다 이뤄놓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주민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변해가는 슬로시
티를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또 그
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
이 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
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고요.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요. 정보화마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소안 월항리, 금당 가학리, 그리고 보길 예송리.

○박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점검 하고요. 그런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아까 지역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리뷰확인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기능이 쇠퇴된 사업 아니에요? 오래된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돈 1,000만원, 980만원, 군비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운영경비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냥 그쪽 마을에 줘버리면 마을에서 어떻게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가지고 활성화 되고 효과가 있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해왔던 것을 계속 이거를 좋았기 때문에 준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

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실제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도서지역에 정보화, 그렇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어버리면 그런 부분에 고민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25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구입 작년에 3억 2,000 예산을 투자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또 사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연수가 많이 경과가 되면 하고, 한 번씩 교체도 필요한 매년 PC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명이 몇 년이죠, 연수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5년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 장 25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억 1,900 이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법정단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 번영회, 청년회, JC 그리고 지역사회운영협의회 4개 단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병수 위원

보조 심의 거친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거쳤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쳐서 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거쳤습니다.

○박병수 위원

몇 개 단체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4개 단체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관리자 급여가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지민 위원

혹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제가 최근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민 위원

여기 특산품 판매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품절로 되어 있어요. 3개 다 보면 품절이 돼 있는데 전에 한번, 전에 계속 했었던 그 실적 한번 보여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거 안 되는 건 정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만약에 정보화마을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혹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민 위원

건물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요. 있는 건물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민 위원

주민들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교육 공고는 올라오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 이라든지 신청을 했던, 교육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하고는 있는데 실적 거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런 건지 한번 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거기 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지민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몇 년도에 한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17년 정도 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역 낙도 지역 이런 데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지역 부락이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특산물 같은 거.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걸 앉아서 인터넷으로 지역제품을 판매하는 게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8대 때에도 한번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빨리 이걸 바꿔봐라 지금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실용성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 발달이 워낙 여기저기 잘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겨내질 못해요. 내지고 포장지고 제품 자체도 못 이겨내요. 그래서 그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한 사람 인건비 앉아서 주는 형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른 뭐로 찾아서 바꿔봐라, 우리가 8대 때도 했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게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쯤은 짚어줘야 이게 돌아가서 아마 위원들도 짚은 거니까 저걸 진즉부터 했던 말들이니까 우리가 왜 이걸 했는가, 한지 언제 됐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어도 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다 안 맞다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바꿔서 다른 걸로 하려고 생각도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10 몇 년, 17년인데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산물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간 정보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컴퓨터 좀 다루게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23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잖아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영식 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5명 1,000만원 있던데 올해는 없앤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는 그게 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영식 위원

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래도 내년에 공모사업도 신청할 겁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조영식 위원

예. 똑같이 감액 됐으면 안 물어볼 건데 증액 돼서..... 작년에 249페이지 이장단 지원에서 이장단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조영식 위원

249페이지 이장단 지원에서 자녀장학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급을 해보니까 이장님 자녀 중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조영식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세워서 하
는.....

○조영식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1,000만원, 작
년에 500만원 올해 아예 없어져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증액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영식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시
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정보통신팀장님이.....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작년에 전화기 행정 전화기 한 3억 얼마 정
도.....

○조영식 위원

아, 노후 전화기.....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열 군데를 교체 했
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조영식 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예. 완료 됐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 완료 돼서 금액이 감액 된 거군요.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그 후 영상회의는 2개소가 남아서 2개소 편
성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리고 읍면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은 어디
어디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완도하고 군외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완도하고 군외 할 겁니다.

○조영식 위원

완도하고 군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작년에 10개소 했으니까 나머지 2군데.....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과장님 255페이지 스마트 청정바다 양식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
데요. 이 사업은 광구사업입니다. 광구 사업인
데 어떤 얘기냐면 해양수질관리를 해서 해양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소농도라든
지 이런 걸 측정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
전북 라이프사이클을 측정해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 분야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좀 해도.....

○위원장 박성규

공모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성규

신규로요?

행정

예.

○위원장 박성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지민 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몇 페이지입니까?

○지민 위원

247페이지요. 감액 된 게 있어가지고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전에 감액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가요? 조금 더 줄여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우리 서무팀장님.

○서무팀장 우홍창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0%씩 감액을 했고요.

읍면으로 아직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량강화를 한 후에 사업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도 올해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서무팀장 우홍창

일부 읍면에서 완도읍이나 고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읍면들은 금액을 부족하다고 더 지원해주라 하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아예 활동이 부족해서 읍면별로 편성은 돼있지만 열심히 하는 읍면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진한 읍면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예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이나 해서 같이 행사를 하니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돼서 여쭙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것도 이제 저희 예산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보내거든요. 도에서 그 사업도 이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 있잖습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들었습니다.

○지민 위원

공모사업 이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군비도 하지만 도비도 많이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안 되는 곳도 교육도 열심히 시켜가지고 주민 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이 끝나지 않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올해까지 해서 노화 구간이 마무리 돼야 됩니까. 다마는 총액이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2억원만 본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에는 노화 안했었습니까? 노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노화는 끝나고 내년에는 완도읍 들어갑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도읍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완도읍 마무리구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재선 위원

전에 얘기 할 때 구축화사업이 전에 다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서.....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선 위원

이거 완도읍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약산한옥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부대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약산한옥마을이 지어져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펜스나 보일러실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 하려고 합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 시설비 그러니까 보일러 이런 거 정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밑에는 그러니까 집기류가 또 자산취득비라고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거는 안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같은 이런 부분이 구별을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소안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거는 건물 진단

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진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2등급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개보수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개보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보수공사.....

○위원장 박성규

보수공사로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진단해가지고.

○위원장 박성규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성규

제가 알기론 개보수 해선 안 될 건물인데 철거 하고 다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앞부분만, 앞부분만 좀 이렇게 육안으로 좀 해가지고 개보수하기로 설계사 가서 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밖에서 그 썩은 밑에만 자르고 다시 개보수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313페이지 지체장애인 완도군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성규

어디 사무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에 위탁 해주면 거기서 카드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규

거기에도 사무국장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사무국장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성규

지체장애회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던데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인공폭포 인근 주변에 있는 완도장갑 옆에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곳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군비로 운영을 1,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 1,200에서 600만원이 임대료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러면 사무국장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사무국장 1명 있고요. 그거는.....

○위원장 박성규

무보수로?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도비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320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7,174만 9,000원인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 증축 들어와 있을 때 공공시설, 편의시설, 장애인들 이용하게끔 편리하게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건축허가 내지는 건물사용승인 났을 때 그 직원들이 현장 가서 검토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아, 그 예산이 7,000만원이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예.

○위원장 박성규

사무실도 없는데.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도장갑 인공폭포 건너편 부근에.....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체사단법인장애 군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사무국장은 수당이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주고는 있습니다. 직원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조사한 건 아니고 해남에서 온가요? 완도에는 그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담당직원이 없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351쪽 일반보전금 노인보청기 지원사업 있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351페이지요?

○김양훈 위원

예. 노인복지사업운영에서 노인보청기 지원사업.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노인보청기, 예.

○김양훈 위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버렸네요? 감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군비사업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양훈 위원

이거 겁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던데 다른 데에서 좀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못 듣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시지, 반타작을 넘게 해버렸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거의 반타작 했습니다, 군비사업은.

○김양훈 위원

넘어버렸고만..... 어르신들 생각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거는 살려주는 게 좋은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그리고 353쪽 사무관리비 노인목욕권 제작 이거 복지카드로 한다고 안 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복지카드로 하는데 카드비용만 하는데도 지금 그게 아직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지금 예년에 앞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했지만 카드로 도입할 때 초기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작년 올해 예산하고.

○김양훈 위원

목욕권 제작해놓고 카드로 한다고 하면 일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카드로 내년에는 카드보급을 하는데 카드보급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 총괄로 안 나와서 지금 포기를 하고 전년대로 했는데 조사

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초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제작 한 게 아니고 카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부기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리고 364쪽 시설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상담 대기실 신설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이전 하거든요? 도서관 뒤에 새로 리모델링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공간이 현재 청소년복지센터가 좁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달랑 건물만 주기 때문에 거기 근무 할 수 있는 상담실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양훈 위원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38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일 자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가지고 학습지도를 해주거든요. 학습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서.

○김양훈 위원

어떤 학생들 청소년 일자리, 어떤 학생들 애

기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초등부생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파견을 해줍니다.

○김양훈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사용을.....

○김양훈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5개소에 배치를 하거든요. 꿈사다리 지원사업을 신청을 지역아동센터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하는데 섬은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선생님들 자체가 전라남도의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서 인력을 배치를 해주거든요. 육지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신청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그 공부방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공부방이 아니라 이 사업명이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이고, 지금 현재 완도군에 11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비로 선생님 파견을 해서 인건비하고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
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민 위원님 하실 건가요? 지민 위원님.

○지민 위원

궁금해서 여쭙 봐야 될 것 같아요. 392페이지
해조류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있어
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이것이 국비 9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
만원, 또 우리가 군비 2년간 해서 1년에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해조류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
니다.

○지민 위원

해양바이오센터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해조류인데 경제교통과에 있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갑자기 찾

아왔거든요. 국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군청
2개 실과를 돌아다녀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
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 찾아 왔기 때문에 어
차피 지역경제의 큰 틀로 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394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소규모 행사비 이
거는 이번에 했던 야시장인가요? 어떤 부분인
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이번에 야시장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가 11
장 행사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고, 일단 행사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많습니다.

○지민 위원

장날 보통 공연하고 각설이 오셔서 했던 거
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그런데 장날인데 각설이 와서 했던 거는 장사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
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내년에는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협의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야시장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
지 더 여쭙볼게요. 394페이지 수목원 상설시
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기존에 군외회센터 이 건물을 저희 과에서 시
장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 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회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

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장치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서민층.....

○지민 위원

가스안전장치.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이것은 내년에 885가구 대상으로 하는데 잠금장치를 자동으로 장치하는 가스누설 댄을 때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민 위원

가스 누설 빠져나가고 있을 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취약계층 원격검침 이거는 작년인가에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더 추가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4,000세대 넘잖습니까? 이것이 1억이면 1,000세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작년에도 1,000세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여기 완도읍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읍내권입니다.

○지민 위원

404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

있거든요? 이거 관내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24개소입니다.

○지민 위원

보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거 운영을 한 다라는 거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시스템 운영비거든요. 솔직히 우리 완도군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조금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몇 분에 도착한다고 안내.....

○지민 위원

예. 맞아요. 그건 맞는데 보니까 1번 있고, 10번 있고, 이래가지고 번호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고, 도착시간이 잘 안 찍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자체도 좀 그랬고,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보여서 기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마지막에 설명한 477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 관광철에 신지명사십리에서 세한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조영식 위원

세한대학교하고 하는데 군비를 3,500만원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이렇게.....

○조영식 위원

어떤 내용들을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잠깐 우리 팀장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황인선

스포츠마케팅팀장 황인선입니다. 방금 조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은 해마다 균특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50 대 50,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총 예산 7,000만원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23일간 신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530명 정도 되고요. 카약, 카누, 요트 이런 종목을 무료체험 하는 행사입니다.

○조영식 위원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2년차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2,000만원가지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금년은 도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서 7,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가 점차 활성화 될 것 같네요, 점점 시작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보면 고금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비가 3,000 돼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최정욱 위원

1년에 3,000만원씩 임대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차라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금골프장 거기 우리 토지가 맞죠? 우리군 토지.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에 마무리 지었으면 임차료가 안 들어가는데 아직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화장실 임차료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 화장실 지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중단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와, 이동식화장실이 이렇게 비싸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2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완도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골프장, 아니, 야구장 거기다가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임시로 가건물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지에 오신 분들이 눈이 오고 이렇게 하고 투구연습장이나 타깃 연습장 하는 데가 조금 안 돼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환사업으로 금년에 올려서 보완을 좀 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조명 부분이 조금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15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야구장 전체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아닙니다. 돔구장이 아니고요. 별도로 경기장 밖에다가 투구연습장 별도로 하게끔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건데 허술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정욱 위원님이 질문한 타구 연습장 당연히 해야 맞아요, 추우니까 전지훈련 때문에. 혹시 과장님 야구장이설계획 이런 거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이설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와서 보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별 경기 36개 종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관외로 약간 외지로 가고 거기에 탁구장도 허술하고 복싱장이나 볼링장이나 집단화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중도리나 죽청리 이쪽 인근에 땅을 알아보긴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 완도가 제일 큰 문제는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도리 양궁부지라든지 부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체육 시설 확충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냐면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46억이라는 돈이 다른 실과들은 다 감액됐는데 지금 증액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으면 얼마 좋겠냐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위원들한테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불링장, 탁구장, 야구장 이설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년에도 또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또 혹시 군정질의 때나 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실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510쪽이요?

○최정욱 위원

510쪽.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예.

○최정욱 위원

연구용역비 자연그대로 한우 연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자연그대로 한우 지금 현재 완도 한우가 1만 두 정도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그대로라는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 자연그대로 어떻게 하는 한우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정의해주고 그런 걸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해서 한우를 한우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가 연구용역 하면 자연그대로, 자연그대로에 맞는 사료를 배급해서 그걸 연구해서 배급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그것은 별도로 기후변화대응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연구용역이라는 정확한 맥이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도.....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자연그대로라는 소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완도 한우가 고급화되고, 브랜드 될 수 있느냐 그걸 막연하게 행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방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자연그대로 한우를 자연그대로라는 이름을 짓는데, 지었는데 판로를 할 때 자연그대로의 어떤 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목을 그걸 정리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거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고요. 522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추경 세웠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예.

○최정욱 위원

결산 추경 세운 거 썼을까요? 지불 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불 안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안 했죠? 이번에 또 증액을 했네요, 6,400.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이것은 지급하고 국도비 2단계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523페이지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 있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있고 그렇죠? 523페이지. 이게 하면 약 2억 얼마가 되는데 2억 한 900. 제가 민원을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유튜브가 나가니까 민원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마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인당 32만원을 해서 550명을 잡았잖아요? 32만원이 하루에 1시간 하면 하루로 채워준다 했었나요? 그때.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기본으로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타도 보조해주는 보조원이 한사람이

계속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루에 체험 할 수 있는 학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아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이 32만원을 채워주는 거는 3일 하루에 1시간을 해서 3번 한 거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런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체도권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요. 도서지역 학생들이 자주 못 나오니까 1회를 3회로 해서 하는 걸로 인정해줍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서 잡아주죠? 관내도 그렇게 잡아주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관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하면 얼마 지원해줘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1일 1회 체험료 3만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3만 2,000원?

○최정욱 위원

예. 그럼 몇 회를 지원.....

농업

10회까지 지원합니다.

○최정욱 위원

10회까지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걸 지금 과장님 확실하다고 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보되지 않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그동안 저번에 하도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승마체험하고 있는 체험 시설장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체내에는 10회를 해서 32만원 해줘요. 그러면 한두 번 받아가지고 10회를 했다고 치면 8회를 안 했어요, 한다 하면. 그 8회 돈이 어디로 가나요? 누가 좋은 일 한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이 부분은 제가.....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8회를 안 했다 하면.....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안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할 때.....

○최정욱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정산을 못해요. 안했다 하면 그 말만 대답해보시라고요. 안했다 하면 그 돈을 누가 이익을 봤겠냐고요. 업체죠? 업체가 맞죠? 업체가 맞는데 우리 군비 이 어려울 때 각 실과에 군비 줄이고 예산 줄이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 배 부르는데 다 채우고 있거든요. 또 도서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나와서 섬이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을 잡아주고 32만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3만 2,000원씩 지원 1일 3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욱 위원

1일 3회. 그러니까 3회 하는 거 다 지원 해주

잖아요,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은 그걸 하고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자기 배 부르는데 다 썼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그 부분은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해서 위원님 의혹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 하면 고발조치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직원들 거기까지 알기 힘들죠. 직원들이야 당연히 와서 하면 하는 거고, 그날 와서 한 것만 하고, 박재선 위원 말처럼 학교에 했던 거 그것만 잡히면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하면 잡을 길이 없어 문제는 본인들의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난번 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찍어도 동영상도 남기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제 나름대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고 왜 이게 나왔냐면 우리 지민 위원이 그렇게 동영상 찍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다 거기서 장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라고 장난 못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책 아니에요. 직원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원들 감독은 못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현지 나가서 보고 환경과 사람숫자 보고 이런 걸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 업체지.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1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령이 공급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451쪽입니까?

○위원장 박성규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중단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도군은 예산이 증액을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죄송한데.....

○위원장 박성규

491쪽. 왕우령이 공급지원사업, 왕우령이.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예.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왕우령이 공급지원사업을 위해서 편성해서 왕우령이 공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도비 1,000만원 밖에 아니구먼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성규

나머지 7,700만원이 군비인데 이번에 예산 없다는데 4,500만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도에서 친환경농업 육성하면서 왕우령이 권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 읍면에서 고금이 제일 농사를 많이 짓고요. 노화에서도 많이 짓거든

요. 우렁쟁이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어디다가 읍면에다가 납품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 받아서 심의회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다. 농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주니까 7, 8,000만원 매칭사업을 합니까? 이거를.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도비가 오더라도 안할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39쪽.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민간사업보조 수산인의 날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인의 날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수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 군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행사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해수부에서 주최한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금년에는 통영에서 했었고, 저희 군에서는 행사를 해수부 주관 행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에 저희 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거 군에서 주최 해가지고 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다른 단체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양정책과에서 하겠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방식은 해수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면 군 정책과하고 다른 단체 주는 건 아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런 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기념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저희 군은 우리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부스나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 군이 주관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라고 수협중앙회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 같은데 여기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련해서 예산을 자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행사는 하는데 체험행사 며칠 동안 진행될지는 해수부랑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 통영에서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2박3일 했던 1박2일 했던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기념행사는 하루 하고 당일 행사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일 행사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547쪽 공기관위탁사업비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여기 이번 부기에는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나왔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정원화 사업인데 지금 업데이트 하면서 사업

명 변경될 때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바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옛날에 갯녹음 예방사업 전에 했던 건데 못하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가 이름만 바뀌서 또 똑같은 사업인데 뭐하는데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양, 553쪽에요.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금 한 군데 하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니요.

○김양훈 위원

1식이라고 해놔서.....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 그냥 부기를 좀.....

○김양훈 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 밖에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선상집하장은 6억, 1식은 아니고요. 아,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인데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도 지금 접수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하나 하는데 잠깐 담당 팀장님 대답해도 될까요?

○김양훈 위원

예.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솔

5,000에서 6,000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내년도로는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접수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들어온 데가 있어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장소가.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솔

아, 사업자 모집한 다음에 선정을 할 겁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우리군에서는 설치 됐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현재 10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100개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김양훈 위원

사용한 거 확인 잘 해보셨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관리, 감독 잘 해야 될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쓰레기를 엄청 채워놓고 처리안 해버린 데도 있고,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어져요.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상집하장이요. 실질적으로 제가 노화에 가서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요구를 하나면 육상에 바닷가 가는데 있죠? 제일 가까운 곳 그런데서 만들어 달라 하지, 선상에서 바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박재선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예요. 방금 수산인의 날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수산경영인 전라남도 대회를 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런데 완도군 예산이 엄청 없다고 하는데, 도 대회 하는데 3억이 들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우리 완도군이 아시다시피 수산 바다 관찰이 크고, 수산경영인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대회를 어렵게 수산경영인들이 유치를 해서 내년에는 완도군의 수산을 제대로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런 예산 있으면 실질적으로 완도군의 홍보를 하려면 해양치유센터도 생기고 그랬으니 전국노래자랑 같은걸 하면 어때요? 왜 수산의 날도 개최 돼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도 단위 행사를 하고 하니 더 많은 것을

노리려고 해야지 안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인들 전라남도 대회로 수산인의 날은 정부에서 유치하는 행사인데 해양치유센터 개관식도 했으니까 이것도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완도의 수산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도 잘 보여줄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국 대회가 아니고 전라남도 대회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전국 대회라고 하면 저희들도 보고 전체적 우리 한국에 다 알리니까 그런데 전남대회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예요. 해삼 씨뿌리기 사업을 해요. 이게 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씨 뿌리기 위해서 다시 조성사업을 또 해요. 좋은 자리에 씨뿌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성사업을 따로 해가지고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에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것은 해삼을 그냥 씨를 뿌렸을 때 하고 해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때 하고 그 해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또 해삼의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선 위원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바다의 환경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모래하고 빨하고 섞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는 씨뿌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목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2억을 세워놨어요. 거기는 다시 2억 돈 들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단 얘기에요. 우리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좋은 환경에 있는데 가서 씨를 뿌려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 만들어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사업은 금년에도 했었고 정부지원사업인데 해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역의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버리면 해삼이 조류에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환경을 만들어서 했을 때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아무래도 기왕 뿌린 거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더 작업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그 소득은 얼마 정도 봤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삼 사업해서 소득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통해삼을 주로 식품사업을 했는데 통해삼 사업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은 사업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기가 좋은데 그것은 알겠다는 얘기에요. 해삼 씨뿌리면요. 단년생이에요. 바로 바로 수확할 수 있어요. 그해 뿌려가

지고 그해 수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어민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소득을 한 거라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가들의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47페이지요. 민간 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해가지고 도비가 5억 군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거는 해조류 아시다시피 해조류 부산물이 나왔을 때 그걸 바다에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어민들한테 주면 전복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바다도 환경도 살리고 또 부족한 먹이도 공급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전에 이거 했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최정욱 위원

했었는데 이거 그전에 했던 사업은 왜 안 보이네요? 새로 한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닙니다. 아닌데 프로그램상 어떻게 안 나오게 된지는 잘.....

○김양훈 위원

통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계속 했던 사업인데.....

○최정욱 위원

계속 해 온 사업은 맞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산이 이번에 늘었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올해 좀 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늘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최정욱 위원

도비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 사업 부산물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우리 지역에.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부산물도 하고 부산물을 충분히 더 저희가 수매할 수 있으면 수매를 해도 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최정욱 위원

표기를 해놔야 신사업인지 뭔지를 아는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 프로그램에서.....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554페이지요. 시설비 굴 패각 처리사업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굴 패각 처리 사업도 지금 올해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하는.....

○최정욱 위원

그렇죠? 이것도 표기가 안 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지 싶어서.....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바뀌면 이렇게 없어지는 안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전에 굴 패각 사업 우리 김양훈 위원님이 옛날에 시설 한다고 안 했었어요? 왜 안됐어요?

○김양훈 위원

했죠.

○최정욱 위원

왜 안 됐어요?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걸 담당한테 물어봐야죠.

○최정욱 위원

그거를 한 줄 알았는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환경보전팀장 문제솔
본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올해 하고 올해 5,000만원 추진을 했고요. 내년 지금 3,000만원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내년이 되면 그럼 된가요? 완공이.

○해양정책과장 김현란환경보전팀장 문제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시설 사업이 처리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웠던 시설 사업은 한 군데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굴 패각은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는데 그동안 간간히 처리를 하긴 했지만 쌓이는 게 많아서 금년에 한번 교체를 했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집하장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4, 5월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 패각 처리를 세부적으로 하고 바다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소규모나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요. 감용기 과장님 지금 감용기가 예전보다 좋아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감용기의 장점은 저희가 스티로폼 감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마을 노화쪽에 감용기가 있는데 노화나 보길에서 수시로 나오는 페스티로폼을 다른데 쌓아놓고 업체 선정돼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했다가 보다는 양은 많이 할 수 없지만 부피가 커서 수시로 최대한 날림현상을 좀, 그때그때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스티로폼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게 저게 지금 한 4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에 위원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고 조사하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4명 하죠? 지금도 한 4명 있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2명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2명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최정욱 위원

그거 하고 관리비, 수리비 해가지고 타산이 오히려 최대 한 게 안 맞아서 그때 당시에 다시 검토해라 했는데 어떤 내용이나면 예전에는 스티로폼을 깨끗하게 닦아지고 깨끗한 것

만 넣었을 때 됐어요. 그래서 뒤로 하는 말이 스티로폼을 그렇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는 기계를 다시 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 걸로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결론은 닦아서 깨끗한 것만 해서 넣으니까 그 모아놔던 대로 쌓아져 있고, 바람에 날리고, 일부 해놔던 재활용으로 나와서 된 것, 재활용 쌓아서 재활용도 날아다니고 차라리 일시적으로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처리 해버리면 환경도 깨끗하고 그럴 것인데 비용도 오히려 절감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래서 이 기계를 시설한 게 아까워서 이제는 바로 스티로폼 뭐 물어도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 기계를 하겠다. 그물 같은 거 같이 묶어도 들어가도 그런데 그게 됐어요? 지금.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닙니다. 스티로폼 분리 필요한 것은 줄 같은 거 잘라서 분리하고 망 같은 것도 잘라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하고 그대로거든 시설이 그 기계 설치가 안됐다 하면 어때요? 팀장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재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소각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납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안 됐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예.

○최정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감히 우리가 기계 감용기 설치한 게 10억 했을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주변 환경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더 들어, 그것 아깝다고 들어간 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과감히

그거 하라 해서 방금 말한 대로 그거 설치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면 기다려보자 현장에서 가능하겠다. 왜냐면 스티로폼 들어온 대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감용기가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일일이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스티로폼을 가져온 걸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넣어야 돼 그러니까 감용기가 의미가 없어요. 과감하게 이런 거는 스톱하고 차라리 위탁을 줘버리는 게 훨씬 깔끔하고 들어오자마자 위탁자들은 바로바로 가져가버리니까 쌓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용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리고 우리 동네도 하필이면 또 해가지고 거기서도 난리, 내가 가서 보고 했는데 안돼요. 그게 처리상.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해삼 씨뿌리기 사업,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사업선정은 대상자 어촌계 말씀하십니까?

○조인호 위원

아니, 씨를 키우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해삼 서식기관 조성사업은 연계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재료비로 해삼씨뿌리기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해왔던 상황이고, 해삼 서식기관 조성사업은 공기관으로 인한 자발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사업자 선

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다 얘기 하 시면 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수산자원관 리공단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 완도군의 영세업자들 있죠? 그러면 그 영세업자들은 입찰을 못하네요?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해삼 씨뿌리기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묘 방류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도군에도 있잖아요? 저 소규모로 하는 업자들이.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올해도 저희 군에 하신 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씨뿌리기 했습니다.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저희가 직접 수행 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 업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인호 위원

도의원들이 개입되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 은?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인호 위원

확실히 없죠?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예.

○조인호 위원

도 사업만 되면 도의원들이 자꾸 개입 된다고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도의원들이 사업 하면 시켜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앞전에 이규열 과장님 봤죠? 잘 참고해서 하세요, 조 사 할 거니까.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과장님 548페이지 전복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사업이 뭐예요? 제일 위 상단부에.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가 많이 나올 때 수매를 했다가 먹이가 부족할 때 전복먹이 수동기에 다시 어민들한 데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러니까 그 미역줄기 저장했다가 주는 사업 이예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위원장 박성규

저장 공급이라고 하니까 냉동창고 짓는가 해 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것도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이런 사업들은 증액을 많이 해주십시오. 12개 읍면 다 쓰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상.....

○위원장 박성규

사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꼭 필요에 있는 건 안 세워요. 동료위원들이 말 씀하셨지만 선상집하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만 쌓여 있고요. 부잔교 같은 경우는 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소규모 부잔교가 있었 는데 3,000만원짜리는 없애버리고 쓰지도 않 는 선상집하장을 계속 군비 얼마나 늘어났어 요, 작년도에 비해? 3억 4,000만원이 늘어났 어요. 돈이 없다는데 왜 기획실장님 이런데다 많이 투자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부잔교나 인양기

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고요. 부서에다가 부서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선상집하장 폐쇄를 하고요. 차라리 부잔교, 소규모 부잔교 해주는 게 나아요. 사실은 배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부잔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군의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270개가 돼요 15개, 16개 하다보면 10년에 한 번씩은 와요, 어촌계. 그러니까 어민들 필요한 거 해줘야지 필요 없는 걸 왜 해줍니까? 군비를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죽는다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면서 몇 억씩 증액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365 기동대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또 5,000만원 잘라놔 구먼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부득이하게 이건 순군비사업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인양기, 선상집하장 이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인양기나 부잔교를 대폭 늘려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했지만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상집하장은 저희가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기하고 부잔교는 도 외를 통해서 진행을 요청하고 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도에다 강력히 건의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

리 군에는 선상집하장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부잔교를 몇 개 더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관광과
- 산림휴양과
- 건설과
- 지역개발과
- 건강증진과
- 안전총괄과
- 시설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민간 위탁금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위원장 박성규

질문하세요.

○관광과장 오현철

사단법인 완도군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박병수 위원

관광협의회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다음 장에 보면 웰니스관광 지도 디자인 하고 완도 웰니스관광 포토포인트 개발 이거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웰니스관광 저희가 어찌 보면 내년이 웰니스관광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왔는데요. 웰니스관광에 맞는 저희 홍보물, 지도, 디자인하고 제작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웰니스관광 포토포인트, 사진 찍기 좋은 어떤 장소를 발굴을 해서 완도관광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홍보하기 위

한 개발비 6,000만원 입니다.

○박병수 위원

425쪽 용역비에 관광택시 시범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800만원 이거 어떤 내용 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내년에 완도 관광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다음 장 426페이지 범바위 전망대 리모델링 및 시설물 일제정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7,000만원 세웠어요? 작년도인가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5,000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내년에 1억 5,000.....

○박병수 위원

예. 1억 5,000만원이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지금 현재 범바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관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규모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야간에 체험, 관광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이라든가 호랑이 이런 부분들은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7,000만원 하고 금년에 1억 5,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서 잡았는가요, 사업계획?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 안 해줘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것을 계획성 있게 7,000만원,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짚끔짚끔할 게 아니라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규모 있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7,000만원 하고 또 1억 5,000만원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경관이?

○관광과장 오현철

이번에 1억 5,000 하게 되면 현재 기존의 범바위 경관이 획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되고, 야간 체험프로그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429페이지 보길 부항리, 부용리 산책로 정비 사업 왜 여기 들어가 있죠? 2억원인데.

○관광과장 오현철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길도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 저희과한테 이 예산이 왔고요. 지금 현재 부항리에서 부용리 올라가는 기존에 도로가 협소하잖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거기 데크가 설치가 돼 있기 때

문에 데크가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해달라는 주민들.....

○박병수 위원

지금 산책로 정비사업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 아닌가요? 그쪽은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한다든가 해야지, 관광분야 관광과라고 해서 이것을 산책로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과에서 처음부터 거기를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박병수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떠신가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실과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광과에서 요구한 것은 기존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보수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산림휴양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각 실과에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산림휴양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본인 스스로 보수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산책로 정비라고 하지 말고 관광시설물 정비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심의를 정리 할 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 좀 시켜주세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상단에 해수욕장 탐방 데크 보수 인부임이 있어요. 2,839만 7,000원이 있고, 435페이지 맨 하단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데크 보수 이것은 2건,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해수욕장 탐방 데크 보수 인부임은 무엇이고, 435페이지 맨 밑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데크 보수는 무엇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1,000만원짜리.

○관광과장 오현철

인부임은 신지, 용식 팀장이 예산 절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분 보수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지 명사십리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에서는 자재만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인부임에서 지금 현재 인부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기술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기술자한테 맡기면 설계 들어가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맞물려서 거기 기존에 있는 데크 다 부분 보수하고 오일스텐처리하고 저희가 다 했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4명에서 9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굳이 사람을 써서 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요. 그때그때 인부임을 채용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그때 기술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설계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부분적인 파손이 나면.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부임을 통해서 기초 자재만 사서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관광활성화지원, 그 관광협의회에서 한다고, 이번에 생겼다고 했어요? 사단법인.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협의회는 영리하고 비영리를 같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사업자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광친절도 제고라던가 수용태세 개선 그다음에 콘텐츠 육성, 홍보, 마케팅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저희가 주로 위탁해주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체고요. 협의회 자체 내에서 자체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청을 해서 같이 관광 활성화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 사단법인 협의회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업체들이.

○관광과장 오현철

숫자 인원은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람은 20명이고,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 업체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완도관광 소문내기 미션 투어지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완도 관광을 오면 완도 관광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소문내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되겠죠? 어떤 기관에서 직접적인 일괄적으로 획일적인 홍보 이런 부분보다 정말 완도에 와서 관광객이 직접 체험해보고 좋은 것들을 바로바로 홍보를 하면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프트콘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도고, 가는 군이에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지민 위원

혹시 여기 도하고 군하고 중복되어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관광과장 오현철

없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택시 관련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걸 택시로 이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완도군 관내에 있는 택시.....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426페이지에 장보고수산물축제 KTX열차 및 다중집합 장소홍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획실 예산에 이게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 부분들은 중복 안 되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다마는 기획예산실 전체 큰 홍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관광과 자체에서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에 맞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435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황토 맨발걷기길 조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지민 위원

1억이 들어갔는데 명사십리는 맨발걷기에 최

적화가 돼 있는 장소가 아닌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최적화 돼 있죠. 지금 현재 명사십리가 3개 맨발걷기 코스가 돼 있습니다. 데크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물 3개 돼 있는데요. 그 뒤쪽에 숲속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김양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해송 이런 부분들을 해치지 않고 있는데서 마지막 황톳길 이 부분도 같이 접목시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어성의 강력한 성지가 되지 않을까.

○지민 위원

요즘에 맨발걷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는 있는데 해수욕장인데 굳이 여기에 황톳길을 조성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쭙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인호 위원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가을에 저희가 특별한 축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올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화전시하고 콜라보해서 그 기간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화전시회 관련된 국화작화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 성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과 시기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해서 임팩트 있게 추진을.....

○조인호 위원

그 기간은 누가 잡은 거예요? 관광과에서 잡

은 거예요? 군수님이 잡은 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국화전시회가 그 기간 중에 개최돼서 이왕이면 한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화전시하고 콜라보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고 더 볼거리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주위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행사를 왜 하나, 개막식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 몇 명 동원해서 앉아있고, 이런 건 추태예요, 추태, 보여주기도 아니고,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관광과장 오현철

개선해서 위원님 내년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조인호 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생일이나 보길에서 같이 하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섬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보길 같은 데는 이번에 가장 활성화 활발하게 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생일도는 그 기간 중에 임팩트 있게 2박 3일을 했었습니다. 나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산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시절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섬에선 아주 바쁜 시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마지못해 나오게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것

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세요.

○관광과장 오현철

시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리고 바쁜 시기에는 완도 상권 살리려면 완도에서 하고, 섬에서는 바쁜 시기에는 피해줘요. 민폐요, 민폐.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 시기를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인호 위원

조정해서 하시고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인호 위원

장보고수산물축제 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인호 위원

홍보를 하려면 해양치유 개관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인호 위원

그러면 해양치유 그 부분이 들어가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인호 위원

장보고수산물은 다 아니까 이제 연구 한번 하세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

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쪽 슬로걷기축제 평가위원 수당 장보고 수산물축제 평가위원수당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평가위원 수당 25만원씩 10일에 하는데 어떤 분이 주로 하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평가위원들 지금 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이냐고요.

○관광과장 오현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나가고요. 위원님이라든가 공직자 신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완도분이냐고, 외지분이냐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오현철

완도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영식 위원

완도도 있고, 외지도 있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과는 보통 위원회 수당 보면 거의 7, 8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과는 왜 이렇게 25만원씩 해가지고.....

○관광과장 오현철

이것은 위원님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평가 위원입니다, 평가 위원.

○조영식 위원

아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지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제가 홍보비 기획예산실에 이야기 했는데 관광과에서 반드시 질문한다고 해서 질문 합니다. 그런데 슬로걷기축제 하고 장보고수산물 축제 기간하고 겹치죠? 거의 같은 기간이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다릅니다.

○조영식 위원

슬로우 축제 보통 4월 며칠부터 5월 며칠까지 하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그 안에 수산물축제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꼭 따로따로 CF제작 및 홍보비를 써야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시기가 좀 달라서요.

○조영식 위원

시기가 보면 같은 시기에.....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요. 청산도 같은 경우 유채 개화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손헌주 씨를 모델료를 지급해가면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내년엔 쓸려고. 장보고수산물축제도 내년 홍보를 위해서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말 안하려다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1억 6,275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일보다는 금, 토, 일 이런 부분의 기간을.....

○조영식 위원

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1억 6,275만원, 나중에 3억 올려놓고 3억 9,000만원 올해 같이 그러지 말고 왜 말씀을 그렇게 장황하게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핵심만 할 수 있겠어요? 1억 6,000만원 작년보다 2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관광과장 오현철

예상범위 갖고 기간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산림휴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시설

비 해변공원 해조류센터 내 화장실 교체인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해변공원 해조류센터 바로 옆에 화장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물 파손도 있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자재단 가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 또 BF인증 그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부족분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야외음악당 객석 차광막 설치사업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차광막이 오래돼서 다시 교체한다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아니요. 기존에는 무대 쪽만 돼 있는데요. 객석 부분에는 차광막이 설치돼있지 않아서 요즘에 공연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604페이지 황칠 공예전 있고 황칠 정제황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604페이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서울 평창동 전시관에서요. 완도 황칠 공예전을 개최하려는데 거기에 필요한 황칠 정제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에인가 한번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요. 그때 반응이 좋

아서 코로나로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하게끔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618페이지 재료비에 임도주변 식재용 수목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임도에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 필요한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임도 절성토사면이 발생하는데요. 작은 사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크를 하는데 급경사 진 부분에 대해선 경사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625페이지 재료비에 교통섬 가로화단 꽃묘 구입 이것은 무엇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시가지 가로화단 부분에 지금 현재 사계절 꽃을 식재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꽃묘입니다.

○박병수 위원

호랑가시나무길 거기 말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가지 그런 도로변 좌우측 농공단지 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화단에 식재하는.....

○박병수 위원

그 밑에 시가지 꽃박스 구입한다고 했어요. 3,000만원인데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나요? 매년 구입하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꽃박스는 기존 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도 되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 장에 재료비인데요. 정원페스티벌 꽃묘 구입 이것은 정원페스티벌 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정원페스티벌 10억원은 한 달 운영비용 인데요. 금년 기준에서 10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꽃묘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쪽 완도 중도~도암 가로수 식재공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로 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도로변인데요. 그것은 완도읍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수도부지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수도부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 부분을 가로수 식재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672쪽에요. 상단 도시계획도로 스마트형,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공사 이게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완도읍에 보시면 야간에 보시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야간에 반짝반짝 보이는 시설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불빛 나오는 거 팻말로 박아놓은 거 그거 얘기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도로 부착해서 시설한 겁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계속 많이 되어 있던데 계속 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682쪽. 시설비 중간쯤에요. 신지면 송곡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이것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 장보고대교 가다 보면 왼편에 송곡관광시설을 투자유치에 대해서 송곡 쪽 물양

장하고 부잔교로 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물양장하고 부잔교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이게 관광시설로 봐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일단 높게 보면 관광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떤 면에서 관광 쪽으로 봐야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시다시피 다리에서 보면 예쁘게 보이고 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양훈 위원

과장님, 지금 카페예요, 카페. 카페를 가지고 관광시설이라고 하면 안 맞죠. 풀빌라 있고 카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예요. 관광지로 볼 수가 없죠. 거기 가서 카페하고 풀빌라 하나 있는데 무슨 관광지예요? 그런다하면 다 섬에다 카페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주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건 관광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도 작업 쳐가지고 도에서 해주니까 군매칭해서 무조건 해주라 이런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송곡하고 합의해서 물양장 배 다는 데에 물양장 조그맣게만 해서 배 왔다 갔다 하게 하기만 된다. 그러던데 예산 보니까 8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송곡 주민들 하고 합의가 됐어요? 동네 분들하고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송곡주민들하고 서류상은 아니더라도 구두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구두 서류 갖고는 안 되죠. 나중에 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거는 관광시설로 보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관광지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 관한 관광시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5억 가까운, 4억 8,000만원 가져왔다 하지만 이렇게 도에서만 준다 해서 도 작업쳐가지고 오면 군에 다 해줘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문제는 누가 일반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게 관광시설이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알겠고요. 그리고 687쪽, 시설비, 약산면 중심지 실외운동장 주변 조경공사 이번에 이거 준공한 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그 목록에 들어가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물하고 유리 온실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대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고 나머지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유리 온실 거기 카페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앞전에 준공식 했잖습니까? 거기. 개관식 했죠? 거기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거기 카페는 저희 사업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쪽 운동장 전체 가운데 있는 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거기 주변에 그때 그 사업비 갖고 다 안 된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자재 값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방송시설도 내부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축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당초에 입찰차액이라든지 나머지 걸로 하려고 했습니 다마는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가 목이 실내운동장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운동장 따로 들어가잖아요,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약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따로 들어가는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어차피 거기를 해놓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김양훈 위원

방치가 아니고 내가 봐선 1억 5,000까지는 아니고 좀만 다듬어져도 충분하겠던데 양쪽에 다 건물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런데 또 약산면에서는 번영회도 그렇고 강하게 이거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주라 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선 그 정도까진 안 들어가고 그 운동장이다 하면 가장자리에 나무식재 몇 개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진흙 바닥을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노면도 좋지도 않고.

○김양훈 위원

토목공사하다가 잘못 지은 거는 건축업자가 해야죠. 그 업자가 해야지, 왜 그걸 군에서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설계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673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동아리방 및 돌봄센터 이게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노인돌봄센터가 사업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거기 복합어울림센터 준공이 되면 3층에다가 이런 운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디 3층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최정욱 위원

지을 계획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지은다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건물을 공공시설물로 해서 공공어울림복합센터라고 3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57억 예산을 투입해서.

○최정욱 위원

거기다가 이걸 넣는단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주민들 사랑방하고 노인들 돌봄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리고 682페이지 김양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거 섬에 커피숍 짓는 거 그거 말하죠? 배대는 곳?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거기 부잔교하고 송곡 쪽에다가 물양장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송곡에 그 정도 들어가요,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 거기 기존에 송곡 어촌계에서 사용했던 물양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기존 물양장은 어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하고 구두협의를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이구요. 옛날 신지 왔다 갔다 하는 배 경사 선착 거기 옆부분으로 조금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결국 그 항을 더 시설 신설하네?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예전에는 뭐만 띄우자고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배 대는 거 뭐라더라 부잔교?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부잔교, 예.

○최정욱 위원

그것만 띄우기로 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런데 지금 송곡마을하고 일단 거기는 조금 더 확장하는 걸로 부잔교는 송도 섬 내에서 접안장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요. 송곡 쪽은 물양장 확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원래 이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거 우리가 투자유치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위원님, 투자유치란 게 넓게 보면 특이한 카페가 있고, 하면 또 관광객들도 완도읍의 상권활성화라든지 부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투자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 거를 이름을 확실히 말해야 투자유치 같으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일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걸 갖고 우리들이 굳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통 리조트라든지 관광시설 들어오면 도로, 상하수도, 투자유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 부분과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원래 투자유치는 저쪽에서 해야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투자유치 기반시설을 해준다 이게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군에서 명시를 저걸 투자유치로 관광화 자원화하기 위해서 투자유

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기들이 와서 저기를 우리 관광효과를 낼 것 같아서 우리가 기반시설해준 것과는 다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처음에 MOU도 체결하고 어차피 일종의 여수랜드 사장이 완도에 대대적으로 투자계획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유치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최정욱 위원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 아니죠, 처음부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투자유치는 업무소관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거 원래 처음부터 일자리정책실에서 했는가요, 저쪽하고 이야기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만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 687페이지에 시설비에 예약교 사설항로표지 CCTV서리에 2억이 돼있는데 2억이 무슨 돈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연도, 연륙교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다 항로에 없던 구조물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야간경관등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송곡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고금도 상정리에서 그쪽에서 해주라 하면 그쪽도 해줘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고금 상정리요?

○김양훈 위원

예. 상정리에서 그쪽 간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정리에서도 물양장 만들어서 접안장해서 양쪽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는 지금 거기 업체 측에서는 상정리 쪽이 거리가 가깝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곡항을 모항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김양훈 위원

관광객이라 하지 마십시오. 카페 온 손님이라고 하십시오. 내가 봐선 관광 할 것이 있어야 관광이지, 카페가 무슨 관광이에요. 고금도도 그렇게 올라온다하면 그런 건 받지 마십시오. 거기는 처음부터 뭐라 했냐면 양쪽에 부잔교만 띄어서 감아놔는데 부잔교만 띄어서 자기네들이 배 수동 이동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다른데 완도에 민자유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전에 하려다 못 했어요. 다 하고 고흥으로 넘어갔다 하고, 고흥에서 또 안 되니까 이것도 지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몇 번째 내가 알기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 돈이 다 만

약에 이걸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된가요? 도비하고 같이 줄이면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산을 줄인다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우선순위로 부잔교와 물양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는 조정교부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비 지원 순수한 도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신지 물양장 송곡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예산팀장..... 아, 순수도비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순수도비에서 4억 8,000을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가요? 거기 기존시설이 있는데 물양장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배가 다녔잖아요. 그런데 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면 마을에서는 기존 물양장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지금 부잔교에 3억, 물양장에 한 5억 정도 그렇게 개략사업비를 산출을 했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게 배가 접안시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타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거기가 수심도 깊고 하다보니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니까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시설 물양장이 없이 하게 되면 또 거기가 혼잡스럽고 마을에서는 또 강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병수 위원

마을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요구한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마을에서도 요구를 하고 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보고를 한번 했었어요. 예산 관련해가지고 군에 제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필요한 것 인가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마는 어떤 루트에 의해서 이런 사업지원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도비가져왔다고 군비투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책자 넘기기가 힘들..... 정신을 못 차리게 넘겨버리니까 다음에 축조심사 때 오실랍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

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위원장 박성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5페이지 장보고 한상 관련 예산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장보고 한상은 문화예술과에서 위탁관리 하기로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된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다시 한 번 말씀.....

○ 위원장 박성규

크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다시 한 번 잘못 들어서 제가.....

○ 박병수 위원

장보고한상 835페이지 그 관련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장보고한상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한다고 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이번에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습니까? 이것을 아직 기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지자체 자기들이 분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840페이지에 장도 탐방로 수목 및 제초작업이 3,840만원이 있고, 시설비에 완도 청해진유적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거 업무가 어떤가요? 같은 장도 아닌가요, 여기는?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장도 내에서 안에 공원 쪽하고 바깥쪽 나무 있는 쪽하고 사업비가 다릅니다. 안에 잔디하고 있는 안쪽하고 바깥에 바닷가 쪽에 달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 박병수 위원

장도 청해진유적인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안쪽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하고 바깥은.....

○ 박병수 위원

이거 문화예술과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업무이관을?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랬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관련해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가요, 어촌민속전시관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어촌민속전시관은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산 들여서 투자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원유지보수, 지금 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근무 3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양수산박물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다 이관해야 될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물은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사람 있으면 관리는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아까 그 해양수산박물관 관련해서 데이터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TF팀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병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소장님 뭐 물어볼게요. 7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로 상단에 완도 농산가공품 수출 농업

활성화 육성 1억, 7 대 3인데 1개소라고 했는데 한 집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올해 처음생긴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김양훈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완도 농산물 중에서 수출가능한 품목이라든가 농가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완도군 전체 농가를 대상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거기에서 일부 뽑아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는 여러 농가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가공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에요? 가공품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가공품 종류는 우리 완도에서 나오는 쌀과 전복을 이용해서 전복죽을 포함을 해서 가공품 하고요 비파, 유자, 이런 가공품들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국가에 유통하는 그런 품목을 잘 개발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김양훈 위원

다른 과에서도 안 한가요? 전복죽이라던가 비파, 유자 이런 거 다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수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가공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이 올해 도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해왔었고요. 이번에 또.....

○김양훈 위원

활성화 육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 그 만든 가공품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디자인 개발과 또 재료 구입하고 또 품목 이렇게 설정하고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다 제반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에요. 민간 자본사업보조인데 농축산업 전남 탐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중간지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747쪽. 탐모델 경영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가에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기술원에서 전라남도 전국에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특수한 기법이 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농가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 1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양훈 위원

품목이 뭐로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품목은 아들래의 모링가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다음에 748쪽 시험연구비 완도전북 이용 명품 동충하초 재배기술 연구 지금 이거 연구 사업 끝나고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전북 이용 동충하초는 최초로 완도군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특허기술로는 취득을 했는데 살아있는 전북에 동충하초 균을 접

종을 시켜가지고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을 이용을 해서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허했고요. 군수님께서 내년에는 9개 특허를 얻도록 하라고 지시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특허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이것을 이 기술을.....

○김양훈 위원

그것은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험 연구비잖아요. 재배기술 연구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특허까지 나왔는데 무슨 연구를 또 해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특허는 낸 상황이고요.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을 어떻게 농가한테 이 기술을 전수를 시킬까.....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험연구비로 나와 버리니까 뭐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연구는. 이거는 이미 다 특허까지 나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가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실용화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버섯, 동충하초 버섯과 관련해서는.....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시험연구비로 들어오면 안 맞죠. 시험연구비로 들어와선 안 맞는 거죠. 이미 특허까지 나왔는데 이건 시험연구가 아니죠. 연구는 다 끝났죠, 이제. 기술이전으로 가는가 다른 걸로 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박사 분들이 연구 쪽에 보면 그런 연구해서 하는 거하고 그것을 농가에 전이시켜주는 그런 단계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더 연구가 예를 들어서 성공만 한 것이지, 전복크기는 어떻게 되며, 사이즈는 어떻게 되며, 언제 해야 잘 나오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한다면 100년 걸리죠. 100년 좀 컸으니까 10 몇 개, 11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원래 연구는 좀 깁니다, 시간이.

○김양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753쪽 자산취득비 국화전시회 대형조형물제작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김양훈 위원

완도타워 가면 대형조형물 많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것도 저희 센터 예산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대형조형물이 2025년 국화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또 국화축제를 하는데 화순 같은 데는 20억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암 같은 데는 8억에서 1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군은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2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로 가려면 잘잘한 화분보다는 대형조형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조형물을 많이 만들어놓아야 나중에 축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올렸는데 계속 잘려가지고 저희들이 힘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꼭.....

○김양훈 위원

25년도에 국화축제를 한다하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김양훈 위원

25년도에 방금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25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 전시를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후보지로는 완도타워하고 또 해조류 주재관 있는데 하고 해양치유센터 이렇게 한 세 군데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완도타워 있는 것도 대형조형물이죠, 그쪽 부분에 있는 거 가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런데 이제 망남리 입구 쪽에서부터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3배 정도를 키우면 축제라는 이름을 써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749쪽예요.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축별 배기팬 설치 시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거는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한우가 스트레스를 받고 열사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벽에다가 제트팬을 달아서 기

계장치를 설치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환기를 이렇게 잘 소통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성규

환풍기 비슷한 거 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환풍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시범사업입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제트팬이라는 에어제트팬이라는 그런 것이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기념품 제작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적은 예산으로 조금 주문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뭐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우산하고 수건세트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올해는 뭐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올해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장 박성규

올해,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작년도에는 안 했고,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우산하고 수건세트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러니까 예산에 처음 올라왔죠, 작년에 안하고?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박성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위원들이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광과

오현철

산림휴양과

박은재

건설과

김진원

지역개발과

이기석

건강증진과

이홍용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이용신
문경선
이복선
최정환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수산경영과
- 환경수질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수산경영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0%했는데 이 내용 설명 해주시겠어요? 567

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시장개척팀장 전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가 30%고 군비가 50% 자담이 20% 포함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80% 해서 4억입니다. 이거는 수산물물변화대를 위한 판로개척활동사업이긴 하고 내용은 TV방송 이라든가 옥외방송, 판촉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북산업연합회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최정욱 위원

이게 전북산업연합회 지원금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북산업연합회에 이 돈을 지원해주면 전북산업연합회에서 전국에 KTX라던가 서울에 있는 옥외광고라던가 이런데 홍보하는데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거 계속 예전에 했던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해왔습니다.

○최정욱 위원

전북산업연합회는 자조금이나 예산이 없는가요, 원래?

○수산경영과장 김일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예산 갖고는 안 된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자조금 사업도 하고 지금 KTX라던가 서울에 대형 옥외광고 이런 것은 주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조금은 자조금대로 쓰고 도비하고 군비 지원받아서 홍보비는 쓰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 자조금이 얼마나 돼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정확히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러면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한대요? 그 자조금 꽤 된 걸로 아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주로 대외홍보비하고 행사를 합니다. 직거래 장소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다음은 568페이지,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식 그래가지고 1억 돼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이것도 대형유통업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건 공고를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아니면 다른 대형유통업체 공고해서 저희가 업체를 바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업체가 롯데마트 입점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 돈을 지원해준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아니요 저희랑 업무협약이 맺어져있는 대형유통업체하고 그 업체 간 하고 맺어져있어야 됩니다, 우리군하고.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근거가 어떤 식이냐고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판촉행사라던가 할인행사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1회에 1억이나 지원해준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아닙니다. 이거 저희 1억원으로 돼 있는데 공고를 해서 업체가 나눠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에 전복 주식 주긴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협약을 맺어져있는 업체하고.

○최정욱 위원

그럼 지금 1식이라고 돼있지만 한 업체만 준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 준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렇게 하고 시즌에 따라 여러 번 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하고 이거는 소비촉진 마케팅 어떤 식으로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표기상 1식으로 하는데 횟수는 여러 번으로 나눠집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다음에 할 때 이런 거 잘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홍보방송 569페이지에 아까 그 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상파 홍보.....

○최정욱 위원

지자체등 자본이전이라 해가지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상파 홍보방송 그래가지고 이거 1억

돼 있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사업은 홍보를 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 있거든요. 여기다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최정욱 위원

방송,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 위탁한다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언론진흥재단에다 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니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위탁 거기다 줍니다,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최정욱 위원

홍보도 위탁으로 한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지상파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가들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하게 되면 가운데 중재 역할 하면서 홍보비를 적정하게 조정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진흥재단에서 다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완도군도 여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면 기획실에서 한 건 다 위탁해야 맞다는 얘기인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기획실은.....

○최정욱 위원

홍보하는 거에.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은.....

○최정욱 위원

우리지역에 우리 거에 맞는 홍보를 맞춰서 홍

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우리 수산경영과는 저런 언론홍보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수출하시기 여름철 시즌 그런 타깃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하면서 같이 연중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그게 수시 변동하거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언론플레이 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수출프로모션이다 하고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 계속해야 되겠네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제가 부연설명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할 때 전라남도 상설간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프로모션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게 판촉 할 수도 있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부대임차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설간에 안 들어가 있던 미국에 있는 율타리물이라던가 아니면 경남 에이치물이라던가 이런 곳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해외시장의 어떤 행사에 관한 지원인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완도특산물 해외마케팅 홍보 해가지고 3,000만원 썼는데 이거 또 어떤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이것도 해외에 있는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미국 우리방송 이쪽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 위에는 마케팅 지원해가지고 또 1억 써져 있는데.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이거는 저희 업체들 해외수출상담회라던가 이렇게 나갈 때 지원해주는 임차부스비나 이런 예산입니다.

○최정욱 위원

마케팅 지원이 아니죠. 업체들 나갔을 때 해외진출 할 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부스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요.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사업이라 하고 이게 1억2,000만원 있는데 수산정책과에 8억인가 얼마 써져 있던데 이거하고 다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578쪽입니까?

○최정욱 위원

577쪽 민간이전 해가지고 제일 상단부에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있거든요?

○어패류팀장 추영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패류팀장 추영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과에 예산편성된 부분은요. 해조류 부산물하고 다시마 꼬리 사업으로 두 가지 종으로 해서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 수산경영과에서 1억 2,000만원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조류 업체탈락이라 해서 봄철 또는 가을철에 전복

먹이가 무지하게 많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먹이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염장자숙한 해조류를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이런 해조류를 저장 보관해놔서 먹이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어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예산해서 쌓아놓은 거 먹이용으로 해놔는데 그걸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어패류팀장 추영철

예. 같은 먹이용으로 공급한 건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는데 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같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먹이용으로 공급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를 해서 바다환경 오염도 저감시키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해서 먹이공급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과는 순수하게 예산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을철 제일 부족한 시기가 10월에서 12월 그때 저희들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먹이를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해양정책과에도 전복먹이용으로 쓰잖아요?

○어패류팀장 추영철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경영과에서 좀 더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쓰기 위해서?

○어패류팀장 추영철

예. 맞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미역뿌리, 다시마뿌리

이 부산물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어업인들이 바다에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수매해서 먹이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최정욱 위원

어차피 다 전복먹이로 쓰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래서 우리는 경영과에서는 좀 더 필요해서 했던 얘기죠? 그때 쓰기 위해서?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환경내성 시험연구 해가지고 2억 기후변화에 따른 전복의 환경내성 시험연구 해가지고 2억 해놔거든요? 연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것은 올해 고수온 피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복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복은 고수온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임계수온 28도가 넘는 해역이 평균수온이 넘는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씩 찍을 데는 있었지만 평균수온 하루 전체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려서 28도 넘는 해역이 없었는데 특히 금일 같은 데서는 27도에서 27.5도에서 약 30일 정도 유지되다 보니까 전복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28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인정 안했는데 내년에는 27도에서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유지됐을 때 전복이 얼마 죽겠는가 그리고 그 결

과를 보고 앞으로 고수온 피해를 기준을 다시 달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해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러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준 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용역자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죄송합니다. 그건 넣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연구하고 용역하곤 다르잖아요. 연구하면 직원들이 연구한 것인지 일반인이 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용역이 아니라서 물어봤던 거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에 보면 전복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사업이라 돼있거든요, 6,000만원.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것은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전복이 고수온으로 해서 종자들이 많이 죽었을 때 노화, 소안, 보길 쪽 전복이 많이 한 지역에서는 먹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금당 쪽에서 식용 미역을 많이 하는데 이 시기에 금당에서 자란 미역을 노화 쪽에 먹이용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거든요. 이때 운반하는 상고 선박비 지원입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미역상태들이 좋아가지고 크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미역들이 초기에 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노화, 소안, 보길 이쪽에서는 12월달 1월 초에 먹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당에서나 금일에서 나온 미역을 노화로 운반 해줄

때 운반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방금 올해 고수온 27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온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역에?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한 17개 계측기가 있고요. 완도군에서 2개 정도..... 아, 완도군에서 4개를 달았고, 전남도에서 2개 달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달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해수부에서 달았네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해수부에서 달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해수부에서 단거는 우리군에서 이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변경을.

○조인호 위원

과장님 YTN 계속 때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온계를 내만 쪽으로 가두리 쪽으로 붙여서 남산면도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수산과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평생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도 없이 내년에 가면 또 만약에 용역결과가 27도, 28도 안 된다 하면 27도에 한 달씩 머물러버리면 전복은 폐사 다 되는데 행정에서 손 뉘어버리면 안 되니까 올해 초부터 올해 본예산 통과된 순간부터 이설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어민들이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행정이 줘야 되는데 올해는 안됐으니깐.

○수산경영과장 김일

도하고 해수부에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요청해가지고.

○조인호 위원

정식요청해서.....

○수산경영과장 김일

어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용역비 2억인가 이걸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무래도 공공기간을 해야만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하고 거기서도 내년도 연구과제로 제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한다 하면 용역비는 안 세워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한다하면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내년도 연구를 좀 할 랅니다.

○조인호 위원

용역비가 중요한 용역비예요. 2억이면 많은 예산도 아니예요. 지금 피해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27도에서도 한 달 머물면 폐사로 인정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수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최정욱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전복 환경 내성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패류를 통째로 하면 어때요? 어패류 같이. 전복만 피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피해가 있는데 꼭 굳이 전복만 해야 되는 건지 할 때 어패류를 같이 넣어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 예산 갖고 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이게 단년도에 끝내기는 어렵죠.

○김양훈 위원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왜 그러냐면 지금 최소한 3년 정도 해서 연구 결과지 갖고 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수용해줄란가 협의를 하고, 만약 어류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3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치만 예상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양훈 위원

1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큰 같이 겸해서 한 게 된다면 환경은 똑같으니깐 환경은 똑같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했을 때 패류나 어류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한 번 더 검토 해보시고요. 578쪽에 민간사업보조 상단 중간쯤에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작년에 완도군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은 다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할 수 없이 준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 없다 해도 올해도 증액이 됐어요. 매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상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평균치를 내보니까 어가별로 약 800개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상자가 2,3년 지나면 노후화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보급사업은 군자체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매칭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내년부터는 25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도비가 매칭이 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도비가 꼭 매칭 된다 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도에서 해준다 해서 무조건 같이 매칭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이론이죠. 그런 다하면 어민들이 전부 다 도에 가서 예산 좀만 세워줘라, 세워줘라 그래서 역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모든 어민들 전부 다 도에 가서 다 전체적인 거 성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도에 올라가서 그쪽에 관계자한테 야 이거 1,000만원만 해줘라, 그러면 매칭하면 된다, 자부담 좀 넣은다 그럼 다 올라와버려

요. 그럼 군 매칭을 어떻게 다해줘요?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거 안 맞는 거죠. 우리군에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한번 보고 그런 걸 좀.....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렇게 군비를 잘라버리니까 단체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설득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적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보면 몇 십억씩 가더라고요. 이런 거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여쭙겠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구매자금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광어를 양식하다보면 균등하게 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자라지 못한 비상품어 광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상품들을 또 일부 어가들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그런 비상품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럼으로써 사업들이 비유통 체계를

통해서 판매되는 비상품어들이 많이 차단됐습니다. 그런 비상품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광어 값이 킬로당 얼마씩 한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킬로에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사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가격은 좋죠? 좋은 거 아닌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1만 4,000원으로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박병수 위원

떨어져요? 이 앞번에 비하면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됐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병수 위원

끓을 때는 끓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광어양식어가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산경영과장 김일

검토 하겠고요. 광어양식은 어찌 됐든지 우리 군의회 완도군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백신이라든가 히트펌프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광어양식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성공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다른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581페이지예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하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지금 보면 히트펌프는 1억 800만원 올라갔는데 인버터는 11억이 깎였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감이 됐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히트펌프에 대한 반응들은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버터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박재선 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인버터 사업도 도에서 편성을 할 때 완도군 물량들이 좀 충분히 확보를 안 해주고 있어서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기세는 계속 오르고 히트펌프를 하게 되면 또 어민들이 전부 물을 데워서 전복을 키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생산하는 사람들도 힘들다하고 어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싸게 가져가려고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인버터 같

은 경우는 어민들 기계 작동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같은 예산가지고 목을 좀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사항입니다.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했는데 마치 우리 완도군 입장만 주장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아무튼 인버터 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렇게 늘어나도록 계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고금 쪽에서도 히트펌프는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물어보면 히트펌프는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고요. 579페이지예요. ASC인증 하지 않습니까? 심사비를 대주고 있는데 ASC인증을 받았어요. 받으면 도대체 완도군에서는 ASC인증을 지원해주고 원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무슨 혜택이 있고 무엇을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이제 ASC인증은 국내보다는 국외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친환경수산물 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ASC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인증 받은 어가들이 차별성 있게 많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ASC인증어가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북주식회사에 MSC 받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그럼 전북주식회사에서 받았던 군에서 지원해줬던 어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는 제가 봐서는 ASC인증품으로 받으면 원가를 할 것 같은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전북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MSC 받아서 롯데마트에 납품할 때 ASC, MSC 인증 받은 전북이라 하고 그런 타이틀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차별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가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유통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사업이 가게 되면 각 읍면으로 내려서 어촌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부분은 어패류 팀장.....

○어패류팀장 추영철

상자단일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에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도 고심을 해가지고요. 과연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저희들도 사업 발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매칭사

업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에서 바로 추진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가는 협회라든가 어촌계장님들 또 어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사항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줬고 내년부턴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서 예전같이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주고 생산자협회하고 어민들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주란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수산물 맞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수산물인 만큼 행정에서도 수산과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산종로, 종자 수산히트상품 개발비라든가 이런 게 우량종묘라든가 아주 중요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우리 미래에.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가리비가 됐던 감태, 곰피, 히트 상품개발비 이런 것들은 거의가 미래를 위한 거고, 아주 중요한데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홍보비 아까 최정옥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활성화 지상파 홍보방송,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이런 식으로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새로 세워진 것도 있고 저는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유통이예요 유통. 그냥 일반유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통인데 그냥 개발비 같은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지원하시고 작년에 같은 경우 김 종묘 종자 사업에 9,000만원 있는 거 결국은 못 썼잖습니까? 이게 추경기다리다가 올해 김 1억 미역, 다시마 2억 해가지고 세워져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하게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종자 우량종자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아끼지 마시고 본예산에 꼭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사실은 김, 미역, 다시마 우량종자를 지원해준 것은 벌써 10년이 넘게 지원 해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 감자를 심을 때 감자씨를 보조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유사한데 그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갈수록 재원을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조영식 위원

지양해야 된다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저 사업을 쫓을 때 어가별로 보통 한 틀, 두 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보통 종자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

은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저걸 다 분배하다보면 보통 두 톨, 세 톨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어가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불과 세 톨, 네 톨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범위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조영식 위원

생각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완도에서 시작해서 김 같은 게 불안까지 가고 서해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량종묘가 나와야지. 그 쪽에서 먼저 나와 버리고 하면 전북 아까 고수온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하고, 미리 예측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잖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에는 아끼지 마시고 미래에 투자를 해야지 꼭 일 벌어지면 그때 막으려고만, 해결하려고만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미역줄기 사업이 수산정책과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염장 가을에 버릴 미역을 금일수협에서 매입을 해서 염장 했다가 어민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이 사업은 1억 2,000만원 사업은 생

미역지원사업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다시마 염장이라 하니까 다시마염장은 절대 안 되거든요. 어민들한테 공급 안 돼 있었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팀장님이. 생미역 지원사업이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염장미역하고 생미역하고 질이 틀립니다, 그 종류가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한 과에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과에서 하든지 정책과에서 하든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매칭사업일 겁니다, 저게. 매칭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한 것은 순군비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1억 2,000만원 갖고 12개 읍면이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부족합니다, 사실.

○위원장 박성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제가 위원 초선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씩 한 번도 안 올라요. 12개 읍면에 전복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1억어치 줘가지고 어촌계 나눠주면 얼마치 가겠습니까? 좀 참고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우리 563페이지 연안어장조사 및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30억이 배정됐는데 이거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2025년부터는 어장평가심사제가 있습니다. 면허를 새로 내거나 기간이 만료된 어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에 불법시설이 있을 경우는 신규라던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올해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장들, 흩어진 어장들, 불법어장들은 다시 제도권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어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저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25년부터 심사평가제가 도입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사전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오염도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면허지가 흩어진 것은 면허지 안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신

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선감척 보급사업은 과장님 지금 남아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부족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전에는 보통 10척까지 감척해줬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3척, 4척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규

아직도 감척할 배가 많이 있네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배는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사업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히트펌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히트펌프 사업이 재작년에 보니까 고금 쪽으로는 30개가 갔어요. 남산면 쪽은 3개밖에 안 왔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쪽은 다 했어요 그런데 남산면 쪽은 못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히트펌프를.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이미 저쪽은 광어 키우신 분이나 고금 쪽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쪽 남산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만해도 된다 그쪽에서는 고금 쪽에서는 그만해도 된다, 우리 남산면 쪽은 계속 해주라 저희들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잘 참고하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아재 고금 쪽에 편중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몰아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규

제작년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무래도 고금 쪽에 전복이나 광어 양식장이 많고요. 노화보다도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쪽에 갈 확률이 높고,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일단 수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지원한 데를 보고 있는데 지원받은 어가들을 다 빼고 신규로 한 어가들을 중심으로 주고 있고요.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보다 신규로 한 사람들 이런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화가 배정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하여튼 마을이라든지 어촌세라든지 양식상 숫자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YTN에서 어제도 계속 방송 나오죠? 전복에 관련해서.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보셨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예산들은 완도는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재해피해로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을 도와고 해수부에 심사 걸쳐서 재난피해어가로 확정이 되면 복구지원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피해난 어가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전피해 때문에 그런 걸 어민들에게 도움을 준다 했다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저희들에게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100 몇 십억씩 내려왔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오염수 방류대책 예산 등 그래서 또 이자감면 그런 것도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피해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제가 보니까 올해 고수온 피해로 피해를 받았던 신안 쪽, 그다음에 여수, 고흥, 이런 해역은 지금 임계수온이 넘어가지고 전부 다 고수온 피해로 인정받아서 어가들 중에서 전체물량의 30%미만은 배상이 안 되고요. 이상은 이자감면, 뭐 원금 상한연장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온피해 본 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수부에서 다 묶어서 지금 지원한 것을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온도가 28도 이게 규정이 없다 그러던데 그게 꼭 규정이 있습니까?

까? 그것이 피해에?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태풍이 불면 태풍에 대한 보도라던가 시설물 파괴가 돼 있던 거는 육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적조피해 같은 경우는 1리터에 개체가 1,000개체 이상이 되면 경보가 내려지고 적조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수온피해는 몇 도씨에 고수온피해다, 아니다를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도 그렇고요. 올해 혼선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장관리위원회에 광어는 임기수온이 29도 전복은 28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온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고수온피해로 인정을 하고 안 들어갈 때는 빼고 그래서 올해 광어 같은 경우는 원동은 30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고수온 피해로 인정이 됐고, 29도 안 넘어갔던 다른 지역을 고수온피해로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전복은 28도 넘어간 해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고수온피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어제 TV에서도 그렇고 수산과학원에서는 임기수온이 없다 그러는데 과장님.....

○수산경영과장 김일

있습니다. 28도 어장관리위원회 정확히.....

○위원장 박성규

28도가 그런 것이 규정이 없다 그러는.....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수부 어장관리위원회에 28도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넙치는 29도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5년간 저희가 고수온피해를 기준을 놓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러면 다른 시군 다 받아도 완도는 아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28도가 넘어갔던 신안이나 고흥이나 여수는 다 배정이 됐고요. 28도가 안됐던 진도, 완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규

어민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완도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에서 바다 한 번도 안 나가봤다 대책을 안 세웠다 해서 완도는 상한연장도 안 되고, 이자감면도 안 되고 하나도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이예요. 과장님 민원 많이 받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어제도 일부 어민들은 의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위원장 박성규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면담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앞으로?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고수온 피해신고는 금일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소안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들은 28도 넘어간 해역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수온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하든 안하든 모든 어가에 대해서 보험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한 어가는 약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요. 그럼에도 이번 올해 피해는 금일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 여기만 신고가 됐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형평성을 잃고 보험가입 어가만 대해서 우리가 조사 해가지고 인정하고 안하고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제 의장님 면담했던 대표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고, 내일 또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로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잘 좀 이해시키고 설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574페이지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처음 한 겁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에도 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여기는 마른김협회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쓰고 또 인양기라던가 크레인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것을 저희들이 현대화시설로 교체를 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몇 개?

○수산경영과장 김일

보통 인양기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4,000만원 하더라고요. 그것만 했을 경우는 5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견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마른김 가공업체 김공장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맞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다섯 군데 정도, 1년에?

○수산경영과장 김일

호이스트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하거든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4대 5대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한집에 4어가에서 5어가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박성규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6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안 치유의숲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7억인데 어디 청산인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아닙니다. 약산 당목항 쪽에 지금 음식물 아니 식당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식당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시설비에 군외 백일·흑일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설계비고, 설계비가 아니라 지금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시행돼야 되는데 처음 공사비가 679억인데 이게 지금 예타 대상이 돼서 1구간, 2구간 나누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일도, 흑일도 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남선리에서부터 따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635페이지요. 우리 급속충전기 지금 하고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1억 5,600인데 어

떻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간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저희들이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정욱 위원

1개당 65만원씩인가요? 관리하는데 1년?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그 정도 들고 시설비가 지금 추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관리비는 개당 관리비로 그렇게 계약을 한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관리비 하면 어떤 건가요, 주로?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주로 충전기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비안 맞게 하는 가림막도 시설하고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 예산에 가림막까지 들어간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가림막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업체에서 한 건지, 아님 우리가 해준 건지.....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아닙니다.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면 그 쪽에서 하는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1억 5,600만원에 거기도 들어가 있단 얘기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예산이?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님 별로 각각 개별 축조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별적으로 예산안 검토 및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 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럼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조서를 최종 점검하여 10시 2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조서 목록작성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심사결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몇 건만 재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기획실에 들어온 몇 건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서 3건 정도 부서 불러서 재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장 김란

인구정책팀장 김란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관외출장 중으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쉼터조성 20억 예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라든지 교육지원, 공유주방 등 이런 시설들을 조성을 해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귀농귀어의집 조성 건입니다. 3,000만원에 2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어의집은 완도로 귀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어의집에서 살라고 하면서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4,000만원에 2개소를 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이거 그러면 집은 구입한가요?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마을이나 개인한테서 7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리모델링 해주는 대신에 군에서 7년간을 귀농귀어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상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예.

○박병수 위원

와서 살기만 하게끔?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 없어요?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1차 축조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업무 여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그거는 문화예술과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문화예술과하고 수산경영과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관련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지금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평가를 4단계로 하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년 연속 3등급 이하를 맞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3등급이 나온

다. 2번 연속 3등급이 나오면 지원하는 것을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평가해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지민 위원

그러며 올해는 올해 평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올해 평가 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평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민 위원

작년도에 몇 등급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작년도에는 2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지민 위원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지민 위원

2에서 3사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2등급은 1군데 3등급은 2군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평가를 해가지고 올해도 3등급이 나온다. 작년 3등급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럼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3등

급.....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담당자 회의를.....

○지민 위원

우리군 자체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지민 위원

그런데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17년 정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민 위원

17년을 거의 한 20년 됐는데 거의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운영이 또 안 되고 지금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업을 했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또 지금은 스마트기기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잘 되는 데는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데 같은 경우엔 아예 그냥 없애고 다른 쪽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평가를 해보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지민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번까지는. 이번까지는 좀 해주시고 금년도 평가를 해서 계속 3등급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등급 이런 걸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과연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지 등급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우리군에서 아마 행정에 뭔가가 당장 없애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전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에 맞는 뭘로 이것을 바꿀 탈을 할 연구를 해야지 등급 갖고 따져서 뭐 하면 3등급 나오면 뭐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최정욱 위원

그래도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17년이 지나서 예전에 컴퓨터 없는 시절에 정말 거기라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마을이 시작 됐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해가지고 많은 것이 바뀌어졌는데 그걸 꼭 거기 아마 우리 지원해주는 한 사람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얼른 못 해준다면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지금에 맞는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뭔가를 찾아서 차라리 그렇게 돌려야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서지역이 세 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산물 판매 쪽으로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교육 쪽 정보화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마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 그 읍면, 해당 읍면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또 그게 또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게 공감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마을 하고도 그래서 금년까지 평가를 해본 다음에 계속 3등급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요. 도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또 3년 전에도 이렇게 대답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지 말고 한번 제대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했던 축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에 장한상수상자 협의회 세계대회참가 이거 먼저 설명하시고 문화예술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있는 246페이지 노사협력 및 조직 활성화에서 국외업무협의 제2회 장한상 수상자협의회 국외업무여비로 지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항이냐면 장한상 수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완도군 기업들이랑 해서 수출상담회를 해외에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집행부가 4명 그리고 의회에서 2분 이렇게 감안해서 6명이 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500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저희가 오스트리아로 가는 사항이여서 그쪽 항공료랑 했을 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건 불용처리가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리고 이제 다음은 문화예술과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문화예술일반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중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남도 시군마다 3,000만원씩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었는데 현재 전남도,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영상에 대한 사업을 확대 시키겠다 해서 전 시군에 3,00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정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계속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건 설명할까요? 그 다음에 462쪽. 장보고유적관리 및 운영에서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중 463쪽 민간위탁금 장보고 글로벌정신 선양사업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의 운영방식을 기존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2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아니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426쪽 슬로시

티 개발 및 홍보 이거 먼저 설명하시고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26쪽 설명 들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범바위 일제정비 그거 말씀하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규

예.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 드린 범바위 쪽에 시설물들을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도가 슬로우시티 지역이지만 최근에 밤 관련 해가지고 상품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망대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밤프로그래를 운영하는데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범바위 주변에 호랑이라던가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눈높이에 봐서 저희가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서가 없다 했어요, 이 사업계획은?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예산 세워서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개발계획을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지, 작년에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하다보면 이거 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을 차라리 이번에 삭감을 하시고 내년 추경에 차라리 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년에 슬로우시티 축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페이지 425쪽 관광택시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선택적인 관광 이런 부분 추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도에도 관광상품을 저희가 이용하는 수요층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나만이 오롯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택시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성규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다음 428쪽입니다. 주요관광지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관한 해양치유센터 하루살이라던가 모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등 주변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는 게 핵

심이고요. 또 읍면에 주요관광지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페이지 430페이지.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사업입니다. 이건 전환 사업입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전환사업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행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해수욕장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다시.....

○관광과장 오현철

434쪽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설명 과정에도 했습니다마는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그날 말씀 주신 설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선 당연히 설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명사십리에 데크시설 해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소규모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자재는 저희가 사고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게 예산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해신장보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영식 위원

작년에도 2억원 돼 있던데.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혹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소세포 관광지구 반야트리라는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하고 MOU를 지금 체결하기로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트리가 해신장보고지구내에 대규모 숙박 이 부분을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성사되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폐수처리장이라던가 공공에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곧 MOU 체결 한다고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5억씩 해가지고 도비 5억, 군비 5억 이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정확하게 10억원에 대해서 2억은 묻지 않을 테니까 10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숙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도로라던가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혹시 실행이 되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내년 이 10억 갖고 추진합니다.

○조영식 위원

내년에 추진하고 차후년도.

○관광과장 오현철

차후년도에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차후년도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조영식 위원

동일한 것은 지속사업으로?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실제로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관광과장 오현철

해신관광지구?

○조영식 위원

소세포.

○관광과장 오현철

소세포, 지금 현재 처음에 2015년도에 MOU 해가지고 그때 많이 왔던 관광객 그 추세에 비하면 지금 많이 둔화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대규모 이름이 있는 숙소 해외채인을 하고 조인해서 그걸 다시 업그레йд 하겠다는 게 대표 였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몇 번에 걸쳐서 사업자 변경도 되고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사업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어서 그런가 체감, 군민들이 의아해 해요. 그냥 밀 빠진 독에 물붓기로 하면서 계속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관광과장 오현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거보다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20년 아닙니까? 20년.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공의 치유해가지고 의지를 갖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시간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행정에서 파약을 해서 계속 아까도 속된 말로 했습니다마는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20년이 지났는데 또 계속 이게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면 이거 진짜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목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페이지 435페이지 신지명사십리 황토 맨발걷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시책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명사장 백사장이 아닌 숲속에 황톳길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금방 직원들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길이는 예산범위에서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치유센터 앞에 소나무 정비작업을 해놓으니까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확대한다면 그렇게 길이가 거리가 사업량이 공간을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황톳길을 해놓게 되면 그 밑에 모래바람에 모래가 올라와서 황톳길에 다 모래바닥이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맨발걷기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황톳길도 일부를 좀 하고 모래사장도 좀 모래 밟기도 하고 또 자갈 요즘에 또 지압이라고 하죠? 세가지 정도로 잘라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해수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11개 해수욕장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다른 데는 뭐예요, 신지만 하고.

○관광과장 오현철

금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부권 개발사업으로 150억 사업이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길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자갈 그런 부분들이고 형태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1개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 백사장에서는 모래하고 바다를 보고 오

는데 황톳길은 별로 안 어울려요. 예산도 황톳길이다 하니까 위원들이 다 자르려고 그랬어요. 모래밭에 바다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숲속에 놀라하면 모래서도 좋아요. 업자들이 지금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완도에 신지에 맞는 모래길로 하세요, 모래길로.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리고 12개 읍면 섬들의 해수욕장 이런 곳도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러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어싱길 이미 군수님이나 뭐나 홍보하고 다니시죠?

○관광과장 오현철

어싱 전체 어싱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

홍보가 몇 개월 전부터 하신다고 하는 거죠? 좋은생각인 것 같은데 특색있이 신지만의 특색 살리고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화흥포간척 지구 경비행장 부지에 용역 해서 황톳길을 전용적으로 만들자라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안으로. 골프장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거기다가 황톳길도 들어가 있어요. 신지는 모래, 또 평지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경비

행장 부지는 황톳길 또 담수주변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조성에 어싱길 홍보를 하는걸 보고 아 기획예산실이나 관광과에서 이거 예산이 무조건 100% 확보가 되니까 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싱이 요즘 대세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세여서 저희는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조영식 위원

대세 따라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에 편백숲 산림공원에 어싱로드 조성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550미터 맨발걷기용, 황톳길. 2024년도에 개통예정이라고요. 산림휴양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렇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전체적인 숲이고 저희가 신지 백사장은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이고 저희 과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페이지 435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포토존 제작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신지명사십리 포토존이 말그대로 자체가 포토존입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찾는 관광객들이 자꾸 포토존, 색다르며 이색적인 포토존이 있

있으면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사장 경관과 잘 어울리면서도 좀 특색 있는 상품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포토존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441페이지 완도대표음식 발굴 및 활성화방안 컨설팅입니다. 완도 대표음식은 생선회라던가 전복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도 대표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대표음식을 발굴해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저희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청산도 먹거리 개발 컨설팅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 청산도에 느린섬여행학교에서 정말 청산도다운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린섬여행학교가 건물 D등급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지만 이번에 한국 슬로우시티 본부 이사장님이 방문해서 컨설팅 받았는데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인데 그에 걸맞는 음식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느린섬학교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청산도다운 먹거리를 개발해서 컨설팅해서 이걸 사업을 다시 시행했으면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세워서 실행하려고 그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491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박창희

농업축산과 소관 491페이지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급사업은 현재 군외면하고 고금면에서 85ha가 실질적 우렁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왕우렁이 공급사업이 낮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해서 하는걸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박창희

488쪽입니다. 농지사후관리에서 불법전용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지법시행령하고 농업축산식품부에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법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 하게 되면 원상회복 미이행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2021년 8월 17일부터 했었는데 금년에 최초로 전국적으로 부담금을 수납액의 4%를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계속 요구했고요. 타 시군들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우리군이 농지가 3,000만원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박창희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마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하고 현장지도는 철저히 해서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완도군의 승마경기를 참여한 학생이 12명이 있습니다. 승마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경기하면 등록비 또 말 대여비, 운영비활동을 하고 있는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서 주는 체험비로써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과 3건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8,366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부족분 매월 6만원 주고 있고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식비, 명절수당 등을 18명의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음 장 304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사업 6,562만 6,000원입니다.

그것은 통역, 번역사 2명을 채용해가지고요, 필리핀, 캄보디아를 통역사 2명 채용해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요청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음 그 아래쪽 다문화가족 자녀코칭 지원사업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3개의 읍면하고 있는데요. 발달지연 장애아동 12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은 비교가 안됐는데요. 해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셨어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해상풍력과 순환공정방안 계획수립을 위해서 부산 출장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팀장님.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위원장 박성규

행정지원과에 유럽 신시장 판로개척과 신시장 완도특산품 판촉 참석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알겠습니다.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관련 국외
여비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
년에는 시장개척을 완도군 수산물이 나가있지
않는 유럽권하고 아시아권 그다음 북미 오세
아니아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유럽권에는 내년도에 장보고한상 세계자
대회가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기업체 수
출 상담회라든가 완도 특산물 판촉전을 개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아시아 쪽은
저희가 라오스라던가 베트남 이쪽을 올해는
해외상설관과 연계해서 판촉전을 했는데 내년
에도 지속, 확대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서 했었는데 호찌민에 또 상설관이
생겨서 그쪽 부분 하고 그다음에 중국권도 새
로 해외상설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워놓은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팀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저희 수산과 관련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상파
홍보 관련 예산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별개로 저희 부서에
서는 전복 홍수출하시기 라던가 이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 TV에 1월하고 9
월 전복 메뉴라던가 전복홍보에 대해서 예산
을 한 건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산
이 홍보 할 시기 홍수출하라던가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놓
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보출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결론을 말하자면 필요할 때 쓰려고.....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아니요. 저희가 설하고 추석하고 보통 7,8월
그때 예산을 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
월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 1월달에 설명절 대
비해서 메뉴라던가 전복에 대해서 홍보를 했
었고요. 지금 9월에도 채널A에 전복요리라던
가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TV방송으
로 하는 지상파 홍보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최정욱 위원

기획실하고 전혀 겹치지 않은가요?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안 겹쳤습니다.

○최정욱 위원

홍보 내용도?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최정욱 위원

내용도. 뒤에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2억 쌓아져 있는 거 있어요. 또 소비
자.....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그거는 대형유통이라던가 이런 데에 판촉행사
라던가 할인행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비촉
진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최정욱 위원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최정욱 위원

이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이것도 지금 할 때마다 1월이라던가 9월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홍수출하시기라든가 아니
면 5월의 가정의달이라던가 이럴 때 그 예산
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팀장 최진우

지역개발과 어촌활력팀 최진우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이 서울 출장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7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약산 시설비 약산면 중심지 실외운동장 주변 조경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6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약산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가 약 3,300평 정도가 부지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정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들 1억 5,000만원은 권역단위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1만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잔디식재 및 주변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잔디식재, 주변 배수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건물 같은 거 들어서서 줄 알고, 1억 5,000만원이면 1억 정도 가지고 안 되나요? 배수로하고 주변 조경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거기가 지금 100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약산면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으로 체육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 앞에 광장이 약 3,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금방 3,300평이라 했어요. 3,000평?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3,300평 정도 됩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운동장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여기 잔디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냥 천연잔디 깎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럼 이 돈 갖고 돼요? 배수로공사까지 잔디 식재하면 이 예산 갖고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전체는 다 깎 수는 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구간이 체육관이 있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유리정원 있는 구간하고 나뉘지는데요. 지금 체육관이 있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나중에 예산 또 올라오겠네요. 가운데 부분은 텅 비어서 흙탕물만 있다 하는데 이 앞전에 과장님 말씀 설명 할 땐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예산 또 들어간단 얘기에요.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 목이 잘못됐죠. 예산 사업명 올라온 것도 주변 조경공사라 했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나무 심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잘못 사업명도 고쳐놓고, 잘못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 주위에 원래 농산어촌개발공사는 그쪽에 그 돈 갖고 나머지 거에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배수로 정비 따로 하고 거기다 운동장예다 잔디식재하고, 잔디식재 일부분만 한다 해가지고 효과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사업명이나 이런거 쓸 때 예산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본다 해도 잔디식재 배수로공사 거기를 잔디를 다 깎다 하고 배수로공사 한다면 배수로공사비만 이 돈 나와 버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배수로는 체육관 진입하는데 그 부분만 일부 좀 정비.....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란 얘기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거 없다고 예산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조금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 들어갈지 모른단 얘기에요.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면 계속 해야 된단 얘지요. 뭘 정확하게 계획서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고요. 740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창희

완도 농산가공품 수출농업 활성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품 생산 아들래 회사 외에 11개 업체이고요. 가공품에는 섬바다식품 외에 12개 업체 또 해외판촉으로는 JH글로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또 디자인 또 사이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마케팅 현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두릅 재배면적은 총 1ha로써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139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올린 사업으로는 3,500만원 보조에 1,5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139농가에 신청 농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4쪽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센터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부인테리어가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도 보면 식당가는 데가 좀 허전한 그런 부분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복도 벽면부분들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필요로 하겠다. 해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보충설명 229쪽 해양치유기획관리 자산취득에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매 3,0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수건구입입니다.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1만 8,000장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건에 수명이 거의 4~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야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 박성규

2건씩만 하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수건 구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1만 8,000장 있다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지금 사용 안 한 수건은 몇 장이나 돼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거의 로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빨래를 해서 다시 갖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계속 하는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여기서 보는데 5,000원만 잡아도 1만장이죠? 안 그런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1만장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럼 지금 한꺼번에 많이 구입 해놓는다 해서 그렇게 좋은가요? 나중에 수건 오래 놔두면 더 빨리 삭던데 그러니까 일부 먼저 구입을 하고 또 추경 때 또 부족하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내년에 또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전부 다 올리려면 예산이 아예 부족하죠. 될 걸로 보고 해도..... 왜 그러냐면 수건 오래 놔두면 빨리 삭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미리 구매를 해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 돼 있으면 수건의 수명이 다 돼 가면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하루에 몇 장 씹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주말에 260명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 분이 하나의 수건을 쓰는 게 아니고 1층에서 하나를 사용하고 또 2층에 올라가면 수건을 하나 더 사용하고 또 식당을 가게 되면 하나 더 사용하게 되고 1인이 3개, 4개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민 위원

올해 1만 8,000매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새 수건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걸 로테이션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민 위원

그럼 전체를 다 세탁을 해서 그거를.....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사무관리비 수영복, 슬리퍼구입 부분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영복을 대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표준사이즈 수영복이 자주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입다보면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서 구입비용을 요청을 했었고요. 센터운영 민간위탁교육비에 직원역량강화 교육인데 이 부분은 현재 채용되어 있는 민간업체 테라피사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탁교육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계속 한 가지 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다음은 공단설립부분의 사무관리비에 직원 채용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채용 전형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대행을 맡겨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재단이나 공단 부분에 거의 실지 업무 담당자들이 이 부분까지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맡겨서 채용을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센터직원 역량강화 교육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여기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민간업체 맡겨서 한다는 얘기였죠, 방금?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할겁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왕 공단으로 가게 되면 왜 우리가 합니까? 공단에서 해야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직원들이 공단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공단도 새로 공고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민간업체에 남아있을지 공단으로 다시 자기들이 신청해서 올지 그 부분은 모르는 일입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26명입니다.

○김양훈 위원

26명인데 역량강화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요? 너무 과하지 않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2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김양훈 위원

2회라 하더라도 26명인데 8,000만원이면 너무 세네요. 그리고 50% 삭감하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보시고요. 50%는 정리를 하시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마지막으로 해양치유산업홍보 팸투어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치유산업을 널리 알

리기 위해서 관광업 대표들이나 또 기업 관계자 그리고 유튜버들을 초청을 해서 1박2일로 해양치유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팸투어를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1회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모시고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오게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25건에 16억 4,715만 4,000원이 감액된 59억 6,800..... 5,968억 4,840만 3,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농업축산과	박창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인구정책팀장	김란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어촌활력팀장	최진우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문화예술과
 - 세무회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문화예술과
 - 세무회계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

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문화예술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을 20분 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서장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교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조광철 홍보팀장님, 김용식 예산팀장님, 한지원 법무통계팀장님, 조봉흠 감사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규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에 대한 개선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때나 추진

실적보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조직원 간에 소통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과 팀장, 팀장과 직원 또 직원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한해 시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청렴감수성 진단을 통해서 부서별로 진단을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숙제가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안건을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월 한 달 동안에 공감소통 청렴주간을 실시해서 세대별로, 직렬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청렴인식에 대한 부분들의 공감과 함께 새로운 청렴도 확산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보고 드렸던 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에 따른 질문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공유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잘 보이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데이터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전남 군수 17명 중 민생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인데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식인, 기업, 정부 등 12개 채널에서 전남 시장 군수 주민민생에 대한 포스팅 수, 정보량과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7명 중 신우철 군수가 612건으로 뒤에서 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들 하는데 이런 결과가 의외로 나와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실장님, 잘 보이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아마 저런 설문조사들이 상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는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 부분에서 민생관심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나온 부분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민생에 관한 군수 이름과 주민, 현장, 민생, 경험을 키워드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올 3분기 사회공헌도 관심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회공헌도, 관심도 키워드는 군수 이름과 어르신, 독거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소외, 기부, 사회, 공연, 다문화, 기타, 불우, 봉사 등이 한글 기준 15자 이내로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민생관심도와 사회경험도가 비교적 적게 나온 각자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민생현장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군수들은 구설수에 올라 사전에 유튜브나 SNS에 자주 등장하

다 보니까 관심도가 나오는데 실장님, 관심도와 사회공헌도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앞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저 부분이 어떤 언론 쪽에서 일부분 보도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 군수께서 상위랭킹에 들어있는 부분도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군수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상위랭킹이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보여주신 민생과 사회공헌도 부분에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을 현장에서 많이 추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렇게 나온 것은 언론의 노출횟수라든지 SNS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고요. 군수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평가가 적게 나온다고보다는 저희들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언론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반성해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 여론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공직자들이 공감을 하고요. 군수님한테 우리 완도군이 하나 피해가 군수님한테 잘못된 부분 직언하는 국장이나 실장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나름 저희들이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군정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매일 토론토 하고 제언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한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수산과에서 할 것인데 고수온 피해들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이 너무 저조하게 양식장 깨끗한 곳 이런 곳만 돌아다니고 바다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여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같이 겹쳐서 나온 결과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자들 최고 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공직자들도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상위랭크에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수현상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항상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군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좌하는 부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좀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202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측정이 공직자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청렴체감조합 반부패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실태를 평가해서 종합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2022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소극행정이 가장 낮게 나왔고, 부패경영에서 감점이나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게 크게 작용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체감도, 특혜제공 인사, 부정청탁 등 내부청렴도를 낮게 했고, 더욱더 부패경영의 감점을 받아 5급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체감도를 보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 법령이해도와 전문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반면 공직사회 외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상위직 공무원들 특권의식과 의전의식, 인사불만 등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청렴도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앞서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작년에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했었고, 진단결과, 여러 가지 실과별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지만 직원간의 소통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

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획예산실 주관으로는 하지만 각 부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서장님들에게 간부회의 때 계속해서 주지시켜서 부서장과 팀장, 팀장과 직원, 또 직원간 소통에 있어서 부서장의 역할을 당부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2023년도 청렴도 측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석에서 만난 공직자들 여론이나 공무원들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내부청렴도 향상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자료는 없습니까? 노조홈페이지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근에 이슈 된 부분이 있어서 봤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있는 결과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노조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정분야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특정사안이나 특정장소나 특정일정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일단은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수산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 어민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수온에 전복이 많이 폐사가 되고 그러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터질 때는 외부 장도 취소하고, 우리 민생부터 챙겨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민들이 진정한 목소리로 그리고 실과장들이나 군수도 이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가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도층만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팀을 통해서 하든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챙겨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마 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직렬 자체가. 사실이든 사실이 되지 않든 그 말 자체가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직렬에 그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부서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한계가 있지만 관련된 실과 과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유는 알아야 돼요, 책임자들이. 그래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도 조심하고 바다에 사고가 터질 때는 빨리 나가서 해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하고자 하는 자전운동은 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공직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웃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됩니다. 공직자 상호간에는 물론 군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다음 이월예산 გადა집행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예산요구서 작성은 모두 마무리됐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마무리됐습니다.

○조인호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말씀대로 한해 세입과 세출이 그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이월예산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에 산 집행노력이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똑같은 개념인데 당해 연도의 예산을 원인행위를 지워서 당해연도

했느냐 아니면 원인행위조차 못했냐 그걸 가지고 명시와 사고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사전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부서의 이월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이월예산의 대부분 부서에서 적게는 10개, 많게는 60건까지 발생하고, 전 부서 이월예산이 총 275개 사업에 6,270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이 277건으로 약 648억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됐든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죠. 원래는 예산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해야 그게 원칙인데 실과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조금 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 주문한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한 예산의 부분들 재검토를 지시를 했었고요. 일단은 부서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물론 이월예산 승인한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 공직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든지 또한 예산담당부

서의 요구 부서의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확인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시 한번 들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행정절차 선행부분이라든지 또 사업 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이루어졌으면 당해연도 사업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일단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겨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부분 이월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쭉 보니까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많이 있었고요. 또 농업축산과의 공익수당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어차피 당해연도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예산이 이월되면 아무래도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인호 위원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투자가 감소하니 불경기,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의 살림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 예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 사업계획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매년 예산편성시 군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산편성은 사업타당성과 적합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사업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합리적인 고려, 목표달성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여건과 환경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유연성이 배제된 채 통계중심의 예산관리 경우가 이월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관리는 신축성이 높아져 불용액 이월 비율이 크게 줄어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재정집행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추경 편성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지연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예산파트에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중간평가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군은 이월예산이 매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걱정되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당해 편성된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위원

예산편성부터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예산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 못한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 가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있기 때

문에 20분 내로 간략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최정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추경 볼 때 반드시 당해연도에 일어난 일은 당해연도에 결산과 추경을 마무리해야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 집행을 항상 하거든요, 마무리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올라와서 추경 때 잠시나마 그걸 말씀드렸는데 올해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 반환해야 될 게 상수특별회계가 93억, 나머지 그 외 일반회계 쪽에서 한 75억에서 168억 정도가 올해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될 형편이었고요. 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이 국도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460억이 줄다보니 이 예산을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출발점으로 시작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올해 추경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고민하기를 국도비반환금을 올해 예산편성에서 올해 반환을 해야 원칙이지만 국도비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 어찌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 못하고 내년 추경 정도에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반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반환 금액에 대한 지금 현재 168억이라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정욱 위원

이만큼 안 한 대신에 내년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에 168억이 지금 아마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 내년 예산 반영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예측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올해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판단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줄어들 규모가 300억에서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우선해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정욱 위원

아무리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활동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예산에 대처하고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럴 경우 정말 적은 돈이 아니고 168억이에요. 그리

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에서 적어도 결산 검사도 있고, 1년에 예산을 마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돈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 연도에 적어도 이 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넘어가서 그거 관리가 돼 있지만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 우리가 얼마라는 금액이 내년에 국도비보조가 빠져나갈지는 모르고 가는 형태란 얘기예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랬을 때 의회에서 위원들은 적어도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런 걸 했을 때 내년 예산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을 미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금액이 이번에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7,182억인가요?

○최정욱 위원

아니, 추경예산, 추경에 세웠던 예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94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94억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총 집행 94억이 아니고, 늘어난 것이 94억이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94억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예산에서.

○최정욱 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산 추경 때 해야 맞죠. 실장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 올릴 때만큼은 적어도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은 의회기능이예요. 이런 것이 빠져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행정이 제대로 이런 것을 해줄 때 군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렵다고 잘 안 되는 걸 빼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죠. 내년에 다시 반납하면서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가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부서별로 예산 올라온 것을 들여다보시면 예산 파트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실 것 같고,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만족할 만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숨기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욱 위원

숨긴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의회에 올릴 때는 사실대로 해야죠.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위원들이 발견해서 짚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했더라면 이런 일이 나을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실장님, 주요공약사항 추진현황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여예산은 본예산 하기 전에 참여예산제를 공모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9페이지 자료에 보면 24년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24년이요?

○조영식 위원

이 자료에, 책자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잘못됐죠? 이 자료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가 검토를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 위원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읍면장 측근들 배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고 했는데 실장님 제6기위원회 구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층을 확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9월에 신규위원위촉 5명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외계층이 있지 않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 또 다문화가정, 여성,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식 위원

다양한계층 위원 위촉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위원회 개최 34명

중 28명 참석, 주민참여사업 43건 56억 7,900만원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본예산 반영 건과 얼마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기초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예산규모가 줄어들다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배제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7건에 3억 7,000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2023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2023년도 본예산 반영 건과 금액을 방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23년도에는 20건에 11억 5,5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반영됐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문제점에도 적시하였지만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동의합니다.

○조영식 위원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본예산 편성 시에만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현재는 본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가능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주민참여예산의 확대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바라는 바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내년 추경에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성과분석 등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 관련된 많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공감합니다.

○조영식 위원

20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 시 전반기 272건 중 채택 3건으로

2023년도 채택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실장님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8%에서 10%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영식 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요. 채택률이 10%입니다. 올해 10%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실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제안접수 목록에 심사 중인 22가지 제안에 대해 실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21페이지 연번 23번, 주차장 진입로 보도블록 포장, 아스콘 포장도로 재포장 26페이지 연번 152번, 완도군 어린이보호구역내 차선도색을 형광색이 나는 야광페인트로 개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지금 심사 중인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하반기 공모전에 의견이 들어와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좋은, 방금 답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영식 위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제안시상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9번 완도군민 안전보험보장 확대방안을 제안해서 노력상을 받았는데요. 안전총괄과 감사내용이지만 제안시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완도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기존에 비해 확대된 항목이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우리군 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총 27개, 현재까지 보장받은 항목 총 7개, 순위를 보니까 익사가 항목 중에 제일 많고, 18명은 수해로 받으셨고요. 농기계 사고로 12명, 화재 4명, 병해충동물, 대중교통사고로 각 3명 등 총 4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보장항목 변경이나 추가항목 보시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김양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처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평판 민간지도 감사 언제 실시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전남, 잠깐만요

○김양훈 위원

건설현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몇 페이지인가요?

○김양훈 위원

77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전남도 건설현장 매년 2회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12월달에 한 번 하고요 6월달에 해서 2회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떤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보통 도에서 기동감사할 때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건설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 3억 이상사업에 대해서 전남도와 감사팀하고 전문가까지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현장감사입니까? 서류감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현장감사입니다.

○김양훈 위원

현장감사요. 그 공사비 감액처분한 건이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내용을 보니까 2건 3,600만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됐는데 아무래도 설계에 과다하게 책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2건은 감액을 완료했고요. 1건은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보면, 건설현장을 보면 설계 뺄 때 여유 있게 많이 빼는 편이죠? 나중에 차액분 남으면 반환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보면 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세울 때도 아마 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은 많이 못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뺄 때도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빼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라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건설부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행정안전부 기획감찰은 정부합동감사 이용실태와 계약변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한두 건 지적 있는데요. 합동감사에서는 전라남도가 8월달에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행소홀 했을 했다고 해서 1건이 지적됐는데 환경수질과 사업 중에 용역사업계획서가 미제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실태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기획감찰 쪽에서는 1,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자격이 없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지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전남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돼서 재처분으로 6건, 추진이 1건, 기타 1건 이렇게 총 8건 1억 8,000만원 정도 처분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전남도감사의 8명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조치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된 내용 중에서 보니까 회수추징금 1억 6,300 정도는 회수가 됐는데 현재 1,900만원 정도가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유는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내용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관리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잘못돼서 이 부분은 매월 월급에서 20여만원씩 매월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농업축산과에서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한 부분이 1억 3,900만원 회수를 했는데 960만원은 아직 회수를 못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경영과 국가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은 12월달에 전남도가 고지서 발급요청해서 37만원은 12월에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직원 월급에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거는 개인이 관련 수당을 지급을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급이 돼서 월급에서 매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거 회수하는 금액은 직원이 챙겼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챙긴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5급인데 그분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직위에 있지 않은데 5급이다 보니까 동일 성격으로 해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감사에 적발돼서 그것을 반환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분한테 회수시키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분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21년도 전남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재정상처분이 10건, 40억 3,200만원인데 상당부분이 조치가 됐습니다만 아직 4건에 대해서 1억 8,200만원 해소가 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분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기획실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종합감사가 끝나고 나면 매년 전라남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해보다 추징이 미뤄졌는데 일부분 미회수 부분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도 도가 계속 이행실태점검실태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업무처리 부적정이에요, 10건이 다. 업무를 잘못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넘어가는 건지 어떤 부분이 더 많은가요? 업무를 잘 모르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공무원 경력들이 짧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각 부서별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해년마다 반복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 부서별로 읊면 직원들 하고 함께 연찬을 하라고 해서 업무연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는 해년마다 지적된 것이 동일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책자도 발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내용들은 주무관이 예를 들어 팀장한테 가고,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과정이 아무 생각 없이 결재만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세세하게 짚어서 해줬으면 8급, 9급 이런 분들도 잘못된 걸 인식을 하고 수정할 텐데 팀장한테 가도 아무 조건 없고, 과장한테 가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업무처리 부적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주무관만 뭐라고 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데 위에서 수정을 해줘야죠. 그러나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부서별로 미회수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이 취합을 해서 별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빨리 제출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감사처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래야 또 그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일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옵니다. 꼭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총괄적으로 몇 개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조례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박성규 위원

추진사항보고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은 군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있죠?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몇 월에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홈페이지 공개가 2023년도 자료를 봤더니 7월, 8월, 11월 이렇게 3번에 걸쳐 공개를 했더라고요.

○박성규 위원

공약사항이 변경되거나 조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은 군수님께서 선거 출마하실 때 공약을 내걸잖습니까?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부서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시장환경이 변화해서 공약사항이 변경이 필요하다라면 일단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변 참여배심원제에서 판단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배심원제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주민배심원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한 40명 정도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배심원제를 하지 않고, 전문기관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성규 위원

조정심위원회가 몇 월달 몇 월달.....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원래 배심원제를 하게 되면 매년 2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1회씩 하고 있거든요.

○박성규 위원

9월달에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9월달에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9월달에 하셨죠? 총 18개중 22개는 공약사항이 조정심의회에 올랐어요. 1건은 폐기되고 나머지 21건은 공약내용이나 사업내용 예산이 변경되어 조정승인 됐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완도군 공약이 있어요, 조례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공약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2번하고 3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가 직접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변경된 신청계획은 꼭 군 홈페이지에 사유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박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홈페이지에 조정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조정심의가 9월달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팀장님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기획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팀장 추교상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11월에서 12월까지 그 내용을 공모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어제 했습니까? 진작 했어야 됐는데 어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한다니까 이제야.....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기간을 묘하게 그 시기에 보내왔나 봅니다.

○박성규 위원

공약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거 알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런데 외부공약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내부평가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박성규 위원

공개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평가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들이 군민들일 알아야 되는데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평가가 좋지 않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공약사항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과에서 하고 있는 핵심과제들이 대부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보도로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군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제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박성규 위원

우선 조정된 공약사항이 곧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장보고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대사의 글로벌정신을 청소년 및 기업인들에게 계승하는 한편, 우리군의 해외시장개척 발판을 삼기 위해서 2016년도에 창립된 사단법인이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매년 7,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공익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완도군에서 전남도에 의뢰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전남도에 감사가 진행됐고요. 결과까지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성규 위원

공익신고자의 의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간 2년까지 5년간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보조금을 매년 7,000만원씩. 그런데 이 중 1억 9,700만원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 부분은 그분의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군에서는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는 자체감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지원조례에 매년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은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에서 이런 민원이 있고, 공익신고가 들어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어차피

문화예술과가 보조금을 주고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정산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1억 9,500만원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신고자의 주장일 뿐이고 어차피 그 신고자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박성규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1억 9,700만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은 전라남도 감사 결과 보면 주장하신 분대로 그렇게 부정사용한 것이 아닌 것이 몇 가지 있고,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드네요. 일단 수사진행 사항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시죠.

○박성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 감사를 할 때 제대로 짚었어야 됐는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부분들은 문화예술과가 정산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문화예술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계 있잖아요. 감사 안합니까? 문화예술과랑 다른 과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확산되면 본청도 예외 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모든 예산은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한 톨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1억 9,700만원을.....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확정되지 않고 신고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1억 9,500만 원이 잘못 사용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고자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박성규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생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는 보조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에 예산 집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홍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과학적이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 좁은 지역사회에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도 몇 년 전에도 공금횡령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

습니다. 군수님 민생 관련 관심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처분 결과 조치사항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개선할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란 팀장입니다. 김광웅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김영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행준 귀촌지원팀장입니다. 이지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 있으셨습니다. 금년 8월에 제3기 청년발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고요. 청년발전협의체 위촉심의 정기회를 9월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8건의 청년정책제안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3건을 우리군에서 채용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완도군청년의날 행사 9월 16일날 개최됐는데 여기서 청년발전협의체 발대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년발전협의체를 개최해서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수렴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우리군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청년통계작성을 개설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22년 청년통계 공표된 자료입니다만. 이것을 금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입, 전출, 가임, 혼인, 주거, 취·창업이 해당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자체적으로 청년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년통계는 3년마다 공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완도군 청년센터 완생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에 완생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청년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청년수요조사를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청년들 1,114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는데요. 각종 SNS 홍보 이벤트를 추진해서 인스타 팔

로우가 300명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센터가 완도읍에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를 금일, 노화, 고금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센터의 공간을 조금 더 청년들이 활용하기 좋게 가꾸기 위해서 포토존, 놀이공간 등 테라스 3곳을 현재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어의 집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도보조사업을 해서 아니면 군사업으로 해서 귀어의 집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일반 빈집들은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귀농, 귀어의집으로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비를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귀농귀어의 집도 좋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숙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숙소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우리군 관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강사들이 처우가 낮다고 해서 강사료를 3만원 인상 했고요. 이것은 성인문해교육 확대하면서 신규 강사양성이 필요해서 26명 신규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생일면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문해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완도 학생들을 위한 통학비 제공사업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장보고 장학회에서 화흥초등학교, 청

해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교육청 에듀버스 운영사업에 이 2개 노선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장학사업에서는 증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완도고 교사들 관사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군 행정재산을 환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완도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3세대에 대한 현대아파트 관사를 지난 2월에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일자리정책실장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게 관심이 많아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범위와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매년 법무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지자체에 하달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조사 결정이 되면

해당 외국인 지자체와 MOU 체결한 다음에 사증발급 입국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공항까지 가서 인솔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어가에 배치하고 배치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지 근로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는지 재입국이 필요하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승인 부분을 법무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개월 이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장에 배치된 외국인들을 다시 우리군에서 버스를 마련해서 읍면마다 외국인 등록을 목포까지 같이 인솔해가서 등록을 시키고 있는 등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담당하는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4명 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인원은 안 부족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인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인호 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우리군과 외국중앙정부나 지자체가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MOU는 법무부에 준칙안이 있습니다. 준칙안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체결할 때 우리군하고 똑같은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30세에서 35세 일할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 가급적이면 외국에 나가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바다에서 양식을 주로 하는 우리 지역은 여건에 맞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MOU 체결대상 등을 확대하고 MOU 체결 과정에서 직접 외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상 MOU 체결에선 우리지역에서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MOU 체결 할 때 현장을 가서 여건을 본 다음에 지자체장을 만나서 우리군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면밀히 협의한 다음에 그걸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도입되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중 하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 사무소에서 인력을 갖고 오다 보면 임금에 1만원만 더 줘도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가 얼마 돈을 주면 내가 가서 일을 할랍니다 할 정도로 바쁜 시절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옴으로써 인력 고용의 주도권을 우리 어업인들이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외국인 인건비를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수산업 관련해서 숙련도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군과 MOU 체결 후 인력 송출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지역이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오려다가 네팔에서 이탈자가 많다 보니까 네팔 본국에서 출국을 막아서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 베트남에서 우리군에 35명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27명이 이탈했습니다. 약 77%가 이탈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탈이 많다보니까 해당 지역을 베트남에서 앞으로는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탈자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6월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지역이라고 해서 필리핀 딸락하고 산호세 델몬테는 출입국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신규입국은 금지하고, 재입국, 어업인들이 원하는 재입국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호 위원

실장님 제가 군정질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근로자들이 아주 문제성이 많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거기가 이탈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참고하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지난 1월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외국지자체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외국인 지자체 실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쪽과 연고 있거나 그쪽에 활동했던 분들이 저희 군에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는데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은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을 합법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봉급을 안 준다든지 폭언, 폭행이라든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탈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근무지를 재배치시킨다든지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군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으로 자기들이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좀 묵인해주고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나중에 출입국관리소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조인호 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 중개 또는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로 인해 인력 송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딸락하고 산호세 델몬테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에서 별도 계약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중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80만월 월 아니면 4, 50만원까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신규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관리와 모니터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우리군 입국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가 결과에 약 2,300여명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두 배로 많은 인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확충, 재정 지원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현재 수요 조사는 다 끝나서 법무부에 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12월쯤 되면 최종배정결과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수요조사 결과대로 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4명 인력 가지고는 2,300명을 이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올 인력이 많다 보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명이상 우리군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외국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 인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일부 이탈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선발을 할 때 외국에 나가서 내가 책임감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일할란다,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잘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본국에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사전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본국으로 귀국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외국인들하고 고용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우미들도 확대하는 그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국에 파견 인력을 받은 것도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외국인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기간이 기본 5개월로 추가 3개월 연장하면 총 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마생산시기에 근로자들이 2, 3개월 정도면 단기간에 근무조건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금일이라든지 약산이라든지 다시마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근로자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C4비자라고 3개월 비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여기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타 지역에서 2개월짜리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례를 보가면서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존같이 5개월짜리 받아서 다시마생산한 시기, 2개월, 3개월 이후에는 다른 사업 쪽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방금 2개월짜리 말한 지자체가 혹시 고흥군이에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현재 고흥군에서 미역생산시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모니터링 잘해서 우리가 접목시키면 좋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업무 중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비중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군청 주요 핵심부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부족한 일손을 거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채워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을 감안해볼 때 외국인근로자 확보는 선제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부터 전담인력확충, 예산확보, 가이드 요원 파견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실장님, 저는 해양치유리조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당초에 고대수련원 짓는다는 부지 그 옆에 녹지를 이 양반들이 리조트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놨다가 거기는 용도변경이 안되다 보니 지금 민박단지 위에 쓰지 않는 저수지 우리 공유지하고 우리가 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부 사서 거기다가 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내년 1월에 고시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되는데 그러면 바로 시설할 수 있는 투자비를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관광숙박시설 특성상 본인 자금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SPC라든지 안 그러면 PF자금을 금융권에 승인받아서 보통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PF자금이 부실이 많이 되다보니까 금융권에서 PF자금 승인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투자비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한 걸로 봤는데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 MOU를 많이 체결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MOU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MOU 체결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 위약이 있을 때 우리지역에서는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지역에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뜻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방식 가장 기초적인 접근방식 중의 하나가 MOU 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우리군에서는 MOU를 인구정책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7가지인가 되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MOU 체결은 저희 부서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들 마다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일자리 자리에서만 하는 게 17개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료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머지는 추진중이에요. 하나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우리가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5월에 매입은 다 완료됐다 했어요. 11월이면 추진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때는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 하는 것이 우리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른디앤디라고 해서 또 MOU를 체결했었죠 거기는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는 해양치유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구 쪽입니다. 그분들이 치유센터 연계해서 거기다가 호텔을 건립하고 싶다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우선 행정절차가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호텔부지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선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이 사업들이 MOU 체결을 했던 업체들과 우리완도군의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해양치유 내일 개관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MOU 체결을 받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해서 이것이 MOU만 체결 하면 지나가는 그분들이 안한다 하면 그걸로 물거품이 되

는 겁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투자위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속력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MOU 체결 자체도 자기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한화에서 우리 완도에 투자 관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치유레저리조트 관련된 부분은 직접 설계, 시공, 분양, 운영까지 같이 연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완도읍에 있는 과수연구소에 거기에 호텔하고 리조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얘기를 해보면 거기는 자기들은 한화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이 되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더 믿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선 위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우리가 호텔, 리조트 하면 큰 것만 바라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숙박시설이 빨리빨리 된다면 그만큼 우리 해양치유에 대해서 우리 완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조트에 대해서 여쭙본 거고요. 우리 군민들은 MOU를 체

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될 거라고만 믿고 바로바로 그때 진행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완도군이기에 문에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성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이 아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망석리에 보면 원네스 있죠, 리조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그게 관광숙박업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는 중단됐다가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요즘에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처음에 건물 자체가 완공이 안 되고 폐허로 있었잖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다 원네스로 다시 시작했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게 당초에 90년대 초반에 콘도 부지 형태

로 공사를 하다가 골조만 놔두고 20년 상태 그대로 방치 돼있다 보니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광주에 있는 SSR이라는 회사에서 투자의향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기 진입도로 공사하는데 5억, 그다음에 진입도로 도로 승상 개선하는데 1억, 총 6억을 우리가 기반시설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기반시설을 해주고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지나가다 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번 전남체전 할 때 제가 잠깐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니, 어찌니 그런 얘기도 오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SSR이라는 회사가 화순 도곡에서도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우나 시설도 있고,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리조트로써 여러 가지 손님이라든지 경영 성과가 안 맞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할란다 그런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쪽에서 변경을 원한다 하면 바로 그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별도로 요양병원 기준에 맞춰서 가

능한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완도군의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도군에서는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영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변경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기반시설비는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담보로 해서 업종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당초에 리조트라는 관광숙박시설을 활용할 목적으로 MOU 체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6억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업종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강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박재선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해서 리조트를 계속 설립하고자 하는데 숙박시설업이라고 해서 리조트의 기반시설도 했고, 또 숙박시설이 잘되면 우리 완도군에 행사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선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운영만 잘된다 하더라도 군의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라던가 호텔리조트라던가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분들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당장 숙박시설이 있는데도 우리 완도군은 어딜 가나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어디를 갈수가 없어요. 전남체전 할 때 부족하

잖습니까?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 숙박시설이잖습니까? 그렇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 MOU 체결 했을 때의 리조트의 그분들하고 성사를 좀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원네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반시설로 같이 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또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고로 원네스리조트하고 해양치유산업이 내일 개관이 되면 외부손님들이 오면 체류할 손님들이 올 텐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큰 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건립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치유 숙박시설로 지정해서 상호간에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원네스리조트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협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해서 앞으로 리조트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고교완전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중 관내고교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기존 금일, 노화, 고금, 약산 4개 고등학교에 계속 지원하고 있고, 무상급식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에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초 4개 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에 기숙사생들이 저녁식사도 해야 하고, 아침 조식도 해야 되는데 식당 밥먹을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침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 석식이 문제가 돼 가지고 석식 때문에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장학회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맞는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 일부 고금고등학교하고 노화고등학교는 일부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게 지금 딱 부러지게 장학 사업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나눠서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김양훈 위원

감사자료 보면 4개 고등학교 9,000만원 예산이 투입 되는데 확대했을 때 총 2억 3,000만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었어요. 그 금액이 추가된 금액만 2억 3,000만원입니까? 9,000만원 다해서 2억 3,000만원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억 3,000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올해 8월에 완도고등학교에 취약계층대상으로 시범적으로 4,000만원 우선 지원을 해서 대상을 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게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자녀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기숙사 입사생 위주로만 우선 선발을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이걸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계층을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취약계층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약계층 애들, 기숙사 산다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취약계층 애들은 불편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급식을 줬을 때. 왜 그러냐면 없이 살아서 그렇게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가지 않겠냐 밥 먹으로도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어차피 식사를 같이하니까요. 같은 시간에 하는데 세 자녀, 취약계층, 기숙사생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만 알지 나머지는 거기에 나는 어떤 분류에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

고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김양훈 위원

요즘에 학생들은 어디에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알려라고요. 옆에서 모르는 얘기들을 학생들이 빨리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내고 먹을란다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안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얘기 해본 거고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업분석은 해봤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다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완도고등학교는 연초부터 한 것도 아니고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개선방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12월달 중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방학 전에는 나오니까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김양훈 위원

학교의견은 들어본 적 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학교에서는 완도고등학교 경우는 저녁식사를 안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은 식사를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해 줘도 식사를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이

런 부분들이 명확하니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장보고장학회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감소로 작년부터 좀 어렵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보고장학회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고, 무상급식이 예산감소로 전년도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모니터링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딱 1년이기 때문에 1년하고 중단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일단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운영 시행을 하냐, 안하냐를 그거를 따진다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운영 시행보다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선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초 지원했던 4개 학교는 좋은 취지로 본다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보입니다. 전면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애들이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개선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고교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이게 일부 전남 시군에서 두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시군 확인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확대하려는, 검토하고 있는 시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신안하고 구례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 말고 시 단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더라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일이 저희들도 확인 해봤는데 검토 전반적으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사업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줬는데 운영에는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세 끼 다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효과는 없고,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다음 미세먼지 대응 완도 해조류식품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해 왔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처음에는 19년부터 추진해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19년도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김양훈 위원

정확히 이 사업은 장보고장학회 사업은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해조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소비하고, 어려서부터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소비할 수 있는 식습관을 제공하기도 하고, 균형 잡힌 건강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취지는 처음에 참 좋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고, 지원대상, 절차,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단 우리군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학교

에서 정산을 한 다음에 군에서 정산을 확장시켜서 반납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중간에 학교하고 공급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해조류 식품을, 재료를 공급, 납품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학교에서 공급업체에 직접 하는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행정에서는 그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김양훈 위원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파악해보면 2019년도에는 한 1억 5,000, 2000년도에는 1억 3,800 2021년도에는 1억 3,200 22년도에는 1억 2,800 금년에는 7,300에서 6억 2,6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많이 된 편이네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반찬으로 해조류 나와도 거의 안 먹는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면 전혀 안 먹고 다 버린대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투입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혹시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 분석해본 결과는 있는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김이나 나물, 김이나 몇 가지는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부서에서도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다는 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뭘 얘기를 하나면 원물 형태 그대로 성인들이 먹는 형태로 해조류를 요리해가지고 주면 학생들이 안 먹고 다른 좋아하는 음식하고 섞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요리 방법을 달리해서 주면 먹을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 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는 시행이 불가능한 형태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산도 있고, 어차피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순위에 밀려서 내년 예산반영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만약에 진짜로 좋은 사업이었고, 애들한테 꼭 필요한 해조류 먹여서 좋은 사업이었으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예산을 미리 반영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사업성이 효과가 없었고, 애들이 잘 먹지 않고, 영양사들도 좀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앞전에 추진실적보고 때 보면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영양사분들 면담도 해보고 같이 먹어보진 않았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직원들이 가서 먹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혹시 먹어본 직원들 있어요?

(이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상반기 때 저희가 가서 먹어보고 영양사분들하고 상담을 면담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면담했을 때에는 영양사분들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분들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먹어봤을 때 맛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애들 입장에서 먹어봐야죠,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어린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김이나 자반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나오면 잘 먹고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꼬시래기나 무침 이런 종류 나오면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애들이 안 버리고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성을 한다고 하시겠다고.....)

○김양훈 위원

선생님 말고 학생들하고 혹시 면담 해봤어요? (학생들하고는.....)

○김양훈 위원

안 해봤죠?

(예.)

○김양훈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누가 보면 선생님들이 먹는, 선생님도 물론 먹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먹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야죠. 그러다보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야죠. 학생들하고 전혀 면담이 안 되고, 학생들하고 얘기 해보면 거의 8, 90%는 다 안 먹고 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 항상 먹어본 식성이 있어서 먹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못한다. 내년에 예산을 했다 하기 때문에 큰 노력도 나중이라도 혹시 예산이 생긴다 그러면 실장님 예산 세울 생각은 있으신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연말쯤에 다시 한 번 체크 해보고 최종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한 이후에 다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모니터링이나 효과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합니다. 이걸 지원을 해서 애들이 잘 먹고, 몸이 건강에도 좋고 잘 자란다고 하면 백번 천번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만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확정됐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총 사업비가 156억이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기간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김양훈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용 주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실을 건립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방역계정 90억, 기초
계정 60억 해서 150억 부분인데요. 청년공공
임대주택 건립 대상 결정을 한 이후에 전라남
도에서 화순하고 나주에서 청년들하고 신혼부
부들을 위한 만원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가급적이면 공공용주택은 만
원주택을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걸 하고 있습
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만원주택 정책 발표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만원주택
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
는데요. 우리군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
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건립이 되면 저렴하게
신혼부부들하고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계
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사업부지가 군청 밑에 있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한
곳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김양훈 위원

거기에 따라 보면 3년간 타 용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있어요. 또 3년이 지나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대상지 선정 이후에 너무 좋은 부지에
청년공공임대를 짓는 거 아니냐, 제3의 장소
를 다시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을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지역
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 가장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신
청했고, 대상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제3의 후보지를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도 2군데 정도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
분이 공공용 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부지
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1개 부지는 공공용 부지이고, 저희들이 매입
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연립주택부
지로 크게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청년공공임대주택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와서 2개 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부지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사업비에서 나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토지 매입은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순기 내에 26년도까지라고 했는데 다
추진이 될 수 있겠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어차피 내년에는 행정절차진행을 해야 됩니
다. 공공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
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지만 빨리 결
정이 되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실제공
사는 2025년도에 착공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대상부지만 빨리 결정이 되면 그 일정 하

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언 의지가 없습니다. 사업부지설명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 겪다보면 사업기간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공공용 부지는 기관하고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쯤에 그쪽에서 최종결정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쪽 대체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대상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공공도서관으로 겹쳐서 건립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복합도서관 건립부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부서 간에 서로 안 해 봤습니까, 조율은? 왜 그러냐면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했고 또 도서관한다고 그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공모신청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한 부지를 양쪽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선정이 될까 나중에 문화예술과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는 어차피 공간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

라서는 주차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2개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무리 공모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한 부지를 가지고 양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먼저 정책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계신다 하니까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 서둘러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록 사건이지만 작년 본회의 본위원이 군정질의시 했던 내용이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아 묻겠습니다. 우리군 육아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육아수당은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7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기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인근 강진군은 육

아수당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는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수당을 매월 50만원씩인가 56개월인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1인당 7년 84개월 동안 60만원씩 주고 있어요. 총 5,040만원인데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전년대비 같은 기간 강진군 인구가 83명에서 128명으로 54.8% 증가했네요. 같은 기간 완도는 2.2% 전남은 5.14% 감소했어요. 그러면 육아수당 인상이 인구늘리기정책,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강진이 54.8% 증가했거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제도가 이제 막 시행이 돼서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길게 봤을 때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강진은 매월 나눠주는 걸로 달리 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출산장려수당을 상향시켰거든요 당초에는 첫째아이가 1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하고 둘째가 500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강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매월로 나뉘는 경우에는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어찌됐던 전년 대비 작년 기간 동안 강진은 54.8% 증가하고, 우리군은 2.2% 감소했다는 전남이 5.14% 평균적으로 감소했다면 강진 50% 증가를 했다 하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영식 위원

34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구감소대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34쪽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혹시 실장님 이 신문 타이틀은 보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아니요. 잘 안 보입니다.

○조영식 위원

저번달에 나온 지방신문입니다. 강진군을 배우자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타이틀 문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강진군을 배우자 벤치마킹 잇따라 추진내용이 인구감소대응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현장, 즉 강진살이체험현장인데 혹시 푸소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농어촌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가서 함께 살면서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혹시 강진 푸소같은 우리군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완도에 있나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들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스마트치유마을 불목리 그 다음에 신지면 울모래 마을, 고금에 귀어의 집 이런 곳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33가구, 38명이 체험

활동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인근 시군에서 전국각지에서 벤치마킹 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벤치마킹보다는 귀촌하실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계시고요, 숙박시설 용도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유학단지를 불목리에 7동을 할 계획인데 그게 되면 농촌유학단지 또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는 사람들의 체험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강진 푸소만큼 중점적 체험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유명하든가 인기가 있다든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든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푸소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지역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강진 푸소하고 맛먹을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영식 위원

잘 참고하셔가지고 신문내용을 보면 한 달 내에 아주 많은 지자체들이 다녀갔어요. 그만큼 많이 알려졌구먼요, 푸소가.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6쪽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민간투자유치목표 추진현황 우리 해양치유센터 23일날 개관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해양치유센터 개관하고 아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아까 박재선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2013년 10월 한화호텔앤리조트 관계자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한화호텔리조트 상무가 직접 와서 우리지역에 투자 가능한 지역을 다 둘러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경보 건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을 양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야리 과수연구소 부지는 거기에다가 별도로 한우브랜드를 담은 호텔앤리조트를 신축할 사업계획서를 현재 작성해서 조만간 우리군에 정식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갔다 이 말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다음은 그다음 장 골프장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사업 대상지 투자가능지역 적정성 검토중이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이라고 안 써져 있었으면 안 물어봤을 건데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위원님, 이 골프장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부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군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골프장인데 여러 군데

시도를 했다가 토지매입 단계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테마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 최경주 프로하고 연결된 업체가 어느 정도 대상지역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군하고 같이 공동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무언가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보안유지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숙박시설이나 골프장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대한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 정책실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에 많은 당면과제 중에서도 인구정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구변동에 따라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국 89개 지자체 전남에 16개 지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군의 지금 인구감소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약 3만 6,000 20년 후에는 2만 5,000, 30년 후에는 1만 4,000 인구가 감소되는 추정이 나와 우리군에 인구 소멸이 존립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해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했다고 보고 그동안 실장님이 실장으로써 업무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 실제 이끌어본 실과로 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 부분은 어느 한 부서만 일해 가지고는 성과가 나기 어렵고요.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야만이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인구 부분은 우리 인구 구조상 우리 완도 인구는 현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구구조상 감소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인구의 기준을 잡는 게 옛날에는 거주인구 기준이었으면 지금은 생활인구로 바뀌어졌습니다. 생활인구는 거주인구 플러스 3시간 이상 일이나 관광을 위해서 체류하는 체류인구,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포함된 생활인구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생활인구 기준 통계에 맞춰서 우리지역이 생활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정책이 변화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인구정책의 심각성을 느낀 건 맞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분야별, 사업별, 유동인구 통계조사 좋은 정책발굴, 사업별 효과분석, 사업별 대안마련 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받고 있는 업무분장을 보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도 몇 차례 말했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분장으로는 인구정책의 성공률을 올리긴 어렵다. 지금은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와서 답습하는 형태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나 기초자료, 주민들의 삶의 흐름은 어떤지 어떤 인구변화가 있으며 어떤 유형별로 문제가 이런 파악들이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야만이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방향이 나오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접근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문제점을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하고 실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했다면은 말로만 그렇게 아니고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물론 해야만이 아마 업무분장이 될 거로 봅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실행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최정욱 위원

조금 전에 생활인구를 말했어요. 우리군의 지역인구는 이제는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똑같은 게 닥쳐있거든요. 정책이나 모든 게 거의 비슷해요. 아까 조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131:5 외국인근로자를 들어오는 게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해요 근로자의 계약해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생활인구에 편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지방교부세

가 해당이 되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다면 생활인구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우리 하나의 인구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대안이나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외국인들 부분은 어찌됐거나 우리 완도에 와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지역 경제 산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인구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년 기준으로 따지면 고용 한가지로 들어오시는 외국인이 1,300에서 1,500 정도 되고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1,4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 해도 약 3,000명쯤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의 수요조사에서 2,300명 계절근로자 수요가 상반기 있는 걸로 파악이 되면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어느 큰 읍면의 인구 숫자만큼 외국인들이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교류, 소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점시설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 내에서 외국인들하고 내국인 어업인들하고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관련해서 지난 11월 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종합평과가 발표되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방소멸대응평가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B등급을 받아 80억을 확보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최정욱 위원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S등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A등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S등급은 144억이고요. A등급은 112억, B등급은 80억, C등급은 64억입니다. 내부기준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행안부 지침이 권역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200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완료되지 않은 권역을 일단 마무리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권역으로 개발 방향을 잡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보길, 소안이 2022년 2023에 그 권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2개년간 수립된 계획에서 부족하고 아직 마무리 못한 사업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단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용역연구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발굴하고 또 하나는 대우재단같이 우리지역하고 연계돼있는 재단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컨설팅 받고 현장평가 받고 대면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고 현장평가 받을 때까지는 우리지역 실정하고 딱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잘 됐다라는 의견을 많이 평가를

받아서 대면평가에서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최소한 A등급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최종결과는 B등급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사실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그 전으로부터 업무분장이 잘돼서 직원들이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발굴이 뭔가를 발견을 했더라면 그런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직원들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좀 더 받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용역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용역사에 던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찾아서 제안제시를 하면서 용역을 해야만이 좋은 용역이 나와서 이런 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답변시 군수님이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발굴하여 4개 분야 8개 사업에 144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80억만 확보하여 계획인 사업에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저희들이 144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80억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꼭 추진할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귀어의집을 20억 들여서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업은 다른 해수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고, 노소보 바다시장조성이라고 이목리국가항개발사업 대상

부지 물양장에다가 거기다가 전복직판장하고 수산시장을 만들 계획을 30억 들여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클리어항가꾸기사업이라고 해수부 또 별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비를 조금씩 실제사업비 꼭 필요한 사업비만 조정하다보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어의집하고 노소보 바다시장조성사업을 제외하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항상 고생합니다마는 우리가 TF까지 구성해서 했을 때 기대에 차 발굴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많죠? 인정하시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맞춤형청년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초적인 투자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공간을 마련하는데 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6명을 지원했는데 그 6명들이 현재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무인카페, 무인라면집,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떡 공방, 이상향이라고 향기 만드는 청년들만 할 수 있는 6군데를 2,000만원씩 지원해서 창업

공간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도 좋고 주민들 평가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구 제일신협 앞에 상가를 매입해서 7동을 청년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다 모집이 됐고요 지금 리모델링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해서 창업공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마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해서 청년들이 완도읍권내에서 자기들이 창업도 하고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까지 청년정책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왔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또한 지자체들마다 여기에 중점을 둘 겁니다. 청년들이 주돈을 해야만이 인구정책의 제일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청년들은 개발된 정책프로그램을 또는 청년들이 바란 세대의 특별한 요구와 도전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각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걸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리고 전남형청년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용암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용암리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을 매입을 해서 당초에

는 일시적으로 한달살기, 3주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집을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까지를 리모델링 사업까지 겸해서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4명 정도 입주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떤가요? 감사 중에 현장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실장님, 어때요?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운영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완도에서 일시 살기를 원하는 데 저렴한 가격에 거기가 살면서 그다음에는 완도가 좋으니까 여기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정착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보이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아마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욱 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2003년 6월에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는데 청년친화헌정대상 어떤 상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라는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인데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지자체나 기관에 이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통보돼 왔기에 응모를 해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한 지자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질 높은 청년정책을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저번에 질문했었는데 지금 장학사업이 예전에는 돈 없고 공부는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처음 펼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사업 한 지가 한 20년 됐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변화가 돼야 않을까라고 봐요. 우리 인구소멸이 젊은 청년의 이런 걸로 비추어 볼 때 꼭 학교에다만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재,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주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말하자면 기능공이 필요한데 기능공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반을 운영한다든가 학교와 협의해서 그런 걸 좀 장학사업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사업이 개선이 필요하단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컨설팅용역이 착수돼있고요. 일부 학교라든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단체기관들하고 일단 1차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타 지역의 우수사례, 우리

지역의 여건 앞으로 대학시험에 대한 정책방향의 변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안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장학사업 그 장학사업으로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을 넣어서라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최정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므로 우리군은 10년을 좋은 기회로 삼아 인구정책과 연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지원금을 배분받아 우리 군 발전과 인구정책의 효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인구정책의 방향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된다면 우리군의 인구정책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아마 우리 인구정책실의 지표로 될 것이며, 또 성공모델이 되므로 우리군의 많은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실장님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로만 해왔던 것을 실행을 옮겨서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이양일 팀장님

입니다. 문화유산팀 이학 팀장님입니다. 장보고선양팀 이인석 팀장님입니다. 도서관 김태복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 쪽입니다. 먼저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생활문화센터 환경개선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추경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학습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국비를 신청하여 북카페형 열람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추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산도 계단식경관과 해외유사사례 비교분석 연구용역 개선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청산도 계단식경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신청 하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및 권고사항인 명승지정은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유네스코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는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9월 15일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구역 중 하나인 생물권 보존지역이 청산도를 포함한 완도수목원, 보길도, 소안도 당사도 등 다도해상국립공원지역을 핵심구역으로 지정받아 관련 조례 제정 및 브랜드로고 개발, 생물권보존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안내판 설치 등 해양치유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완도 생물권 보존지역사업 관리운영을 통한 지역브랜드가치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지난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2014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법화사지 장보고석상 보존관리준비 철저입니다. 앞으로 장

보고대사와 법화사지 창건과 장보고석상 원위치 이동 기념비와 취지비 원상태 복원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학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원추진여부를 협의하는 등 장보고대사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군수공약사업 등 어린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복합문화도서관은..... 복합문화도서관은 현재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현 군립도서관이 준공된 지 약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장서 증가에 따른 보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교육문화수준 부흥과 관련하여 독서문화 및 교육복지 육아, 정보제공 등 다기능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요. 타당성용역 결과,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가 완도군민의 80.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건립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 우

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완도군민의 86%가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쪽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를 봤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군민이 350명, 350명 정도 된다는데 350명 가지고 충분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해서 직접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직접 대면이요?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도서관팀장 김태복

설문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 방식은 온라인방식과 직접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대면방식은 특정인을 불러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아는 분들만 갖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대면은?

○도서관팀장 김태복

저희들이 설문방식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맡은 업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350명 된다고요?

○도서관팀장 김태복

온라인은 몇 명이고 대면은 몇 명이었어요?

○도서관팀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김양훈 위원

용역하는데 너무 그쪽 용역사에 밀어줘버리고 행정에선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도 좋게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서관팀장 김태복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용역하는데 내용에 건축기본계획이 있던데 2,000만원짜리 용역 가지고 타당성하고 건축기본계획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도서관팀장 김태복

예.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산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결과에 부응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되면 적은 공사가..... 150억짜리죠?

○도서관팀장 김태복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150억짜린데 150억짜리 하게 되면 별도 또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팀장 김태복

별도로 용역은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타당성 용역결과는 끝납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 아니요.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해서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다시 해서 맞추지 않는가요? 이걸로 끝인가요?

○도서관팀장 김태복

이 도서관법 있잖습니까? 21년 12월 7일날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문화체육부에 타당성설립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양훈 위원

만에 하나, 여기 밑에 부지 군청 밑에 부지에요

○도서관팀장 김태복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일자리정책실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이 맞물렸단 말이에요. 한 군데 갖고 두 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문화예술과가 나중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도서관팀장 김태복

저희가 먼저 선점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님,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했어요. 나중에 지면을 통해서 청년정책공모사업을 일단은 접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쪽에서 먼저 잡혀버린 거잖아요. 만약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을 여기 부지에 못하게 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변경한다고 그러면.

○도서관팀장 김태복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 2가지 조건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부지가 바뀐다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현재 그 부지가 3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3,8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건폐율이 80%, 용적율이 1,3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그런 부지가 됩니까,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025년이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업지역이거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건물만 단순히 들어선다면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야되고 뿔도 들어가야되고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부지가 바뀐다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그 부지가 공용주차장 3년밖에 안 됐어요. 타 용도로 사용불가 3년이 지나야 관계 업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지금 그 장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먼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2025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내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2025년도에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도서관 새롭게 건립한 거 말고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건립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건립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요? 꼭 신축 말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 쪽에 도서관기능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사업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현재 도서관이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좁고 비탈길 있고, 증축이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군 공공건물들 활용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군에 지금 공공건물들 비어있는데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무조건 우리가 신축, 신축 하지만 우리 공공건물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개장을 한다든가 장소가 부족하면 여러 공공

건물이 있으면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사업구상대로 그렇게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게 부지 확보는 지금 겹쳐져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새로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런 거 이용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다음은 고금 역사공간자원화사업 이거 지금 사업내용이 네 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김양훈 위원

역사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역사분류별 조성, 역사문화체험, 인프라구축사업, 이거 예산확보에 진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예산은 190억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33억 정도 됩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은.

○김양훈 위원

내일모레 연말인데 33억 확보하고 나머지 집행액은 얼마 정도 측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집행은 현재 삼도수군통제영만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객사하고 사정터 이쪽은 설계를 하고 있고, 사정터는 설비가 마무리 됐고, 부지매입확보하면서 설계해서 도 계약심사까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다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추진한 지 오래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4년째 정도 됐죠, 시기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4년 되고 유일하게 삼도수군통제영만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사업들은 실시 설계가 1월달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객사하고 사정터 그 부분이 끝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에 세부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둘레길조성, 문화체험, 인 프라구축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기간이 4년이 넘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관광트렌드도 안 맞고 그래서 세부적인 용역을 내년 초에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용역을 다시 한다고요.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기간이 겁나 길어지겠는데, 사업기간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이 사업은 2026년까지인데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첫 착공한 거예요, 삼도수군통제영만 나머지 거는 이제 용역 들어가면 언제 사업이 끝날지 좀 까마득해요.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도 사정터, 객사밖에 없는 것 역 사관광자원화사업만 지금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용역 들어가게 되면 사업 기간 안에 진짜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미 시작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다 된 거 아니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산 확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190억으로 돼 있지만 현재 저희가 교부 받은 것은 33억 정도 교부 받았습시다.

○김양훈 위원

이게 사업진행이 늦다보니 예산확보를 못 한 거 아니예요? 사업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더 사업비도 그만큼 어려울 텐데 사업비가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 다른 데는 대책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게 군특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예산이 사업기간 안에 적재적소 배분이 되냐는 문제죠. 예산집행이 되는가가 문제지 예산은 언젠가는 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나도 지난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사업기간 안에 할 수 있냐가 문제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사업이 네 가지나 되고 이제 첫 삽 뜬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좀 신경 써서 그쪽에 분들은 이것 해가지고 그것 하나만 달랑 한 줄 알아요. 삼도수군통제영만 하고 길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설명을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지금도 실시설계가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좀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사업공원 조성사업 관련 해서 지금 이순신기념관은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고금도해전 전술수군체험관 지난 8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 착공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그동안의 설계심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착공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8월달에 발주했는데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8월달에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설계심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보면은 8월달 발주한 걸로 나와요 옆에 8월달에 발주한 걸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돼서 그 사유를 물어본 겁니다. 이제 발주가 됐는데 이제 서류심사 했다는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험관 계약의뢰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아마.....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책자에는 거짓말로 써놨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사업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저희가 8월에 노력을 했는데 설계 부분이 늦어지고 그래서 아

마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고, 착공은 올해 말에 할 겁니다.

○김양훈 위원

실적보고에 보면 8월달에 돼가지고 있어요, 발주가. 그런 것도 보면 형식적으로 쓴 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전술수군체험관 내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시설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내부 소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내부는 아직 어떤 콘텐츠로 채워질지는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85억 사업입니다. 85억인데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저희가 수군체험관도 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1차분을 일단 하고 지금 도에다가 내년에 사업비를 20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정식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내부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이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정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이 사업 마지막으로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남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한다고 하면 사업위치,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이 사업이 이순신기념관을 지을 때 저희가 기념관이 48억이 드는데 주변정비사업으로 5억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

원을 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기념관 쪽이 주변정비사업이 추가로 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변에 이순신기념관에서부터 충무사 쪽으로 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군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립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변에 탐방로를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원래 위치나 사업내용은 기념관 뒤쪽으로 해서 충무사 산으로 해서 탐방로 생태공원 그렇게 만든다는 계획 아니었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예산 부족한 것은 이쪽에 다시 큰길로 이렇게 정비한다는 얘기, 그쪽은 정비가 다 됐어요. 양쪽 길에 돌담 다 쌓아져 있고, 깨끗하게 다 정비 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쪽에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 도로는 깨끗해요, 손댈 것이 없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기념관부터 숲길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충무사로 가는 길, 그 길을 정비를 하겠습니까.

○김양훈 위원

큰 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큰길은 양쪽에 석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조성을 해놨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차가 다니는 도로 말고 사람이 보행하는 길 있죠? 기념관 뒤편에서부터 충무사로 가는 길, 그쪽 길을 산길이요.

○김양훈 위원

아, 산,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새로 신설한

도로라고 봐야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사람들이 걷기 좋게끔 정비하고 수목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2023년도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이충무공유적기념공원은 2024년까지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요. 묘당도이충무공기념공원이 17년에서부터 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었어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사업기간인데 아까 예산을 많이 신청했다하고 아직도 사업이 덜 끝났는데 도 전환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일단은 도에다는 건의서를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구두적인 거는 준다는 확보는 아니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전에 사업기간 안에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충분한 사업기간이었거든요. 그전에 크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 관심 갖고 추진을 했으면 일도 안 끝났을 거고, 사업기간 안에 정리 됐을 텐데 물론

중간에 문화재청하고 다툼도 좀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빨리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년도는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202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2025년이 돼야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확실히 그때까지 마무리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기념관만 단순히 있어가지고 관람객들이 크게 갈 곳이 없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모든 공간은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한번 가서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너무 썰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옆에 부수적인 사업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융화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렇게 안하면 거의 안 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주소는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주소 말씀하십니까, 글로벌재단?

○김양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주소가 지금 완도군 장보고한상명예의전당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도읍입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가 지금 재단으로써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조직구성과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조직구성은 지금 이사회가 있고, 수상자협의회가 있고, 재단사업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보고글로벌 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자료 한번만 띄어주실래요? 조직이 엄청 커요, 보시다시피. 조직도상 사무국에 3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가요? 홍보팀, 총무팀, 기획협력팀 사무국에만 지금 3개 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사무국에는 실제로.....

○김양훈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한분이.....

○김양훈 위원

한 사람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도나 이런 거 보면 거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수님이 현재 이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닙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사 아니시고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 재단하고는.

○김양훈 위원

글로벌재단에서 완도군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이사에서 빠지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연직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닙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군수님은 없으신.....

○김양훈 위원

거기에 맞는 직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조직도에 들어간 직책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없으십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지금 완도에서 하는 건데 조직에 등록이 전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왜냐면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들어가시는 거는 걱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임하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임이었죠? 처음에는 당연직이사였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처음에는 들어가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언제 사임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사임을 올해 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김양훈 위원

올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올해 하반기에 하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올해 하반기..... 지금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전부 다 당연직이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재단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된가요? 정회원, 법인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회원 수는 43명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원 수는 94명입니다.

○김양훈 위원

정회원부터 법인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까지 해서요? 통틀어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일단 장한상수상운영위원회, 이사회, 경영아카데미 회원 해서 9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혹시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장보고글로벌재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못 봤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기부금 모금액 사용실적 명세서를 볼 수가 있어요. 2000년도에는 약 800여만원, 21년도는 약 9,000만원, 22년도에는 1억 4,100만원 정도 수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도 공시하게 돼 있더군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거기 다 나왔는데 이렇게 기부금 받고 기부금 중에서 수익금에 완도에서 보조해주는 거, 협찬해준 것도 예산에 포함이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기부금이요, 기부금에요?

○김양훈 위원

우리군에서 협찬한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김양훈 위원

기부금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죠. 그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기부금하고 별개로 집행이 됩니다.

○김양훈 위원

별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혹시 보셨으면 기부금 이게 내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20년, 21년 다 있는데 보고 느끼는 거 있어요? 과장님 보셨다고 하니까 세부내역 같은 거 봤을 때, 지출세부내역.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훈 위원

기부금에 보면 상세내역은 없어요. 목적, 건수, 대표자, 금액 그중에 하나 둘만 큰 것들을 보다 보면 장보고한상어워드 공모사업 한상, 21년도인가 100건 9,800만원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세부, 구체적인 지출내역 제출해 주실 수는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 기부금 관련해서요?

○김양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기부금은, 기부금을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사업을 주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까지 저희가 무언가 관리를 한다거나 감독을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그 사람들 재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군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부내역 정도는 군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사업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했다거나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장보고글로벌재단 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7,000만원입니다.

○김양훈 위원

매년 7,0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 취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상반기 때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장보고글로벌재단에서 포기를 하셔야지고 실제 예산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전 매년 보조금 지원을 했고요. 올해만 지금 보조금 지원 안 한 이유가 전산처리 잘못 돼서 그런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올해는 해서는 안 됐는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하면서 사업을 완도군에서 직접 수행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 장보고선양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은 7,000만원이 다 소요가 안 된 거죠.

○김양훈 위원

23년도 보조금 전혀 지원이 안 될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부분은 장보고선양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6월 29일날 교부결정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한 금액이 약 870만원 정도.....

○김양훈 위원

9월 전까지요?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6월 29일 전까지 집행한 겁니다.

○김양훈 위원

6월 이전에?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원래 보조금이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상반기, 하반기여도 뭐가 안 맞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처음에 저희가 연초에 6,300만원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반기에 8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

니다. 그래서 하반기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결정한 6,300 중에 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하반기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직영으로, 그 예산은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갔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보조금을 저희가.....

○김양훈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은 아닌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 그쪽 직영을 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당초 예산의 7,000만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돈을 저희가 전용 또는 변경해서 그 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냐고요. 800만원 빼고, 그러면 6,200인데 전용한 것이.

○장보고선양팀장 이인석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2,000만원이..... 한 1,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1,500에 800이면 2,300인데 1년에

쓴 게 보조금이 7,000만원씩 줬어요. 하반기에 직영하고 전반기로 한 것만 해도 2,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전에 보조금이 과다지급 됐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하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 부분은 집행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1월 27일 여수에서 장보고한상어워드 개최가 돼요. 우리군 역할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장보고한상시상어워드를 시상식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들이 수출상담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 그렇게 하고, 그 뒷날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진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전반적으로 행사진행을 군에서, 행정에서 한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업체 직원들까지 전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수출상담회에 각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 진행이나 이런 상담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진행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부대행사로 여수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골프행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골프대회 개최하는데 우리 군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죠? 도 3,000, 군 3,000?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6,000만원 예산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어떻게 보면 군비가 들어가는 게 군민들의 혈세인데 다른 지역에서 골프대회 개최하는 지원해주는 걸 꼭 해야 되는지 원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부분은 좀 더 장한상수상자들이 외국분들이다 보니 우리 국내기업들과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는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좀 더 돈독하게 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완도에 골프장이 없다 보니 골프대회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예산 투입을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친선도모를 한다했는데 골프는 4인1조라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친선도모, 조 편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극히 좀 힘들어요. 1명씩 뛰고, 1명씩 뛰고 한다 하면 모를까 이거는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군에 사업가들이 몇 명 갈지 모르겠지만 미치는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에 있어서 장보고와 청해진이 있는데 완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장보고글로벌재단 완도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물론 장보고 청해진 완도 이미지는 떠올리겠지만 완도라는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도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나 그 사업이나 콘텐츠들은 잘 안 보이고 장보고와 청해진만 가져다 하는 것 같아서 더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혈세를 출연하고 있는 것만큼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단운영을 당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장보고글로벌재단 군민들이 앞전에도 늘 자꾸 얘기한 거지만 잘 몰라요. 위원들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직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홍보나 서로 소통을 해서 잘할 수 있게 장보고글로벌재단이 뭐하는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끔 정리해서 의회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제보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제보해준 건데 주도 왜가리 퇴치방안, 완도 주도가 천연기념물 28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 및 보존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금 주도에 왜가리가 서식하면서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고사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제보가 많이 있어요. 혹시 현장 확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는 걸 저희도 들었거든요. 현재 가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을 올하는 문제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완책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하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도로에서 봐도 나무를 보면 죽은 나무들이 상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외부에서 봐도 죽은 나무들 하얗게 가지가 많이 보이던데 현장 가서 안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바깥에서 봐도 흰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상록수하고 천연기념물인데 잘 보호를 해놔야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나면 완도타워에서 빛을 쏘서 빛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나머지는 왜가리 서식지가 되면서 똥 싸고, 분비물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많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마지막 자료사진 한 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여기가 완도문화예술의전당 쪽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1층 본관 폐의자, 폐자전거 방치된 사진들이예요. 공공시설물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고 주민들이 보내준 거예요. 안 가보셨죠? 확인 못 해봤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거는 처음 봅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우리 군민들, 외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방치

해두면 안 되죠. 좀 깔끔하게 해서 서로 보는 관점이 적게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나머지 자료 제출해주라고 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립도서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박재선 위원

전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모사업을 시작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직 공모사업을 시작한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용역만 저희가 올해 했고요. 타당성용역을 하니까 어느 정도 군민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2025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전

라남도 22개 시군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제가 알기로 신안과 완도입니다. 그런데 신안은 준비하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완도만 그 중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도 교육청에서 완도군에 부지를 매입해주면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라고 제가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많이 들어가면서 군립도서관을 새로 완도에 새로 지어야 되냐 도에서 지어주고 도에서 관리를 하면 군비도 들어가지 않을 건데 왜 이 생각을 굳이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현재 지자체 시군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하고 신안하고 완도만 교육청 주관 도서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봤을 때 교육청 운영주체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이 주관을 했도록 과연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인 복지라든지 우리군이 생각하는 역점사업하고 연계된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군유지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어차피 교육청 주관으로 짓더라도 저희가 군비가 건립비용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야리 부지는 접근성이나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교육청 주관으로 짓는 거는 지금.....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군만 안 되고 있는데 19개 시군 중에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파약을 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어떤 사항을?

○박재선 위원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군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시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더라도 저희가 건립비용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 교육장 계실 때 완도군에서 부지선정 하는 것에서 한 1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도에서 다 준비해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없어지고 군립도서관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군립도서관을 세우게 되면 다시 완도군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쭙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군비가 군에서 짓게 되면 건립비용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군비가 많은 부분은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군민 전체적으로 교육청보다도 군민 전체적인 복지라든지 복합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돼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다.

○박재선 위원

그 부분도 도교육청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박재선 위원

문화의 날이 해마다 하는데 완도도 문화의 날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박재선 위원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그 조례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조례를 했냐면 우리 군민들이 문화생활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지금 우리 완도군에 문화의 날 연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던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현재 올해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요구는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1,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보고 올해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섬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섬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말이면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쪼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완도에 문화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지칭을 같이 넣어서 그런 행사들을 해주면 지역민들이 문화의 날이 언제구나라는 기억도 되고, 또 거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진다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따로 해서 문화의 날 행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박재선 위원

그래요. 섬에서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섬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면 밖으로만 나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 하면 이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조례할 때 5조에 보면 문화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공연장이나 이용을 할 때 감면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들을 하실 때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공연장소도 감면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사 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감면을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서 감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의전당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자체 운영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을 거라 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소를 감면 하는 것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지역에 예산으로 본예산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화의 날을 다달이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보조사업을 줄 때 문화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날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요. 문화예술공연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군민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쉬었다 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수

양이 많은가요?

○조영식 위원

아니요. 양은 많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하고 마무리.....

○조영식 위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 3층에 평생학습실과 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실이 전년도에 비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높게 나타난 게. 19페이지, 20페이지 평생학습실과 다목적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이용률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평생학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별로 평생학습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3층 평생학습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하신 분들이 연중으로 거기를 사용신청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다목적실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 부분들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만들어졌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29페이지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서에서 2023년

7월 재개관에 따른 시범운영 및 준공이라고 했는데 시범운영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관람객들 반응은 어땠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관람객들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조영식 위원

전반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부관람객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조영식 위원

군정 질의 때 김양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 반응이 좋았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향토 역사학자들은 장보고에 대한 정신이나 기개나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에 녹아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람객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영상콘텐츠로 채워지다 보니 참 좋다. 그리고 저도 몇 번 모시고 관람을 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잘돼 있다라는 평을 해 주셨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차기나 널뛰기, 투호놀이, 모래던지기, 활쏘기 등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놀이시설 확충이라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습니까? 구비가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추가로 사업을 더 해서 영상콘텐츠도 장보고일대기 부분도 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눠서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눠서 콘텐츠도 다시 구성을 해보려

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보강하려고 하고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조금 전에 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앞번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장보고기념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람객들이나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 분들도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사실은 과장님께는 안 하셨나 보네요. 한 번씩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가리포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리포자원화사업 성문 및 성문복원사업은 발주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직 올 말에 발주예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미 발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왜 그러는지?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현재 작년 11월까지 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어려워져 있다가 올 12월에 설계도서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됐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12월에 한다는 것도 잠정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에 2022년에 감정평가 15만 6,000원 해서 사업비 4억 3,900만원 한다고 산출근거까지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는 매입이 안 되는가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작년에요?

○조영식 위원

예. 작년에 2022년 감정평가 15만 6,000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부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부지와 성문부지가 차이가 있는데 성문부지는 사실 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개인소유이다 보니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성벽 부분은 협의를 해서 거 1필지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대체 부지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진입로 부분이 현재 그분과 협의가 상당히 몇 개월째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잘 협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쪽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옆에 부지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

려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래 됐죠?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완공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김양훈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10분 전에 해 가지고 거의 1년에 한 건씩 했어요, 일을. 추진상황을 보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다소 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문화재청 협의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우리 마음만큼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90억이 들어간 군특지방이양사업 선정으로 국비매청사업입니다. 내년 완공예정인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라고 준공시기에 맞추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서는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해야 될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임대용 팀장님입니다. 경리팀 김채호 팀장님입니다. 부과팀 정광현 팀장님입니다. 재산관리팀 조성영 팀장님입니다. 징수팀 장양웅 팀장은 현재 전라남도 인재개발을 교육 참석중이라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도군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합쳐서 총 3만 7,748건에 2,643만 9,000평방미터 금액으로 1억 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관리사무위임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사용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잡종재산과 국공유재산은 총괄부서에서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상당히 많은 양 필지 면적을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직원이 계속된 인사,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바꿔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관리 담당직원이 3, 4년 사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조인호 위원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으면 공유재산시스템관리는 물론이고 법규정제도를 파악도 못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업무 특성상 매각이나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 4년 사이에 6명의 숫자가 바뀌다 보니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인호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저 역시도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전담직원의 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산관리하고 또 업무공백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승진이나 전보자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기제 형태의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해서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공유재산은 등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재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등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다 할 순 없고요. 현재 공유재산관리 사무위임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사용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상 오류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 숙지미숙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됩니다. 다같은 군민재산인데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관계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누락된 재산에 대해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군 소유 토지 현황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교하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올해 누락재산 698필지에 64만 1,100평방미터 금액으로 따지면 45억 6,0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 재산을 등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하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한전 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확인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공유재산대장하고 현재 공구상의 소유지를 비교해서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어디 마을 집에 3평에서 5평 정도가 군 단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재산도 아니고 군에서도 이걸 처분도 못하고 있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해서 군에 큰 도움이 안되는 재산이거든요. 정리할 부분 혹시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재산 건물 하고,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하고 연락을 통해서 매입 의사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무단점유사실이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라도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건물과 토지를 신축하거나 매입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민원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공유재산은 군민의 혈세로 총당한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에서든 수시로 심사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세외수입확충 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재정자립도가 6.6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 알고 있는데 9.1%가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아니 6.6%요

○박성규 위원

6.6%입니까? 전년도에는 16.23%가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지만 의존재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약 한 6.8%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사실입니다.

○박성규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가 27.1%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입 확충을 둘 수 있는데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수 증대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관심사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로 새로운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현행 국세 배분을 자원 배분을 기존에 7대3에서 6대4로 조정해서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지방세입에서 신규세목 신설이 절실한 편인데 세수증대하고 세원 발굴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에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가세액 법령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가세 방식은 배기량하고 연식에 따라서 부과를 차등 과세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엔진 전기차는 기타자동차를 분류해서 매년 1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기자동차가 170여대로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봤을 때는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서 향후에 5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력발전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가세 물건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세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에너지발전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서는 감세 문제, 물가상승 문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문제 등을 검토가 충분치 않다 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숨어있는 재산발굴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재산세수익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통해서 약 45건의 누락대상을 찾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다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지방세 법령안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을 등의 사용 수익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통해서 세수증대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세수확충을 늘려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은 징수 외에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성규 위원

그리고 탈루세원 방지를 중점을 뒀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세무회계과에서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세무조사는 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봤을 때 지난 해에 1억 2,900만원, 금년에는 1억 7,300만원을 추징했고요. 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추진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2021년도에도 했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익 결손처분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단위로

체납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또 고지서 발송 후에도 체납액이 발생하면 체납안내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출장을 통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독려를 했음에도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나 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보류 이렇게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는 5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다 일괄 올려주면 군에서 일괄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재산조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재산조회는 지금 현재 지방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자동차 차량 등에서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압류 등 체납절차를 들어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방세 증대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하시고요. 지속적인 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은닉탈세 세원방지와 발굴에 세무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 과 내에서도 세무조사반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조사의 기법이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업무의 연속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전남도내에 시

단위에는 세무조사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아직 군 단위에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우수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세무조사기법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찬을 통해서 업무 세부기법 공유를 통해가지고, 탈세 예방 세수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성규 위원

지방세수증대는 지방 재정자립도 재건을 위한 최우선과제임을 인식하시고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앞전 군정 질문에 했습니다마는 도세는 도지사 표창을 주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세를 군수 표창을 질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군수 표창을 주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주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군정질문 답변질의를 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작년에 박성규 위원님께서 군정 질의 때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금년 3월달에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금년 6월달

에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1명, 개인 3명, 네 분에 대하여 표창을 했었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속적으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관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완도군의 직원관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관사는 완도읍을 포함해서 총 30동에 168실이 있고요. 완도읍 체도권내 완도읍에는 신 관사에 35실 구 관사에 12호실 이렇게 42호실이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많이 부족합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요즘 신규자들이 와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해서 직원관사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관사가 부족해서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관사를 들어가지 못한 직원들에

한해서 얼마씩 해 줍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40만원 지원합니다.

○박재선 위원

개인당 4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는 개인이 충당해야 되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재선 위원

지금 여기도 생일면도 준공예정이고, 금당면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재선 위원

읍면에도 부족하고 있는데, 보니까 완도청해관과 청해학숙 여기는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여기도 금년도 관사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전체 관내 체도권 내하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본청을 포함해서 54명 포함해서 78명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완도읍에 체도권을 본다고 하면 35실 가량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서 비용이 들겠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매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빨리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선 위원

신규 임용자들을 보면 타지에서 들어오고 있

어요.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고향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좋은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뭣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재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 살림이 안 좋다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사를 잘 지어놓으면 직원 분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야 업무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재선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관사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군에다 얘기한 것 같아요. 해마다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하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관사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관사 이 부분이 저는 청렴도 향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해서 관사를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방법을 바꿔보려고 그러합니다. 기존에 철콘이나 레미콘 그런 관사 보다는 현재 아파트 부설시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모듈형 공법이 시공사례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모듈형 공법 자체가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됩니다. 50% 이상 4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되고, 보통 우리가 일

반적으로 했을 때는 2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모듈형 공법으로 했을 때는 4개월이면 조립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해서 얹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단축이 되고, 또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례를 보면 금당면에 12호실을 하는데 현재 18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모듈공법을 하게 되면 한 호당 7, 8,000 정도는 18억이면 더 이상의 호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보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해보라고 했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동형 조립형태로 가져와서 개인별로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고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들도 바꿔서 관사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완도군에 군유지도 읍면에서도 많이 있고 여기 이쪽 체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차량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지 탓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예산 절감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사를 들어가면 직원 분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경력에 밀리면 관사를 못 들어 갑니까? 그 조건은 뭘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렇지는 않고요. 관사 관내 청해관하고 청해학숙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완도군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너무 관사 관리가 부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사 관리 내부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번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사운영위원회를 관리하면서 관사가 깨끗하고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 부분들도 관사운영회를 구성하게 되면 관사 입주할 때 신규공

무원하고 타 지역 거주 공무원들 우선 배치한 다든가 가점을 부여해서 하여튼 입주 기준표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청렴도가 완도군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조금 들 수 있는 조립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직원분들 업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즉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현장확인점검으로 추진하고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은 개별적으로 감사자료를 검토해 주시

고,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전문위원 : 이송현

○전문위원 : 황성식

○속기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 주민복지과
 - 가족행복과
 - 경제교통과
 - 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 주민복지과
 - 가족행복과
 - 경제교통과
 - 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소개 후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

적관리팀 이경희 팀장님, 지적재조사팀 조대원 팀장님, 부동산관리팀 정창조 팀장님, 복합민원팀 박수찬 팀장님, 건축허가팀 김재혁 팀장님, 민원행정팀 황신우 팀장은 간부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변 농경지 피해 대책 방안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농경지에 염이해피해가 발생 되어 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현재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조건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이후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까지는 허가조건을 상시점검하여 미이행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된 후에 피해가 발생해서 수년간 지속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 고금면 가교리 농지 염해피해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결과는 피해자가 일부승소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완도군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는 허가조건 및 피해 예방 활동과 발생 이후 감안되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측이 상고하여 2심..... 또한 약산면 관산리와 완도읍 신기리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확인 후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원 해결 및 피해방지를 위해 행정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조치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 63동 정비 추진하고 있는데 다 철거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지금 17동 정도가 남아서 진행중에 있고요. 군외면이 9동이 제일 많이 남아서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슬레이트 철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철거하도록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양훈 위원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 현황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올해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하고 약간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마는 그 자료에 따르면 약간 동수가 늘어나서 약 780동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마는 관리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보면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동수를 보면 556동이네요. 그리고 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446동, 또 이번에 용역 하는데 780동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업무보고 제출했던 자료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김양훈 위원

추진실적보고는 6월달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연초에 제출했던 기준으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번 용역은 정확하게 읍면 단위 다 다니면서 본인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너무 실적보고나 집행부에서 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용역한다고 해서 용역도 780동 정도 된다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줬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이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조사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 활용형하고 철거형 구분돼 있어요. 철거형은 동을 다 봐서 순차적으로 예산 맞춰서 철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철거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 철거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본인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다시 귀향을 해서 거주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임대를 주거나 하면 철거를 하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쉽게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유형별로 보면 등급수가 있더라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도 있고 등급 차이는 뭐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은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농어가주택에 대해서는 등급을 별도로 두진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등급 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철거비를 지원할 때는 이게 관리유지보수를 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그럴 때 약간 양호한 부분 주택들은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것 같고요. 철거할 때는 철거비용은 등급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등급 수는 집 형태를 봐서 좀 좋은 집 나쁜 집 이렇게 등급을 매긴단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철거할 때 비용은 상관없이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차이는 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원금액이 200만원인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등급 차이에서는 철거비용 하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철거는 동의 받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면담이라던가 해결방법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연초에 읍면들을 통해서, 읍면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동의안하고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김양훈 위원

여기 빈집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담당팀에서 나가서 일일이 접촉, 또 저희들이 특이하게 도서지역으로 형성돼서 섬에 들어갈 수 없고 일일이 읍면 단위 그쪽에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좀 많이 바빠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본청에서 내려온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 보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 보면 엄청 흥

물스러워요. 좋은 집들도 있지만 거의 폐가 이렇게 하는 빈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환경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요즘 범죄는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마약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와요. 술 먹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철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에 맞춰 철거하다 보니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고 우리 군도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상향시킨 이후로 신청은 더 늘어나나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특별히 늘어나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20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철거비용 내년에 상향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떤 부분에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아니면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설계서 작성하면서 설계서 작성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되면서 300만원 이상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골에서 하다보니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어떤 데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파서 많이 묻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발 고소 건도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봐도 폐기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철거를 하고 싶어도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육지 쪽에 있는 데하고 도서 지역으로 완도군이 형성돼 있다 보니 도서비부터 시작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신경 쓰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활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활용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인구 일자리정책실에서 조사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활용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맞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활용은 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임대를 줘서 활용하도록 하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도읍 같은 경우에만 8세대가 있고 약산에는 7세대 그리고 다른 읍면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빈집을 개보수해서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도 많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김양훈 위원

그런 근로자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민간합동 투자로 빈집을 정비해서 마을 공동시설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방금 일자리 정책실하고만 간단히 하셨는데 또 다른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관심이 있어서 강진군이나 고흥군 같은 데 가서 현지를 보고 와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을 농가 주택을 수선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앙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빈집관리철거 이런 부분만 한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부서 간에 잘 연계해서 이렇게 다른 시책이 나와서 살려줄 수 있도록 인구 일자리정책실에서도 귀농 귀어하신 분들한테 리모델링을 해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시책도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인구 일자리정책실에서 빈집을 알아보니까 거의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서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쪽하고는 얘기해 본 적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

게 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빈집활용은 좋은 집 추천을 해서 그쪽에서 알아보고 리모델링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 4,0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짜놓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집도 못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빈집이 없어서 못 했다. 활용할 수 있는 집이 없었다,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게 되면 활용할 수 있고 동의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집들을 같이 부서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시책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점심시간 휴무제 홍보를 자주 접하는데 홍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요즘 홍보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서 실시한 전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라등급이라는 평가를 결과가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평가항목과 지표를 살펴보니 3개 분야 5개 항목 이와 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게 맞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우리 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응대나 신속처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빨리 빨리하는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적이 미진한 원인이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 낮은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대책은 알고 있겠네요, 답을?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래서 올해에도 몇 가지 저희들이 늦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훨씬 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보니까, 대책을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행정업무지만 위원회도 만들고,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만들고 영양군은 24시 AI를 통한 서비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거리가게자문단도 만들어서 하니까 상위 가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도 알고 답도 아시면서 왜 안

지켜질까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이 올해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분야가 3점 만점이라고 하면 0.5점이나 1점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해서 노력하면 내년에는 그런 분야들은 점수를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개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유도 알고 답도 아시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가등급 받았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가, 나, 다, 라, 마중에 많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군이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담양이 유일하게 전남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좋은 점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약속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조영식 위원

혹시 내년도 우리군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를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올해 점수를 내리자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아니 벤치마킹 하고 행안부나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갔다 오면 올해보다 10점 이상 올라서 다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왜 예상해서 물어보냐면 내년에 지켜졌나 열심히 했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져 내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준공 1건에 40세대 공동주택 허가 현황 12건에 632세대, 주택단지 추진현황 4건에 125세대, 공동주택 협의 중 9건에

1126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완도군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이 되어있지만, 신규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분양은 됩니다. 분양은 되는데 그 이유가 섬에 있는 분들이 한 가구씩 가지고 있는 게 완도읍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인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분들도 전원주택형태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완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은 되지만 기존에 살던 아파트들이 잘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식 위원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고 있는 실정이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쌍용아파트 입주를 시작하면 인근 우성아파트, 오션타워, 수협위판장, 주변 건어물 판매장 등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주정차 등 교통대란이 불거질 거라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민원실에서 단독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나 근본적으로는 쌍용아

파트에서 수산과학원 지나서 신기리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교통단속을 자주 해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경제교통과 나오고 하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공동주택 허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 이런 거 때문에 물어보니까 다른 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서 허가 시 최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하여 주시고 허가로 인해서 2차 피해가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교통대란에 대해서 아무쪼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조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서비스가 해마다 안 좋아요. 제가 위원 돼서부터 계속 질의했던 건데 계속 안 좋아서 그런데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전에 준비를 좀 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직원이나 팀장이 꾸준히 있으면서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온 담당 직원이 수시발령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러면서 인수인계하면서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재선 위원

직원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업무가 계속 우리가 등급이 낮은 이유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원 분들이 수시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 연계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그 성과를 민원실에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도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오는 시군을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져있습니다. 그 후임자가 그 길만 따라가도 그 정도 점수는 나오기 때문에 가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을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노력을 해서 기틀을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업무적인 것은 계속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등급이 낮아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인근 해남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도군도 과장님 약속하셨죠? 조영식 위원님한테요.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완도군에서 좋은 평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완도군에 농지, 산지 포함해서 민원실에서 처리할 일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이?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1년에 처리 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있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지금 개발행위농지전용은 2명이 하고 있고요. 산지 전용은 1명이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보고 있는 일과 또 일에 비례해서 직원 세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환경 분야 1명 있어서 직원은 4명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4분께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이제 전체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것습니다마는 현재 4명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하여튼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행정에 요구해서라도 민원이 잘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봐도 훤히 보이는데 민원실에 사전에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많은 만큼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업무처리가 늦어지면 피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망석리 마

을 타운하우스 부지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전원주택 개발단지.

○박재선 위원

그 업체는 1개 업체에서 합니까? 몇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곳은 6개로 나뉘져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6개 업체에서 나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토석 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을 때는 12만톤 정도 발생한다고 허가를 받았고요. 외부로 유출된 게 청산항 공사하는데 한 1만톤, 당인리항 어촌뉴딜 공사하는데 2만 9,000톤 그렇게 3만 9,000톤 정도 현재까지는 외부로 반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본인들 공사장 석축을 하거나 안정화에 들어가 있고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 토석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행정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 다른 데로 방출할 때도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반출허가를 저희들한테 딱히 받진 않았습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합민원팀장 박수찬

당초에 허가받을 당시에는 청산 모서항으로 반출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3만 9,000 세제곱미터정도를 발주하기로 했는데 청산 모서항이 소유가 적다 보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외면 다리나 그쪽으로 한 2만 8,0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출지는 당인리 허가 신청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돼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타운을 짓고 있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계속 거기 추진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현재 현장확인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주민이 주택 파악이 된다고 해서 현장에 두세 번 가봤고요. 그 나머지는 그렇지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토석을 반출할 때는 업체 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토석을 반출하거나 그렇지 않죠? 우리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일지를 작성해서 어디로 가는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거기가 아주 토석이 많고 돌산이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몇 년째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걸 보고 업체에서는 그럴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타운을 짓기 위해서는 빨리 공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토석을 계속 깎고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토석을 깎고 과장님께서서는 석축을 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하고 그것을 허가받았을 때 문제와 언제까지 짓겠다는 약속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중간 중간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확인하고 있고요. 꼭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때는 얼마 세제곱미터에 받아야지만이 토석허가를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원래 5만 평방미터 5만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전원주택을 개발할 때 여러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걸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5만톤 하면 현재 미달되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채취량이라고 하는데 채취량은 어떻게 검사를 합

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산을 깎으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물량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몇 년째 보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 씁시고요. 타운하우스가 빨리 지어져야 군민들의 생활이 안전,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여쭙본 거고요. 5만세제곱미터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양이 많이 안 나오는데 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쭙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민원과 업체들 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아까 민원관계 때문에 조영식 위원과 박재선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2022년도에 제가 부군수님 때 질의했던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원인의 날 중요성 하면서 민원인의 날이 며칠이나 했을 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때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거는 민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하란 의미에서 지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 본회의장에서 각인시키
고자 제가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
히 제안한 게 있었어요. 민원실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과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부군수 주재로 반드시 일정 기
간을 정해서 같이 챙겨라. 그다음에 민원의
날은 전반적으로 앉아서 토의를 하고 잘된 것
은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때 당시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 확답을 얻었었거든
요?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전혀 안 되
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안 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이게 부군수님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걸 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걸 챙겨야 돼요.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민원
실 전체 상향하고 올리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올렸단 얘기에요. 우리 민
원실 일만..... 실과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서 가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군정 질문에 위
원이 해놓은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인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다
가 삽입을 시켜서 정해서 어떤 내용을 올려주
시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활성화 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원액이
16억 8,7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에 국민주택에 추진해온 금액인가요? 2023년
도 금액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총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원해주진 않
거든요. 지원했던 걸 상환 받고 있는 상황입
니다.

○최정욱 위원

그동안 우리군에서 지원했던 총 금액이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금액 연체가 미상환액이 6억 5,300
정도 되는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여기에서 보면 국민주택은 전혀 없습니까?
지원이, 지금은?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6억 5,300에 대한 것을 보면 현지 조사 후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하였다. 현지 조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이분들 서류상으로는 재산조회도 하고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이분들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봤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해봤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 되면 중간 중간 배당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국민주택 지었을 때 주택 자체에 융자금을 담보하지 않는가요? 주택을 설정하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하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나갔을 때는 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값어치가 안 돼서 다른 재산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재산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도?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이유가 뭐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자가 훨씬 붙어서 그런 분들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설정이 돼 있는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차 재산에 압류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을 융자금을 줄 때 집을 지을 때 이걸 설정금액으로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이 집에 한해서 융자를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아무리 오래됐고 어찌고 하면 살아있는데 이걸 놔두고 다른데다 먼저 재산을 압류하면 이걸 안 맞는데요. 이걸 먼저 아니면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이게 손해가 났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제3 재산 압류를 하든가 그게 맞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놔두고 한다는 것은 안 맞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더 검토해 보시고 당연히 설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시하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안 됐을 때 2차에 압류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한 거예요. 잘 보시고 절차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요. 이걸 전부 군비로 충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군비 충당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을 그 사람이 납부 할 의무는 일단 일시면제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충당해서 메꾸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미 돈은 주택융자금이 원래 군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차적으로 주택이자가 융자를 할 때는 근저당설정이 잡혀있고요. 지금 돼 있고 제3자가 그걸 해줬을 때 연대보증이 라고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2차까지 압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6억 4,500이라는 돈은 기 우리가 3년 전에 완도 군비로 먼저 상환해버렸습니다. 상환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2차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비확보를 위해서요.

○최정욱 위원

어차피 우리군비 지불이 다 끝났네, 이것은?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예. 맞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제 팀장님 말이 이해가 가는데 맞아요. 그 때 당시에 연대보증이 있었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예. 있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있어도 연대보증인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성규 위원

올해 운영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좀 늦게 해서 10월에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원래 몇 월 달에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이제 전년도 연말에 미리 준비를 해서 연초에는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박성규 위원

12월달인데 1월달에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처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가 필요한데 1월달에 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했어요. 10월달 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민원처리 취지는 직원들의 민원처리를 단축하기 하기 위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걸 빨리 본청이나 읍면에 알려져서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에서나 본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월까지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관심 사항도 없고 잘 몰라요. 읍면에서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저희들이 많이 늦어져서 잘못됐습니다.

○박성규 위원

내년부터는 연초에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부서나 읍면에 알려져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를 통해 군수 표창을 받는 명단을 찾아봤어요. 2021년도에는 마일리지제도 운영했으나 시상한 적이 없네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2022년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6명,

읍면에서는 6명 총 12명을 시상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와 2022년도 모두 부서시상자는 총 6명, 3명이 지적팀이고요. 또 1명은 복합민원팀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대부분이 수산직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게 단순히 민원처리, 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규 위원

심지어는 12명 중에서 3명은 같은 사람이고 2022년도에는 두 번 표창 받은 분도 있어요. 표창 받으신 분들 성과를 폄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현재는 민원처리 건수하고요. 민원처리하면서 단축한 일수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두 가지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마일리지지침에 의해서 1등에서 2등까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상을 받았던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면 일단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부상으로는 뭘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시상금

○박성규 위원

시상금을요, 완도사랑상품권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주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위원

우수상 20만원 주고, 장려상은 10만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최우수상은 50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우수상은 20만원이고, 장려상은 10만원이다 보니까 상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좀 상향 조정을.....

○박성규 위원

조정을 할 수는.....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인원을 줄이든가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위원

늘 받던 자리만 계속 표창을 받은 것은 과장님 좀 안 맞죠?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좀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직원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몇 군데 보기는 봤습시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보진 못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고 세 가지 정도 안을 찾았습니다. 완도군 실정에 맞춰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분리해서 시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과 부서로 분리해서 시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울점수 민원 외에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도 추가해서 마일리지제도에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군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직원하고 하면서 개선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좋은 부분은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좋은 부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실상 전 직원들이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일리지제도 적용되는 범위를 좀 넓혀서 직원들의 민원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빨리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본청 민원실도 민원실입니다마는 읍면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완도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이나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종대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황양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황인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영술 통합조사팀장은 현재 국외연수관계로 이희정 주무관이 참

석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민 위원님 2건, 박병수 위원님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전담인력배치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시군별 여성업무 사무분장 현황을 조사한바 우리군은 현재까지 전담인력이 미배치 상태입니다. 금년 9월 수시인사 때 행정지원과에 인력충원을 건의하였으나 정원초과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금년 내 업무조정도 하고 행정지원과에 인력충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2024년도에는 전담인력을 꼭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방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에는 참여자 62명이 전원 체도권 장애인으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참여자 40명 중 체도권 10명, 도서권 30명을 선정하여 도서지역 거주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노화읍과 청산면, 고금면, 금당면 등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의료, 여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4개소 대상으로 총 12회 6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운동을 관내 6개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국민건강걷기대회 장애복지관 이용자 2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가족센터에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와 운영 및 응시 현황 또 교육 이수자등 관련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 현실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군 사회복지위탁시설 등 행복복지재단 위탁홍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시 공공기관 기준 적용으로 종사자 보수체계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등으로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어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본연의 외부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성복지정책 관련사업 추진부문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입니다. 올해도 지정요청을 하지 못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제가 업무 보고드릴 때 금년에 여성친화도시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전담인력 배치를 못했고, 여성친화도시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위원

어떤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충족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제일 큰 필수 150점에 100점 만점을 취득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요. 전담 인력배치가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총원이 제일 큰 문제고요. 업무 분야는 크게 5대 목표에 12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충족해야만이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정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전담인력 배치 부분이 4점으로 제일 높아요.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담인력 기준이 있는데 꼭 일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공무직은 당연히 안 됩니다.

○지민 위원

안 됩니까? 전담인력배치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행정지원과에게 요청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전남도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9개소 있습니다.

○지민 위원

다들 아마 조건은 비슷할 건데 우리군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서 제가 제안사항 조치사항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배치가 안 되면 저희 과내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과내 직원 내에서 전담배치업무를 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올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직 못했습니다.

○지민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군민참여단 구성이 됐다고 실적보고에서 본 것 같아서,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겠네요? 위촉도 아직 안 됐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서 지금 그 업무까지 여성전반하고 한 직원이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업무만 보더라도 그 업무가 과중한데 친화도시 지정업무까지 전담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은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사업계획서는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민 위원

아예 받지는 않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거 관련해서는.....

○지민 위원

전담인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전담인력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혹시 구성되더라도 사업비를 봐서 사업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민 위원

사업비 1,5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앞으로 교육.....

○지민 위원

앞으로 참여자들이 구성되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구성되면..... 예.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담 내년에는 신청하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내년 1년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해서 그 성과를 연말이나 내후년 초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1년간 사업을 해야 돼요.

○지민 위원

군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바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내년 초에는 해야죠.

○지민 위원

구성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업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24년도에 신청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24년도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25년도에.....

○지민 위원

25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민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지민 위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우리군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올해 5명이었습니다.

○지민 위원

여기 사업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원대상은 취업 재개가 어려운 여성들에게 지급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그 전년도에는 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나이도 전년도에는 35세에서 54세였는데 금년에는 만 30세에서 65세로 확대돼서 금년에는 사업량이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량이 적어서 금년에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연령 대상이나 지원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군 균등하게 배분해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전년도에 사업량이 적어서 올해 지원이 5명 밖에 안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위원

지원은 한 번밖에 못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한번.....

○지민 위원

경력이용 바우처가 평생의 한 번이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위원

혹시 여성농업인바우처하고 중복신청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중복은 안 됩니다.

○지민 위원

당해연도에 경력바우처, 경력이용바우처하고 농업인 바우처하고 한꺼번에 2개는 할 수 없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없고, 한 가지만 됩니다.

○지민 위원

경력단절 바우처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에 농업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이게 경력은 평생에 한번이잖아요. 농업바우처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농업바우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민 위원

여성농업인.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여성농업인 잘.....

○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승인을 받고 과장님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관련해서 채종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여성복지팀장 채종대입니다. 올해 50만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 농업바우처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매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매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올해 두 가지 다

해당 되는 사항이 되는 여성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여성경력단절 먼저 올해 받고 내년부터 여성농업인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올해까지는 20만원이라 농업바우처하고 금액이 비슷했는데 내년부터 50만원 오르면 저희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 것 받고 그다음에는 농업바우처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홍보도 세심하게 관심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행정에 대한 큰 신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5명 배정받아서 2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배정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완도군에서 신보훈회관 잘 지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그래서 구 보훈회관을 우리 완도군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진행 중입니다.

○박재선 위원

진행 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건물 신축해서 사무실 이전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있을 때 기부채납을 미리 받았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막상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세 단체 건물을 썼거든요. 상이군 인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 이 세 단체가 사용한 건물이라 등기도 세 개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세 단체가 협의가 안 돼서 기부채납이 안 돼 있고요.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달 초에 혹시 그 단체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금년에요?

○박재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1월에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요? 결론은 내진 못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신보훈회관을 지었는데 거기 단체는 현재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9개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만약에 완도군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면 거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용 용도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사회단체에서 문의는 옵니다. 와서 기부채납이 됐는가 안됐는가 보고 우리도 사무실을 쓰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해가지고 어디 단체 어디에서 쓰겠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의견은 행복복지재단이 사무실이 지금 본청 4층에 있거든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손님들이 와도 차 한잔할 수 없는 공간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박재선 위원

좋습니다. 구소방서 자리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사회단체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부족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다 찼습니다.

○박재선 위원

다 찼어요? 그래서 보훈회관까지 사회단체에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문의는 오더라고요.

○박재선 위원

방금 행복복지재단 말씀하셨는데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고 하면 군에서 운영을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좋을 건데 군 살림이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당연히 그래야죠

○박재선 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사회단체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 공간이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건물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좁은 건물에 어떤 단체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고심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전적으로 해야지. 단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단체만 넣어버리면 군에서 누구 편의에 들어서 해주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예산이라든가 보조금, 수당이나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금년 7월 1일 재위탁 했는데요. 위탁단체는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앞으로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종사자들은 원장, 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는 9억 400만원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박재선 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운영 자금이나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항간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애인 쪽에서. 이번에도 행감 한다고 해서 저희들 메일로도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전에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책을 가졌던 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했더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행감에서 제대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에 7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 왔던 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재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가 지도, 감독은 조직운영이나 재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문제 발생 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팀에서 두 번 지도점검을 했었고, 또 도 주관으로 저희들이 해외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상 없이 시정조치를 몇 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7월 1일부터 5년간 할 건데요. 수시로 1년에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해서 그런 불만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보조금이 제대로 쓰

이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내부인사 문제로 다수 직원들이 복지관을 그만둔 일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복지관 직원들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직원 다 총원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총원은 바로 됐습니다. 예상외로

○조영식 위원

그래도 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도에 1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1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종사관이 제일 적은 복지관입니다.

○조영식 위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4명 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요. 혹시 그 복지관을 그만둔 직원들에 대해서 총원했지 않습니까? 방금 총원했다 했죠? 언제 총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2월 3월에 줬는데요. 2월에 3명, 3월에 2명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연가를 한 일주일 이주일 사용했습니다.

회사 의사 밝히고 그 기간에 공고를 해서 복지관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대단하시네요. 방금 박재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정상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영식 위원

좋습니다. 내부운영상 문제로 결국 장애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에서 수탁업체를 제재한다거나 권고한다거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행정에서 수탁업체에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협약할 때 지도, 감독, 평가까지 저희들이 2년 이내에 평가도 받게 돼있고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열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이야기하자면 군의 점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이행 시 3회 경고 받으면 해지되고요. 또 감사 수사 재판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 못 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2년 후에 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성적이 운영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방금 하신 말씀 올 7월 1일부로 재위탁 했죠, 5년간?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위탁사항을 명시한다는 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시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명시돼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군에서 할 수 있는 위탁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범위는 그 전반을 다 하죠. 복지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게 돼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장애인복지관이 아주 정상적으로 돼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 최고의 큰 건물이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는 민원이 많은데 정작 행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참 의아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까, 말을?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가서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이용자 불편은 없습니다.

○조영식 위원

좌우지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잘 협력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라고 관리, 감독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리고 정원 20명이고, 현원은 14명인데 원래 이 정도로 운영을 했었나요? 장애인복지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직원 종사자요?

○조영식 위원

예. 14명으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처음 시작할 때 종사자가 부족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재차로 물어본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이해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 언어재활사 작년에 10월 11월까지의 1명으로 돼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46페이지 직원 현황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명이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49페이지 2명은 오타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입니다. 22년도에 언어재활사 선생님 1분이었고요. 23년도에 언어

재활사 선생님이 2명으로 표기된 사항은 올 2월에 언어재활사 선생님도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1명, 이후에 채용된 선생님 1명 해서 총 인원이 2명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 3,286만 8,000원 해가지고 48페이지 보면 11월 1일부터 작년 11월 30일까지도 1명이었고, 2달 동안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계속 연속적으로 1명 있으면 1명, 2명 있으면 2명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차라리 2월달까지는 2명이었고 그 이후에 1명이었다고 하면 분리해서 기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사무감사 자료예요. 특히 인원이나 집행 부분은 신중히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를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더구나 인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위원들하고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에 인원을 그리고 답할 때는 쉽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특히 감사자료는 신중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도서지역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라고요. 금년에 4개 읍면 실시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4개 읍면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혹시 방문사업 하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서비스하는데 행정에서나 복지관에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부족하죠. 최소 인원이 가죠. 저희들이 봉사원을 모집해서 갑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인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지 모르겠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도 듣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을 더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이용대상자는 있는데 지금 말하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라든가 건강지원사업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를 통으로 세워놔서 적은 사업들은 사무관리비나 부기 없이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 부기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식 위원

각각의 프로그램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복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관계는 첫째는 관장이 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가라앉히고 과장님 가라앉히고 47페이지 보면 저 밑에 보면 가족평생교육지원에 공감과 치유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년 추진실적보고서에는 60명, 1,5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40명에 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위원장 박병수

잠깐만요.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이 1,500만원 예산으로 40명이 2박3일 다녀왔습니다. 제도권에 완도읍해서 10분 다녀왔고요. 도서 지역으로 해서 30명으로 해서 40명 다녀왔는데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었으나 60명 다녀왔던 사안은 섬이 아닌 전주 쪽 전라북도 쪽으로 탐방을 하다 보니 인원수는 많고 예산은 적은 범위에서 다녀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진실적보고서에서는 60명 1,500만원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0명이 질문요지가 40명이 1,500만원 들어서 제주를 갔다 왔단 말입니

다. 60명이 만약에 1,500만원 가지고 갔으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거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 어디가 60명 그렇게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주도로 2박3일 가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참여자 인원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물가상승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장소 선정

○조영식 위원

지난 추진실적보고서에서 장애인복지관 현장평가실시라고 했는데 혹시 실시했습니까? 장애인복지현장평가실시 평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했냐고요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했어요. 자체적으로

○조영식 위원

결과를 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또 지난 추진실적보고 시에 2,000만원으로 외부공모사업 연중으로 해서 10개 사업한다고 했는데 추진했습니까, 외부공모사업?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황양매 팀장 답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황양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금년도에 외부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5가지 사업에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13개과 사업이 선정이 돼서 복지관에서 1,6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영식 위원

장애인분들 눈높이에 맞는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수 공약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사업이 있었는데 조정이 되어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장애인 직업 재활 신청사업은 군수님 7기 때부터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분석을 했는데요. 사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이스팩하고 장갑, 면장갑 생산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6명 시작해서 지금 현재 7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했을 때 참여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완도군에서 재활 시설을 신축해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그 재활직업훈련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행정과 장애인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회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공약사항을 주민 배심원회의 올해 9월달에 해서 이렇게 갑자기 7기, 8기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게 배심원제 한 번으로 파기되고 변경되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참고로 말하면 그 공약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까지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주민배심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구성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영식 위원

그래서 한차례 배심원 회의를 해 가지고 공약을 파기시키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한차례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1년에 몇 번씩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7기, 8기 추진된 것이 상시적으로 행정에서 채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명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조영식 위원

조례도 파기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직업 생산품목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납품도 안 되고, 납품했다가도 불량품 있어서 반품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신축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신축을 하자 그러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된 겁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 군정질문 때 똑같은 질문을 주민복지과에 던졌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스팩 여러 가지 등 그때 당시 과장님께 품목을 잘 선별해서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활 시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올 초에 작년에 조례까지 발의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세게 물어보는 이유는 군수님 7기 공약사항이란 말입니다. 공약사업이 19억원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장애인들 표는 다 얻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7기 8기 두 번의 선거에 걸쳐서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올 9월달에 주민배심원 회의 공약 조정심의 물론 자료를 몇 번 했는가? 주민명단하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 부서나 또, 군수님이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실은 고민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장애인단체에서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조영식 위원

만약에 오늘날 행정 사무감사에 이걸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공약사항이고 뭐고 고민한 걸로 끝나고 없애버리고 쉽게 공약을 남발했다가 슬그머니 필요 없으면 취소시키고 파기해버리고 그러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건 아니죠. 장애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영식 위원

아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식 위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좌우지간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위원

공약사항까지 조정해서 추진한 만큼 내실 있게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그 공약사항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2명 종사자를 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또 이것을 늘이잖아요. 공약을 파기하고 재활 시설 신축한다고 해서 물론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원 늘려서 발달프로그램만 하고 신축은 기다리고 있고 작년도에도 어디 도암리에 하니 서부 어디에 하니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그런데 아예 백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백지화는 아니고 일단 장애복지관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신축이 꼭 필요하다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잘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행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양성평등이요?

○조인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한 2,000만원이요.

○조인호 위원

2,000만원이나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가 결성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협의회요?

○조인호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읍면에.....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완도군하고 노화읍하고 고금면 세 군데입니다, 협의회.

○조인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읍면은 왜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단체가 구성이 안 돼서 안 된 걸로 압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읍면장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인호 위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협의회 있으면 좋죠, 읍면에.

○조인호 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완도가 하나 되려면 여성단체 권익 신장을 하려면 여성단체가 읍면에 결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업무를 맡으면 과장 왔으니까 장단점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위원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이 행정에도 중요하다는마는 먼저 관내 여성단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노화에 있을 때 만들려다 못 만들고 후임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인호 위원

지금 3개 읍면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과거에 조정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서 읍면장들이 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9개 읍면에 이거를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읍면에서는 여성분들이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성단체가 잘된 곳은 여성들이 권익신장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그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행사를 하죠? 의회 승인받았으니까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본예산, 예산이요?

○조인호 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으니까 행사를 했

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죠.

○조인호 위원

주관은 여성단체 협의회 완도군하고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해됩니다.

○조인호 위원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돈 안 들어가니까 행사장 들어가면 서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행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했지만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은 긴급복지 기금 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인호 위원

2023년도 늘어났던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홍보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입원하면 병원 원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인호 위원

그것은 알고요. 당사자들이 요즘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병원에 갔으면 신청하세요. 그렇게 홍보는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장님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접수합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정식공문을 해서 아직도 위원들한테 아직도 병원에 가면 읍면장들 말고 위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홍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행정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읍면에 이장단 회의 한 달에 두 번 합니

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월 2회입니다.

○조인호 위원

월 2회죠? 2회 때마다 회의 다음 날은 방송을 하게끔 혹시나 이런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홍보해서 퇴원 해버리면 혜택을 못 받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죠.

○조인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읍면장들이 이장 회의 때나 전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센터는 지금 행복한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 직원들은 19명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12억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거기에는 언어 지원사업이 있고요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 문화이해와 다문화 교육센터가 있고 직원 및 고용지원을 하고 있고,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센터로 보조금을 주면 가족센터 내에 상근직원들이 다 운영합니다.

○박성규 위원

군 직영 지원사업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탁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잘 몰라요 저희들이 총 23종에 20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 직영이 7종에 1억 7,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5년 동안 보면 16종에 18억 7,800만원이 위탁을 주게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이런 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지금 가족센터 1군데에다가.

○박성규 위원

가족센터예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위탁지원이 가족센터 한 군데로 다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죠. 저희 과에서 지금.....

○박성규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고 실적에 대하여 혹시 알고 있는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친정 나들이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참여자가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은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규 위원

위탁기관이 행복한 쉼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거기가 성광교회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거기 소속의.....

○박성규 위원

16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센터에서는 대부분 14개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 사업이 12개 건이고요. 건강가정에 2건인데 건강가정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한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가족 세대 간 공감소통, 드림가족 봉사단, 또 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 국적별 모임 등 15종, 1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16종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거기에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코칭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이중언어, 가정환경조성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결혼이주여성 산후도우미 운영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유사하

거나 중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세부사항은 담당자가 설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담당자 일어서서 성명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지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 조윤지입니다. 여성 가족업무 전반을 보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중복사업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사업비로 저희가 총액 12억이 운영비랑 사업비 포함해서 나가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과 도비 매칭사업 군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특성화로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 가족환경, 결혼일자리 능력강화, 다문화이해교실, 다문화엄마학교, 산모도우미 운영까지는 국도비랑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남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한국어교육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초 저희 지역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도서지역민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는 군비사업도 노화, 생일, 신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해당 도서지역 읍면에서 실시하던 사업인데요. 코로나 거치면서 지금 준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 가족 코칭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에 국도비 사업이 자녀 언어발달사업이 언어발달 전문인

력 1명 가지고는 어려워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1명 더 추가 지원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전문인력이 도서 지역까지 출장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인력이 퇴사하고 나서 퇴사를 하니까 도서 지역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 방향을 바꿔서 도서민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언어코칭사로 채용을 해서 1대1로 다문화 도서지역 가정에 1대1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채용기준이 맞는 인력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인력이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민중에 보육교사자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양성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위탁사업 추진,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중앙지침에는 연 1회로 하기로 돼 있는데요. 군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위탁사업에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출근거 위탁사업의 금액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신청한 건 보조사업이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위탁사업의 산출근거는 위탁기관에서 신청

한대로 지원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규 위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탁 사업비.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정산은 12월 쫓던 금액에서 저희들이 정산 합니다.

○박성규 위원

정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탁 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죠.

○박성규 위원

검사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이런 사업들은 효과분석은 해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효과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박성규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이나 과다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역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문화 다

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가정이 골고루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60억 투입하여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관은 가용리길 구 소방센터 건물 뒤쪽에 진행돼 있고,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 3,143평방미터고요. 거기에 기구하고 사업내용은 다목적 소통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교육실 등이 설치돼있습니다. 현재 지금 3층 바닥 공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준공은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추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뭘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여름에 자재도 보급 안 됐고, 칸막이 하는데, 타일 바르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박성규 위원

타일 바르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는데 내년 6월달에 준공식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7월이요.

○박성규 위원

7월이요? 지금부터 앞으로 8개월 남았네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변경할 사항이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간 인테리어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차액으로 본체가 나오면 인테리어,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로 잡은 겁니다.

○박성규 위원

가족센터 운영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도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해남, 신안 이렇게 다 신축을 했거든요. 우리군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해서 다문화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복지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가 우려됩니다. 예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도 많고 직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복지사업이 시설물 짓기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에만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예산 낭비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간략하게 고독사 위험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고독사는 지난 6월에 지민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8월, 9월 40일간 거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32명 발굴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가족해체 아니면 정신질환, 아니면

신체적 질환 아니면 사회적 단절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박성규 위원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와의 연결이 부족하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특히 노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이주민, 장애인, 단거리이동자를 가리키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노년층은 사회적 연결을 잃기 쉬운 연령대 중 하나이며,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이 줄어들거나 사회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 노인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를 32번 했어요?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32명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32명 발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단계에 따른 정책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매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고독사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위험군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여 그들의 사회적 연계를 촉진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2명, 파견 1명

○위원장 박병수

기금조성의 출연금이 50억이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병수

위탁금 모금금액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있는가요? 아니면 배분 사업으로 끝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배분 사업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50억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60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자 수입까지 해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자 수입은 별도 운영비로 쓰고 있고, 50억은 출연금으로, 10억은 자체.....

○위원장 박병수

기탁금이 들어온 것을 남은 금액을 지금 예탁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60억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보면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했네요. 모금액은 4억 8,800이고, 줄어든 이 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모금액이요?

○위원장 박병수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재단에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서 모금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사업실적도 보면 손으로 셀 수 있는 13개 분야예요. 배분 사업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2명이 필요하고 또 파견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보훈회관을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행복복지재단사무실로 쓰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건 결정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에서 문의가 와서 제가 애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집행부하고 행복복지재단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사업명은 같아도 지원대상은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무튼, 이런 당초 설립목적은 그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예산도 기탁금도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고 과장님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직원 관계는 그전에도 직원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그래서 2명이었고, 직원 2명은 사무국장 경력이 안 돼서 승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은 예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두 명은 자체적으로 채용한 것은 파견 1명 해서 3명 지금까지 3명하고 있고요. 모금 활동 부진한 것은 대책 세워서 한번 모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직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13가지 배분 사업이 그런데 그 직원이 파견 2명이 필요한 얘기에요. 국장이 물론 기간이 안 됐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굳이 출연 동의를 받았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병수

출연 동의까지 기관이 달라요. 행복복지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이 있고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기탁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될 재단이에요. 준비까지 출연을 받고자 동의안을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무실도 좁다, 13개 사업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3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검토해서 많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기부채납 받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건물 일대를 사서 그때 당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안 맞아서 포기를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일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그쪽에 철거가 되면 큰 광장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계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오탈자라든지 숫자가 달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사항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팀의 김범일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팀의 김영지 팀장님입니다. 보육청소년팀의 김덕영 팀장님, 드림아동팀의 박영선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2022년 행정사무 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조인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확대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확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과다한 재

정부담으로 인해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내년 우리군 재정상황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보호 차량 동승자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영 중이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승자 인건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군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규 사회복지요원을 금년 1월에 개소당 1명씩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늘어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및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은 돌봄을 주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일반 저희 모든 군민들이 사용하는 병원처럼 어르신들의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요양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간단하게 종류로 본다면 병원하고 돌봄시설이죠? 그리고 의료법, 요양원 노인복지법 이런 행태로 볼 수 있겠고요? 관내 우리 노인복지 등록현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말씀하시죠?

○김양훈 위원 위원

예. 등록현황 이용 수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이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4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각 정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 총족률이 95%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있으면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청해요양원은 정원이 65명인데 현원 64명이고.

○김양훈 위원

통틀어서요, 전체적으로.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통틀어서 379명 정도.....

○김양훈 위원

감사자료 보면 355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법인 13개소 있는데 지금 금일 권역 요양병원시설 사업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금일 권역은 소망의 집을 중심으로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금일 권역 하면 금일, 금당, 생일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권역으로 묶으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지금 금당 행복의 집? 등록한 지 1년 됐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1년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에는 운영은 시설종사자들을 채용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계속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체에서 인원 채용에 대한 공고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을 확보를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금일 행복의 집은 기부자가 있으면 기부를 해주고, 청해요양원까지 위탁 줬는가요? 수탁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청해 복지원.

○김양훈 위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위탁, 수 위탁자랑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 부분에 있어서 1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금당면에 이장단 회의나 주요 사회단체장들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종사자 모집에 있어서 2022년 12월부터 해서 수시로 종사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장에 대해서는 면접을 지금 5명을 지금까지 했고, 간호조무사는 2명, 요양보호사는 6명까지 채용에 대한 면접을 했으나 이분들의 면접결과는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안 하거든요. 이

유가 뭐인가 하니 제가 금당에는 재가센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견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무자에 대해서는 야간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야간근무가 필수거든요. 야간근무가 필수인데 야간근무를 안 하면 안 되겠냐, 야간근무를 안 한다면 취직을 하는데 야간근무를 해서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당 행복의 집은 요양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동생활 가정으로 공동생활 시설로 돼 있거든요. 공동생활 시설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그 사람들의 급여, 이런 부분들이 미충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청해복지원에서 요양, 금당면에 있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의 결과 요양보호사 2명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을 확보했고, 간호조무사만 확보하면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금당면에 통틀어서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이 완료되면 조만간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기부자도 뭐라고 하냐면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운영이 처음부터 얘기 했을 때 기부하겠다고 해서 건물 지어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중지가 됐었어야 돼요.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위 수탁을 받은 청해복지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위 수탁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종사자는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지역 섬이다 보니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있겠죠. 있긴 있으나 그래도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수탁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언제까지라고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6월쯤이면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또 항상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변심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개원할 당시에 이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근무 못 하겠다 이런 최종통첩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 부분도 위 수탁을 줬기 때문에 위수탁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게끔 해줘야 돼요. 요양원에 대한 행정의 지도, 감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회계 처리 이런 부분, 시설자 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노인복지사 등록, 확보, 지도, 감독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공단에서는 등급판정만 하고 서비스비용, 심사 이렇게 등급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수가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김양훈 위원

10월 27일 한 방송사 뉴스에 의하면 고금

노양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 2021년 현장조사 실시결과 부정급여 청구가 적발돼서 페널티로 98일 업무정지 중징계를 맞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 고금 요양원 측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냐 98일에 대한 업무정지가 과하지 않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행정심판 결과 언제 나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12월 말쯤 아니면 내년 초 그때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김양훈 위원

지금 그쪽 관계자분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행정심판하는데 3년 동안 끌 수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 6개월 안이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안심을 시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단속하세요.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고금요양원 입소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현재 7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가 행정심판이 끝나면 업무

정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책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일차적인 입소자 대책은 고금요양원 측에서 전체적인 운영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때 행정이 나서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체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다면 98일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요양원은 업무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소자 71명은 타 기관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될 텐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게 문은 닫아야 됩니다.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처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이 어르신들을 수가청구를 안 하고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영이 정상화됐을 때 다시 전체적으로 수가청구를 하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고금 요양원 측에서는 이런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소정의 비용들을 매달 적립을 해나가는 거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영업정지가 지금 현재 됐어도 어르신들은 모시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거로 사료되지만 앞으로도 추이를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만약에 큰 무리가 생기면 관내 요양시설로 다른 시설로 어르신들을 모시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게 과장님 안 맞는 게 뭐냐면 거기서 요양보호사들이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위수탁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아야죠. 급여를 안 받고 어떻게 그분들을 모실 수가 있겠어

요. 그분들을 모시게 되면 거기에 관한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71명이라는 사람을 100일 동안 석 달 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 모든 걸 부담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안 하는 거죠. 종사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 받고 3개월 동안 월급 없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대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지금부터라도 아웃라인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잡혀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고금면 분들 7, 80% 되고, 나머지 타지 분들이 한 20% 정도 되죠? 그분들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쪽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속 타겠어요? 기다리고 있고, 정확하게 위 수탁자가 문제가 행정에서 같이 어떻게 입소를 시킬 것인지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요. 제시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 집으로 가시라 하면 맞겠어요? 다른 요양원도 이미 다 차서 있는데.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고금 요양원 측에서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지금 98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적립을 거의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김양훈 위원

한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3개월 운영비가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중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입소자들은 환자라고 고령자,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정확하게 적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건강보험공단이 관내 타 요양원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실시해 본 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는 하고 올해는 금당에 있는 재가센터를 했고 올해는 재가센터 위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재가센터는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요양원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 군데 고쳐서 짚어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완도군 전체적인 요양원을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예전부터 계속 고영상 과장님 계실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수조사를 해봐라. 잘못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편하게 모실 수 있게끔 해 보고 요양원 운영실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 그때도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뒤로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고로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현지 현장점검을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실태점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공단에서는 수가청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매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시정할 거 시정하고 잘 운영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보험공단에서 한 것은 예산쪽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감독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군에 대한 전체 요양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양원은 장기요양병원에서 지급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개인사업가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일종의 분류하자면.

○김양훈 위원

개인사업으로 봐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노인복지센터 시설지원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설지원사업 범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복지?

○김양훈 위원

예. 노인복지시설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시설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어디까지 해서 하냐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있거

든요.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노인 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저희들이 개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김양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기능 장비 보강사업 그거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 몇 개소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금일소망의 집, 그다음에 CCTV 이런 부분들하고 방범시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 12개소에 1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보강사업비로. 가족행복과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사회복지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과 도비국비해서 4억 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어디 요양원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모 요양원 정화조 설치사업 6,000만원, 또 한쪽은 리프트카 구입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지원 다 했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리프트카는 반납 적용을 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

는 위탁을 하고 있는 저희 군 시설이거든요?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자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전까지 과장님이 장기요양권은 개인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인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화조 6,000만원, 리프트카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일부만 했고 한쪽은 반납했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리프트카는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전반적인 부분이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아니고 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보강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정화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100% 군비지원을 한 게 아니라 요양원측에서도 자담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찌 보면 개인사업장 실사업장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어업인들 보면 와서 동네 하나만 해주라 해도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이고 어찌 보면 이익사업장들인데 항상 매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이 금년만 사회복지 예산이 22.75%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년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거죠. 고령자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사회복지비용은 꼭 필요하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비용만 늘어난 현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다음 건강한 청소년성장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성장을 위해서는 가족, 학교, 또 사회, 정부, 청소년 자신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예술체험을 위해서 공평한 사회분야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청소년시설과 관련 단체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시설은 7개 시설이 있고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중에 저희군 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4개이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민간, 원불교 종교시설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7개소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책자하고 많이 달라서요. 2023년 청소년지원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이나 단체가 지원해주는 게 22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

22종으로 돼서 예산만 해도 13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맞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김양훈 위원

7개소라 해서 놀랬어.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매년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2년에 한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를 받은 연도에는 저희가 운영 지도점검을 평가받은 걸로 갈음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좀 더 할 수는 없어요?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현실적으로 상하반기 운영한다는 게 업무가 좀 한산하면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 업무처리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설이나 단체현황을 살펴 보니까 유관단체 중에 청소년이용자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여기 이용자를 안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했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는 1년 내에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주는 것을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용자 수가 3개 단체에는 하나도 없어요. 저기 유관단체 저쪽에서 지원된 돈만 3개 단체에 1억원이라는 보조금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8,200, 1억원이나 있어요. 이용자 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저 부분도 예산이 1억이에요. 저런 부분 정산은 다 하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단체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금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프로그램 8,000만원 세워진 것은 3개 단체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개 단체는 우리가 단체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8,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상 편집에 있어서 칸을 잘못 맞춰서 1개 단체에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책자이고 이렇게 다 됐는데 저런 걸 본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아요. 책자 만들 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용자도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요. 저런 부분은 정산서를 정확히 한다고 그랬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정산서는 내일 오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내일 오전까지는 충분하겠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올해는 사업이 아직 덜 끝나서 되고 있고, 22년은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김양훈 위원

다 끝났으면 내일 오전까지 충분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오늘까지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뭐한 것 같아서 22년도 얘기한 거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부분까지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하면 줄 수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최대한 1, 2일 시간을 주면.....

○김양훈 위원

정산됐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모레 오전 중으로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김양훈 위원

나머지 모든 부분의 사업들도 잘 점검해서 아까 고금요양원도 마찬가지로 금당 진행 못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나이 드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피해가 없도록 잘 정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 있죠? 시니어하고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 하는 거 하고 분간해서 인원수하고 우리 예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23년 예산을..... 잠깐만요. 23년 노인 일자리 총 사업은 9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완도 시니어에서 사업 배정을 하고 있는 게 공익활동은 522명, 사회서비스업은 213명, 시장에 50명, 취업알선 50명, 이렇게 해서 840명이 2023년 참여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는 지금 현재 749명으로써 공익활동이 600명, 사회서비스업이 99명, 시장에는 9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정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인구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배분이 된 것 같고, 노인일자리,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운영하는 읍면 노인일자리 배정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저희군에서 배분을 하는데 노인회나,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통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전체적인 세부분이나,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니어하고 완도군 노인지회

에서 하는 것하고 액수하고 인원수가 차이난 부분이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까지 2022년까지는 공익활동형이 대부분 노인회에서는 공익활동을 해 왔었고, 2023년부터 노인회 측에서 왜 우리도 사회서비스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해서 그전에는 사회서비스형을 대한노인회에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배정을 배제를 했었는데 23년부터는 사회서비스업도 배정을 해주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서비스형을 배정을 균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수행기관중에서도, 대한노인회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익활동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알선형이 시니어로 많이 배분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전에 노인회에서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사회서비스형, 이 부분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노인회측에서 제가 알기로 저희가 2022년은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분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노인회는 공익형 위주로 하겠다. 그 위주로 노인일자리 배정을 해주라 해서 공익형 위주로 갔었고,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 더 많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이 확실하게 늘어난 건 올해 추가분이 늘어났고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확대 시행되면서 내년부

터는 사회서비스형이 좀 확대 시행돼서 배정 인원이 많은데 사회서비스형이 자체가 배분되는 인력이 작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수당은 공공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수당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시간의 차이가. 사회서비스 좀 많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공익형은 30시간 한다면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월 60시간 배가 많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구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조인호 위원

과장님, 시니어는 전문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낡되도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노인분회에서 하는 일자리 있죠?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소외 안 받게끔 그리고 업무를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인분회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안 가게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잘 아시면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사항이 많

이 있어서 군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가 봅니다.

○조인호 위원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어른들 기분들 잘 맞춰서 잘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완도형 고령자주택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도리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번지수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중도리 760-1번지 옛날 초등학교

○박성규 위원

초등학교부지 말하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성규 위원

아직 건물 시작 안 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초등학교 옆에 건물 짓고 있는데 무슨 건물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사무실입니다.

○박성규 위원

사무실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성규 위원

지금 예산이 492억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성규 위원

100실 이내로 짓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100호 이내로 이건 예상치입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호수를 사업규모를 맞춰야 돼서.

○박성규 위원

100호 이내로 짓는다고 했으니까 대충 평수는 얼마 정도 크기로 지을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평수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세대당 평수 1인형 있고, 부부형이 있거든요. 부부형이 있는데 1인형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자료가 구체적으로 몇 평을 하겠다는 그 자료는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하는데 그 설계단계가 아니어서 예상치만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질문이 어려우시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복지시설팀장 김영지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김영지입니다. 1인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규모를 7평 내외로 했고 2인은 15평 내외로 공모사업신청을 했었거든요. LH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재구성을 하고 평가해서 평수가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규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492억인데 평수가 7평, 10평이면 예를 들어서 평당 하든지 1실에 내가 봤을 때 한 7억, 8억 정도가 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 부분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까지 같이 건설이 됩니다.

○박성규 위원

사회복지시설까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사회복지시설까지 같이

○박성규 위원

그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건물 우성아파트라던지 쌍용에서 짓는 것도 5억이면 들어가는데 30평이 넘는데 들어가는데 계산해보니까 7억, 8억씩 들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 부분은 50년간 운영하는 LH하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박성규 위원

그리고 부지가 어르신들인데 버스로 왔다갔다 하겠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여기 공동주택이 되면 거기는 생활주거시설로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가 별도로 위탁도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로써 인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 이런 부분들도 향후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그 안에서 어르신들은 시내 나올 필요 없이 거기서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식, 여가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 시설입니다.

○박성규 위원

군청부지 주차장도 부지가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외곽지역에 고립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사정리는 시내권에 인접한 부락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서.

○박성규 위원

과장님 사업이 2021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성규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감사자료에 났듯이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2027년 12월 준공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중도리 760-1번지로 구 초등학교부지이고 사업비는 492억원 입니다. 사업규모로써는 공동주택을 100호 이내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완도군과 LH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도 LH와 협의 한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올해에는 2,3차 협의 사업성분석 말고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미비점이 사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완도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택 건립에 있어서는 LH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9월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LH본사에 갔는데 그때

한창 국정감사기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사업성 재분석을 실시하라는 국정감사 지시사항에 있어서 그 지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재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LH에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LH하고 완도군이 진행한 거, 수요조사 이런 것을 참고자료만 하지 직접 시행 설문조사에서부터 LH에서 직접 해서 이런 사업성 재분석을 하고 있는 차나이고 그 결과가 12월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만 해도 9월까지 기본협약을 완료, 설계 공모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틀어져서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LH 사정도 있고 LH에서 이것을 해줘야 저희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기본협약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일정 미정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일정을 미정이라는 것은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미정이고 합니다. 이걸 진행을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정 같이 진행된 사업이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늦어지긴 합니다마는 점차적

으로 저희가 진행을 말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 사업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성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더디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 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추진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미진 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건립 이후에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 틀은 고령자 주택에 입주선정조건이 6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소득층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고시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갈 사항입니다.

○박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협약과 실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 협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업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관련입니다. 위탁사업으로 군수 공약 사항인데 우리 현재 돌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요일에 비해서 돌봄교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혹시 읍면별로 수요일에 따른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돌봄에 대해서 그 부족현황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추진을 공약 사항으로 돼 있는데 돌봄사업은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두 부분으로 양분화돼 있거든요. 양분화돼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돌봄을 시행을 하고 복지부, 즉 우리 지자체에서는 마을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돌봄에서는 학교돌봄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지만 앞으로 학교돌봄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저희 완도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협의를 해 본 결과 학교돌봄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구체화를 할 생

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측에서는 마을돌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현재 자료를 공약사항이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278명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보겠다. 우리도 복지부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를 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축에 건물 내에 1개소를 다함께 돌봄센터할 계획인데 가족센터가 건립이 일정에 중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 가족센터가 돌봄센터가 운영이 중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나 이용률에 보면 50.6%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렇게 이용돌봄을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0%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50%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현재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완도군 같은 경우 수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애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학교에

서 돌봄을 확대하는 게 약간 효과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렇죠.

○지민 위원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돌봄수요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 확대가 불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인력 문제, 돌봄센터를 하려면 예산 이런 부분이 아직 교육부에서 뒷받침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운영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당초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인구일자리에서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과로 이관돼서 저희과가 돌봄교실 확대 공약사항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위원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줘도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 지원사항입니다.

○지민 위원

교육부 지원사항인데 혹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보셨는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학교돌봄을, 학교돌봄을 군비로 지원은 어려워요.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축중인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운영합니다.

○지민 위원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규모는 66평방미터 이상을 하면은 돌봄센터를 하고 있고 저희 인원은 저희가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이용기준은 초등학교입니다.

○지민 위원

기준은 초등학교이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20명을 대상으로 정원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이죠.

○지민 위원

여기에 돌봄센터의 운영은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비슷하다고 봐야죠.

○지민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민 위원

책자 내용을 보니까 24년도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하면서 같이 공간을 조성을 하고, 준공 후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가족센터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는 하나의 분양공간만 줍니다. 거기에 대한 가족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배치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하지 이렇게 고치고 이게 아니라 가족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공간, 활동공간 이걸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업 성격이 좀 달라요. 가족센터 신축하는 신축할 수 있는 그 분야하고, 가족돌봄센터에서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주는 거죠, 저희들한테. 공간조성을 하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민 위원

가족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거에 네모반듯한 틀만 있는데 거기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달랑 사무실만 줍니다.

○지민 위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혹시 사업비가 중복해서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민 위원

일단 돌봄에 대해서 수요파악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떠한 형태의 돌봄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제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밥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저도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밥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

습이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급간식, 놀이공간, 학습공간 제공이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돌봄센터도 보면 프로그램운영이 숙제학습 지원하고 급간식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민 위원

이거는 방과 후에 돌봄센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아기 키워보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아팠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아팠을 때 부모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아픈 아이 병원 데려가주기 이런 돌봄 사업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된다가나 하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고, 돌봄지원 하는데 있어서 엄마들 말도 듣고 학부모님들 말도 들어서 어떻게 필요한지 애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오잖아요. 돌봄시설까지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가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후에 저녁식사라든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공부에 해주기는 하나 낮 시간대에 아픈 아이 돌봐주기라든지 돌봄 시설도 하나쯤 있었으면 어땠는지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시에 고려해서 학부모들의 유형사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되는 맞춤형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파악도 하시고 어떻게 필요할지 파악하셔서 가족센터 준공 후에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물품 지원을 해주죠? 전자제품 같은 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혹시 공기청정기가 있던데 언제쯤이었을까요? 올해 사업은 아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코로나 시기에.....

○지민 위원

한 2, 3년 되었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2년 정도

○지민 위원

2년 정도. 그때 공기청정기 넣어줬을 때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공기청정기는 물품구매로 들어가거든요.

○지민 위원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두 세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줘야 돼요. 서비스부분까지는 같이 계약을 안 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필터부분에 대해서는 AS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간은 해줘야 되고, 나머지 2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군 이 예산을 세워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를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

금 현재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2022년에 2년이 경과가 돼서 그 필터를 교체가 끝났거든요. 교체는 끝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해서 업체에서 1년간 더 유예를 해서 연장을 해서 필터를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아직까지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 이런 부분은 아직은 양호합니다.

○지민 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작년에, 아니요. 올해. 2023년.

○지민 위원

일단 자료화면 한번 올려 봐주실래요? 현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운영을 안.....

○지민 위원

제가 경로당을 참 많이 다녀요. 예전부터 많이 다니는데 청정기가 있는 모습은 많이 봤거든요. 제대로 꽃혀져 있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물품이 올라가있거나 옷을 걸어놓거나 이런 부분을 거의 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저거는 현재 필터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올해 3월달에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 것은 일주일 전에 찍었던 겁니다. 올해 필터교환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서비스에서 올해까지 해서 올 여름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지민 위원

저기 한번 필터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하

느냐가 전화가 와서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확인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라든지 정말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좋은 물품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잘 써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형가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개가 계속 들어가게만 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쓰고 고장이 났는데 과에서만 감당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잖아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그 팀의 팀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폐가전이다 못 쓰는 거라고 그러면 빼내주시고 누군가는 신경을 쓰고 주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빼주면 몇 년 동안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경로당에 계속 모아져 있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걸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각 읍면에 매년 경로당 비품 전수조사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폐기처분 할 것을 폐기를 해라,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읍면에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큰 가전제품 같은 경

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가 되는 제품이 아니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시면서 눈에 보일 때 마다 해주시면 몇 년 동안 오랫동안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위원님들께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남 경제팀장입니다. 윤세환 에너지 팀장입니다. 오문석 교통팀장입니다. 김정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업선단 전용부두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2023년 전용부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두확장공사를 실시하여 928 제곱미터를 준공하였고, 쇄빙탑 1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8일 완도군 연근의 조업 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요즘은 고등어 하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 신청 방법 개선책으로 지류 상품권 가맹점 중 카드가맹점 등록이 안 된 곳을 파악하여 카드단말기, 농협, BC카드 가맹점과 상품권 카드가맹점 등록을 권장하였으며 카드가맹점 등록 시 지류형 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환전해야 할 수 있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하고 지류상품권 가맹점 신청 시 카드가맹점을 동시에 신청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바우처 등록개선방안 마련으로 바우처 등록 시 읍면사무소 교통 및 복지담당자를 통해 전남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도와 신청의 노력의 열음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안농협 한정면허 반납에 따른 운행계획에 대해 2022년 12월에 한정면허 소실 보조금 관련 업무협의를 마치고 소안농협버스를 정상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일장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채용방안마련에 대하여

2022년 12월 교통팀장이 지민위원님을 면담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관리 대책방안 마련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경제교통과로 대상 시설물에 따라 업무분장을 완료하였으며 경제교통과에서 총괄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며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 보수 부분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통편의 개선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버스승강장 7개소수를 교체하였으며, 약산 장용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승강장 앞 버스주차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 지난 겨울철에는 동장군 대피소 5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동킥보드 단속 조례 건의는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조인호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2023년 1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금액 하향 조정 건의는 전남도청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금액 하향 조정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화 전통시장 임대계약 연장 및 활성화 권고는 노화읍사무소와 점포임대연장에 관련하여 사전협의하였으며 점포 임대기간을 총 10년으로 하되 그 안에서 갱신횟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2023년 9월 25일 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한 거하고 잘못된 거하고 건의사항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몇 년 고생 끝에 시행 됐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조영식 위원

몇 년 시행됐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두 달이나 지났는데 만족하시던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교통

택시기사님들은 편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매일 파악을 해 보는데 택시종사자나 이용하는 군민 아마 지역상가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어서 잘했다고 잘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완도행복충전소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당초 계획은 터미널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이었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잠깐만 지금 질문하신 것이?

○조영식 위원

완도 행복충전소 건립공사 55페이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당초 지역개발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저허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조영식 위원

예. 위치가 어디냐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현대아파트 앞

○조영식 위원

혹시 주차대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공용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106대를 주차하고 있고 이게 되면 212대를

○조영식 위원

예. 212면이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2023년은 올해 1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설계만 마무리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내일 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조영식 위원

내일 설명회 합니까? 그러면 내년 12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장애인 관련 인증이 문제가 남아있습시다마는 가능하면 12월말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공사라는 게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조영식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책자에 보니까 2023년 12월 준공으로 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7페이지 주요관광사업으로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전부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당초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는데 버스터미널을 주차타워로 만들고 하려 했는데 거기에 개인소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가를 지어주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못하고 한전부지 읍사무소 앞으로 현재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발주가 PF로 하다 보니까 발주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럼 늦어지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지금 내년까지 사업기간은 사업은 내년까지로.....

○조영식 위원

내년 12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일단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단정할 순 없지만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선 2024년 5월 공사계약 착공이라 되어 있고, 33억원 들어가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33억원이 투입되는 예정인 사업이고 또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틀리고 추진실적보고 때 틀리고 아무리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분장이 됐다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이 업무는 처음부터 저희들 업무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럼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더 한소리를 드려야 되겠네요. 업무보고 때 틀리고, 추진실적보고 때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틀리고 너무 계획성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당초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계획하고 군비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한정이 돼있는데 주차를 처음에 3단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주차면수가 안 나오니까 3층 4단으로 올리다보니까 군비가 늘어나게 된 설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중에 군비가 늘어나니까 자꾸 시기를 늦춰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올릴 때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 작성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네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인 생각이에요. 행정이 자꾸 이런 식이니까 군민과 민원인들 대하는 공직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자꾸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민원인들이? 착공 공사 준공이라는 다른 거 빼고 시행 빼고 준공만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언제라고 이야기 할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 가능한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당초 그쪽에 추진하려고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구 다도해상 국립관광사무소 320평 부지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한 번 더 추진해보려고 하다가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조영식 위원

시인하죠, 늦어진 거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65페이지 농공단지매각 대금징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3개 업체인데 올해는 2개 업체네요. 65페이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현재 2개 업체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1개 업체는 잘 처리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올 7월 이후로 인수 받아가지고 그전 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상 저희들은 2건으로 받았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잘 처리 됐기 때문에 2건으로 올라온 거죠? 작년엔 3건이었는데 어차피 주관 부서면은 자꾸 자료 어디에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는 자제해주십시오. 주식회사 부 땡땡 해양수산이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이자도 많지만, 연체이자도 아주 많아요. 보니까 분납해서 납입기간도 2020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정납부가 안 났을 때 계약 해지하려는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저희들 하단에 향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완도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출발홈이 눈에 잘 띄게 안내판 및 전자형 시계로 바뀌보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했습니다. 준비한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다음 자료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전에 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왼쪽이었죠? 방문해봤습니다. 어제에도 다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과장님 주민편의를 위해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 정도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인가 확보를 했거든요? 터미널 사장님이 다른 게 더 급한

게 먼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추진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했던 내용으로 예산을 1,000만원 해놓고 터미널 일곱 분인가 되는 이사님들이 이것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걸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 터미널 편의시설확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어찌됐든 1년 전에 군정질의 할 때나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 받을만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까지 확보했다면요? 그런데 왜 터미널 대표이사가 다른 거 하자고 했다 해서 위원이 질문하고 매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을 가지고 1년 내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산만 추후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더 아쉽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아니면 몇 개월 후에 군정질의 때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터미널은 주민과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관문이니 쾌적한 터미널환경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매년 체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고령운전자 운전미수

로 크고, 작은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속초 횡단보도에서 80대 운전자가 3명을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은 사망, 1명은 중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실시하는데, 올해 우리군 자진반납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58명입니다.

○조영식 위원

58이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가 모든 지원을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여유 있게 예산 책정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진반납제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각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읍면에. 반납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20만원입니다.

○조영식 위원

일회성으로 끝인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러죠.

○조영식 위원

고령이라는 이유로 면허증을 반납하고 차가 있다가 없으면 크게 불편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일회성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주면 더 좋죠.

○조영식 위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주시고 완도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법규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혹시 성심세탁소 앞에 택시 승강장 아시죠? 성심세탁, 장터 성심세탁소 앞에 택시승강장.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택시 승강장은 본적이 없는데요.

○조영식 위원

그러면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5일 대구상회와 성심세탁 앞에 택시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표지판 아십니까?

○조영식 위원

표지판.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승강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표지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영식 위원

그렇죠? 최근에 군민들이 민원 제기하길래 거기에는 장날에도 거의 무용지물이고 그렇죠? 평상시에는 버스터미널하고 너무 가까워서 택시승강장으로 제구실을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바다 풍경이나 1억 조 식당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 있는 데 있죠? 해안가. 거기로 이설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주도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택시기사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를 안 하거든요. 택시기사들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완도 읍내 지역에 골고루 주차돼있어라. 정차를. 합시다마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으로 옮기는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거기로 하면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야간에는 그쪽에 식당 밀집 지역이 많아가지고 해안가 승객들이 많다네요. 군민제보 민원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경제 교통과에서도.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농공단지관계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최정욱 위원

예. 인구 일자리 관련과 농공단지 새로운 제3의 지역을 군수님께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은 일자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경제교통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데, 맞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 다 끝났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젊은 청년들이나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요. 제가 그때 군수님께 제안했던 거는 지금의 어떤 제조업을 하려 해도 이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필요한 인력을 하려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좋은 제조업이나 제품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유치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빨리 그걸 가지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는 제조업에 많이 있거든요. 제조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분양을 이렇게 보면 보통 600평에 1,000평 그렇죠? 이 투자로 하면 보통 농공단지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설과 최하가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젊은 청년들이 사업구상이나 아이템이 있어도 투자할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설을 투자를 해서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분양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는 제3의 농공단지 말하자면 200평의 300평 이라도 분양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소자본 갖고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가족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이럴 때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공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때는 세세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위원님 질의하신 경우는 2, 300평짜리 분양에는 소규모 농공단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최정욱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완도는 완도농공단지, 죽청농공단지, 생물산업단지 해서 3개가 있거든요? 거기가 20만평이 조성됐습니다. 업체는 147개 정도 되는데 현재 분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를 구할 수 있냐? 그래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년이라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마 제3부지 알아보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쨌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업무보고 때 넣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과장님이 바뀌지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으면 어떤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앞전에 군수님께

말씀하실 때 저도 나름대로 검토 해봤거든요? 실제 토목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옛날같이 바다를 매립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4차선 접근성에 좋은. 지역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군외면 불목리하고 영풍리 그쪽 들녘 있거든요? 이런 지역이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부적인 검토 해서 기본계획 아니 업무보고 때 포함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제가 일해 보면 추진력이 좋아서 바로바로 해결하시더라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감사합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이라는 게 그 자리라는 게 항상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자 이런 생각으로 제안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더 보충하자면 과장님이 좀 더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외국인력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요. 제조업 자체는 외국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만큼 일할 사람들이 어렵고 도 제조업 자체가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정말 가족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면 아마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금당 전기버스 있죠? 당초에 25인승 한다고 했는데 몇 인승 들어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버스는 분명히 25인승 주문했습니다, 의자가. 25인승 맞습니다.

○조인호 위원

작은 게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 25인승 저번에 발주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발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거리가 뭐가 있냐면 금당 주민들은 금당 거라고 텃세를 한 가 봐요. 충분한 충도나 신도나 이런 섬에서 나가신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주 과장님이니까 금당에 출장을 가던지 해 가지고 섬사람들 사는 거 같이 공동으로 쓰게끔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작년에 원래 차량 연수가 남은 건데 15인, 25인승인데 의자가 15개밖에 없다 하고 노후화 됐다 해서 조인호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상황파악 하라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부족한 예산 확보해서 전기차 구매한 거거든요? 주유소가 없는 지역에서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면에 출장 보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생일이 아직도 경유 쓰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조인호 위원

전기차로 빨리 바꾸세요. 1년이면 기름값이 1억이 넘게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알겠습니다. 주유소가 없는 지역은 전기차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도군 무료버스운영에 관련해서요. 올해부터 완도군 무료버스 전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료로 시작하는 게 이용객은 많이 늘었습니까? 책자에는 많이 늘었던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기사하고 회사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면 25, 30% 이용객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많이 늘었네요. 무료버스 시행으로 완도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에서 8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한쪽에선 감사 이쪽 자료는 8억인데 저쪽은 7억 7,00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전액이 전부 다 군비에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김양훈 위원

재정사업도 우리군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군민들 보편적 복지시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앞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기름은 해남에서 넣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어떤 거 말씀이신지?

○김양훈 위원

기름, 해남에서 버스들이 넣는 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아, 해남이요?

○김양훈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앞전에 한번 지적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완도교통에서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완도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완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남이 남창이 완도보다 기름값이 60, 70원 더 싼겁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1년에 17만리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예산이 1,500만원이 돼버리고 차이가. 그리고 종점에서 차를 승객이 있으면 기름을 못 넣지 않습니까? 종점에 있을 때 기름을 넣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완도에서는 버스터미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저쪽까지 기름 넣고 다시 오는 것이 자기들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지역에서 넣어야 되지 않냐 가격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모든 지원은 완도군에서 하는데 기름을 해남에서 넣는다고 하면 해남만 살려주

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부터 해 가지고 이게 본인들은 안 한다고 하겠지만 옆에 같은 업종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기름값이 싸다곤 하겠지만 그래도 완도에서 넣는 게 맞죠. 기름값 차이는 많이 나더라도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군에서 유가보조금 다 지원하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김양훈 위원

그게 얼마나 된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유가보조금이 보통 1년에 8억에서 10억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도 그렇죠? 혹시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유류 금액카드 군에서 다 사용한가요? 공공차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운수업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김양훈 위원

행정도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거기에서 청구 들어온 대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양훈 위원

타 용도로 사용 못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김양훈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잘 해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군으로 감안해도 기름도 팔다 보면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우리군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타지 타 시군에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안 되면 그쪽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보세요. 완도가 기름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이미 다 소문나 있는 거잖아요. 다 푹푹 뭉쳐있다고 말은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확인하시고 업체 측에나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관련이거든요. 무료버스 시행하고 탑승자가 30%정도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예전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작년엔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관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가 바로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행복도우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는 노선버스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거는 인구일자리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냐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주 5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일마다 하루씩 채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저것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다른 시군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승차도우미도 하고 있고 또 장날 어르신들이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면 버스 정류장까지 배달을 해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도 연계가 되어있고 자원봉사단체 그쪽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한데 검토 결과 중에 어떤 쪽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일자리로 채용하기에는 5일에 한 번씩 채용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회단체에 일정 부분 사업계획에 포함 시켜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사회단체예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제가 올해 추석에 추석대목 장에 2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버스정류장에서?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대목장이

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 계시는데 약간 커브가 지다보니까 길 건너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버스가 보이면 어르신들이 길 한복판까지 오셔가지고 줄서 있다가 버스가 앞에 오면 와르르 몰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짐까지 있고 그러는데. 올라가시는 것도 힘든데 서로 먼저 타시겠다고 싸우시니까 도우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5일장이 6번이잖아요? 12개월을 합하면 72일 정도 되는데 장날만이라도 또 오전 시간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검토를 세밀하게 확실하게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꼭 방안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이용률 방금 말씀하셨고 택시 하시는 분들 무료버스가 시행되니까 일반 군민들은 참 좋은 현상인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무료버스라고 하니까 18가지의 완도군에서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의 품목에 대해서 꼭 보내오신 게 있어요. 병원 버스도 무료, 요양 시설도 무료, 교회도 무료 승용차는 갈수록 늘어나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 요즘에 또 난대수목원에서 해양치유까지 무료 엄청 무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이 타격이 많이 클 수도 있을 것 같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 무료버스 했습니 다마는. 청송에도 가서 보고 당초에 택시기사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큰

타격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나온 어르신들이 완도읍으로 많이 나온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택시기사님들이 앞전에 그런 말씀하길래요. 진짜 손해 본 게 있으면 자료를 내놔라. 저희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무료버스 해가지고 영업에 손실을 봤다는 근거를 내놓으면 제가 검토 해보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지민 위원

다른 거 바우처택시 관련해가지고 여쭙볼게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현재 완도가 20대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20대입니다. 바우처택시.

○지민 위원

20대죠.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 운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민 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20대가 계속 20대로만 지정이 돼서 가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지금 전남에서 20대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진도 같은 데는 다섯 대입니다. 저희도 20대 적은 대수가 아니고 거의 다 군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수를 많이 늘린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바우처택시. 장애인택시 말고 일반 바우처택시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이제 20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이 계속 변경되지 않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도가 택시가 여러 대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몇 대더라? 100 몇 대였는가. 택시가 꽤 많은데 이분들이 한번 지정이 된 거 그 20대만 해서 바우처택시를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돌아가면서 바우처택시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내부지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민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보셔가지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민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교통팀장 오문석

교통팀장 오문석입니다. 제가 바우처 택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지정 숫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하면 많게는 다른 데는 뭐 3, 40대 이렇게 풀어진 데도 있고 또 적게는 뭐 5, 6대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우처 택시를 많이 지정하게 되면 그만큼 호출을 적게 받게 돼서 사실 기사들의 수입에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이제 특정일만 하면 그분들은 일거리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

아가지고 이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했고 그걸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안에 호출수신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 부착해야 되고 이 호출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전남도에서 이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호출을 받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서로 나눠서 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인류,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

그래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택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안군에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택시업계 손실보상금을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지민 위원

우리군은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봤다

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리고 신안이 했다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래도 무료버스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정거장이나 두정거장이나 이런 부분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 하더라고요. 걷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택시를 탔던 분들도 버스가 고금역이라는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금방금방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집에서 기다리고 택시 기다리고 또 내려와서 타고 또 전화로 콜하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드니까 옛날부터 무료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타지 않겠나.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완도읍은 거의 한 시간 코스로 가거든요?

○지민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런데 택시 손님하고 버스 손님은 저희들은 분명히 틀리다고 봅니다. 이걸 노선 버스와 마을 승강장에 내리지 자기 집까지 가는 건 택시 타거든요 단 고금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고금하고 약산 쪽이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30분을 가고 있는 것을 1시간으로 늦출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노선을 서서히 바꿔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택시 외부 광고 래핑 광고료도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현재 월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전체 1년 예산은 1억2천 보고 있습니다만.....

○지민 위원

한 대당 월에 7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민 위원

7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7만원 정도에서 12달.....

○지민 위원

혹시 광고료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의회에서 협조만 해주시고 예산만 좀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죠

○지민 위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배차 간격을 조금 늘린다는 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버스는 지금 현재 이 대수로 완도권은 거의 1시간 코스가 지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예. 그리고 혹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충전이 되는 택시 승차복지카드를 만드는 그런 거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광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100원 택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 별도로 일반 어르신들한테 충전 카드를 발급해보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무료버스 운행과 함께 택시요금인상으로 해서 한편으로 우리 군민들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무료버스 시행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됐었다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혹시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요? 혹시 조금 더 소통을 한번 더 해봐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주차장 관리대책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개포리 주차 타워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82면이죠? 그러면 그 주차장 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그 개포리 지역은?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지금 현재 주차대수보다 배로 늘어나거든요? 완도읍사무소 앞에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병수

예. 82면 한다는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일단 지금 현재보다는 현재 46대 주차되더라고요. 노면에 주차하는 것이? 그래서 82면 까지도

○위원장 박병수

예. 몇층까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3층 4단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3층 4단 여기에 82면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장애인 관계 때문에 워낙 BF인증 때문에 주차 대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과장님 시내를 돌아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앞으로 우성아파트 쪽하고 무등아파트 쪽에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죠? 더 심각한 데는 우성아파트쪽 지금 수산물 종합시장 있지 또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까지 들어서고 또 우성아파트에서는 2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부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이상은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혹시 그쪽 수협 앞에 공간은 우리군 땅인가요? 어디 수협 땅인가요? 건어물 수협제빙공장 있는 데 그 옆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 물양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수

물양장 말고 그 어디입니까?

○조영식 위원

수협하고 사이.

○위원장 박병수

그 사이 그건 우리군 땅인가요? 수협 땅인

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일단 도로 물양장 그 바닷가 쪽은 다 우리
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항으로, 항만시설로 물양장이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예. 그건 도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것도 다 도에서 사용 승인받아가지고 건
물 수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차라리 주차 그쪽에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그쪽에 주차타워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그건 항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고 앞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바 같이 그쪽
이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쪽을 돌아보고
부지를 매입을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평가액으로 우리는 구입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길 건
너편에 부지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감정
평가로는 우리가 매입하기 어렵다 현재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거로 보고 있
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
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무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
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
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
포합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
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보고
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정우자 팀장님입니다. 관광
시설팀 광경주 팀장님입니다. 관광상품개발팀
송지영 팀장님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 황용태
팀장님입니다. 위생관리팀 지경란 팀장님입니
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관광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
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 요구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굿모닝 기자님의 정보 공개 청구 다수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구 고충 민원 처리 결과를 저희가 안내를 해줬고요. 구는 정보 부존재 처리하고 축제 위원에서 정보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 협의체 또는 관광재단 설립 공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내용은 축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이 단기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음에 dmo 또는 관광 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의 절차를 진행했고 2013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완도 관광협회의 설립 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안 이목 생태공원 체험장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리자가 없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에 쓰레기만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있다는 말씀과 체험 공간을 데크로 설치하여 의자 및 사진찍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안 이목생태 탐방로 1부터 3구간에 저희가 5월에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소안면 자활 근로자가 매일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도 요트관리장 관리사무소 임대제도개선입니다. 요트 협회 개인사무실로 악용 소지, 건물의 경미한 보수 및 수리의 임차 기간 자부담 처리를 말씀해 주셨습

니다. 조치사항으로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도어락 잠금문을 열쇠 잠금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요트 계류장 관리 사무소 개인 사무실 용도 사용방지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협회 연장대부계약서도 관리의무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인센티브 지원 금액에 비해 관광객 총 지출액이 적은 경우가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인센티브 지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단체관광계획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관광객 지출 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에 두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지출 총액에 절반을 감액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지급 타시군에 비해 낮아 경쟁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내외국 2,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1,000원을 향상 하였고, 지원조건으로 반드시 특산품판매장 축제장 방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후면 도로 관리 미흡 개선입니다. 기존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이 차량증가와 공사장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 4월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하였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G1 주차장내 장애인 주차시설 일부 개선 방안입니다. 2022년 시설된 장애인 주차 28면이 해수욕장 입구에만 설치됨에 따라 다른 시설 이용시 불편을 초래함으로 일부 이설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도군 주차장 조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4% 이상 확보에 따라 최소 23면 전체 필요

검토를 완료하였고, 4면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보고 수산물축제 운영 개선입니다. 바다체험 상품 개발은 양호하나 축제 네이밍 관련 정체성 문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과거 프로그램만 유지하는 실정, 추진위 축제 기관 위촉 및 해촉 방법으로 위원 역량부족, 개발운영 미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2000년 1월 11일 축제추진위원회 위촉을 했고요. 2013년 1월 13일 역량강화를 위해 1박2일 체험형 축제 선진지 견학을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총회를 하면서 축제평가 결산 보고서 위원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위원 임기 및 구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치유 밥상 개발 사업 개선입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 모래들의 성공 사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2호점 개발 메뉴 개발 시 생선회나 전복 요리 요리법 가격대 차별화 해양치유 밥상 매뉴얼 개발 자문위원 구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호점의 성공 사례는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 및 도서 지역 찾아가는 순회교육, 간담회 신문보도 등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밥상 2호점은 생선의 취급 업소를 지정 가격대를 차별하여 2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우리지역 생선이나 전복을 맛볼 수 있는 한상차림 메뉴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1,480세트를 판매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치유밥상 개발 기간 중 시식회 등에 참여하여 맛 평가, 방향 설정 등 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후 우리 지역 전통음식 개발 및 발굴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30초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감사 질의에 앞서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으로 1명 힐링휴양 프로젝트 선정돼가지고 사업비 도비 50억 포함해서 총 100억 확보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총 100억 중에서 도비가 50억이고 나머지 50억은 무슨 예산으로 할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 군비 예산입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군비 예산이면 의회 한번 와서 이렇게 보고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못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되면 군 의회에 와서 간담에 때라도 얘기를 해 줘야죠. 군비 부담이 24년도 본예산 편성 의회 요구 할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언론사에도 뿌린 자료 보면 도비 50억 해서 100억 확보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부담액을

총 100억 확보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군비 빼는 이유는 뭐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그냥 총금액이 100억이라 100억이라고 해버린 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자료 확인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우리 더군다나 군청 게시판에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현수막에다가 총 사업비 100억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전액 도비 국비 해가지고 10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 들어간 건 전혀 몰라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나중에 군비 들어간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과대 홍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거 같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만약에 의회 예산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의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자료화면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이 사진을 예정지를 보면 가장 멀리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선. 제일로 저쪽

상단에 있는 거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그 사진을 보면 송림을 제거하고 사업을 뭐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저기다 추진할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 아, 의원님 지금 송림제거는 단 한 그루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숲속 도서관이라든가 신기루를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합니다.

○김양훈 위원

그럼 저기서 지금 나무 한그루도 안 건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놓겠고요. 최대한 저희가 소나무가 없는 부분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지금 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송림이에요. 저기서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상황이 틀리는데 엇 그저께 도민과의 대화에서 왔을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는 전부 다 제가 가봤어도 공간이 없어요. 전부 다 송림이 있지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저기가 기존에 데크가 있고요. 저희도 저기 여러 번 갑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촘촘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여기는 논이나 밭,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해도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

데 송림 같은 경우는 훼손을 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하려면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송림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십시오.

○관광과장 오현철

애.

○김양훈 위원

다음은 완도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보고서나 각종 자료에 보면 완도형 웰니스관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도형 웰니스관광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매번 얘기하면 이 얘기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자주 얘기가 나와요. 완도형 웰니스관광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완도의 웰니스관광은 타 지역에 없는 강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완도 웰니스관광의 가장 앵커시설이라는 해양치유센터가 저번 주 금요일날 개관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후센터, 미각동, 청산치유공원, 범바위 그다음에 보길도 치유 그다음에 동부권.....

○김양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해양치유에 관련된 게 전부 완도형 웰니스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해양치유플러스 지역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거의 보면 해양치유 이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렇습

니다. 치유하고 휴식 등 웰니스관광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지역 관광자원과 완도형 웰니스 관광자원, 융복합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웰니스 관광목적지로서 완도형인지도 제고 및 고부가치 웰니스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도형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도형 웰니스관광 슬로건으로 저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더블유 더블유 포 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홍보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이게 직역을 하자면 글로벌 완도 웰니스관광 당신을 위한 특선 포유 이거거든요.

○김양훈 위원

관광과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군청 공직자들도 슬로건이 이해를 많이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더블유 더블유 포유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걸 모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참 어려운 거예요. 자료 한번 사진 올려주실래요? 완도형 웰니스관광 특성 포가 웰니스 관광과 지역연계 관광연계 융복합으로 된다 하면서 해양치유 여기 보면 낭만치유 청산도힐링포유 힐링유 이렇게 많이 네이밍을 붙여놨어요. 이런 네이밍은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해주는 걸로 한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용역을 저희가 의뢰했고 용역사에서 주는 걸 저희가 착수보고를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면서 부서장님들 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용역사에서 넘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토의를 했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전부 다 좋다고 인정을 하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때는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양훈 위원

칠링포유 칠링은 무슨 뜻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느리게 휴식을 취하다, 느리게 시간을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칠링포유라고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홍보 안하면 전혀 모를 텐데.

○관광과장 오현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서는 이렇게 붙인 것은 추상적이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빨리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네이밍 같은 경우는. 그래야 칠링이 뭔지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24년 올해 웰니스 관광경우에 공모에 나섰다고 했는데 어디서 주관하고 웰니스 관광도시는 선정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올해는 처음으로 강원도 정선이 됐거든요. 일단 국비 10억을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그 10억 예산 가지고 저희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웰니스 관광도시로 지정이 되면 인지도 급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김양훈 위원

완도에 대한 인지도를 말씀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그렇게 인지도를 높이려면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될 텐데요.

○관광과장 오현철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웰니스 관광도시로 12월에 공모를 합니다. 되면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같이 개발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양훈 위원

지역관광dmo?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역관광dmo가 지금 사단법인 완도관광협의회가 인허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부터 남해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이 디엠오 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비 아닌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dmo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김양훈 위원

이번에 공모사업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구성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차별화된 관광을 지원한다면서 3억 1,000만원 정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1억 1,200만원 인센티브 지원했고, 현재 참여업체별 지원내역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오현철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훈 위원

예.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인센티브는 4월달 끝나버렸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군정질의답변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동백여행사하고 굿모닝여행사가 1, 2등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전체 금액의 40, 50%정도는 가져갔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디서요?

○관광과장 오현철

동백하고 굿모닝여행사요.

○김양훈 위원

두 군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관내업체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내업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내업체는 이게 관내업체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인바운드가 아니고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형태이거든요? 관외 분들은 완도를 모객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예요.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기준하고 어떤 관광활동을 하면 지원해준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단체관광 말씀하신가요?

○김양훈 위원

예.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일, 1박2일, 섬여행, 그다음에 식음료, 특산품 그다음에 관광지 지정 이런 부분들 저희가

○김양훈 위원

아까 당일 것도 있고 1박2일 것도 있어요. 관광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1박이나 당일 것 지출액을 표기해놨는데 어떻게 산출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영수증 가지고 산출합니다.

○김양훈 위원

영수증만 가지고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영수증 하고 관광지 방문해서는 관광지 확인, 축제장을 방문해서 축제장 확인.

○김양훈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인포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김양훈 위원

옛날에 보니까 사진 첨부하라니까 합성해놓

던데 그런 거 잘 확인해요? 예전에 보니까 사진자료를 싹 가지고 해보니까 합성사진이 이상 많아요.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거 사진도 첨부하게 돼 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합성사진도 이상 보이더라고 그런데 행정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 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금은 관광객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고 주변 어디에 갔다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걸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를 들렸고 어디를 갔는데 완도타워에서 찍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진이 옆에 또 있어요. 보니까 합성사진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군데만 줘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오현철

총 33개 여행사가.

○김양훈 위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료를 보면 그런 현상이 나왔단 얘기죠. 꼼꼼하게 챙겨보면 다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데 행정에서 하신분들은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무모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줘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반드시 유료티켓 끊은 영수증, 배승선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양훈 위원

도선 같은 거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특성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가서 얘기하면 다 줍니다. 다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죠. 왜 그러냐면 안간 다음에 그날 기사가 그 집에 안 들리는데 요구조건 안 들어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붙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동행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대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3월달에 4월달에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엄청 빨리 조기소진이 돼 버렸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이었는데요. 4월 30일 접수분까지.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월달에서 12월달까지는 어떤 예산 갖고.....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단체여행사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없는 뒤로 뭐 말 나온 건 없던가요? 관광객 추이상황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객 추이는 아무래도 33개 여행사들이 동시에 온다고 했을 때는 관광객 추이에는 변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인센티브 없어서 그만큼 빠졌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 해놓은 건 있어요? 만약에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 자료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가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양훈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거주 개발관광객의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확인해서 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숙박할인이벤트는 본인이 숙박업소를 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 신청서를 숙박업주가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 숙박업소에서는 승인된 금액만큼 이용자한테 결제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숙박업소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도 도비 준비해서 한 8,000만원 돼요, 예산이.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인센티브 없이도 이 예산은 남아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이 예산은 현재도 가동되고 있고요.

○김양훈 위원

예?

○관광과장 오현철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은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예산이 남았던 얘기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 단체는 이것을 활용하기가 좀 난해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단체관광객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1박2일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완도형 알뜰패스 참여자 6,0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는 알뜰패스 참여업소 55개소가 있는데요. 이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10만원 이상 지출했다고 그러면 5만원, 20만원 10만원, 30만원 1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김양훈 위원

거의 50% 지원을 하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 대신 참여업소를 5만원 지원받으면 1개 이상 이용해야 되고 10만원 2개 이상, 15만원 3개소 이상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양훈 위원

이분들 순군비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6,000만원 이거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50%면 너무 많이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50% 나 지원해주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3억 전체적으로 한다면 3억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관광객들 유치한다고 하는데 차별화된 관광활동지원이 아니라 타 지자체 따라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광객 최대 유치여행사에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백여행사하고 굿모닝여행사 두 곳인데 지금 이 두 곳 여행사는 어디 소속인가요? 소재지가?

○관광과장 오현철

서울입니다.

○김양훈 위원

두 곳 다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매년 보면 이 두 곳에서 거의 다 가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이분들이 2개 여행사가 3200명 정도 완도를 유치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뭐를 그냥 이쪽에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만 보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이 완도를 사랑해서 지원해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완도를 사

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센티브가 주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혹시 완도 여행사하고 제휴를 해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거나 적발한 건수는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방금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주신 거 총 지출금액이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50% 미만이 됐었을 때 올해부터 감하고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분석은 다 해보셨겠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어떤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예산만 더 된다면 다른 지자체는 보면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이 되게 금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되게 아직까지는 보수적이거든요. 여건만 된다면 파격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다도해 해상 케이블카 설치 이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여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해상케이블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폐기 된 걸로?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몇 군데 운영하고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2군데 운영하고요. 4명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에서 직원들 하는 일이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분들 저희가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관광안내소 그쪽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비 찾고 네이버에서 찾으려면 전부 관광지가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물어보고 그쪽으로 찾아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들린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왜 안 들립니까? 그러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관광안내소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평성 있게 업무분장이나 수시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고금도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지휴게소에 있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신지대교 구 관광안내소는 창고로 쓰고 있고요, 폐쇄가 돼서. 저희가 갔고요. 그다음에 고금안내소도 저희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관광안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안내소 간판을 다 내리는 게 맞죠?

○관광과장 오현철

위원님 10월 16일날 저 건물 자체를 고금면으로 관리 이관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면사무소로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안내소 간판은 지워줘야죠. 다른 용도로 쓰던 어떻게 하던 지금 들어가서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지 쪽은 들어가서 보면 쓰레기장 방불케 하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쓰레기장이예요. 저런데 만약 지금 들어가 보면 열쇠도 안 채워져 있어

요. 그러면 저기는 뭐냐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면사무소 이관을 해줬으면 면사무소에 조치사항을 알려서 다른 용도로 쓰든 아니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든 빨리 처리가 돼야 돼요.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했으면 돈 많다고 그래요. 완도군 돈 많다고 그래요. 외부인들도 와서 그렇거든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알겠습니다. 고금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금면하고 교감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안내 전자지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30페이지고요. 이 사업 언제 완료됐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요.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죄송합니다. 8,700만원입니다.

○김양훈 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8,700만원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집계를 뽑아봤습니다. 9,214명이 접속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김양훈 위원

9,214명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많이 이용을 했네요. 본 위원이 어플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접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복으로 접속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용객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신 것하고 제가 본 거는 완전히 틀린 상황이네요. 그쪽에 9,0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9,3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수가 안 나오거든요. 전자지도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자지도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군정질의 때 지민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김양훈 위원

거의 잘 몰라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 식당을 가봤더니 입구 벽에 관광안내 지도를 연결하는 QR코드를 붙여놨어요. 실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나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자료 한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제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청산도를 검색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다른 지도 어플을 사용하듯이 손가락 확대를 하면 지도가 제멋대로 움직여요. 제멋대로 움직이고 한 3번 정도 들여다보니까 그냥 끄게 되더라고요. 왜 저런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저게 지금 티맵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클로즈업하게 되면 저 부분이 크게 저도 여러 번 해 봤는데 저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김양훈 위원

다음 자료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어플로 숙박업소를 찾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법을 눌렀습니다. 대중교통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눌러보니까 한 1분이 지나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안내가 안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서 옆에 내비게이션을 눌러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티맵이나 어플을 또 깔아야 돼요. 엄청 복잡하죠? 한번 했는데 티맵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 쪽으로 또 들어가야돼요. 그러면 누가 사용을 안 하죠.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기에서 어플이 안 깔려있으면 또 들어가야돼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완도가 대중교통이 많이 없어서 안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려면 그냥 대중교통 버튼을 아예 빼버리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복잡해서는 관광객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못하겠는데 다른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 저 어플 써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도 두, 세 번 써봤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그냥 티맵을 바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김양훈 위원

과장님 써보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뻔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손으로 확대했었을 때 저런 부분이

○김양훈 위원

화면이 흔들려 버리고 확대에 엉뚱한 데 나와 버리고 이렇게 어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그때 바로 보완조치를 했어야죠. 말씀을 좀. 그때 해서 해봤는데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될 것이라 하면 바로 조치 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바로 얘기해서 바로 보완조치를 하게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축제행사 홍보도 상시로 업데이트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에 축제행사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오현철

스마트전자지도에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행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전혀 못 찾아보겠던데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지

○관광과장 오현철

지나간 부분 기간이 돼서 시간이 돼서 지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해양치유센터 개관까지 다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확인 한번 더해 보십시오.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보완점은 없는지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객 조성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신장보고지구 계획단위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반야트리 체인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야트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1차적으로 그 안들을 반영해서 전남도에 올려놨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방금 전남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요구사항은 있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도에서 요구사항 있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획기적인 관광지지구 변경이기 때문에 반야트리하고 투자협약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도지사님, 군수님, 반야트리 회장 그다음에 소세포세트장회장 세리모니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부대조건입니다.

○김양훈 위원

MOU체결은 됐어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김양훈 위원

확보된 예산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자유치 기반시설로 쓰는 조성사업비입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지금 현재 숙박업소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오페수처리장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현재 밑에 쪽에 있는 위원님도 안전 이런 부분을 강조 주셨잖아요. 데크 이런 부분이 현재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이번에 데크 보수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양훈 위원

원래 이 예산은 민자유치가 됐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먼저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정상으로?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먼저 써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그건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세트장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여러 번 가봤는데 위험부분들이 있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난 후에 저희가 설계작업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원래는 민자유치 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변경하는 거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드라마 세트장으로 출발해서 한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어요. 세트장 시작할 때는 우리 군 알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

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관광지로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꼭 해서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훈 위원

민자유치. 군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 계속 긴축재정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깎였잖습니까?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축제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 3일 하는 단기간 축제보다 10일간 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특성상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가을섬여행 축제는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일주일이라는 9일이라는 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자체는 사실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관내 저희가 별도 전단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대단위로 한

걸 빼놓고 시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장단은 언제 했습니까? 이장단들한테는? 이장단들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가을섬여행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읍면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 공문이 17일 오전 18일 오전에 왔다는 거예요. 홍보라고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신문도 보십시오. 20일날 나온 신문입니다. 20일날 홍보하면 보통 일주일 2주일전 한, 두 달 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이장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18일날 우리가 축제 소위원회를 하는데 딱 한 번 하는데 그 전날 전화 알아보니까 우연하게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아침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문이. 축제 하루, 이틀 앞두고 보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물론 완도, 보길, 청산, 생일 등 각자 특색에 맞게 한 각자 면마다 각자 광고를 냈다고 하지만 완도읍의 경우 주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오현철

완도읍 주무대는 정원페스티벌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담만 만들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홍보를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날씨는 좀 추웠습니다. 전날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오래전에

읍면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각 배부를 한 겁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별도 대단위로 홍보를 하셨다는데 주무대때 더구나 이날 정해인이라는 텔런트도 오고 영화 씨네데이 촬영한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고 일반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개막식 그냥 대충 할 일은 없겠죠?

○관광과장 오현철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 실은 국화전시회하고 콜라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화전시 그 자체가

○조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공감하시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제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나 장보고수산물축제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청산도슬로걷기축제 거의 한 달 동안 하죠? 거기다 할 때 자막 하나 넣으면 보통 10일간 하는 축제가 계획성 있어 올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우리가 여행계획도 짜고 우리가 완도에 10월에 10일간 하는 축제가 있으니 계획을 짜서 논거 아니에요? 계획성 있어. 하루 왔다 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문제점에도 책자에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해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완도뉴스에 나온 신문입니다, 보길도 등불축제. 19일날 나 19일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해라 한 두 달 전에 해가지고 공감하신다니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던데 축제를 준비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원래 매월 4회 회의하기로 한 거 아니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식 위원

10월 18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날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보면 축제추진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조직된 위원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18일날 참석해서 한번 했다면 한번 했는데 제가 한번 참석했거든요. 그날. 과장님 물론 출타하셨지만 한번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조직된 거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있어서 관심 있게 들여다 보고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나 결정한 사항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바로 당일 전전 날.

○관광과장 오현철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만할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축제가 작년부터 3개면까지 행사를 분산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주민주도형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죠? 맞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지원하게 됩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했고요. 전적으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정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정해놓고 나갔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보조금을 추진해 주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요? 맞습니까? 용역사

○관광과장 오현철

읍면 말씀이십니까? 읍면 추진위원회

○조영식 위원

예.

○관광과장 오현철

읍면에는 대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건이 계약하는 그런

○조영식 위원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오현철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좋습니다. 용역사가 결정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와 용역사가 다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 말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이번에 세 군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축제예산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 9,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행사 기간 중에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9일 동안 운영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추경도 없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개별적인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8,000만원은 지금 현재 이 8,000, 9,000만원 이 부분은 전적으로 3개 읍면에 8,0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8,000만원씩?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 보길 4,000만원 생일 2,000만원 청산 2,000만원 그러면 각 3개 읍면마다 달리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생일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했었습니다. 생일은 기간을 짧게 했고요. 보길은 9일 동안 끝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청산도 여건에 따라서 중간중간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정산은 완료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정산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정산했다면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번 축제 전복 판촉 행사 말고 다른 특산물 판매행사는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전복이 메인이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완도읍도 다 맡겼던 이유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데나 와서 보탬을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

해서 저희가 펼쳤거든요. 저희가 전체매출을 그분들이 숨기고 있는데 대충 파악해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조영식 위원

전복만요?

○관광과장 오현철

전복 같은 경우도 전복은 몇 천을 올렸고요.

○조영식 위원

건어물은 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건어물은 거기서 판매를 하지 않았고요. 전복라면이라든가 음료, 간단한 메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팔렸더라고요.

○조영식 위원

전복은 들고 가기가 어렵지만, 건어물은 1만원, 2만원 들고 갈 수가 있고 용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18일날 추진위원회 청솔가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 실명을 거론 안 할게요. 그분 다 나온 얘기에요. 내년에는 이런 거까지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내년에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문제인데 안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안전대책은 저희가 매뉴얼에 맞춰서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페스티벌 행사하고 있는 장에 그대로 저희가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안전요원은 5명을 채용해서 24시간 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정원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닷가 쪽에만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전문요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보통 읍면이 행사축제장들이 보통 물양장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이번에 안전사고에 문제없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문제없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아무리 많이 찾아오고 해도 안전에 구멍이 생기면 실패한 축제가 되곤 합니다. 항상 안전 대책에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이라고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광두레피디라고 아시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두레.

○조영식 위원

PD.

○관광과장 오현철

PD, 예.

○조영식 위원

알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대충 좀 정확하진 않는데.

○조영식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두레는 자생조직이거든요. 두레피디가 어디 가서든 인용하고 있는 게 평창군 평창에 보면 어레미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최영석이라는 두레피디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꼭

그분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조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문체부에서 11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발표를 해요. 1월달에 선정을 해서 심사해서 내년 1월달에 발표를 해서 제가 이걸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 동문서답을 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우리 지역 관광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표로 지역주민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2023년부터 시작하여 134개 지역에 관광두레피디 180명을 선발하고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하여 문체부에서 최대 5년간 활동비, 지역 관광 강화 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시범사업, 파일럿 비용을 판로개척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 사업들을 얼음치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조영식 위원

완도는 이런 사업들 없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강원 제일 지금 핫하게 뜨는 게 강원 정선 간이역카페가 3년 전과 비교해서 한 20배, 30배 정도 성장을 했단데요. 가까운 순천에는 수제맥주, 버거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공모 이번의 공모는 특히 기존의 관광두레피디를 선

발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1차 서류전형 2차 종합평가를 한다니까 혹시 여기에 참여할 생각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시기적으로 지나지 않았더라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같은 주무부에서 하는 관광문제부에서 하는 것을 완도군청 관광과에서 모르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자꾸 놓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시기적으로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작 지침이 내려오고 했을 것 같은데 11월 1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거는 관광두레라는 그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핑계 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 하면 되잖아요. 이거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시도 안 해보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 관광 협의회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단법인 관광 협의회에서 관광두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영식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데 이제 사단법인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뭐를 과장님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심도 있게 처리해 보겠다고 해야 맞지 자꾸 이러니까 10년 전에 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 맞겠습니까? 본 위원들이 뭘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나 서로 오면 피드백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사항이 나올 것이고, 제도 개선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32페이지 관광진흥법에 대한 호텔등록업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호텔업체 수를 보면 호텔업이 4개소가 있어요. 가족호텔하고 호스텔하고 있는데 호텔업을 보면 신지나 완도읍은 호텔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지만 호스텔이 군외 원동에 가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관광진흥법을 적용했는데 진흥법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호스텔하고 호텔업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한 이유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진흥법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관광진흥법이

○관광과장 오현철

예.

○위원장 박병수

승인절차는 어떻게 됐죠? 승인 등록하기 위해서는 승인법령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진흥법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한다고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제5조 등록기준입니다. 배낭 관광객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두 번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사항입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이시죠? 여기에 맨 위에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배낭여행객이 와서 잘 안 보이죠? 적합한 시를 갖추고 있다. 적합입니다. 배낭여행객이 와서 개별 관광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하고 적합해요. 밑에 하단에 화장실 적합, 화장실은 이제 있으니까 적합하겠죠? 필요하니까 우측 보면 하단에 문화교류, 정보교류 이런 내용이거든요. 방에다가 저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이걸 왜 필요할까요?

○관광과장 오현철

개별관광객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여기 이 시설은 밑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서 잠자는 숙박시설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확대해석을 했는지 알 수 없어 거기에 따라 한번 법령 한번 담당 계장님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상품개발팀장 정우자

완도대교 호텔 관광숙박업은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그 승인기준 현장 확인을 했고 2018년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체부 질의를 했었고 또 문체부에서 2018년에 회신이 왔었고 그래서 2018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에 의해서 건축이 일반음식점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가 됐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와서 호텔업 등록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업체에서 그래서 등록기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록기준 확인을 해서 2020년 8월 7일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호텔업을 등록을 할 때 기준 숙박 객실과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이런 편의시설과 또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정보 교류시설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등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도 2023년 2월에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등록기준은 다 갖추고 있는 갖추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법령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이 있어요. 1항1호에 보면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할 것 밑에 2항 보면 호텔 및 소형호텔 대지가 폭 8미터 이것은 아니지마는 관광객 수 관광특구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7 이하의 객체를 갖춰 경영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이라는 그 기준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일단 배낭여행객 이런 사람들이 거길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서 일한 사람

들이 먹고, 자고 거기 위에서 숙박을 한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규정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배낭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잠자리가 없을 때 숙박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샤워장도 같이 쓰고 취사장도 같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장이 준비 돼도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잔 것은 숙박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는 관광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그건 이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제 인과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인과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말씀 주신 것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 부분은 허가가 나갔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령을 잘 지켰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출 하겠다는 그 자료는 제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또 개선사항은 개선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한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종료하

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 해양정책과
 - 지역개발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 해양정책과
 - 지역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 우홍창 팀장입니다. 행정팀 김건규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박준홍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황철웅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렬불부합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당시 직렬불부합자는 5급이 3명, 6급이 20명이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5급 복수직렬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팀장직위 직급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직렬불부합 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개선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7급 승진, 팀장 보직, 5급 승진 시에는 을지, 갑지, 본청 순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2003년부터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섬지역에서 체도권 지역으로 전보시에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박물관 관리개선방안입니다. 행정박물관 관리방안을 개선하고자 행정박물관 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기념일인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청해진 주춧돌이 해양치유산업의 머릿돌이 될 때까지라는 주제로 완도군 변천사 38점을 문화예술의 전당에 기획전시를 추진하였고, 군민들에게 과거 향수와 추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박물관 40점 및 변천사 38점을 군립도서관에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보유한 행정박물관을 채집하고 관리해서 군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기록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우리군에서 모금 실적이 도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전남도가 상위권이라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맞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현재 우리군은 도내에서 상위권이라고 나오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상위권은 아니고요. 중간 수준입니다.

○조인호 위원

중간 수준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도 방침에 따라 정확한 공개를 못하고 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법에 의해서 2년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

○조인호 위원

공개한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공개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건 비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인근 지자체들은, 해남 같은 데는 주 단위로 금액 어느 정도하고 명단 정도는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건 불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관련법에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언젠가는 시범적으로 어떤 지자체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한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 그거 지나가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지금까지 처벌받은 지자체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없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중간에 말했듯이 저희들은 법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단계이고,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홍보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하게 돼 있고요. 대변이라든지.....

○조인호 위원

홍보는 하게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 완도군향우회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조직이 잘돼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번에 위원님도 향우회 행사 때 가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홍보가 합법적인지는 애매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커트 사진도 했었고, 이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식 할 때 향우회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얻고 이번 주에 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우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군에서 기존에 TF팀 있다가 향후에 담당관 제도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통합해서.

○조인호 위원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향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 하나 파견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인호 위원

그 파견 직원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활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출장을 자주 못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인호 위원

서울소장은 계속 서울에 상주하기 때문에 군수나 위원들이 서울 출장 없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인호 위원

직원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어떤 말씀이신지?

○조인호 위원

연락소장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은 각종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벤트라든지 특별히 보안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지금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아니면 크게 나올 데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정착이 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부한 분들이 일회성,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도 관련돼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완도군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 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에도 고액자들 위주로 해서 물론 고액자라고 해서 우선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고액자들을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주식도 괜히 투자자들 말씀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1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가리지 말고 진짜로 그분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직자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손 맞춰서 우리 완도군이 전국에서 기부문화가 제일 활성화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일반 행정에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하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우리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개별법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에 없는 부분은 기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합당한지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4조에 보면 군이 권장한 사업으로 사업을 지

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총 2억 9,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777만 3,000원 정산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거는 정산액이 그게 잔액입니다.

○박성규 위원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잔액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매년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정확히 보조사업자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남에 있는데요.

○박성규 위원

해남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해남에 있는데 해남, 완도, 진도 3,000만원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피해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박성규 위원

지원센터가 해남에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혹시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성규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박성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금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가 완도읍번영회, 완도읍건강지역사회운영협의회, 완도읍청년회 JC 이렇게 있고요. 법정단체로는 바르기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하고 민주평통자문회 완도군협의회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해서 2억 9,72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금 7,700만원이 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도군청년회 어린이 야외물놀이 보조사업비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2022년도에는 3,800만원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게 신지명사십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들 있는 부모님께서 바다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해변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실은 물 담아놓고 어린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청년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 단 하나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거를..... 그렇죠, 크게 보면.

○박성규 위원

며칠간 하는데 물놀이 우리가 봐봤습니다. 물 양장에 놔두고 물 저장해서 어린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예산이 3,800만원, 또 올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며칠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정확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며칠간 합니까?

○교류협력팀장 박준홍

올해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서 6일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임차비라든가 안전요원인건비 등등이 포함돼서 금액이 들어갑니다.

○박성규 위원

매번 반복적으로 하죠? 다른.....

○교류협력팀장 박준홍

예. 반복적으로.....

○박성규 위원

그날그날 일주일간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류협력팀장 박준홍

물은 수시로 교체합니다.

○박성규 위원

물만 갈고요.

○교류협력팀장 박준홍

예.

○박성규 위원

이 정산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위원님, 이게 우리 완도군에 있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도군의 중심지인 해변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그리고 완도JC와 함께 하는 가족캠핑페스티벌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을 보시면 빙그레완도 청소년체육대회하고 나는 완도민이다 이 사업을 합쳐서 올해는 완도JC와 함께 하는 가족캠핑페스티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규 위원

참여대상 가족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중고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중고생들하고 청소년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우리 8페이지 수감자료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2022년, 2023년도 행정동우회 보조금직집행 정산내역이 누락된 이유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보조금이요?

○박성규 위원

행정동우회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제일 하단부에 2,000만원.

○사무팀장 우홍창

그건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성과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성과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앞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또 사회복지나 사회봉사 같은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

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하지만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특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사용내용이나 운영면에서 군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불신이 섞인 불멘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또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조금 남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보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양구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실 양구군하고 우리 완도군하고 비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양구군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양구군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군민혈세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특히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폐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꼭 지원할 때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해서 임용, 신규직원 임용 수습기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은 1달 내지는 6개월간 하는데 최근에는 3개월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1, 2주 수습기간에 읍면 배치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개월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올해는 1개월에서 2개월 합니다.

○박성규 위원

사실은 최하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은 수습을 한 후에 읍면에 배치해야 사실은 업무능력도 발휘할 수가 있고, 민원해결도 잘 될 텐데 이렇게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해결도 잘 안 되고 적응을 잘 못해요, 신규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반년 정도 수습 후 배치를 해 주시고 그거 안 하면 8급, 9급을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꼭 신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기 근무했던 직원들을 8급, 9급을 읍면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배치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읍지로 보내고 읍지에서 갑지로 오고 그래서 군으로 오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흐트러지면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직원들 관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저희들이 20명 충원됐습시다마는 그래서 약간 해소가 되기는 했으나, 지금 보면 읍면에 결원이 많이 있다고 아우성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하면서도 저희들 대책은 신규 직원들 배치를 시키고 나서 신규공무원교육을 빨리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사 때마다 많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직렬에 부합하는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 때 보면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보직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공직자 사기가 떨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에 보면 보직관리원칙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복지직렬 행정업무분장하고 기술직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또 심지어는 운전직에 행정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직렬에 부합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향후에는 직렬에 부합하는 보직부여로 대면서비스 향상 및 행정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우리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성규 위원

읍면입니다. 군청 말고요.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기간제근로자들은 저희들한테 충원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채용합니다.

○박성규 위원

그래서 읍면장들이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면장이나 읍장들이 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학교선생님 한 분, 경찰파출소장, 해경소장, 또 사회지도층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것이 다 노출돼요, 사전에. 심사위원회 누구누구다 그러면 5명이니까 3명만 섭외하면 그 사람 자녀라든지 그 사람 부모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채용돼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영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사회지도층 회장을 했든지 이장단장을 했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읍장하고 가깝다든지 면장하고 가깝다든지

지 하면 정보가 흘러나가서 미리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되다 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해요. 가장 어렵고 참 힘든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 이거 읍면에 보내지 말고 군에서 심사위원회를 5명 하지 말고 10명이나 15명 해서 재산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보려면 재산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 살만큼 머느리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주 부자인 사람 아버님이 근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근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느리가 근무하기도 하고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백 없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보내면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 읍면채용은 군에서 뽑으면 어떨까.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공무직 전환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9개월, 10개월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 재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심지어 10년 이상 근무하고 대물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점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아무튼 현황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군정질문 때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문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에서 그동안에 행정과장 하면서 느꼈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조직개편이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앞번 조직개편뿐만 아니고 조직개편이 생기면 조직이 안정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직개편, 또 대규모로 필요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군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때 질문 때도 과장님이 다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 다 인정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부서만의 안 맞는 의견,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 솔직하게 업무 핑퐁 칠 수 있는 관계, 저번에 김양훈 위원이 질의할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한 과가 저 과에 있고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거는 제가 관련해서 군정질문답변이 끝나고 관련 조례를 봤었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도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군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한계가 애매한 거죠. 사업들의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생기면 어느 정도 과도기에 안정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조직개편 필요성.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조직개편에 제가 8, 9대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해 봤거든요. 했는데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항상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고, 할 때 마다 하고 나서의 문제점 지적도 많았는데 역시나 이 앞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어떨습니까? 그때 그랬다면 과장님 평소에 군정질문답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아시다시피 인사는 정례적으로 합니다. 1월 2일, 그리고 7월 1일 정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조직진단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변 얘기도 들어보면서 자체분석도 해 보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하고자 합니다.

○최정욱 위원

저는 그게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과, 모르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그 관계에서 직원들이 다시 본청에 분산이 되면서 인원배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솔직히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데에서 일이 팀장위치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업무를 이 과에서 봐야 되는데 저 과에 가 있고,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을 해양치유에서 가지고 있다든가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으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세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8기 시작돼서 예전 같으면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 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하려면 이것도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또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라 해도 지자체장 생각, 그다음에 실무팀 과장님 생각, 또 직원들 생각,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떨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견 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죠?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욱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최정욱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초점을 행정업무 전반 이런 것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점과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 관련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조직개편을 맞춘다면 아마 좋은 조직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명심해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해서 거기 초점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아마 그래도 괜찮은 조직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서 해도 내년 6월에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토의를 갖추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직렬불부합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했고, 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사항을 개선을 해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나 최정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전보인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2 일자 전보인사는 몇 명이 했나요? 금년도 전보인사 인원 자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때가.....

○위원장 박병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보인사는 147명인데 전보제한자가 8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2023년 7월 1일자는 117명 전보인사를 했는데 전보제한자가 86명이네요. 제가 6월 16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전보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그리고 1항부터 3항까

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밖에 임용권자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특별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법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금년 2023년 1월 2일자 인사와 또 7월 1일자 인사를 보면 전보 제한자를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전보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관련법에 보면 전보제한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도서벽지 특수지역으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죠. 그리고 임용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구개편이나 직제, 정원의 변경 그리고 승진의 경우는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전보를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해서 1년이 되면 전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성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신규배치를 하게 되면 읍지로 가야 되고, 읍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갑지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군으로 전입하게 돼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물론 그러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장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3, 4년 동안에 한 6명 정도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직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1개의 직위에는 1급의 직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렬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수직렬이 4복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인사 현행 직렬불부합사항을 보면 해양치유담당관실에 해양치유기획팀장 직렬이 세무 직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기획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인데 세무직이라면 전문직인데 세무직이라면 세무회계과 그 외에 유사한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님이 전산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에 관광상품개발팀장에 시설직, 지금 시설직이면 그 전에는 원래 직렬은 지적직입니다. 농업축산과에 동물방역팀장이 수의직이나 축산직이 있음에도 지금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또 환경수질과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세무

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환경직 그런 전문직이 있음에도 이렇게 직렬불부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직렬불부합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현재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거는 그 전에 금년 2월까지의 완도군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훈령이죠. 그런데 이게 22개 시군에서 이 훈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폐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박병수

자,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직렬불부합으로 전문성, 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말씀하셨던 완도군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병수

제3조 본청의 분장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실, 담당관, 과 밑에 두는 팀명과 팀장의 직위는 별표2와 같다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오는데 별표2에는 팀명칭과 직위만 규정하고 있어요, 별표2에는. 팀명칭하고 직위, 직렬이 없단 얘기에요. 이 규정은 지난 2월에 개정을 했구만

요, 보니까. 팀장 직급을 직렬 세분화하지 않고 부서 및 팀장직위만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거는, 그 부분은 행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김건규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렬이 전문직에서만 근무를 할 경우에도 생기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고 직렬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팀장직위에서는 직렬을 폐지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정원책정일반규정에 보면 1개 직위는 1개 직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요.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직렬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유사한 업무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엉뚱한 행정직이 들어가야 될 직렬에다가 토목직을 넣어놓고 아까 농업축산과에 수의직을 넣는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해 버리면 그런 폐해도 있고요. 또 어떤 직렬들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직 인사를 보면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직렬, 부서별로 직급별 팀을 설치해놓은 걸 변경 전에 보니까 여성복지팀장에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에 지방행정주사, 행정주사는 들어가야 맞아요. 사회복지주사 맞습니다. 보건주사, 간호주사 이런 기술직이여도 특별한 기술직 아닙니까? 의료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성복지 이런 데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차라리 다른 직렬이 있든가 없으면 2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3복수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걸 4복수까지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복수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폐지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없애버렸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여성복지팀 여성복지직위가 여성복지팀장이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이것은 봄시다.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에 가면 1개 직위에는 4개 직렬까지 가능함에도 가능하잖아요, 4개 직렬까지.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직위만 부여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상위법 대통령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글썄요. 제가 동의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위원장 박병수

법령을 위반했는데 이거 동의 못 한다면 안

맞죠? 법령 위반사항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음에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인사권에서 자율권을 부여한 부분이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타 시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내 22개 시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병수

다른 시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19개 시군에서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상위법령을 폐지를 한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러니까요.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 자치단체 자율권을 두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보직경로에 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1월 10일자 인사 관련 보면 신규 직인데 세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세 사

람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가까운 약산면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청산면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보길면으로 갔는데 제일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약산면 아닙니까? 완도읍에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박병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수산경영과로 올라왔습니다. 또 청산으로 간 사람은 한 6개월 있다가 7월 2일자로 올라왔어요. 다음 보길면으로 간 사람은 제일 멀리 갔음에도 약산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그래요. 팀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팀장 김건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박병수

수산직인데요. 누구라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 박병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자료를 제출 요구받은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님이신 고영권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촌지원팀장에 서정국 팀장입니다. 인력육성에 강경진 팀장입니다. 식량작물에 이병연 팀장입니다. 소득작물에 최준석 팀장입니다. 특화연구에 주홍무 팀장입니다. 기술개발에 최석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육성사업 부분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농가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아열대 시범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 현재 아열대과수 시범사업 예산을 6억으로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업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농가기피현상을 최소화하여 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열정을 다해 땀 흘리며 키운 국화를 전시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및 군민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화전시회가 완도타워 일부, 해조류센터에서 일부를 전시하다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맞춰 해양치유센터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금년 완도타워 국화전시회가 약간은 빈약하게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올해는 9회째에 맞는 국화전시회로써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완도타워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꽃이 개화가 일주일 정도 늦어져있는 올해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에 따라서 완도타워에서 국화 전시기간 완료하고 마치고 해양치유센터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환경미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든 꽃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은 꽃들은 철수를 시키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양치유센터 경관조성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재활용 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접수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올해는 해조류센터에서는 국화전시회를 안 하느냐, 완도타워에서만 하느냐 질문이 많았습니다. 완도타워에서 전시한다면 교통여건이나 걷기가 어려운 번거로움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 국화전시회는 해변공원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수량이 적은 데다 분산해서 전시를 하니, 인력낭비, 예산낭비, 전시의 효과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완도타워에 전시하면, 전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더 얻을 수가 있고 바다와 산 주변과 어우러진 국화가 전시되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더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조금 더 타워까지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다. 해조류센터 주변에서 정원페스티벌을 했죠? 거기에 따른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 실과 업무가 아니라서 깊게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도 크게 기여했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도타워에서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특히 노약자는 물론이고 야간에 관광객들이 타워를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으로 판단했을 때 완도타워에서 개최했다면 흥행이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완도타워를 가보니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관람하지 외지인들이 국화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타워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전시회의 목적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국화꽃을 감상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두는 군민에 대한 배려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해변공원 쪽 해조류센터 있는 쪽에 전시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이 그렇게 페스티벌 그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완도읍에 거주하지 않고 자가용 없는 군민들이 완도타워까지 가서 국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변공원 국화작품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은 물론 완도군민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어 기대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나비야 청산가자 행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위원장 박병수

그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당초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이유는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나비를 사육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센터니까 나비 협조를 받기가 쉬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비를 그렇게 사육을 해서 외부로 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농가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혀 기술센터하고 나비하고 나비는 곤충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왜 축제프로그램인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면서 나비야 청산가자는 그때 자기들이 홍보효과를 누리해서 자기들이 나비를 가져와서 날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투입이 되더라고요. 예산 투입이 되고 금년에도 돈 1,000만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예산이라면 관광과에서 해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하고 또 서운한 게 있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서운한 거 먼저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제 것만 두 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책자에 삽입을 안 시켰나요?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용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확대방안 마련과 또 친환경인증농장 확대마련 두 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올렸는데 책자에 삽입이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조영식 위원

아니요. 어차피 빠져있으니까 책자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삽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는 나중에 추가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칭찬은 잘했으니까 농민들의 고마움을 담아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제가 위원장님 이병연 팀장님한테 답을 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세요.

○조영식 위원

이병연 팀장님, 작년에 버 공동방제 4차까지 시행했죠?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예산으로는 3차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었어요.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농민들이 작년에 특별한 사항이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4차까지 공동방제를 간절히 원했는데 농촌센터에서 4차까지 해주셔서 농인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저희가 당초 농업인들의 요구를 다 반영해서

완도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7억 이상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은 한 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는 농민들의 다수의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추경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요청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5억이라는 3차까지는 가능한가요?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금년도 농업인들이 신청한 면적으로는 3차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일반단지 병해충공동방제 사업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농촌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점점 더 인기가 있고 호응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670헥타르 정도 신청을 받았습시다만 내년도에는 700헥타르, 800헥타르로 신청면적이 늘어났을 때는 혹 3차까지도 방제를 못하고, 2차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팀장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질의하는데 담당주무부서니까 하는 겁니다.

농민들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행정사무감사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전하니까 예산 가지고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차까지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예. 아무튼 예산을 많이 반영해준 의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3차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식량작물팀장 이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기계사업 임대장이 우리군에 두 군데 있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본소하고 노화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고금사업장을 임대를 했죠?

어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고금사업장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김양훈 위원님 알선을 해서 농협창고를 우리군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또 개조를 하고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내년 중반 이후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임대사업장 농기계 수준은 노화나 완도읍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장비가 지역마다 조금씩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지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요즘 새로 나온 장비들이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기존에 했던 데하고 지금 늦게 한 데는 장비들을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항상 군이나 의회 소외된다고 말씀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장비도 차음할 때부터 신경 써서 소외 안 당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걸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완도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해야 될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활성화사업 몇 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몇 년 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앞으로 10년, 20년이고 계속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통 시범사업은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김양훈 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게 처음 실시하는 기술 연구사업, 현장조경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매년 시범사업을 보면 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 같아요.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더라도 비파와인 제조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신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약산에 또 해요, 3억 8,000 들여서. 이거 보면 전부 다 사업성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자 한번 봐 봐요. 전부 계속해 왔던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비파와 관련해서는 완도비파연구조합법에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울모래 쪽에, 울모래법인 그쪽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김양훈 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양훈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어려우면 공모사업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은 사업이에요. 사업이지,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김양훈 위원

지금 그러고 보면 쌀 수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쌀 종자 개량해서 나왔으면 다음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는 게 맞죠. 계속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쪽이지, 시범운영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축산과나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모든 걸 실험연구하고 값어치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는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넘겨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계속, 물론 어떻게 업무분장이 됐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과가 나온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넘겨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또 실험하고 하는 게 맞지. 계속 사업성 있는 걸 가지고, 여기 보면 보조금도 엄청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7 대 3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뭐라고 하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는 왜 많이 하나, 거의 8 대 2, 7 대 3 이렇게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축산과로 가면 5 대 5, 아니면 6 대 4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안 가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해서 그래

야 농민들이 여기 가서 할 것인지 저기 가서 사업신청을 할 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되거든요. 무조건 모든 사업을 가지고 전부 기술센터로 가서 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에는 아무 것도 없고 기술센터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더 많아지잖아요, 일도 많아지고. 제 생각인데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 것은 재차 얘기하지만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새로운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범사업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거의 다 매년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적은 액수들이 아니고. 원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먼저 우선 어떤 형태인지 어떤 뜻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시범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과 나오면 좀 더 증액해서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은 그쪽 관계된 부서들과 잘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연히 소장님도 욕심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농업축사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균 농업생산팀장입니다. 문송태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윤한성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청산도 경관사업지구 경관작물 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청산면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휴경농지가 많고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외에 방치돼 있는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경관을 확대 조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산도 경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산도

의 주요 경관농업권역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특색 있는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여 청산도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2022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읍면에서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및 이장을 통한 대리신청 등으로 농가가 원하는 비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별 유기질비료 공급현장 및 현황을 농협은행 완도군지부 및 읍면 단위농협 비료업무 업무담당자와 함께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공급필지를 직접 필지별로 실제 경작작물유형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경작 불일치, 휴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중으로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에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확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농가에 필요한 양을 적정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토종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토종작물 생산농가의 규모가 소규모로 농가 확대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사업규모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해 친환경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늘흙입식건조기 지원, 과수농가 해충방지방 구입, 두릅 모종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특용작물 재배농가 부담경감 및 신규 농가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고령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증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인증면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가 인증상표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금 등 20%를 순군비로 추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한국친환경농업인과 전국 대회에 참여하였고, 우리군에서 인근 시군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12월 중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남 유기농 명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작 공동방제 비용 및 유기농업자재 농가 지원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친환경직불금, 직접지불금,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지 버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고금면 정부양곡보관창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사용이 불가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보관창고로 매각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하여 검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지정을 지난 6월에 취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활용을 위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쌀 생산량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금면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확충하여

효율적 양곡관리 및 완도쌀 품질경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완도황칠 향토사랑육성사업개선에 대하여 완도황칠 향토사랑육성사업 등 타 지역 부지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으로 인해 사업부지 변경 공장진입로 확보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지 고금간 3거리 로터리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사업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차량계획 및 이용차량이 많아 가변차량이 확보되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및 가변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가변도로확장 재발행위보완 등 전라남도 설계승인되어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내부인테리어와 주차장 등 주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업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중 명품한우 브랜드와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우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문판매점하고 음식점을 개보수하고 또 기자재 지원을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지원과정 농가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아니요. 전문점, 음식점, 판매점이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사포닌이 함유된 소를 서울 마장동에 있는 소 전문판매원에 소를 납품, 판매를 하고 우리 완도군 소 우육보급육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 3월달에 보조금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보조해 주고 한 겁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3월달에 성분검사 했던 건 삼지구엽초를 먹인 한우가 얼마만큼 다른 한우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떤 부분에서 우수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부분에서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성분분석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김양훈 위원

사업비 지원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지금 시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그게 사업비 지원조건, 음식점 판매점에 관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물어 보는 거예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효과는 일반 A 투 플러스 한우 가격을 5, 6만원하면 사포닌 소는 7, 8만원, 거의 한 3, 4만원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파는 날은 일찍 소진이 돼서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한정돼서 있는 물량만 판매하고 떨어지면 판매를 안 했던 거예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축산농가하고 계약이나 거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가들하고 그 업체하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처음에 사포닌 먹인 한우를 고급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처음에 여러 한우농가에서 같이 처음 시작했지만 친환경으로 인한 사포닌 먹이기 때문에 다른 먹이를 병행해서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서 시범농가가 지금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농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했던 삼지구엽초 그걸로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삼지구엽초 가진 성분으로 사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요. 삼지구엽초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재료로 삼아서.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김양훈 위원

삼지구엽초 물량이 충분합니까? 삼지구엽초 약산에서밖에 안 나올 텐데.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현재 지금까지는 물량을 적정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충분해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계약한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축산농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농가부터 해서 7농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세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한 농가가 A 투 플러스 판매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12농가에서 3농가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사유는 저희들이 특별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먹이보다 차별화된 먹이를 공급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포닌이 함유된 먹이를 주면서 일반 관행적으로 했었던 축산농가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12농가에서 3농가 줄어서 이 3농가에서 이 물량을 이렇게 충분히 대줄 수 있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하면 그 물량을 장사를 안 합니까? 아니면 문을 닫아놓습니까? 물량이 부족하면.....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다른 한우도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 소는 별도로 사포닌 한우라고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삼지구엽초 먹인 전문 판매점은 아니네요. 검을 해서 판매를 판매점이네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우리가 완도에서 가지고 간 소만 판매한 게 아니고, 특별한 날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거래실적이 지날 잘 나옵니까, 거래실적이라는 것은?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거래실적은 제가 별도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실적은 아직 분석을 못했네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김양훈 위원

3그러면 그 3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3농가에 대해서 삼지구엽초는 먹이고 판매점 했는데 무언가 3농가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있냐고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고기를 판매할 때 출하하면서 그날 정육점 가격 최고등급으로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김양훈 위원

무조건 최고등급으로만 주는 게 인센티브에

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지구엽초를 하면 6개월 정도 급이를 하고요. 출하를 하게 되면 그날 도축장에서 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최고 등급 단가로 가격을 산정해 주고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단점이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 손으로 직접 환으로 된 보조 사료하고, 액상사료를 직접 손으로 주다 보니까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곤란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이 자동급이할 수 있는 보조사료급이기를 보조로 해 줬고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원료수급조달이 문제 있어서 자금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자금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해주겠다. 그런 조건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쪽에서 자금문제 때문에 약간 혼란을 겪고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수는 많이 증대 안 돼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팀장님 얘기한 원료수급조달이 문제 있다고 했는데 무슨 원료, 아까 사료 원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은 사료 충분하다는데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기초적인 원료는 공급이 되는데요. 제조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당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개월 사용을 할 때. 그러면 10농가면 100만원 잡으면 1,000만원인데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원료배합하고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들어 갑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최고 단가 해주고 100만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판매점에서 해주는 겁니까?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그거는 직접 마장동에 있는 대명축산이라고요. 그쪽에서 직접 농가한테 지급해 줍니다.

○김양훈 위원

대명축산, 그 판매점에서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면 최고 등급으로 해주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2농가에서 3농가로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그거는 중간에 농가들이 계약서 상대로 하면 원래 A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이것만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농가들이 A, B등급도 나오니까 그걸 해달라 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계약변경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기가 힘든데 C등급도 같은 가격대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

체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C 등급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찰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떨어 나갈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제 생각에는 완도에 있는 농가들이 결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한우, 완도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것도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완도한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원해줄 때 완도활력소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완도 것은 그렇게 판매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증대하게 되면 타 지역산 소를 취급을 안 하고, 완도 것만 취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도산이 판매가 안 되면 물량 공급이 안 되면 자기들이 타 지역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도활력소라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타 시군 것을 완도활력소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게 완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완도 것도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주지시켰던 게 뭐였냐면 완도활력소라는 건 어차피 완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품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그렇게 주지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급했었던 마케팅용 포장재나 이런 것도 완도활력소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 설에 한 번씩 점검했었는데요. 판매는 완도활력소 외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구분이 안 되면 만약에 우리는 좋은 소를 납품을 했는데 그것도 타 시군 것이 좀 안 좋아요,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걸 완도걸로 포장해서 판매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판매실적은 따로 따로 모니터링 해놓은 거 있어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판매실적은 도축검사증명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이분이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국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수출까지 한다고 그랬었죠?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수출하는 거 있는가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 인보이스는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물량을 1년에 500두에서 600두 정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딜레이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그쪽 담당하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원료수급이 되는 대로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MOU체결이나 하는 거 있어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저희들이 그쪽하고 MOU체결 하는 건 아니요. 제일 처음에 MOU체결 할 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뉴시스, 뉴스티앤티 거기하고 완도법인하고 해서 네 군데 그렇게 해서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원료수급을 원활하지 않고, 하는 농가들도 많지 않아요. 수출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물량확보가 제일 필수적일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만 처음에 수출한다고 해서 이 물량 갖고는 전혀 수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농가들하고도, 농가들도 뭐냐면 나한테 수익이 나와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오면 똑같이 해서 판매했는데 똑같은 수익금이 나온다면 하면 굳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이잖아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시범사업이다 보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브랜드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판매점 그분하고도 처음에 했던 약속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같이 소통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챙겨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업체들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와 판매에도 나서야 됩니다. 혹시 광주에 가면 장흥한우 대리점, 판매점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 참 장흥한우만 가지고 잘해봤어요, 판매점을. 가게에 들어가면 엄청 크기도 하지만 이번에 체인점까지 냈더라고요. 체인점까지 냈는데 그냥 일반홍보가 아니고 그 가게 들어가면 한우 홍보가 아니고 전체적인 장흥 홍보가 다 시기별로, 축제별로 다 걸어놓습니다, 플래카드로. 그게 쉽게 얘기 소고기 하나 먹

으러 갔는데 완도에 있는 모든 축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게를 들어가면. 그리고 그 가게 벽만 봐도 한우가 어떻고,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해서 소를 키웠는지까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홍보까지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판매점에 저희들도 같이, 홍보라는 게 큰 거 아닙니다. 플래카드도 조금만 비용만 들여도 충분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이 음식 먹으러 왔을 때 맛있고 좋은 고기, 사람들 많이 늘면 그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했다 했는데 시범사업 추진 참여농가가 적다는 것과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매우 미흡한 점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홍보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자연그대로한우가 저희들이 브랜드로는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완도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시범사업들이 잘돼야 공모사업도 타당성 확보로 인해서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시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축산농가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소득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공동방역하시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공동방제 말씀하십니까?

○박재선 위원

예. 하는데 우리가 모작을 일찍 하신 분들이 있고 늦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벼 크기가 논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럴 때 같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 것하고 큰 것하고 같이해도 맞습니까? 농약성분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위원님한테 확답은 못드립니다마는 공동방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모, 작은 모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농민들만의 민원은 없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민원은 공동방제단을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

제점이 있는 민원은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늦게 하신 분들은 일찍하신 분들의 농약으로 하니까 그 비율이 좀 다르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모작이 좀 큰 것하고 작은 것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잘 활용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 방역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박재선 위원

그리고 아까 상토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제가.....

○박재선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상토는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한 6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4,000만원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인증비도 친환경인증비도 군에서 지원해주죠?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아까 보니까 20%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감사할 때도 좀 여쭙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

민들이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지금도 점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회피하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시책뿐만 아니라 군비를 확보해서 각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농가들이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그 인증비를 친환경하신 분들에게 보태주는데 인증비 도에서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개 업체에서 인증비를 해서 농민들한테 받죠?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박재선 위원

지금도 2개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인증업체는 저희들이 특별히 2개 업체, 3개 업체 지정된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체로 맡겨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업체 어디 어디 지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런데 돈이 똑같아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인증업체는 거의 표준단가 제시해 놓고 그 가격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업체들이 비슷합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2개 업체

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이 인증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에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전국 기준단가로는 신청비 5만원, 출장비 5만원, 8만원 이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시된 금액으로 받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 교육 가지죠?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예.

○박재선 위원

그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농가들 교육은 주로 친환경인증기관에서 많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이런 데 교육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면 잘 배우려고 하고 저희들이 알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서도 잘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이 교육도 간단하게 받고 이렇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본 겁니다.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수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님.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수매는 지금 현재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수매를 했고, 전년대비 물량이 조금 적어져서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수매 외의 부분은 농협조합장에 얘기해서.....

상태입니다.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톤백으로 지금 하고 있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박재선 위원

톤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있고, 좀 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매 측정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군으로 해주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줄 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받고 합니까? 평방미터로 해서 의무적으로 도에서 우리군으로 내려줍니까? 수매량을 수매할 때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수매 양은 군에다 줄 때는 도에서 전년 대비 얼마 해서 정부에서 조정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양을 배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에는 농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몇 번 지적할 때는 보니까 수매를 하고 싶는데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그것을 얼마 하겠다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톤백으로 하면 몇 포, 그리고 20킬로짜리, 40킬로짜리 하면 몇 개 그렇게 먼저 해버리고 그걸 무작정 받아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상은 해야 되는데, 수매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농민들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런 농가들이 현장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

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100개를 수매하려고 준비했는데 60개나 70개 정도 수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수매가 끝나면 전 시군은 다시 해서 조율을 합니다. 수매량이 남은 곳에서 시군으로 재배정해주는데요. 이렇게 재배정 받아서 남은 잔량은 고금 쪽으로 약산 쪽으로 재배정했고요. 수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진 양을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농가들이 피해 안 가도록 전량수매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에도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도 하겠지만 군에서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6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생승마 학생 수가 500명인데 처음 신청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었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학생 수가 550명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승마체험을 현장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보면 590명 정도가 체험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민 위원

체험학생을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확정기준은 저희들이 학생 수 대비 기금에 포함된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 초과된 부분은 아마 승마클럽에서 재능기부형태로 나머지 부분은 체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보면 자부담이 1인당 9만 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군은 자부담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저희군에서는 사업초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는 관내학생들의 신체증진을 위해서 허락된 예산범위 이내에서 현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자부담비를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민 위원

혹시 군 참여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완도초등학교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완도군 관내학교는 다 포함 되겠네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도서까지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위원

500여명의 학생이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 현장승마체험장에 가면 말먹이체험

을 하고 있고요. 구간을 정해서 실내승마체험 하고 야외에 있는 승마체험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방식은 지금 말을 한 학생이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사전에 몸풀기 하듯이 하고 한 말을 타게 되면 말을 인도해 주는, 승마체험인도해 주는 분이 한 분이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 위원

보통 주말에만 하나요? 학생들이.....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주중에도 합니다. 학생체험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주중에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주중에 오는 건 학교체험활동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예.

○지민 위원

혹시 그러면 금일이나 노화나 소안에서 오는 학생들은 단체로 나와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학교버스로 나와서 2, 3시간 정도 타고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민 위원

전체 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다 오지는 못하고.

○지민 위원

오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1인당 보통 하루에 1시간 기준이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2시간, 3시간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민 위원

혼자?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1인당.....

○지민 위원

그러면 1회 체험기준의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1회 체험기준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시간 기준을 잡고 하는데요. 섬, 도서에서 온 학생들은 한 번에 와서 계속 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주고 같이 운영해주고 하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나 인솔교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하루 이렇게 나와서 2회나 3회 정도 체험을 했다고 기록을 할 수 있겠네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런 경우도 운영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1회당 체험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1인당 체험비는 1회 1인당은 3만원 하고 있고요. 총 10회로 32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국비부담이나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랑 다 해서요. 1회당 3만 2,000원에 10회면 32만원.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출석확인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출석확인인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체험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합니다. 학생들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 가입한 만큼 출석체크해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근거를 남기고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거기 현장에서 출석체크를 할 때 그 출석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참여신청서.....

○지민 위원

신청서 말고 본인이 일일체험 했을 때 출석부.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출석부가 별도로 참여확인을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냥 거기에 자필서명으로 하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자필이나 인솔자가 하는 겁니다.

○지민 위원

인솔자가 한꺼번에 할 수도 있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인솔자도 있고, 자필도 하고 어린 학생들은 자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솔자가.....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래도 자기 이름은 다 쓰잖아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렇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지민 위원

출석부 본인 자필서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것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대리서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릴 수 있습니다.

○지민 위원

출석확인을 방법을 꼭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출석이라든지 개인카드로 한다든지 요즘에 지문등록도 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5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지문등록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1인당 10번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10번을 다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주말에 체험하는 학생들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0번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정산을 할 때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이게 출석부가 우선이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확인서, 사진, 체험일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 위원

보험을 넣었으면 당일날에도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럴 수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현장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분기에 한 번 가는 걸로 수시로 현장을 제가 다녀오기도 합니다. 명확하게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확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분기 1회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위원

보통 평일에 하시겠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평일에도 갑니다.

○지민 위원

학생들이 보통 주말에도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주말에 더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민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4월달에 선지급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모든 보조사업도 그렇지만 선지급된 것을 신속집행개념도 있고요. 우리가 선지급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조금 학생들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위원

그 비용들을 월별로는 조금 그러니까 분기별로라도 나눠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지급을 다 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해서 또 다시 환급받기도 그렇잖아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 부분은 제가 분기에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

서 일괄지급을 지양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분기별로 체험을 한 만큼만 그때그때 몇 번 했다는 그만큼만 지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정산서류대로만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위원님 말씀.....

○지민 위원

우리가 서류도 종합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산서류를 보다 보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첨부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플 카메라가 있어요. 좀 더 정확성을 따지자고 하면 그 사진이 찍힌 날짜, 분과 초단위까지 나오고, 그 주소지가 다 어플로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마지막 끝난 1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학생의 끝나는 시간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관리나 감독 등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만큼 학생들이 부족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지역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6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의 입양을 하고 있어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우리군에서는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입양을 보면 상담을 먼저 합니다. 유기견을 입양 상담을 하고 사육환경도 조사를 하고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설문서 작성해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에 입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기견이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양자격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서 입양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리고 입양 후에도 입양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우리 유기견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혹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자로 확인하고 입양했던 부분

에 대해서 유기견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사전에 입양하기 전하고 입양 후하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 다시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관련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22년도 8월 정도 되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그때 시작할 때 8,000만원 정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지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맨땅에다가 유기견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보호센터 놀이터하고 높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높이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슬로프공간을 별도로 했습니다. 슬로프 공사하고 거기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요즘 들어서는 먼지떨이기하고 진드기 퇴치하는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자재값 상승효과가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민 위원

혹시 여기에 주차장 조성 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당초에 주차장도 포함해서 된 겁니다.

○지민 위원

그전에 8,000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어.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저희들도 실적보고 하면서 사업시행사하고 딜레이를 많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화장실 보면 1억원을 그때 요구를 하셨었어 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지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반값으로 이 반값으로 가능합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처음에는 화장실을 건축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시공해서 몇 번 돌아보니까 조립식 이동형화장실이 맞춤형이 나옵니다. 맞춤형 현지조사 한 결과 맞춤형화장실로 장애인화장실 포함해서 그걸로 해서 절감된 상태로 했습니다.

○지민 위원

처음에는 건축형으로 짓는다고 했으니까 1억원이 들었고, 지금은 맞춤형조립식이니까 반으로 준 거예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감사 책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에 반려견해

양치유공원 조성공사 보완조치 요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 보완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처음에 지금 동물보호센터하고 놀이터 사이에 옹벽을 친 상태였습니다.

옹벽을 쳤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옹벽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전상 위험 때문에 옹벽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슬로프형으로 30m 정도 슬로프를 교체 그 부분이 재시공된 상태입니다.

○지민 위원

한번 됐다가 재시공을 해서 보완요구가 떨어졌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처음에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옹벽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슬로프 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민 위원

올해 말에 준공이죠?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됩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준공은 현재 슬로프 끝났고, 화장실 다 했고, 지금 잔디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심어지고 주변 환경 정비하면 12월 중순경에 준공 가능합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오픈은 내년에 하시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오픈은 시범점검하고 해서 오픈일정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공사 끝나면 한번 견학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민 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운영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

셨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운영계획은 반려견 훈련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려견 훈련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반려견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방침이나 이용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병수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본계획과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이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하드웨어는 과에서 직접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거점센터도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나 1년 정도 연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추진단 운영이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추진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군외면에서 추진되는 농촌친환경플러스사업도 예외일 수 없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연속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소프트웨어사업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고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드웨어가 끝나도 플러스사업단이 유지가 됩니다.

플러스사업단에서 유지를 하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과 별도 프로그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탭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한 가지는 지난 20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경에 2024년도 사업신청 받으면서 담당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다면 금년 초에라도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도록 신청이 될 때 했어야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금년도는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병수

여기에 보면 담당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2024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기 전에 금년 말에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교육실시 했으면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이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유기질비료공급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병수

금년에는 17억 4,0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중에 군비가 78%인 13억 6,000만원, 국비는 11%인 2억, 도비는 3%로 5,500만원 자담이 8%인 1억 2,300만원 지원했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병수

맞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 선정이나 공급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군지부하고 각 농협비료담당자가 비료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체회의를 합니다.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제품 선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보면 제품은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단에서 일괄 선정하고자 하는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제조사를 한 1개월 전 읍면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장단장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료가 공급되면 군에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숙성도 등 비료질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하고 있는가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위원이 몇몇 농가에 확인한 바로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가에서 자부담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부담을 했다는 것인지 그건 누가 부담했을 걸로 생각하나요?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박병수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비료공급을 받았다면 누군가 대신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이 좋지 않은 비료가 공급이 됐든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군민의 혈세 예산 17억여원이 들어간 보조사업이니만큼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병수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숙성도라든가 성분면에서 질이 그만큼 떨어진 비료가 공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위원님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부서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 방현수 팀장님, 다음은 기반조성팀 김중석 팀장님, 해양관리팀에 황춘 팀장님, 해양환경보전팀에 문제술 팀장님을 소

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어업기반시설사업 배정개선 외 2건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기반시설사업 제도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읍면별 어업기반 시설을 선정할 때 어가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별 어가 수 및 어선 수까지를 감안하여 어업기반시설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근 3년 이내 지원 받은 어촌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토록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어촌수나 어가 수가 적어서 어업기반시설이 그동안 전무했던 낙후어촌계 배려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 크레인이 탑재된 5톤 이상 어선이 많은 노화읍 등의 경우 인양기보다는 부잔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읍면별 어업형태나 어선톤수를 감안하여 효율성적인 어업기반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기반시설사업 배정시 읍면별 어가 수, 어선현황, 비배정현황 등을 참고하여 현지조사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양식업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금년

도 1분기에 해양수산부에 지주식 김양식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이 우리군에 확정되었으며, 3분기 총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6,500만원이 먼저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군 정리추경에 군비 3,5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으며 현재 지주식 김양식업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종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 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는 대나무 지주식 구입 및 포장지 제작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완도군 전통어업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주식 김양식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2020년부터 군 일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방식을 해양쓰레기 처리요청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2주가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서 낙찰자 선정 전까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육상집하장으로 임시 운반했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급한 경우 현재 육상집하장으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여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가급적 읍면별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규모로 자주 발주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규모 수의계약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해양쓰레기 발생량 수시모니터링을 위해 민원발생 전에 신속하게 해양쓰레기

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개선주요내용은 지구별 수협 및 전복산업연합회 사업 중복 우려와 냉동보관창고 미확보시에 보관비용 발생문제, 또 원초수매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의 물량수매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금일수협, 소안수협, 전복산업연합회와 협조하여 해조류부산물을 수매하여 추분기 어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22년 해조류부산물 공급사업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군관계자가 사전회의를 통해 최대한 균등하게 어가에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의 어가공급시까지 냉동보관을 위한 관리비용산정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원초 수매는 완도군 어업인 물량을 전량 수매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원초 수매를 원칙으로 하여 전복양식어가수를 감안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군 관내 간척지 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수질 검사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개선 주요내용은 완도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간척지 조성 기능이 이미 상실됐고, 간척지 내 저층부 오염물질 방류시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완도도암만의 경우 해양환경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고 향후 약산 관산호, 금일 월송호, 고금호의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는 완도 화흥포와 고금호에 대한 수질오염 분석 및 수질검사 의뢰 결과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간척지 관리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구적인 간척지수질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양식생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관내 간척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8년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2028년.

○조인호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그동안 우리군에서 정부의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광역 지자체에서 최소한 국제행사승인을 요청했을 때만 승인을 해준다고 국무총리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그동안 이뤄던 역사나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해 왔고.....

○조인호 위원

그러면 전남도 입장은 어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전남도에서는 28년에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려울 때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인호 위원

당초 2021년 해조류박람회를 하려다 취소됐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2021년에.

○조인호 위원

그 대행업체하고 이해관계로 소송 중에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어떻게 추진 중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그때 당시에 전시연출을 담당했던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업체 모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 운영을 담당했던 업체하고는 4년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연출을 담당했던 업체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요청을 해서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위원

1심 결과 나온 것은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대행사의 과업내용 중에 완도군에 귀속시킨 재산이 혹시 있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니요. 없습니다.

○조인호 위원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지난 11월 11일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치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치유박람회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잘 모르겠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자료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제주도에서 작은 규모지만 치유박람회를 10일간 개최를 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완도가 해양치유 개관식을 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조류박람회도 해양치유가 연결되게끔 박람회를 준비를 해보려는 사안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앞으로 수산물축제도 해양수산물 해양축제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양치유도 해조류를 빼놓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남도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가 도출됐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여기서만 대답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군 실과장님들이 보면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그 자리 끝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보고 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다음은 섬주민숙박비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돼서 시행하고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올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섬주민숙박비로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첫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가 그래도 조금 좋아져서 올해 준비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사업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점점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남산면, 소안, 노화, 보길, 청산면은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일, 생일, 금당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걸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올해 소안, 노화, 보길 쪽도 야간운항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금일, 금당 쪽에 늦은 시간에 배가 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금당주민들 생활권이 고흥 녹동이에요. 그러면 고흥 녹동에서 영수증을 끌어오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가능합니다.

아, 조례를 보면 군외면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의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외딴섬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 손꼽히는 해양도시이며, 해조류양식보고조, 완도군이?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그런데 최근 5년 이내에 수산업 장인이나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신지식인 선정된 사례는 제가 1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조인호 위원

완도군 수산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돼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인호 위원

아직 한 사람도 선정된 사례는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 신안군에서는 갯벌잡이 장인 보류자 선정이 일곱 분이나 돼 있는데 혹시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신안 같은 경우는 국가중요어업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업에 종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완도군도 참치낚시나 주꾸미 낚시, 굴, 석화까지 매생이 재기 만들기 등 이런 것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도 수산업으로 주로 어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전라남도 내에 기초에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완도, 신안, 순천 세 군데가 있

는데 현재 순천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신안도 한 번 운영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전라남도 에 명장을 선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이런 분야 와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남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군 에서 이 조례를 우리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신안하고 순천 그러는 건 좋은데요. 우리군만 따로 특색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고금 화성리 가면 지금 굴 까는 철 아니에요? 굴까기체험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콘텐츠가 되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군이 상징하는 군 의 물고기는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군에서 만들 용의는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완도군상징 물 관리하는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산물에 대한 것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이범성 전 의원이 군정 질문답변 할 때 이 부분 이렇게 한다고 답변이 된 것 같은 데 전혀 신경을 안 썼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광군 같은 경우 참조기, 함평군은 뱀장 어, 충북 단양 쏘가리, 부산 기장은 멸치, 경북 영덕은 황금은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많은 어종이 나오니까 용역을 한다 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근 울릉도에서 군어를 지정한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엇그제 보니까 오징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참고하시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이것도 다 군민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방금 아까 전에도 2022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조류 부산물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고수온으로 인해서 곰피 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조류에 다시마나 고수온에 못 버티기 때문에 곰피로 이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곰피가 고수온에 많이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거 대책이라고 해서 해조류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많이 필요합니다. 부산물을 저희가 수거해서 어민들한테 나눠주면 굉장히 선호하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선 위원

부산물을 매입을 할 때 동부권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에서는 안 나오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박재선 위원

이게 물때가 저장, 냉동창고에 이것을 보관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소안수협도 냉동창고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이거를 나올 때 수확될 때 수매를 했다가 나중에 보관하려면 냉동보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재선 위원

쌀 때 많이 보관해서 저렴하게,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국립해양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관문인 문체부 설립타당성 통과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박재선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관문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이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기재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준비를 하는 것을 했었는데 기재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기재부로 금년 4분기 예타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신청서를 보냈고 기재부에서 KDI와 기재부타당성심사과 그다음 기재부 예산실에서 같이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재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립박물관이 예타대상사업으로 될지 말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내년 에 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자체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또 해수부 입장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지금 이 일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 2차가 남았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차 통과하기까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들도 동참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2차 관문 기재부에 가서도 우리 예비타당성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할 장소에 그러면 군 관리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그 부지 저희가 지을 부지는 다 아시다시피 확보가 돼 있고 주변에 진입부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 부분이나 배후부지 바다 인근 부지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일대 전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런 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주변에 보면 진입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진입로는 어떻게 길을 할 수 있어요?

○박재선 위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하고 생태전시관 사이에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서 생태전시관 앞으로 해서 우리 부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 길이 되게끔 그쪽 매립을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그것은 사전이행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도22호선에서 바로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도 두 군데 정도를 개설할 요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요. 진입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수산박물관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본 거고요. 인근 매립을 하게 되면 그쪽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해결을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제가 매립을 우선하려는 부지가 한 10필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려는 부지가 66필지 정도 됩니다.

우선 급한 부지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에도 개인도 그 땅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인근에 보면 전복축양장들이 다 보니까 육상축양장이 많이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박재선 위원

공사하는데는 그쪽하고 상관 없을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거기가 전복치패 양식을 하고 있는 치패장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때 그분들한테 공사를할 때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양해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개의치않겠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치패장이 12달 내내 치패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패가 없는 시기를 택해서 가급적이면 소리 나는 공사는 그때 진행토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 주십시오. 그때 돼서 그분들하고 양식장에 물건이 들어있을 때 진동이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주시고 겨울 되면 몇 개월 동안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시기에 또 이렇게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게 수산박물관을 완도에 유치하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차 관문도 통과했고 앞으로 2차 관문이 남았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해결이 잘 돼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만큼 수산박물관이 우리 대한민국이 3개 있는가요, 4개 있는가요? 박물관이.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해양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2개가 있고, 우리 수산박물관이 확정이 되면 그 법에 완도박물관이 3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우리 완도군 수산박물관, 수산군이기 때문에 최고 1등 가는 그런 수산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다정원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청산 지리, 청산 국화리 곰피, 감피 이식을 하고, 올해는 청산 국화리 해역에 잘피 감태를 이식 추진 중인데요. 작년에도 청산 국화리 해역에 사업대상지였는데 올해도 청산 국화리 해역이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올해 다시 선정한 것은 물론 사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서 적지여야 할 수 있는데 국화리가 적지로 선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국화리하고 지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국화리하고 지리가 바다에서는 경계가 지리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국화리 쪽에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연장선에서도 좋고 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적지선정은 누가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국화리하고 지리가 이 앞전에 한번 해서 했는데 이게 잘피하고 맞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잘피를 이식할 요량으로 적지조사를 했고 저

쪽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김양훈 위원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적지조사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작년 부지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제가 기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적지조사는 여러 군데를 다 해봐야 돼요, 어디가 진짜 적지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계속 그쪽만 고집하는 것은 뭔가 있지 않나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군데를 해봐야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아쉽긴 합니다. 한국수자원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조성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조성한 것에 대해서 올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쪽 작년에 이식해놔던 것이 일부 자생 서식을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 주변 일대, 생물서식분이 조금 더 달라질 모습을 보여서 효과가 저희가 대단한 효과는 아니지만 서서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이것도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이 사업은 곰피 이식한 22년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맞습니다.

지금 22년도에 했던 것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올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 전에 군비로 했었는데요. 곰피 상태가 거의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잘 피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돌리고 있고 잘피가 탄소흡수원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청산 국화리가 수심이 얼마나 나오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심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공단에 맡겼으니까 아마 부서에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피 같은 경우는 수심 깊은 데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식을 해도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피 같은 것은 1m에서 한 5m 이내 돼야 돼요. 그래야 잘피가 사는 거지. 우리 간조 때보면 잘피가 물에 보여요. 빨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 맞는 데로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심스럽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방이 편하게 한 군데 연결사업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 또 이식 해봤자 또 안 나와요. 적지 선정을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없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가 누가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효과가 없다. 적지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적지를 안 찾아요. 지금 했다

는 게 뭐냐면 청산, 신지 이쪽이잖아요. 사업 효과가 나올 수가 없죠. 수심 깊은 데 들어가 봤자 생태계하고 안 맞는데요, 환경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조조사 할 때도 관여를 하십시오,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올해도 잘피 품종변경 추진한다고 예산 변경된 거고, 모니터링 결과도 크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사업선정됐더라도 안 맞으면, 환경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장소변경을 하십시오. 꼭 거기를 고집을 하지 마시고. 변경을 해서 환경 맞는 데 이런 데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은 언제할 계획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올해 것은 이식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위원

23년도 것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그거 지금 청산에 했다는 얘기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또 모니터링하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할 때 지난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품종이 바뀌었으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희 방향은 잘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잘피, 지금 잘피 이식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예. 올해도 잘피를 이식했고 내년에도 가 급적이면 잘피중심으로 잘피가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잘피 중심으로 이식을 진행 중입니다.

○김양훈 위원

잘피를 한 걸 내년에 또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해서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해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주는 거예요, 공단에다가 그분들한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고로 그동안 이식한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줄에 묶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것을 조금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그 방법을 작년에 시도했는데 올해 그게 감태도 발위에 붙어서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해서 올해는 방법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피가 일본에서는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했어요, 살리려고. 잘피가 탄소저감에도 많이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7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쪽 분들 얘기로는 70, 80%는 왕성해졌다, 옛날에 다시 준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을 느낄 거예요. 다시 해 봐야 되고, 한 번에 이거 된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꼭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라도 먼저 학회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무조건 바다정원화사업을 해야 되니 무조건 심자 이런 틀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군비보조 60%에서 70%로 좀 늘었어요, 군비부담률이?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김양훈 위원

늘은 이유가 있어요? 군비가 도비사업, 처음에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로 좀 내려왔던 것이 군비로 부담이 더 돼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전문직한테 물어봐야죠. 팀장들한테 질문을 하라고요.

○김양훈 위원

과장님이 하면 좋죠. 물어보는 겁니다.

○조인호 위원

수산직들한테, 그 직렬들한테요.

○김양훈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 군비부담이 좀 늘었는데.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피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정원화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갯녹음 확산이 진행되는 연안해역에 해조류를 이식을 통해서 해양생태계를 곧 복원을 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군비가 70%, 도비가 30% 했는데 10% 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안 맞는 사항인데 19년도에는 도비, 군비해서 5 대 5고요. 21년도에는 도비 30%, 군비 70% 해서 23년까지 도비 30%, 군비 70%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5 대 5.....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당초에 21년도, 20년도에는 군비가 50% 도비가 50%였는데 20년도에는.....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5 대 5로 내려왔던 사업이 왜 7 대 3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 사업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군비했으면 좋는데 처음에 도에서 시작해놓고 이제 나중에는 점점 군에다 밀어붙이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수산전문이니까 이럴 때는 도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도비를 더 주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비 온 것만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채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도에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느닷없이 20%나 적게 주는지 이런 부분도 팀장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제가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에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도에서 조금 주고 다 군비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군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무튼 정화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잘돼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게 바다환경은 무조건 살려져야 됩니다. 살려져야 되고, 또 환경이 좋아야 어민들 소득창출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꼭 별도로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할 때도 직접 같이 팀에서, 아니면 과에서 같이 참석을 하십시오, 동행을. 그래야 공단에서만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두고 결과지만 받아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게만 얘기하면 좋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참여를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다목적친환경 ****82:42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46페이지..... 지금 총 사업비는 75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선급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 지급했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80%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언제 지급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1차는 21년도에 배합하고 그달에 70%를 지급을 했고, 2차는 금년 3월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차에 39억, 2차에 9억 4,000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선급금을 준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행안부에서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급을 먼저 70% 했고, 또 거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10% 정도 해서 80% 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사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10%를 추가로 법정한계까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였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당초 준공은 언제까지.....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술입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최종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22년 12월 9일까지였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23년 2월 25일, 3차가 지금 올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 이후로는 지체 상환금을 부과를 했고요. 2차를 23년 12월

2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재계약은 언제였나요?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재계약은 4차 때 해서 10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0월 30일날 재계약을 했죠?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예.

○위원장 박병수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처음에는 크레인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샀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늦춰졌고요. 그 이후로 조선경기가 좋다고는 하나 그 업체가 경쟁입찰도 받았는데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지연배상금까지 부과된 상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연수중공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은 없나요?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지연배상금은 지금 6억 8,000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부과를 했습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자연배상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자연배상금은 확보를 하고 그거에 따른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한 140여일 정도 자연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독려하고 자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것하고 여러 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 조선업체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진척관계에서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를 시키면 그 배를 다른 조선소로 옮길 수 없는 여건이어서 자연배상금 부과하고 다시 추가로 재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보증이행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3년 11월 27일에 부분급이라고 해서 5억을 지급을 했어요. 이 건 또 뭘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지금 산재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물권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물권확보 보증을 하고요. 그걸로 물권 확보된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기간 부분이 12억 정도가 돼 있는데 5억 부분을 저희가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금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안전장치는 돼 있단 얘기죠?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연장된 준공기간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저희가 물권확보는 협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기간 부분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완료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완도군 선적증서가 확보됨으로써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기에 보면 준공기한이 12월 20일까지인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지금 최대한 거기서 20일까지 맞추는데 거기에 따른 자연이 되면 자연배상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선주업체 조선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상태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무튼 작은 사업비도 아니고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지금 상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 고마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2년 한 달 평균 운항횟수가 100회 정도 되고요. 이용객 수는 약 5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영식 위원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70회 운항, 이용객수는 약 400명 정도 파악되어지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영식 위원

그렇게 되겠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영식 위원

1월부터 10월 중 추석 전에 운영 정지된 적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고마도.....

○조영식 위원

지금 고마도와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며칠 정지됐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정확하진 않은데 추석을 앞두고 한 달 이내로 정지가 됐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일 몇 회 운행합니까, 지금 현재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3회.....

○조영식 위원

3회요. 그러면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비슷한 수치가, 운항횟수나 이용객들이 비슷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운항횟수나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아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계 안 된 것하고 정지하고 안 돼서 그런 거죠? 정지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영식 위원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일 며칠 운행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기존에 일일 3회로 운행을 했었는데 추석 전에 고마호가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선주님 형편도 있었고, 마을 재정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일일 2회로 줄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일 2회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조영식 위원

주민요구사항은 본 위원에게 말 했을 때는 일일 4회 기존에 했다고 그래요. 보통 대체로

보면 도서관 편의를 위해 운영을 늘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마 야간운항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줄여야 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고마호나 사후호나 마찬가지로 도서관들이 직접 마을에서 선주를 선출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배가. 고마호가 현실적으로 고마호도 그렇고, 사후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원예산이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고마호에 대해서 이번에 추석 즈음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군 재정도 어렵긴 하지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는데 본예산 편성 부탁을..... 그러면 주민들이 하루에 네 번 다니다가 두 번으로 갑자기 줄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이 불편했겠죠? 아마 행정에서도 관심 갖고 특히 이 질문은 팀장한테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단답형으로 물어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배 도선 검사는 잘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검사는 곧 할 예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검사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것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고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의회에서 자꾸 협조만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지역개발과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에 김승훈 팀장입니다. 섬발전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어촌활력팀 최진우 팀장입니다. 어항개발팀 김두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 제도개선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어항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규제 완화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공유수면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매립제한면적을 1,000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내후년인 2025년에 계획수립에 착수합니다. 금후 행안부 소관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건의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의 공유수면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소규모매립가능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유재산 처분방법에 대한 법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양장 등 국유재산에 대한 토지소재지 내의 새마을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토지소재지 내 새마을회, 즉 마을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수익계약매수가 가능하도록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협의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43, 44페이지 완도항 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인구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완도항의 지리적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군수님께 완도항 확대 조성이 필요한 정책대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고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완도항의 그러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반시설이 좁고 어구손질이나 기자재공급을 위한 공간이 좁아서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항 개발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이 무역항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항만기본계획은 해수부 소관으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가 2011년도 제4차 기본계획 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2030년까지는 기본계획 반영을 못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시정요

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기본계획은 10년인데 중간에 5년마다 이렇게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 7월까지 수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내년 7월이요? 2024년도 7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과업기간이 아마 올해 6월인가 발주돼서 1년으로 해서 수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수정계획이라 하면 기존 항만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 것을 수정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편입을 시킬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기존 계획에 돼 있는 것도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소규모 꼭 그 항만에 필요한 사항은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현재 개발중인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우선부두 축조공사는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4차 기본계획에 기반영되었던 중앙방파제하고 유선부두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북방파제 부분도 아마 중앙방파제하고 유선부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어서 2030년까지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현재 지금 다 진행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군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기본계획에요?

○최정욱 위원

예. 계획 중에 우리가 우리군에 필요한 거 서로 반영 어떤 그런 것 있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방파제라든가 유선부두, 또 북방파제 확장, 또 해양사무소 앞으로 임항도로 이 부분은 기건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강독물양장을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계획에도, 수정계획도 지금 발주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수정계획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수님과 위원님 모시고 해수부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강독이라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완도항이 좁다고 해서 4차 기본계획 할 때 강독마을 완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앞쪽을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고 해수부에서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우리 완도항에서 맞은편 보는 강독을 말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런데 저희도 발주하면서 이번에 용역사 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 강도 부분은 진입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하태 쪽이 더 항만기본공사가 좋다고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쌍용플래티넘 아파트 너머에 쪽으로 매립한 것도 완도항 뒤로 확장 추진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기본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렇게 약간 변경하는 건 가능하되 당초 기본계획이 중앙방파제를 아예 없앤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대규모 변경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정욱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기본계획을 기존에 세워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경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그게 아까 말했던 내년이라고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 수정계획은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1년 과업기간으로 해서 해수부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최정욱 위원

기본계획변경하려면 앞으로 10년 또는 30년도 그때나 돼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기본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우리 기본계획대로라면 사업 완료 후에 접안시설 확충이나 조업어선 작업공간, 그러니까 작업공간 효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기본계획은 작업공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계획은 해조류센터에서 수협 위판장까지 거기가 물양장이 오른쪽 부분보다 좁습니다. 거기 물양장 확장하는 것하고 중앙방파제가 신설이 되면 그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약간 중앙방파제하고 우측하고 주도 사이가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계획에다가 중앙방파제하고 주도 사이 거기에다가 파제제 약간만 시설만 하면 확보가 된다고, 중앙방파제 연장 부분하고 벽면에 가다 보면 유선 부류식 선박계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중앙방파제 안쪽으로 5개소 정도 선박계류장도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방금 중앙방파제 연결 부분 파제제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배 선로 생각했어요? 중앙방파제가 생기고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봐서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또 방파제 연장을 한다면 다니는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쪽으로는 대형선박이 사실상 입항을 안

합니다. 연근해조업선단과 20, 30톤 입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 추가 방파제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그리고 중앙방파제 생기면 거기에 정박하거나 거기에서 어구손질 할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만 합니다.

○최정욱 위원

앞으로 중앙방파제 그런 활용도로 쓸 계획은 없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건 말 그대로 파제제,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정욱 위원

원래는 그게 처음에 관광자원화식으로 물쇼를 하는 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달라져서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파제제 역할을 하는 중앙방파제 역할인데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저도 기본계획을 봤는데 접안시설 확충이나 작업공간 확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설 확충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

하여 혹시 방안은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강독 끝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생각을 하고 그때 했는데 안 되니까 그대로 스톱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강독물양장, 강독 쪽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내부검토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아까 수정계획은 중앙방파제 연장, 그다음에 해조류센터에서 수협위판장까지 물양장 확장, 그다음에 북방파제 가마구미 쪽으로 물양장 확장해서 가마구미까지 도로 연장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일단 저도 나름대로 그 방안을 마련해볼게요.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쪽 편입 도선 쪽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저기 했는데 저기가 해상국립공원으로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일단 4차 기본계획 할 때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었는데 올해 국립공원구역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저 강독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앞부분은 바다해역 부분만 국립공원지역 해제가 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신기리 가마구미 쪽에 지금 예전 해경부두 있는 데가 이번에 경제교통과에서 해서 일부 매립을 해서 배 접안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까지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수정계획은 저렇게 대규모로 사업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5차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고, 수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아까 물양장, 완도항 확장하고, 선박계류시설 그다음에 지금 북방파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약 한 50m 폭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고요. 소규모 확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 향이 어차피 우리 완도읍과 아까 말한 편입 물하태 쪽이요. 그쪽과 가마구미 쪽 이쪽이 우리향으로 봐야 맞아요, 전체 향이 . 맞잖아요. 지금 보면 일괄 둥그런 형으로 해서 배가 들어와서 전체 향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저거는 기본계획에 아마 저렇게 전체를 반영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뭔가를 향 기본계획을 우리군만의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죠. 거기에서 수정계획안에 금방 우리 과장님 말한 소규모 수정계획을 할 것을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기본계획대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대안도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7대 때도 의회에서 했더라고요. 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보니까 19년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군정질문 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저런 쪽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 군수님께 이번에 질문한 것도 저 향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 도

시를 낀 향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쉽지 않아요. 우리 완도만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되지, 일자리창출, 경제효과, 여러 가지 백년대계 저거 한번 해놓으면 사실은 언제까지 저건 우리 완도가 있는 한은 저거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지리적 여건이 여수, 목포,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완도항이. 그러면 자연스레 배들이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문제는 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도 7대 때부터 꾸준히 저런 제기를 해 왔다면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추진 해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했다면 기본향만계획 수립에 못 들어갔겠지만 그전에 7대 때 했더라면 가능했던 거거든요, 미리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저런 거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향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가마구미 쪽에 완도마리나향만 예정부지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인가요, 그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것도 향만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해수부하고 마리나 향만계획이 있거든요. 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떤 걸 말한가요, 완도마리나향 뜻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제가 전에 인터넷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마리나 입지 용역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마구미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정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최정욱 위원

예정구역이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러니까요.

○최정욱 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은 보니까 생각은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어려움도 많겠습니다. 완도항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점차 넓혀져서 우리군이 고민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기본계획이 조금씩이라도 변경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우리군에서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완도읍 도시를 낀 항구로써 관광자원화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꼭 군정질문과 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이번에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히 계획 삼아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서 저에게 한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중간보고 때,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경관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경관목적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인공건물경관을 가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경관관리는 자연환경, 도시, 건물, 주변환경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적은 큰 틀로 본다고 하면 환경부, 도시계획 및 디자인, 자연경관개선, 농어민 농촌환경, 건물, 주택개선 이런 큰 틀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완도군경관계획 재정비자료에 의하면 23개 진입경관거점을 설정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완도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여기도 설정돼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21년도 경관계획에 진입경관 23개소 해서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포함돼 있어요? 여객선부두는 해양도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경관관리를 보면 완전히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거기가 마을하고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구, 어항이 조금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가서 보면 주변환경도 마찬가지로 전혀 아주 엉망으로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용역추진중인 완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진입경관거점 관광자원기반시설 포함해서 품격 있는 해양도시에 걸맞은 여객선부두 경관관리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위원님 저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경관도 이 업무가 전에는 전담팀이 있다가 조직개편과정에서 산림휴양과로 갔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직원 한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사업 별도로 사실상 경관목적으로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모두가 경관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면 경관조례에 맞게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회의에서도 여객선부두 경관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명으로 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 화흥포하고 당목, 경관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때도 관심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완도군 어항관리조례에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가 명시돼 있는데 어촌관광 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어디가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촌관광지로 별도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촌관광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완도군에 하나도 없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조례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것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어촌관광구역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이거는 팀장님이.....

○김양훈 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어촌활력팀장 최진우

어촌활력팀장 최진우입니다. 말씀하신 어촌관광구역은 지정구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앞으로 만들, 지정할 곳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생각해 본 것은?

○어촌활력팀장 최진우

어촌관광구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은 도지사, 그다음에 어촌정

주어항은 완도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국가어항은 해수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어항이라든가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어민들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항이다 보니까 어촌어항법에서 말하는 어촌관광구역은 해양관광 레저형선박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어렵고, 국가어항 지금 완도항에 있는 국가어항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통한다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쉽게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도 계획에 올려서 그런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팀장 최진우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본 위원이 항을 돌아보면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하는 완도군의 진정한 모습인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선 두 곳, 항구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금년부터 국내 최초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또 웰니스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관문인데 무질서하게 하는 곳이 있으면 완도의 품격이라든가 이미지, 이게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흥포는 첫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첫 관문입니다.

첫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

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경관관리 조례에 의하면 5년 주기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구만큼은 특정경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급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표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부터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때도 보고할 때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잘 들었을 겁니다. 큰돈을 안 들더라도 조금만 변형하고 조금만 환경개선을 해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도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조형물을 많이 세워서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교수님 말처럼 있는 것,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이건 경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첫 인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국가어항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국가어항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국가어항이 8개입니다.

○조인호 위원

몇 군데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8개입니다.

○조인호 위원

8개죠. 완료된 어항과 앞으로 개발된 어항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이목항, 청산도 여서도항, 사동항, 당목항 부분이.....

○조인호 위원

이목항 이번 달에 준공인데 예정대로 준공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이목항은 11월 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섬 사람하고 접안장 문제로 협의를 완료한 게 지연돼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목항이 시끌시끌 한다는 소리, 도선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것은 선사처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청산도항은 해수부가 지정한 쾌적한 어항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제가 와서 8월달인가 목포 쪽을 갔거든요. 청

산도항이 당초에 쾌적한 어항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가 해수부 내에서 그게 약간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클린어항사업으로 그 사업이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산도항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사업 자체 목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클린어항사업으로 대체가 되니까 클린어항사업으로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클린어항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제가 목포청에서 그러면 청산도 주민들은 그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다. 클린어항사업 할 때 청산도항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목포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뀐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론에 났다 시피 170억인가 클린어항사업으로 선정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해수부에서의 입장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인호 위원

과장님, 약산 당목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기본계획 완료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당목항도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되는

데 해동리하고 당목리 2개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래 물양장부터 해야 되나, 밖에 방파제 밑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조율과정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최종으로 목포청에서는 외만시설하고 내만물양장 같이 하게 되면 500억이 넘어서 기재부 예타관리사항이 된답니다. 최종적으로 외만 시설 500억 들어가는 것하고 추후에 내만시설 하는 걸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국가어항 금일 도장항을 해봤는데 자꾸 주민들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한 번 밑으로 내려가면 한 5년, 10년이 지나버려요. 잘 알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해동하고 당목 주민들을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만 필요한 거 아니고 생일, 금당 배가 당목에 서잖아요. 모두가 다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 당목항에 대해서는 다른 항도 중요하지만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전액국비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군비 안 들어간 사업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중앙지구 어울림복합센터 신축이 됐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세종당 앞에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특화음식개발교육 2회를 진행하셨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우리가 특화음식개발 2회를 해서 수강생을 한 20여명 배출했습니다마는 해조류라든지 전복, 최종시식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울림복합센터 내에 식당이 이렇게, 큰 식당 하나, 중간짜리 한 3개, 포차 해가지고 5개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 입주하는데 가점을 주고, 교육받은 대로만 음식 레시피 해서 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입주자들의 선정이 다 돼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아직 입주자 선정 안 됐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내년..... 준공이 2024년 9월로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9월 건물 완공 이후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입주자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입주해서 중앙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 공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여기 보니까 입주 주체가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고 하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완공이 된 후에

활성화가 잘되고, 유지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주자들 선정이라든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잘해서 건물만 신축해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거 비석거리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비석거리사업이 2년 전쯤에 21년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개소식을 했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저기 저 건물은 처음부터 사용용도가 무엇이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처음에 카페 용도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마는 아시다시피 건물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마을에서 처음에 카페를 한다고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을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글교실 그런 용도로 주민들 사랑방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카페로도 문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었고, 운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용도 안 되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또 제가 안에 문도 안 열리고 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한글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탁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런 건물들을 짓고 할 때 사

업계획이 있고 진행, 추진이 되는데 개소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관련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는 마을에 위탁해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마을 자체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웃음이 새겨져 우리 동네 그 위에입니다 글씨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저 오른쪽에 보면 처음에 되게 예뻐거든요. 관심 있는 마을이고 관심 있는 사업이여서 여러 번 많이 걸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다녀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카페 같은 경우도 개소한지 2년이 됐는데 저렇게 계속 낡아지고 있고, 운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어요. 또 다음 자료화면, 저거는 한글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탁자에 용지에 어르신들의 개인정보가 다 쓰여져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큰 나무 앞에 있는 의자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 탁자, 유리테이블 탁자가 있고 그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는 앉기가 참 좋게 돼 있는데 오른쪽 부분 것을 보면 까만색 의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과장님 저기 앉

으실 수 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좀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그렇죠? 데크로 저렇게 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앉아있으면 많이 배기고 가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보여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비석거리 가는 길 골목길이거든요. 이야기를 했던 생명약방에서 올라가는 길목이고 또 한 군데는 저 쪽으로 비스듬하게 경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대중병원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저 부분은 생명약방에서 올라가는 길목인데 좌우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년 전 정도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석거리 사업이 주변 스토리텔링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이런 홍보했을 때 통영의 동피랑마을, 감천문화마을 이런 마을이 우리 완도에도 생긴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팽나무 앞 그 부분만 참 예쁘고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꾸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옆에 있는 걸 다 부수고 그런 다기 보다는 녹물이 내려와 있고 색칠을 하고 조금만 뭔가를 예쁘게 다듬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예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도 골목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이정표 표지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군청, 오른쪽 비석거리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딱 경계선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비석거리마을이 개발이 돼서 예쁘거든

요. 그런데 왼쪽편으로 봤을 때는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있고 손이 하나도 안 간 마을 처럼 보여요. 완전 다른 나라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미관상 잡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 저 것이 큰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완도비석거리해서 크게 예쁘게 돼 있는 건데 저렇게 까맣게 물이 흐르고 이끼가 끼고 곰팡이 피고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입구인데. 그래서 저런 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 미관상 좋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중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저기 담당하시는 거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행이 그대로 되지도 않아서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주민들 같이 교육도 시키고 처음에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같이 방법들을 찾아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한 부분 없이 저 예쁜 동네가 한 2년

동안 방치가 돼서 저러한 시설들이 녹슬고 떨어져지고 깨지고 바래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곳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에요. 공공장소 매너 부탁드립니다. 저런 문구가 쓰여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마을에 대해서 카페라든지 물어볼 때 제가 직접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카페 문 열어본 적 있어요? 뭐예요? 하고 물어봤던 것도 마을어르신들이나 누가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같은 것을 계속 보니까 골목도색,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앙마을, 용암마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일단 사업구역 내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테마 조성 24억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저게 진짜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나 어디 문화마을이나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완도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조례 총괄 부서는 경관관리담당부서가 있는 지역개발과이고, 관리부서는 조형물 설치 및 보수 관리와 관련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몇 개 설치가 돼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대장에 등록돼 있는 7개 2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공공조형물은 말 그대로 전복이라든지, 말 그대로 조형물을 우리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설 관리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 위원

여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및 조형성의 부여, 지역정체성과의 조화,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공공조형물 등의 비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이에요. 1부두 쪽에 있는 거요. 저렇게 보시다 보면 전기선이 치렁치렁 많이 늘어져 있죠? 녹물도 많이 흘러내려와서 낮시간에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찌보면 저거 전복이에요? 아니면 바지락이에요? 어떤 것인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운데 비닐에 묶여있는 거 저거 피아노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피아노입니다.

○지민 위원

저거 진짜 피아노 맞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진짜 피아노입니다.

○지민 위원

혹시 비오면 망칠까봐 비닐로 저렇게 덮혀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저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그때 한 번 보니까 비오면 씌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민 위원

저게 수개월째 비닐로 저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공설운동장 외벽이에요. 공설운동장 벽화인데 저기 보시면 영어로 다 써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지역 어르신들도 공원 주변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유언어인 한글도 있고, 또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외래어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외래어도 아니고 이상한 영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말인지도 모르는 용어들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고유언어인 한글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한글표시를 해서 군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민 위원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 도다리인

가요? 광어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좌광우도 저건 도다리입니다.

○지민 위원

도다리죠. 사실상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여쭙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는 행정, 작가, 시민단체들, 봉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시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총괄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제점검 실시 한번 해 주시고 공공조형물 부실한 관리로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권역 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40억이고요. 취약지구 여건개조사업이 112억입니다. 그리고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530억, 또 어촌뉴딜 300 사업이 820억입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이번에 명칭만 바뀌었지 어촌뉴딜사업에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바뀌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성규 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망남리에서 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망남리가 선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노화 미라리가 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성규 위원

두 곳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망남리는 올해 초에 선정이 돼서 아시다시피 어촌뉴딜도 마찬가지로 신활력사업도 해 수부에서 공모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합니다. 지금 망남리는 유형2로 해서 앵커조직이라고 앵커조직 설정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중에 노화 미라향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미라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4년도까지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성규 위원

그러면 한 2년도가 지났어요. 지금 1년 남았는데 아무 성과도 없더라고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어촌뉴딜사업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상초 사업기간보다 한 1, 2년 딜레이되고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건물을 쓴다든지 물양장을 한다든지 전혀 어

디에다가 말뚝 하나 박은 곳을 못 보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과 어촌 기반시설 증진을 위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성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문제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공모사업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후에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선정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진정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건물은 사후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보면 각 읍면 과거에 추진한 공모사업들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측면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잘 된 데도 있고요. 또 사업이 안 돼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당초 취지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경우도 많고, 어떤 곳은 장기간 장사수단으로 개인 것이 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군외 같은 데 신지 같은 데 보면 개인사유가 돼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군외 첫마을권역하고 신지 저희과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건설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박성규 위원

완도군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28 밖에 안됩니다. 공모사업이 계속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놓으면 방치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박성규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공모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후관리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위원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공모사업에 대해 보강과 다시는 건물이 방치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하되,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다른 읍면도 했으니까, 우리 읍면도 해야지, 다른 시군이 했기 때문

에 우리군도 해야지, 그런 식 공모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노화에 동천향대합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바다전시관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바다전시관입니다. 본대합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합실 초선 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약 12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대합실 지은 것이. 동시에 바다 전복홍보관도 같이 그때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는 관광객도 일부 주민들도 가서 들여다 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도 지켜보았는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전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외곽으로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매표소에서 표 끊고 바로 배로 가기 때문에 돌아서도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객들이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도 0입니다.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데 10년 넘게 관광객도 없고 주민들도 안 간 자리를 계속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용도변경을 해서 커피숍을 한 다든지 잠깐 쉬었다 가는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도 출장 가서 가보면 문도 잠긴 경우도 있고, 이용실적이 저조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화읍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 건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실 저기를 문제를 안 시키고 놔두는 이유는 거기가 직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회사무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앞장 서서 나가질 못합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그만두려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숍하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라도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했으면 하고요. 좀 여의치 않으면 노소보 인구소멸기금으로 70억짜리 건물을 내년에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화읍 의견하고 관련 관광과라든지 관련 부서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물을 유지시킬 것인지 타 용도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됐고, 관광객들이 전혀 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은 다른 건물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원동항 매립공사 했죠? 원동항 매립공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박병수

46페이지. 거기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원동항 매립공사는 군외 사후도하고 고마도 원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이 간조시에 접안소지가 있어서 접안장 거기를 최근에 준설목적으로 해서 지금 매립공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매립공사 과정에서 뿔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추가보강공사를 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설을 한다고 해서 현재 다른 사진 없나요? 이렇게 뿔을 준설했습니다. 해서 축대가 붕괴가 됐어요. 붕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붕괴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크랙이 가서 물러난 형태가 됐거든요. 뿔을 준설했어서 제방을 쌓고 거기다가 계속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중 문제로 콘크리트 옹벽이 약간 물러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축대 쌓은 밑에는 돌로 깔아놓은 상태라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콘크리트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든가 시

공이 잘못됐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현재 축대 쌓은 밑에 돌을 깔아서 콘크리트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밀려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기초를 1m 이상 파서 저런 통으로 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했을 때 지금 보강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게 견뎌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저도 가봤지만 초기보다는 지반이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보수보강을 하면 추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시설직 주무관 공무원하고 가서 현장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깔끔하게 반듯하게 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휘어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뽕이 바깥쪽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침하가 되다 보니까 앞부분이 현상이 있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또 뽕을 파내면 추가 붕괴 우려 있기 때문에 저대로 1, 2년 지반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원동향이 지방어항입니다. 유지보수사업비 확보해서 추가공사를 한 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검사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현재 작년부터 제가 기획 있을 때 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권역 내 도로정비현황 도로맨홀 정비

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업무실적보고나 했을 때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맨홀보수현황을 보면 40개소에 8,000만원 들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박병수

현재 우수맨홀하고 가스맨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약 1,000개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000여개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박병수

지금 제가 이것을 끝까지 임기동안 마무리하도록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정비 2023년도에 보도블럭 요새도 교체를 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추가 교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런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그전부터 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박병수

지금 보니까 사업을 79건에 3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맨홀, 이거 안전사고라든가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절약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일단 도시계획 내에 있는 제저희가 있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토착이 된다든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맨홀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급하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괄적으로 맨홀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맨홀이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인도에 지장 있고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 데는 즉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약간 맨홀이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후에 정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가장 심각한 데가 개포리지구나 군지부 가는 이면도로 있죠? 옛날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그런 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거나 보행기를 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자칫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휴양과
 - 환경수질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 수산경영과장
 - 건설과장
 - 체육진흥과장
 - 건강증진과장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휴양과
 - 환경수질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 수산경영과장
 - 건설과장
 - 체육진흥과장
 - 건강증진과장
-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10시00분 개의)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 수산경영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팀에 조은정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김성옥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김형인 팀장입니다. 난대수목원지원팀 김경곤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2건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시정요청하신 자전거이용계획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조치건입니다. 자전거도로 개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도13호선과 국도77호선을 자전거도로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자전거횡단도로 설치기준 최소 1.2m에 못 미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 완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전거 도로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운영 건입니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 프로그램 위탁운영 과업량을 참여인원 단독조건에서 복수조건으로 변경검토 관련하여 금년에는 과업량을 프로그램 횟수와 참여인원 등 복수조건으로 위탁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질문에 앞서서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전라남도 산림환경개선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또 하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전라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경연대회에서 우리 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매우 축하드립니다. 산림행정을 잘 추진하여 주시고 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작년에 몇 건이나 발생을 했고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작년에 저희들도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이 0.35헥타르입니다.

작년에 산불을 낸 사람 적발한 건수와 혹시 벌금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가해자 검거는 입산자 2건에 대해서는 검거를 하지 못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검거해서 사건 송치를 통해서 벌금 150만원 부과했습니다.

○지민 위원

지난 해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에 헬기 요청을 몇 번이나 했고, 비용은 얼마 정도나 했습

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불 발생 건수 3건에 대해서 산림청 헬기 3번에 걸쳐서 지원요청을 했고요.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금년도 산불방지대책추진에 따른 인력은 몇 명이나 투입을 하고 따로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봄철에는 69명, 금년 가을에는 본청 7명, 읍면 24명 총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예방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해서 산불예방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주요명산 10개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하고요. 또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19.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산통제, 등산폐쇄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산 정상부에서 산불 취약 그런 장소에 감시카메라 8개소를 설치해서 산불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한 부분은 권역별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해서 공중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산불조심깃발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산불깃발 디자인이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별도 디자인 지침은 없고요. 관례적으로 흰색이라든지, 노란색, 적색 산불조심깃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저렇게 등산로 입구 등에는 노란색이 있고 큰 도로가에는 저걸 똑같은 디자인에 빨간색으로 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산불깃발 디자인이 꽤 오랫동안 저 모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한 수십년 동안 디자인이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감각이 좀 무뎌져서 계도형 깃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타 지자체 깃발 디자인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양하고 계도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어느 지자체는 시책홍보도 같이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내년에 디자인을 바꿔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깃발이 소진되면 차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깃발 만들어놓은 거 많아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좀 더 있습니다.

○지민 위원

검토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공원, 산 위치에 공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원 등에서 불을 이용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공원구역 내에서 취사행위 금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렇죠. 자료화면 한 장 올려주실래요? 저기 일몰공원인데 저기 한번 지나다가 봤더니 저

기서 밥을 해먹었는지 바닥에 불이 탄 자국이 꽤 깊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나무숲이 있고 바닥 자체가 데크로 돼 있어서 저게 만약에 번지고 크게 됐더라면 산불까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근처에 취사금지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는 취사안내금지판이라든지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요즘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캠핑하시면 밖에서 불을 이용해서 당연히 밥을 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하게 못하게끔 금지라는 걸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보사항인데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완도 대표적인 상왕산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자료화면 하나 올려봐주세요. 산 위치 표지판 지정번호라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정표가 있는데 많이 훼손된 부분이 보이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타 지역에 새로 설치한 국가지정번호 표지판 사례인데 현재 국가지정번호도 있고, 현재 위치도 있고 저기에 비상연락망까지 해준다고 하면 남은 거리까지 표시를 해주면 등산객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비상연락으로 해서 바로 연락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시에 전화를 하면 구조대에 연락을 하면 사고나신 분 바로 구조 할 수 있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등산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일부 놓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번호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추가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산림복지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현재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시설하면 자연휴양단지,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각기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한 곳에서 이러한 시설모두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요즘 힐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완도군에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

모사업과 개별사업 두 트랙 전략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전남형 균형발전300프로젝트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신규 시책 부분에서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전사업장에 대해서 내년도 균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확보했으면, 그러면 300억 투자됐는데 균특 150억, 군비 150억 투자 되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산 확보는 군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군비가 세워졌는데요. 전남지방심사를 대비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했었는데요. 우리군 정책사업예산 대비 약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용예산으로도 군비부담이 충분도는 결과를 받았습시다. 또 저희들 예산 신청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3개년 사업으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계획은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매년 한 50억씩 투자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산림복지가 조성되면 해양치유하고 난대수목 원하고 연계해서 분위기가 나을 것 같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타워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완도타워는 완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2008년 이후 리모델링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까지 리모델링 한 적은 없습니다. 입구 보수는 있었는데요.

○조인호 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로 구성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콘텐츠는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1층에는 해양치유산업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터치미디어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는 앉아서 경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주요관광지라든지 아름다운 부속섬을 투어하는 그러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요. 그 외에도 대형멀티수족관이라든지 보름달스크린과 트릭아트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2층에는 저희들이 모래라든지 해조류조형물 설치하고요. LED정원을 조성해서 야간포토존을 할 계획인데요. 최종안은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라는 데 혹시나 가보셨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아니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야긴 들어봤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조인호 위원

디피랑은 미디어아트기술을 접목하여 야간에 디지털파크로 남망산공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습을 보면서 야간경관을 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야간관광명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디피랑에 가보면 우리 완도타워하고 남망산 현장 공원 여건이 우리 완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나 현장답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완도타워하고 디피랑 이곳하고 비슷하니까 현장점검해서 접목 한번 시켜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을 견학을 해서 우리군 타워 그 부분에 접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꼭 한번 가셔서 우리 위원들도 시간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동행해서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갔으면 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2,000억원에서 1,475억으로 줄었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600억 가량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또 기본계획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BC가 낮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사업면적도 400헥타르에서 381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외곽 부분 그런 부분도 축소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20헥타르는 개발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이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재부 예타조사를 할 때 우리군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반영한 것은 완도군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했는데요. 첫째 하나는 진입로 확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조성이 돼서 오실 거 아닙니까? 숙소 부분,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투자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인데 사업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된 시설 그런 부분은 변경이 없고요. 온실 그런 부분이 약간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사업기간도 연도별 예상투자계획에 보면 당초 2026년까지 이것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2026년까지 415억원이 투자가 되고 2030년까지 향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2026년부터 30년까지 1,060억이 투자된다고 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기에 따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2026년까지는 기본계획 실시 설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요.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임시기간을 거쳐서 31년도에 정식개장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라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도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8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또 8개월 내에서도 기본계획 내년 3월달, 4월달 이렇게 완공예정입니다라는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 완료합니다. 한 8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을

202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언론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당초에 2026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거제시와 대상지 경쟁에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기간이 2030년 이후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리군의 큰 국책사업인데 사업비와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국책사업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저도 하나 잠깐만...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 증원됐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 달 평균 약 1만명으로 12월까지라면 전년도 방문객이 비슷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전년도에 약 13만명 왔는데요. 저희들이 12월 작년에는 작년도 평균에 준하기 때문에 입장객이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2월까지 하면 약 한 달에 1만명 조금 넘게 되니까 13만명이 방문하는데 전년도에 인원이 운영인력이 많이 부족했냐는 말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주차장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1명을 총원한 상태입니다.

○조영식 위원

주차장 부분 때문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조영식 위원

22페이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고시까지 됐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신청 상태인데 아마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 가능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조영식 위원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타워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지

가 몇 년 됐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인수 해가지고...

○최정욱 위원

1년 몇 개월 됐겠네요. 타워를 우리군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중요하죠. 관광객들이 오면 순위가 타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워만 공단으로 가요.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전체적인 타워 관리를 다하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타워만 공단으로 가게 되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최정욱 위원

알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타워뿐만 아니라 일출공원 그 부분도 랜드마크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워만 가서는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좀 맞지 않고 관리를 한다면 전체 공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지금 조영식 위원님이 물어봐서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더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볼 때. 그런데 타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나 안내, 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아마 과장님 필요해서 직원을 보충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게 5명, 최고 인원 4명인가 5명 인원배치가 정해져있어요. 어때요? 과연 그 인원 가지고 랜드마크인 타워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어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정확한 인원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타워 자체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부분에서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정욱 위원

타워는 4, 5명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신단 얘기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타워만 관리했을 때는.

○최정욱 위원

타워도 밖에까지 아닌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워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구역은 기존대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식협약이 된다고 하면 공원까지 공단에 넘어가는 걸로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공단을 아예 공원까지 공단에 넘기면 더 관리가 랜드마크 관리가 어려울 건데.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겠죠.

○최정욱 위원

하려면 차라리 우리군에서 우선 우리 공단은 타워가 들어가야만이 공단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건데 앞으로 타워는 당연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게 되고 같이해야 맞죠. 그렇게 된다가 맞죠? 그런 의견 제시도 앞으로 잘해주시고 해서 랜드마크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차은란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정진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상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영상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제도개선 4건입니다. 18쪽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시 배출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만 홍보하여 주민들

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팸플릿 및 전단지를 활용하는 홍보방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시 폐기물관리법을 명시하고 우편을 통해 홍보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0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명시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읍면에 배부하여 일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재활용품 무료교환행사를 진행하여 재활용품 수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개선을 통해 청결한 완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수거 방지 방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요일에 배출된 재활용품으로 혼합수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년 10월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수거일정을 취합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현행화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완도읍은 재활용 수거일을 월, 수, 금 운영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하고 타 읍면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생활용품 수거 전용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안면 횡간도 상수도 누수관리 대책방안 마련입니다. 소안면 횡간도 누수의심지역 누수탐사 후 상수도 노후관 6곳을 교체공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후 누수의심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하

수관거 관리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로 막힘으로 인해 하수가 역류하는 등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 관리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저희가 보유 운영중인 준설차량 1대로는 12개 읍면 하수관거에 대해 청소와 준설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재는 준설업체와 병행하여 준설을 수시하고 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12개 읍면 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근거로 24년도 신규사업을 신청반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노후관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행과 주기적인 전관 및 준설 등으로 하수관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25페이지 기후변화대응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설정 및 사회지원 부문에 대한 감축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나서고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탄소중립은 무슨 뜻이고, 2050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탄소중립은 간단히 말해서 탄소배출량과 탄소

흡수원이 똑같이 해야지 제로가 나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민 위원

우리군에서 1억원을 사업비로 완도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수립용역을 11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지난 실적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년 9월로 돼 있어요.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배출량 시군별 배부내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올 3월부터 투자는 됐고요.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내년 4월까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늦어졌으면 용역비 추가부분이라든지 그게 발생할 수 있나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우리가 그린완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가족행복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제공해서 탄소중립실천이라는 방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학생들 용품 받는 거 이것도 가족행복과입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재활용품 무료교환사업을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임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료교환 페트병이나 아이스팩, 페스티로폼 이런 것을 갖고 오시면 화장지나 쓰레기봉투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3만 9,000개 정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되게 행사가 빨리 끝났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소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계속 이 방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과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최종 10곳을 조성을 하는데 지자체 참여의향서 접수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8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전남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군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조성
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는 해양치유센터도 완공됐고, 국립난대수목
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박물관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
습니다.

○지민 위원

저희가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11
월 6일에 친환경해조류양식방법을 세계에 알
리게 해준 나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탄
소중립화시대에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있다고 해조류탄소흡수원 인증
을 위해서 상호공동 내년에 하자 나사측에 제
안까지 했는데 탄소중립도시조성에 너무 미온
적인 대처가 아닌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도서로 선정이 되면 민간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을 하고 투자를
유도해서 지자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군
이 좀 위치로나 지역으로나 우수한 지역이잖
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에 많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환경이라든지 기
후변화대응이라든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
아요. 그 부분에 우리군도 더 열심히 해서 좋
은 환경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잘해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완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조류가
굉장히 풍부하고 나사측에서도 해조류 산소를
이 육상식물보다 40배에서 50배 증가가 크다
고 과학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조류 블루카본이 아직 인증이 안 된 상태입
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인증이 된다면

우리나라 완도군이 블루카본이 탄소중립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지민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주민제보사항인데 우리 지
역에 소화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지민 위원

소화전 관련해서 환경수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주변에 도로교통법에서 주차금지가 돼 있잖아
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표지판
이라든지 사진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도로 옆쪽에 있거나 가로등이나 그런
시설물이나 안 보인다고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잘 안 보이는
것들은 가까운 위치로 해주시고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건 저렇게 휘어져서 있
잖아요. 아래 빨간줄이 한 줄이 있어요. 그리
고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즘에 표지판
보니까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도 있
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지민 위원

저녁시간대에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즘에 신호등도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

를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신호등, 키 낮은 신호등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우리군에도 보니까 키 낮은 소화전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승용차 운전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할 때 시야확보가 돼서 저건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하면 요즘에는 주차금지를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바로 사진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고 많이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 사진에 보면 도로에 빨간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블록위에 올라간 곳에 빨갈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차금지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바로. 주차를 하면서 표지판을 못 봤을 때도 저게 보여서 주차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는 LPG공사하기 전에 저게 돼 있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민 위원

예전에 완도 도로에 빨간줄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LPG배관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치면서 빨간줄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소화전 근처에서 빨간줄이나 블록에 표시를 해준다면 주차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주차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욱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성한 예방복구팀장입니다. 김현수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김경석 안전재난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방송 방송 품질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재난 마을방송 지역 해소를 위해 완도읍 대신리 외 8개소에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재난마을방송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마을방송 가입률 저조에 따른 2022년 12월 중 3%였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2023년도에 읍면담당자 교육 및 이장단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가입률 2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담당자 및 이장단 교육을 실시하여 가입

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벌써 대기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후배들도 안전총괄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2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는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현재 여전히 관제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재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조영식 위원

신축이나 이전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조영식 위원

구 119안전센터로 CCTV관제센터가 이전하려

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CCTV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확보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식 위원

결국 예산 때문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CCTV관제센터는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현재 상태로선 전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군 자산인 만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목적이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민간영역 건축물까지 행정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가 22년 6월 10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데 아직 우리군은 설치가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혹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사 또는 기술사 1명, 건설기술 1명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인력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진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건축사 기술사에 대한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건축사, 기술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역실정에 봐도 현재 기준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으로 채용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대안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안전에 대한 대비하는 과분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부서의 조직정비와 인력보강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할 테니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매년 1, 2월 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주요 시가지에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안전보험을 쳐보면 안내문이 전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표시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서 아마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조영식 위원

평상시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개선해주거나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안전보험은 어떻게 청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 청구하여 사고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3년 이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조영식 위원

우리군은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대신 신청해주려고 알아봤는데 먼저 부서에서는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하고 콜센터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고서는 응대가 어렵다고 해서 난감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동안 군민안전보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직원들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피해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상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옆에서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도와주는 등 보상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되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콜센터도 접수를 받고 군담당직원도 접수를 받아서 보험사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로 신청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교두보 역할을 해서 직접 대면해 상황설명도 듣고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저도 위원님 생각,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군 담당자가 혼자 그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면 읍면직원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보험청구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수혜내역을 살펴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안전보험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안전보험보장항목이 총 몇 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매년 갱신시 보험항목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총 27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장항목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익사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사고, 화재, 독해성 동물피해 이런 순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전년도에 43명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군이 섬이고 농촌이다 보니 절반 정도가 익사사고, 3분의 1 정도가 농기계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익사나 농기계사고처럼 사람들이 많이 청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보장한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어렵다면 현재 보장항목내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수혜한 기록이 없는 보장에 대해서는 한도를 조금 낮추고 익사나 농기구 사고 같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이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과 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감사합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계획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업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지민 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이게 조성을 아마 작년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거의 98% 완료 했고요.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마는 이전할 것을 조성하고 회원 가입이나 이런 홍보활동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방송 시작을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지민 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에 가입률이 한 3% 정도 됐

었는데 한 달 정도 사이에 26%까지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도 26%면 아직 가입률은 많이 적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현재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핸드폰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입된 번호가 일반 전화번호이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염려 부분이나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 활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다 보니 가입률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런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주민들이 가입할 때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지민 위원

그래서 가입률 이장님들이라든지 읍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는 게 오래 전에 받았다는 기억은 있는데 요즘에 너무 뜸하지 않았나 아예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번호가 행정번호 550-9100 이렇게 가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많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전화를 방송을 하면 한 번 받으면 몇 번 정도까지 전화가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게 기록으로, 자료로 계속 남아있어서 본인

이 희망하는 시간에 청취가 가능하고 항상 되든거나 이런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지민 위원

마지막에 주민들이 확인을 할 때까지 그 자료가 남아서 계속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지민 위원

조금 전에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어서 이게 주민들한테 번호 안내스티커라든지 안내 발송문이라든지 그 연락을 꼭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가입률이 적기 때문에 우수읍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래서 올해 사실 연말 가입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현장을 많이 발로 뛰면서 읍면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가입률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민들에게 당연하게 알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제도, 우리가 실시한 제도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게 고장이 좀 많나 봐요. 새로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고, 기계가 거의 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민간인들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막 설치가 된 시스템이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점들도 지금 한두 개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스마트마을방송이 이장님들이 아예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이 아니여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마을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최근에 완도읍 죽청리, 사례를 말씀드리면 죽청리에서 주민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인지를 했는데 이장님이 그런 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주민께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최근에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민 위원

지금 현재는 잘하시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지민 위원

그분만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제보사항인데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건어들일 때는

행정차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전달을 하는데 돈 줄 때는 방송도 안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있고 하는데 주민들도 아예 모르고 사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담당과나 읍면사무소라든지 전화를 계속 해서 이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또 우리가 주민들 가입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마을방송으로 지역의 축제들을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중대재해에 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단순히 어떤 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렇죠.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게 정의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박성규 위원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박성규 위원

정의는 잘 알았고요.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는 50명이고 공사금액은 50억이죠? 중대산업재해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사망자는 1명씩이고요. 부상자는 중대재해산업재해는 2명이고 또 중대시민재해는 10명입니다. 그렇죠? 조직개편시 안전총괄과 만들어진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과가 신설됐는데 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박성규 위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위원님 중대재해법이 신설이 돼서 지금 시행은 현재는 상시근로자 50명에서 공사금은 50억 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데 내년 1월 26일부로 전면확대시행이 되면 전체 사업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재해예방업무가 비중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안전총괄과라든가 과는 신설이 됐으나 중대재해 관련 전문팀이나 이런 팀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같이 동반되지 않다보니 부수적인 업무로 운영하고 있다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중대재해예방사업 업무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조례 제정과 분야별 안전교육, 안전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내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십니까?

소관부서별로 따로 점검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물론 안전 총괄과는 명칭상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보다는 안전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사후관리, 그리고 통제, 조정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다보니 그게 정착이 아직 안 돼서 원활히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현장점검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규 위원

중대재해예방사업임무를 안전팀에서 관장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팀장과 팀은 직별별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직렬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팀장은 지금 현재 행정직이고요. 행정 6급이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업무를 보고 있는 보건 6급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업 8급이 있는데 업무가 민방위 업무까지 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업무로 같이 민방위 업무하고 겸직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팀장에서 팀원까지 전문직렬이 없다고 보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박성규 위원

지난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과중에 열악한 초, 신규 방재안전직 공무원 절반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TV에 한번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난 해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 791명이 전체 공무원 0.25%에 불과하다며 특히 각 지자체 재난부서에 방재안전직공무원이 1명이나 2명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태원참사 당시 용산구에 1명, 오성사고시 청주시에 1명이 배정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박성규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시고 지방안전직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각종 인사혜택이나 처우개선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 방재안전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은 2명이 있는데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1명이 저희 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더 필요한 직렬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업무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나 인사에 고가점수를 부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미치는 점은 전혀 없다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오면 벌써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과감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피를 하고 시험 치러서 들어왔다고 해도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문분야에 전문직렬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안전총괄과의 인력구성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 방재안전직 전문직렬 총원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사부서 나름대로 고충은 상시적으로 결원이 10에서 20% 유지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들려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성규 위원

전문직렬 총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군 조직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든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감사합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0페이지 보험가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현재 2023년도 가입실적이 총 464건입니다. 주택이 160건, 온실이 47건, 상가가 229건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일반인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수급자가 재해취약지역이 7%, 시설물은 주택, 온실, 상가, 기타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반군민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본회의 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다시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일반주민들, 일반군민들이 다 해당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그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그렇게 나눠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 부분은 팀장이 보고를...

○위원장 박병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팀장 신현욱

예.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그 부분이 자료가 작성이...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군비는 몇 프로고, 자부담은 몇 프로고 그거 안 나오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지금 가입대상이 아까 주택에 일반은 70%고, 차상위계층은 78%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가 보조되고, 온실 및 소상 공인상가, 공장은 70%가 부여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66% 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비율 때문에 군민들이 이것을 기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비율이 신청이 낮은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런 부분들을 전체 군민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에게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팀장님

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에 김수호 팀장입니다. 시장개척팀에 전문희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에 박상신 팀장입니다. 어패류팀에 추영철 팀장입니다. 해조류팀에 이규열 팀장이 지금 장기재작휴가 중이므로 정종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김 생산에 따른 면허지 관리실태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선박운항항로의 무면허 해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김양식 시설물 등 위해요소에 대해 자진철거제도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약 1,000개의 불법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불법양식시설물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김양식시설물의 우심해역 및 민원발생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불법양식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김양식 시설물의 예방과 함께 어업인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단속 및 우리군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선 목적의 사용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어장관리선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척수는 약 36척이며 낚시어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어선만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장관리선이 낚시행위를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부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

조치되어 2024년 2월 8일부터는 관리선은 낚시어선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에 관리어선 사용 위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관내 해양경찰에도 단속관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최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 군이숍 메인화면 상품도출의 형평성 방안 마련을 위해 신규업체와 판매가 낮은 업체의 상품으로 쇼핑몰 메인배너 하단에 상세상품 카테고리 콘텐츠를 추가하여 상품노출빈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쇼핑몰 명칭이 완도청정마켓으로 변경되면서 브랜드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명칭홍보와 신규업체의 회사 소개, 상품소개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메일을 회원분들에게 발송하여 우리군 특산물의 판매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산종합개발출자금 회수 권리 포기 대책안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1월 26일 정경일 고문변호사와 상담결과 22년 6월 8일 민형사상 소송패소로 주식회사를 반환받기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에서 연 1회 공공기관출자출연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고 있으나, 공기업 등록돼 있어 군에서 이후 삭제가 불가하며 자체폐업이나 청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스템상 삭제로 종결처리하고자 대표이사에게 여러 차례 폐업을 유도하였으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폐업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온대비 차광막 공급 사업 개선입니다. 2022년까지 지원해 왔던 고수온 대비 차광막 지원 사업은 효과가 미비하여 양식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육상 및 해상양식현장에서 어민들이 필요한 액화산소공급 및 폐사 폐각 처리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산동물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건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건의하여 기존 추진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과 유사하나, 본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3년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식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전염병 예방약품 면역증강에 좋은 사업신청단계에서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완도명품광어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장 기계실 양성화 방안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실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는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에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 이후 양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식장 허가를 득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 및 금융기관 대출금 연장 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각신청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할 경우 양식장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복출하용기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21년 2년간 군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여 수요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2023년 도비를 확보하여 올해까지 4년간 약 180만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어가에서 필요한 물량을 지원했다 판단되어

내년 사업은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군 자체사업은 제외하였으며 여름철 고수온 추적으로 전복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전복내성 시험연구가 필요하다는 양식어가들 요구가 있어 24년부터 25년까지 양식환경변화, 급격한 수온 변화에 따른 폐사원인, 한계수온 재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 공급품종 개선입니다. 22년도에는 김, 굴, 기타 3종류만 보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김, 굴, 전복 포함해서 4종류로 확대보급하였으며 특히 전복가두리, 해사가두리에 부표 1만 8,000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완도군 수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도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완도군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국내적이거나 국외적으로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고 있고 원전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수산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계획을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군 수산정책 수장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을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어떤 내용이십니까?

○조인호 위원

우리 수산정책, 수산과장으로서 수산직들이 완도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런 거 한 가지쯤은 계획하고 있는 거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양수산 전망과 장기발전대책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수산업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직공무원들의 자세도 다시 다짐을 하는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다음 연도 보면 대책을 수립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요즘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도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도나 해수부 관련돼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정부의 수산이나 해양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군도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도 아무래도 수산세가 가장 큰 우리 완도군을 위해서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전복이나 해조류가 고수온 등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군민들이 부도위기에 놓여있고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이때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발표해서 군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군수님도 그렇고 수산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민들이 직접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민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조인호 위원

안타깝죠? 과장님, 직원들, 전문직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인호 위원

다음은 고수온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바다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고수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고수온은 전복의 서식환경이 24도 이내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24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이 고수온 관리를 하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집니다.

28도는 전복의 한계수온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고수온은 올해같이 28도가 아닌 27도에도 한 30일 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전복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올해도 고수온이 발생했어요. 고수온이 발생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고수온으로 해서 넙치하고 우럭 같은 경우는 임계수온이 넘은 해역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론 전복은 28도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수온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주의보나 경보가 몇 차례나 발효 됐습니까? 올해.

○수산경영과장 김일

주의보가 20일 이상 발효가 됐었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 경보가 발효가 되면 그다음 역할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수산경영과장 김일

경보가 발생할 경우 어민들이 스스로 고수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또 사실 고수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어민들도 차광막을 친다든가 더 밑으로 내려서 수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고수온기에는 먹이를 절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차광막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 보니까 박성규 위원님이 차광막 관련 예산 50%를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강력히 살려주

라고 말씀을 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인호 위원

그러면 육상에다 하려고 했는데 다 소진했습니까? 차광막사업.

○박성규 위원

어디다 사용했는가.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액화산소 지원하거나 면역증강 이런 쪽으로 사업을 더 이동을 시켜서 지원해줬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사업비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인호 위원

그러면 고수온이 발생되면 보상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고수온으로 피해가 받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28도, 전복은 임계수온이 28도 인데요. 28도가 한 3일 정도 유지됐을 때는 고수온 피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은 읍면사무소에다가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피해신고 했을 때 군에서는 합동조사를, 군에서 현장을 나가서 그 피해 시료, 전복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고수온에 의한 폐사인지는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폐사인지는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고 고수온 피해로 인정이 될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임계수온이 넘었냐, 넘지 않았냐 이걸 판단해서 고수온피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올해 금일에서 고수온 폐사가 많이 났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 지역이 폐사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래서 군에다가 보험비 관련해서 신청한 데가 금일 밖에 없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소안도 있었습니다. 소안 같은 경우는 올해 28도 넘어가는 해역이 없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28도가 되지 않았어도 27도가 장기간 유지가 되니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협에서는 피해신고를 받았고 그 피해신고 받은 어가가 보험가입 어가가 약 100어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군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도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명확히 해야 민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 대책회의를 구성한다고 전화가 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영철 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팀장 추영철

어패류팀장 추영철입니다.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수온 추정으로 인한 피해 관련해서 9월 3일날 금일읍 대책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저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수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보상규정 이런 부분들이 완도군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주 11월 9일날 재해보험어가에 가입된 109개 어촌계를 대표하는 대표자하고 사무국장격인 두 분이서 저희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에 개최했던 완도군협의회 내용은 완도군의 의견이라고만 단정을 짓지 말고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 수산분야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수산물과학원, 전라남도 인근 전북을 양식하는 시군 과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분들 의견을, 제3자인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놓고 협의체를 다시 한 번 구성하자고 그렇게 논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금일읍에서 본인들께서는 본인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분 4명에서 5명, 행정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분 4명, 5명 정도를 약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호 위원

일정은 안 잡혔죠?

○어패류팀장 추영철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금일에서요?

○어패류팀장 추영철

예.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일정은 아직 안 잡혔네요.

○어패류팀장 추영철

예. 확실한 게 없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개최해서 해야 빨리 이것이 잠잠해지지, 안 그러면 계속 내년까지 물고 갑니다.

○어패류팀장 추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앞으십시오. 과장님, 이번 피해현장을 가보니

까 군수님도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고, 어민들은 이렇게 바다에 시름하고 있는데 너무 바다 현장에 안 보인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피해현장은 금일 쪽만 많이 안 나갔지만 다른 읍면은 다녔습니다.

물론 금일에서는 피해가 큰데 왜 자주 안 나오냐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피해현장은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출장도 반납하고 현장부터 가야 됩니다, 군수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이 죽어가는데 출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혹시나 이 시간 이후부터 재난상황이 생기면 재난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화신산업 관련해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군정질문했던 거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개선되거나 해결된 게 없어서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은 당초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상법 제288조에 의거 제3섹터형 민간 공동출자로 주식회사 완도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됐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 제3섹터형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3섹터방식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관련단체들과 같이 참여해서 구성된 단체나 협의체를 말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걸 제3섹터라고 그러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동안 화신산업은 쪽 본인이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최수철 씨 그분 특혜로 시작되었던 걸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때는. 과장님도 쪽 저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 왔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당초 유통마진을 줄이고 대도시에 유통체인점을 만들어서 전복소비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최수철 씨 만나서 여러 가지 완도군 투자했던 부분을 회수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부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

수받을 수 없다는 자문까지 얻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 이걸 그렇게 하나면 앞으로 행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은 면에서 질의를 하게 됐고, 본 위원이 특혜로 보이는가를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화신산업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서 했을 때 문제가 돼서 국비반납을 했거든요. 국비반납이 됐을 때는 회사가 이미 잘못됐다는 걸을 인정하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바로 군비 회수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회수해야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맞죠.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는 자체가 특혜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화신산업으로 회사이용변경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 2008년까지 놔두고 있다가 명칭을 바꿔요. 바꾼 것은 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최정욱 위원

우리가 출자기관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 설립된 유통회사를. 그런데 그 회사를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서 그 회사이름을 바꿔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법을 바꾼 거예요, 회사명칭을 유통센터를 화신산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주주명부가 완도군이 아닌 개인 김종식 군수로 바뀌어요.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군에 출자

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 이름이 돼야 맞죠. 그렇지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김종식으로 돼 있단 얘데요. 이것 또한 최수철 씨의 회사 보호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렇게 됐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15년간 형식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달라, 최수철 씨한테 우리군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공문요청만 15년동안 계속 보내기만 한 거예요, 형식상.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렇죠. 다섯 번째 제가, 본 위원이 재정공시를 보면서, 우리군 재정공시를 보면서 화신산업이 출자기관에 보여서 그걸 제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면 주식이 멈춰있어야 돼요, 변경이 없어야 돼요, 주식. 그런데 주식이 전년도와 다음 년도 주식이 변경이 돼 있어요, 주가 바뀐다는 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주식을 어떻게 또 이동하고 바꾸겠어요? 이것 또한 회사를 있는 것처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렇죠. 여섯 번째 우리군 출자기관이면 출자기관 업무보고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넣어야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동안 업무보고 자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출자기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거예요, 2018년도에. 사실은 그래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노출시키지 않고 봐왔는데 끝내는 문제가 하나도 된 것이 없이 이렇게 됐습시다마는 그동안에 방금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 인정하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 2020년 10월 29일 본회의 질의답변에 형사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손실처리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맞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그런데 22년 6월 8일 민형사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나와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패소됐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패소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중간에 저한테 한번 왔을 때는 몇 프로를 내겠다 처음에 몇 프로 그쪽에서 좋다, 그 정도라도 받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됐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때 완도군이 투자한 금액이 약 4억 7,0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4억 7,000을 전부 회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서 50% 정도인 약 2억 정도를, 그러면 2억 정도만이라도 완도군에 회수해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고 그 조건은 1년간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해 왔던 화신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에게 한 번도 신뢰성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1년간 유예기간을 뒀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용증명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돈이 있을 때 마다 갚겠다 이렇게 발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고소를 했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최정욱 위원

소송을 언제 했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때 20년도에 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최정욱 위원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8년도 6월에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럴 때부터 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1, 2년이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되면서 이걸 더 다루는 게 2020년도가 맞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정욱 위원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불가능하면 손실처리하고 화신산업을 폐쇄시켜야 되지 않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공공기관 출자출연 시스템에 공기업범죄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고 삭제가능한지를 전남도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삭제처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우리가 출자기관이라고 돼 있지만 주식등기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등기돼 있지 않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돼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등기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돼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종식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출자자가 사실은 시작할 때 완도군수 김종식으로 출자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지자체가 3섹터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식 이름으로 해서 출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의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최수철 씨한테 끌려다니는 건데 지금 등록은 김종식 앞으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개인 출자가 김종식이에요.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 완도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주

식을 매입하라는 것도 주식만 매입하면 우리가 빠지니까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 왔던 거고, 이게 다 편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종식이 우리가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김종식 씨가 주식을 포기해야 맞아요. 그래야 안 맞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는 1원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주식포기를 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최수철 씨 주장은 그겁니다.

왜 김종식이가 출자한 것을 완도군이 나서서 자꾸 자기들에게 회수를 하라 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일이 꼬였습니다.

○최정욱 위원

꼬인 게 아니라 이미 각본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군은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종식 개인이 고발을 하든 뭘하든 그때부터 했어야 맞고 이미 그때 김종식으로 한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거를 우리행정에서 모를 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 정도 모르고 우리 법무팀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 정도 모를 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그건 짜여졌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에는 이미 틀린 거예요. 세월도 20년 흘러버렸고, 이제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모든 기관, 중요한 승인은 우리 의회예요. 우리가 출자기관을 우리군에 등록돼서 뭘 했다면 다르겠지만 그거는 거기 승인받는 기관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하면 되리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걸 제3

자 개인인 김종식 씨가 돼 있는 거, 굳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뭘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우리군의 이미지도 내리고, 손실처리 그냥 하시고 우리 의회 승인을 올리시고 업무 폐쇄시키고 없는 걸로 해야지, 결산검사에도 보면 화산산업이 출자기관으로 올라와요. 이것도 결산검사에 안 맞아요. 모든 재무재표는 회사가 있으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유령회사로 가고 업무보고에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출자기관이 있으면, 안 해요. 이것 또한 행정이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모를 더 이상 보여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빨리 해서 이거 없애요. 이제 누구 잘못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이제는 거를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마무리할게요. 20년 전에 완도산 활전복, 광어를 대도시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지역어민들의 가격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유통회사가 설립돼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특혜와 부실하게 운영되어 우리군

이 투자한 사업비까지 날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행정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낚시어선 등록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 바다낚시 어선은 4,422척, 이용객은 528만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군 낚시어선은 몇 척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180척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정확히 176척 맞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202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수는 대략 몇 척이나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해경자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약 7만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7만 352명이요. 우리군 낚시어선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우리군 낚시어선 이용하는 이용객.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용률...

○조영식 위원

예. 이용현황.

○수산경영과장 김일

방금 7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대형선박, 큰 낚시어선들이고, 읍면에 소형으로 운영하는 낚시어선이 한 80, 90척 됩니다.

여기는 수가 적은데 명당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명당 10만명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아까는 출항한 낚시어선 수였고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자료는 아까 7만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는 완도항에서 해경에 입출항신고해서 나가는 인원이 7만명입니다.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3만명 정도는 읍면에서 신고를 안 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영식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완도항에서만 7만명되고요. 낚시어선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약 10만명으로 봤을 때 그 이용료 등으로 했을 때는 약 1년에 200억 정도 수익이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낚시객들에게 지도를 합시다마는 완도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낚시객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낚시어선 한척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한 척당 1년에 사용료로 선주들에게 받는다고 하면 약 2억 5,000 정도 그리고 낚시민박이라든가 부대이용료를 포함하면 한 척당 1년에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한 척당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강진군에서 바다낚시어선을 마량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준비한 자료 올려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나요? 강진군에서 낚시어선들이 5년 선적항 유지를 조건으로 선적항을 마량으로 옮기면 인근에서 옮겨오면 3,000만원, 여수나 녹동 등 먼 지역에서 옮겨오면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량 인근이라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여수, 녹동이 먼 지역이면 그 안쪽에 있는 고흥, 장흥, 진도, 해남 이 지역이 아닐까요?

○조영식 위원

그래도 마량항이 제일 가까운 곳은, 먼저 떠오르는 곳은 완도항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완도에서 강진까지 주소를 옮겨가면서 가는

어선들이 우리 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파악은 없는 걸로 하는데 이런 인근 항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만원, 주고 5,000만원을 준다는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강진군이 지난 7월부터 7척을 유치해 대대적인 출정식까지 개최했다는데 우리군 낚시어선들의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1명도 없다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무래도 이런 낚시어선 여건들이 완도보다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쓰지 않아도 연간 10만명 이상 낚시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 계속 주시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동향파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강진군 보도자료에 의하면 7척 낚시어선 활동으로 1달간 마량향을 찾는 낚시객은 총 1206명, 약 2억원을 소비하고 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강진군은 낚시어선 유치 등 2024년부터 해양 레저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낚시어선협회 등을 방문하여 마량향 선적 이동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향후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방금 답처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국회를 방문해서 마량에서 그런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완도에 있는 낚시객들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요. 있다 하면 저희들도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교육 좀 잘시키고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 달간 어선 한 척당 낚시객은 약 200명, 약 3,000만원을 소비할 것으로 파악되어지니 우리군 낚시어선 선적이동예방과 우리군으로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니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인증부표라 해서 제도 개선을 했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네 가지, 세 가지로 해서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작년도에 김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외에는 못 쓰게 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못 쓰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11월 13일 이후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자체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전에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11월 13일부터 못 쓰게 했잖아요. 그것은 못 쓰게 하려면 뭔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근 해남 같은 경우는 많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80% 이상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한 2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한 2년 거쳐서 한 3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완도군에서도 우리 청정바다수도이지않습니까?

인근 해남보다 먼저 우리 완도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발빠르게 교체하는 부표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이 아닌 친환경부표로 하계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군 재정으로

인해서 수혜 받아야 할 어가들 수는 많고, 재정은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목적적으로 일반 조금씩 해주는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완도군 히트펌프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해마다 40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40대씩 들어오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기존에 광어양식장에만 보급을 했었는데 광어 양식장에도 90%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복치패장에서도 저걸 찾고 있어서 그 수요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지금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고 전복가격은 계속 하락인데 히트펌프는 계속 지원을 해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사면 가격이 싸요. 그런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은 뭘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현장 어가들 말 들어보면 한 대당 1억 2,000만원 지원을 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가들이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7,000만원 정도 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업은 히트펌프는 사실 우리군에서 사업을 받아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저것을 운영을 하면서 설계비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급을 하는데 1억 2,000만원까지 계산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현장하고 괴리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히트펌프를 해서 어민들은 양식장에서 해달라고는 하는데 전기요금은 몇 배로 올라가고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또 산출해서 전복을 판매하게 되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히트펌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절을 하게 되려면 그 옆에 보면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는 뭐예요? 전기모터를 순환시켜서 전기세를 다운시키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런 사업들을 올려야지 왜 히트펌프를 전기세만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히트펌프를 어민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전복치패하는 협회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어요. 히트펌프를 때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전복치패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히트펌프 자체를 공급을 중단하고 협회 자체적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복치패업체들의 생산비용도 낮추고 전복치패 단가도 낮춰서 서로 어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사실 히트펌프는 저희들도 공급을 점점 줄여가려는 생각이거든요. 줄여서 어가들의 생산비용을 낮춰

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올해는 히트펌프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40대 정도 되는 곳이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점차 히트펌프는 줄이고 인버터는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십시오. 협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줄이자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협회들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얼마큼 본인들이 손해거든요,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하고 다른 거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완도군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민들한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민원적으로 받은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화흥포 간척지에 민물새우 키우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젊은 귀어어가가 거기서 민물새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어떤 원인 모를 상황으로 인해서 전량 폐사를 했습니다.

지금 새우양식은 1년에 수온만 잘 조절하면

삼모작까지 가능한 사업이고요. 젊은 귀어가 죽은 새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종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재선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4월, 5월에 거기 폐사했을 때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현재 바다양식을 하고 있다는데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바다...

○박재선 위원

이건 민원입니다, 민원. 민물새우허가를 받아서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바다새우랍니다, 바닷물로.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게 바다새우입니다.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흰다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민물양식으로 받았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민물, 바닷물 구분이 없습니다, 허가는.

○박재선 위원

민물, 바닷물 상관이 없다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육상양식허가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건 육상에서 바닷물을 유입하든 민물을 유입하든 그것은 어민, 어가의 방법이고요. 민물 따로 있고 바다 따로 있고 새우양식에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재선 위원

그 허가는 따로 상관 없다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분이 민원 넣은 것이 잘못 됐네요. 처음에 할 때는 왜 거기다가 관정을 뚫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관정을 뚫게 되면 간척지에 관정을 뚫는다는 얘기는 민물을 빨아내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쉽게 따지면 바다새우를 키우게 되면 그 밑에 간척지도 있고 그 밑에 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정을 뚫어서 할 필요는 없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단지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농약을 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요. 관정을 쓰는 것은 새우양식장의 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선 위원

민원사항에서는 처음에는 민물새우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관정을 허가 받을 때는 민물새우를 키우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관정을 뚫어서 하게 되면 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검사없이...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확인해 해 주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완도군 이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당시 1년 계약기간에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다음에는 8개월 위탁하는데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 위탁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두 번 나눠져서, 사업비가 나눠져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내년도는 1년치 예산이 2억인 겁니다. 작년도는 나눠서 합치면 거의 2억쯤 되고요. 내년도는 그 기간에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계약을 한 것이 2억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에는 나눠서하기 때문에 1억이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나눠서 그 기간이 어디가 6월인가요? 시장개척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시장개척팀장 전문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간 위탁을 22년 5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1년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1부터 금년까지 해서 지금 8개월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보이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억 3,200에 8개월치를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세웠습니까?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예.

○박성규 위원

2023년도 위탁업체 지출된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 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추가로 지급된 내용이 있어요. 4건에 대해서 8,000만원이요.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4건에 대해서 8,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 완도이송수산의 날 특별홍보전 이벤트 지급비용 4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2,000만원, 2,000만원 4회 지급됐는데 민간위탁금에 사무관리비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별도로 한 것입니까?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이거는 도비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은 쿠폰할인이라든가 리얼커머스에 주는 보전사업 쪽으로 해서 도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평가를 할 때 단순히 민간위탁금만 가지고 평가만 하는데 이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그것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것이 맞죠? 위탁금 위탁운영을 해서 매출이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큰 상승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탁운영현황을 보면 주요상품인 활전복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업체들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그 업체 말고도 우리 완도군 관내에는 유통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활전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규 위원

요즘 대부분 업체들이 자사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숍에 올라온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또한 우리 지역 업체들도 이숍을 믿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우리 관광상품 개발할 계획없습니까? 수산물로.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저희들이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히트상품개발연구를 해서 올해 3개업체에 지원해서 거의 히트상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마다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복을 이용한 완도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완도군이숍청정마켓 역할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영세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나 우리 완도군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우리군이 직접 나서니까 소비자들은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구매력도 높아지고요. 그런 이숍이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판매만 중계해주는 인터넷쇼핑몰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죠? 판로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주고 디지털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판매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과장님, 해남군의 경우 해남미소 알고 계십니까?

직영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쇼핑몰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우리군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남이숍 그 부분도 홍보도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우리 완도군도 그런 활성화차원에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업체가 청정마켓으로 바뀌면

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해남군보다는 우리 완도가 수산세가 썩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산사업들이 많이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해남군은 농로가 많고 수산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나 완도는 12개 읍면에 다 바다입니다.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미소 연매출이 2022년도에 1억 5,6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5,600만원이고 2023년도 설명절 때 7억 6,0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1년 내내 운영해도 해남 설명절기간에 매출을 못 따라갑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거긴 아무래도 농산물이 좀 많아서요.

○박성규 위원

농산 쪽이 많고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문제점이 아니고 비교점인데요. 아무래도 해남은 다양한 농산물이 많아서 농산물 소비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해남의 경우 명절에만 판매하는 농산물 꾸러미 선물 알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세트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건 군민 제안사항입니다.

봐보십시오. 한 업체에서 만든 선물세트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물건 하나 선정해서 하나의 선물세트로 만들었더니 실속있고 품질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거 잘 보셨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성규 위원

우리군도 저거를 도입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을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다 보면 많은 선물들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위탁운영의 경우 할 수 있는 게 그저 홍보만 하고 고객센터 운영하고 가운데에서 중계만 해주는 것이 끝입니다.

명절꾸러미처럼 소상공인도 이숍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군청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쇼핑몰 위탁운영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위탁했다고 우리군에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숍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도 이숍을 통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소비자들도 우리군

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산경영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시장개척팀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신복균 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팀 이광율 팀장님입니다. 농촌개발팀 장충남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봉현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인호 의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추진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현장의 안내판 의무설치와 관련 관내 일부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이 없어 공사정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의원발의하여 공사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7월 건설관련 공무원 및 관내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건설환경조성을 위해 현장관리,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정옥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구 완도대교 표지색 등 보존방안 마련입니다.

구 완도대교는 우리군이 육지와 연결되는 최초의 교량으로 새로운 완도대교가 가설되면서 철거됨에 따라 구 완도대교 표지색 등 시설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구 완도대교 시설물은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원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군외면사무소에서 복원됐던 일부 시설물을 완도군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시설물 보존관련 용역비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철교 잔여량이 미비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형물 설치사업이 추진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외면에 조성위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지역유령건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건설업체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관내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11월 현재 약 22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자료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김진원

1월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조인호 위원

건설업체 등록 절차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자본금하고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금 확인서, 그다음에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나서 시군구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건설업등록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조건을 명시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상 기준상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건설업 등록 접수될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은 서류가 신청이 되면 서류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현장확인 확실히 하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근 타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특히 유령회사들은 사무실도 없이 주소만 이전해놓고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수의계약을 독려하고 여의치 않으면 공사현장을 찾아가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횡포를 부린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혹시 여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읍면에서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특히 건설브로커들이 수주한 공사나 용역금액의 5%에서 10% 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소문 들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조인호 위원

처음 들어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위원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상하반기 해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근 3년간 건설업체에 대한 횡령 처분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처분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대부분 시정입니다.

○조인호 위원

시정이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위원

별 건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위원

앞으로 강도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정부는 지역업체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5,000만원 이하로 지역업체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위원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잘 집행하고 있죠? 그러면 유령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서 부실공사한 업체들이 있다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인호 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귀에는 들리는데 과장님 귀에는 안 들

린가 봅니다. 지역 유령업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토종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렴하시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 1월 회기 중 5분자유발언을 했던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기억납니다.

○조영식 위원

잘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10월 30일 선진지견학을 다녀오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기관과 협의 끝나면 과장님, 내년쯤 기본계획수립 기대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들이 12월경에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일정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위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주무부서로써 책임감과 추진력 그리고 5분자유발언자에 대한

피드백 등은 아주 잘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자료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잘 보이시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영식 위원

현재 환경수질과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화흥포경비행장 부지로 불법쓰레기들이 보시다시피 널두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경고 안내판까지 설치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부끄럽습니다. 일단 관리청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하고 완도읍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건설과에서 직접하시든가 환경수질과 읍사무소와 협조하여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기가 마른풀, 벼짚, 폐어구, 사일리지 등이 많이 있고 건조해 불이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쓰레기까지 있다면 더욱 그럴것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영식 위원

작년에도 야간에 큰 불이 났었죠?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에 혹시 CCTV 설치하는 불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환경수질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검토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 부탁드립니다. 쓰레기투척자에게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이번 건은 행정사무감사 최초 군민제보의 건입니다.

과장님께 제보건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사진 올려주시고요. 제보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보희망위원 조영식 위원, 제보명 오션타워 뒤 위험조치라고 제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션타워에 5년째 살고 있는 주민인데 아파트내에 주차장 입구 인근이 너무 위험합니다. 돌들이 너무 위험하게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태풍이 세게 불 때는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갑니다.

7살 아들을 가진 엄마로 아이에게 혹시 사고 날까봐 그 주변에서 놀지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공사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위험한 곳까지 있으니 더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군청에서 몇 년 전에 안전망을 설치했지만 돌들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학림아파트는 안전하게 공사했던데 오션타워 뒤에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사진과 함께 보내드리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조영식 위원

많이 위험해 보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과 바로 함께 가봅시다.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담당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군민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언론홍보하고 처음으로 내려온 군민제보이니 각별히 신경써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완도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제1부 두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1부두 대조기기간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교통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해수면은 상승하고 매년 대조기 기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지반정밀안전진단용역이 완료됐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도로하고 물양장 부분에 큰 피복석이 매립돼 있어서 그 부분에 동공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즉, 빈 공간으로 바닷물이 침투해서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 용역 때 그것이 나온 건가요, 작년 11월?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용역이 지금 문제가 났는데 올해 8월에서야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뭘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인근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위를 못합니다.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산시기까지 검토를 해서 그래서 8월에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바로 위원돼서 2019년 그때 이범성 의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창 있었던 내용 그때 당시에 바로 시정요구를 해서 움직였던 걸로 아는데 안전정밀진단용역을 왜 작년 11월에 했는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때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정밀조사를 먼저 하고 그 원인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언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에서 2월 정도면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최정욱 위원

내년이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월, 2월이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최정욱 위원

1부두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지정이 되면 중기재해위험지구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25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업계획으로는 기본적인 안은 사석치환을 해두고요. 도로 승상 일부 해와 되고, 차수벽 설치, 그다음에 많이 설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일슈퍼 등 건물 이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방금 전에도 송상 일부를 한하는데 어느 지역 어떻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검토결과 한일슈퍼 앞 도로가 인근도로 보다 약 50센티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일슈퍼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진회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기존도로, 영진회센터 도로높이로 일부분만 도로승승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도로승승할 건축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물이 차면 항상 건축물에 물이 들어갔어요. 한일슈퍼? 그 자리에 물이찼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죠.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건물 있는데 승승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김진원

건물에는 저축이 안 되게 도로 일부만 하니까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기존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도로 올리면 더 그럴 건데 한일슈퍼 같은 건물을.

○건설과장 김진원

아니요. 한일슈퍼 앞 도로가 50센티가 낮아요.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낮은 데 낮은 것 차고도 넘쳐서 한일슈퍼 어디까지 가냐면 본도로까지 찰 때는 차요, 물이. 그런데 거기 아무리 높여도 이 쪽에서 들어오면 송상 건물을 못 올린 이상 다 차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치환을 하고 외곽쪽으로 차수벽을 설치하면 그쪽에 물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계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냐면 그럴 때 마다 건축주들이 민원을 위원들한테 해요,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물들을 해결을 같이 하면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예전에는 그걸 매입을 한다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러니까요. 일단 계획을 잡을 때 자연재해지구 지정하고 나서 2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받아서. 그때 만일 대비해서 그때 건물 한일슈퍼 외 2개동에 대해서는 사용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주동의서를. 그때 설계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들어가면 그런 과정까지 다 들어가게 되네요.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 때는 대기지구가 겹치면서 해일과 더불어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해업무를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이거는 재해업무로 봐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사전대비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는 건설과가 맞다는 얘기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재해위험지구 이 업무는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재난시 상황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재난상황실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최정욱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따른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마 이런 것도 실과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군 이미지도 타격이 큼니다.

그만큼 안전한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개소인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66개소입니다.

○지민 위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은 몇 개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원

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지민 위원

매년 광고물에 인허가 건수는 몇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옥외광고물 간판 관련해서는 95건이고요. 현수막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2,000건입니다.

○지민 위원

관내 옥외광고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13개사입니다.

○지민 위원

현수막의 게첨기간은 규정상 며칠이예요?

○건설과장 김진원

15일입니다.

○지민 위원

15일이죠? 상황에 따라서 행사기간이라든지 빨리 행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면 빨리 걷어낼 수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방법이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광고사에서 현수막을 걸잖아요. 별도로 다시 걸게 되면 광고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광고업체 우리 완도는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광고물 발생은 좀 줄어들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불법 광고물

선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군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서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글자에 이렇게 비슷한 현수막이 도로에 쪽 펼쳐져 있는 부분을 가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예. 봤습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도 그때 안디옥교회 도로판, 도로변 안전펜스에 쪽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광경 보신 적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봤습니다.

○지민 위원

군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부추겨도 되는지 광고물관리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게시를 하면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현수막 게첨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아무래도 미관훼손이지 않겠습니까?

○지민 위원

미관상 훼손,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길가 도로가에 양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운전을 하면서 시선을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

면 운전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맞는 말씀입니다.

○지민 위원

좀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지민 위원

혹시 우리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공해유발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은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내년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게 안 되면 도비로 받을 수 있는 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민 위원

자료화면 올려봐 주실래요? 폐현수막 이렇게 재활용 사례가 있어요. 우리군이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규정이요?

○지민 위원

옥외광고물 기금, 관리기금.

○건설과장 김진원

아, 기금이요? 1억 2,086만 7,000원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 정도 있죠. 우리 기금을 폐현수막재활용사업에 공모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사업에 활용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을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산방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에 최선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됐을까요, 체육진흥과? 바로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남 체육정책팀장입니다. 황인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오영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규 체전추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완도군 골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립공원 해제 건의건입니다. 이 건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프로의 골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골프꿈나무 인재육성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군의 일부지역은 골프장 예정부지 중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이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토록 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국립공원지역 해제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4월에 개최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아쉽게도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이 건은 어린이놀이시설 내구연한 및 현행법 안전시설규정에 미달된 놀이시설에 대하여 재정비가 필요하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시설은 고금과 보길 2개소는 완료하고 청산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3개소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지훈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과 코로나19 전과 실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우리군에 전지훈련팀은 작년에 한 2,200명 정도 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왔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위원

저도 전부터 전지훈련에 대해서 섬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전 과장님께도 했었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우리 완도군은 좀 어떻습니까, 전지훈련이?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해남이나 강진 체육시설, 인프라시설이 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구나 축구장 부분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고금이 축구장이 하나 생겼고, 보길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걸로 전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만 봐도 작년보다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습니다.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공모사업도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부족한 인프라종목은 꼭 채워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고금도와 보길도에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정식구장으로 생겼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서지역이나 섬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뿐만이 아니고 윤선도기념관 그런 데 보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들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공감하고요. 금년에는 감독분들하고 코치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 정도는 우리 주요문화재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고 특히나 지난 주에 개관했던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꼭 스포츠한 사람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해양치유센터도 생겼으니 거기에서 몸도 치유받고 인성도 배우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재선 위원

노화도하고 청산도에 근린형국민센터가 지어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지연된 사유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음향시설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흡음판이나 바닥 이런 부분들을 음향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100% 다 됐는데 내부시설, 음향부분에 자문을 구했는데 체육시설, 이렇게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완전하게 흡음을 완전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다 보니 완전한 음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그 음향시설을 최대한 음질을 높일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짓고 12월 말까지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보면 거기가 매립지역이라 본 건물에는 타일을

을 바꾸서, 타일을 넣어서 건물은 안전해요. 그런데 그 옆 주변주차시설이나 보면 벌써 옆 건물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꺼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현지방문해 보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소안도도 생활체육공원을 새로 하겠다고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금년에 설계는 완료됐고요.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 때 많은 협조를 주셔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는 발주의뢰를 해서 내년 11월까지인가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공원조성하는데 미흡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따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지금 야외운동경기하고 체육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국궁장하고 군외면에 있는 축구장하고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읍면 체육시설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체육

진흥과에서 보면 건물들은 많이 짓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소에 쥐버린다고 생각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까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물론 그래야만이 행정의 추진력이 일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이렇게 두부판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는 업무가지고 핏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와 체육진흥과 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쭙본 거고요.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소에서 필요한 체육관이라든가 농어민센터라는 게 체육관에서 쓸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쓰는 겁니까?

무작위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공문으로 정식승인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박재선 위원

조성하고 관리는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청해진스포츠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BF인증을 못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지금 BF 이 부분은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승인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해진스포츠크센터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BF가 설계단계에서 한번 예비인증을 받고, 준공이 끝나면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는 이행조건을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신청을 하니까 청해진스포츠크센터만 BF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내에 있는 전체를 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분 보완을 하다 보니까 58건인가 59건인가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하고 본인증을 신청해 났는데.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BF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완전한 준공을 지금 예비준공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BF를 받아야만이 최종준공처리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주 중이나 다다음주 중에 직접 본부에 찾아가서 대면하고 그런 걸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 보내면 3, 6개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박재선 위원

그러면 직접 올라가셔서 BF 인증을 받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BF인증을 전부 다 과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완도군에 받아야 될 인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해서 바로 바로 인증을 받게끔 해주신 게 완도군의 과장님이나 다른 실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 책에 보면 전부 다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다 미인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다음 주라도 가셔서 바로 인증을 받아서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남체전도 치르고 그랬으니 그런 스포츠센터에 바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 완도군은 이렇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인증을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체육진흥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등 성과분석이 나왔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지난 5월달에 체전을 마무리하고요. 7월달에 전남도와 전남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22개 시군관계자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특이한 부분은 입장시 했던 중앙무대를 활용한 부분과 최경주 프로의 성화 점화, 우려했던 교통 부분이 상당히 잘됐다 그런 평을 받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어디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일부 숙박이나 예약 부분에서 오해 부분이, 그런 부분들, 식당 친절부분 들 지적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는 잘됐다는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조영식 위원

대체로 평가는 잘됐다는 평가고, 방금 아쉬운 점 이야기한 것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어떤 대회가 치르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지자체가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체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체력증진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군에서?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군에서 체육업무를 본 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또 종목별 동호회를 육성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체육진흥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식 위원

긍정적으로요, 좋습니다. 완도군이 해양도시인데 해양레포츠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수산군이고 해양치유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마는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줬고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은 깔려져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주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 회기에 5분자

유발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서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피드백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일부 신청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위원님하고 타협을 해가면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위원님들이 자유발언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군에 미칠 영향들 심사숙고 끝에 발언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아니, 다른 과하고 딱 두 가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한 군데서는 귀찮을 정도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체육진흥과는 너무나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연락 온 적도 없고. 제가 찾아갈까요,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아닙니다.

○조영식 위원

주무부서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가 우

리 부서인가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저 5분자유발언을 했는가 생각해서 가서 어떤 생각도 물어보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전달이 돼야지. 단 한 번 몇 달 동안 한 번도 없어서 조례까지 발의를 뒷받침하게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좀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앞으로 이번 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예.

○조영식 위원

준비된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계절 명사십리 앞바다와 정도리구계등 앞바다에 이런 그림들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공감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예.

○조영식 위원

오늘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5분 자유발언도 긍정적이라고 답해주시고 이 사진, 자료사진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진흥도 중요하지만 천혜의 해양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여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을 활력케 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해양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해양레포츠 육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스포츠진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위원님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팀 이진범 팀장님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은경 팀장님입니다. 치매정신관리팀

박경자 팀장님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 이 미영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개선 관련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두 번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양성한 산후도우미 28명은 근무희망여부 조사결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고용 불안정 또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타 직종으로 취업하는 등 이직률이 매우 높은 현황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1년도 완도군 신규 시책으로 실시한 원거리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비를 당초 1일 5만 400원에서 2023년부터 2만원 인상하여 7만 400원으로 상향 책정하여 타 지역 소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취약지인 완도군은 가족 또는 지인을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둘째아부터 지원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를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출산여성 산후조리를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년도 지원신청자는 28명인데 전원 불편함이 없이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화 건강돌봄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설치공간 무상사용을 대부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무상사용기간은 15년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15년이요. 우리가 대부 16억 넘게 투자를 하는데 15년이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 22년도 11월달에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 9일날 센터 설치에 대한 무상사용협약체결을, 협약 내용을 했는데 무상 사용기간은 15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우재단 측에서도 행복나눔섬지역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 사업진행현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올해 워크숍을 두 번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함께 리모델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게 2022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이월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확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재난예방트래킹코스 9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준공이 됐습니다.

○박성규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대우병원 부지 뒤에 있는 트래킹코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길이가 몇 미터나...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600m 조금 넘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를 준공예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리모델링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2022년도에 9억 3,700만원 예산하고

올해 6억 6,300해서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건축, 기계라든지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총액이 12억 5,000 정도 소요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올 12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우리 사업은 인구소멸기금이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총 사업비가 16억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것이 확실히 과장님,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민간위탁금 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집행현황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공문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비슷하듯이 돼 있어요. 헛갈려서 그런데 과장님 이건 확실히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위탁금입니다.

목이 위탁금입니다.

추경 때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동의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완도군...

○박성규 위원

과장님, 완도군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4조 3항에 보시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동의는 안 받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완도군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 판단은 2022년도 작년 11월달에 완도군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조에 도서민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올해 대우병원 이 부지 건물이 대우재단 구 대우병원에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나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1월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재단 행복나눔섬지역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향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실내나 실외에....

○박성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그래서 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상사용도 15년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에 서로 협력을 노력하기 때문에 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규 위원

국가의 기금 사업이지만 적어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그런데 조례에 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들이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를 해서 할 것인지 법인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공동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 설명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의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분야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수탁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탁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이 적절한지.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대우재단이 지금 비영리법인 재단으로써 사회복지봉사하고 의료법인과 같이 사업수행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도서민건강돌봄센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서민 쪽에 있는 소안, 노화, 보길 지역에 도서민들의 건강돌봄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대우재단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신규공간조성 및 프로그램개발사업이 2,000만원, 보건, 문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2,000만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개관식 및 시설물 관리운영이 1,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깐요. 연구비, 인건비가 절반이에요, 5,000만원에 대해서. 재단에 연구원들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재단에는 연구원이 없는데요. 지금 도서민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범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험운영은...

○박성규 위원

시범운영, 그러니까 개발이나 시범운영은..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 선진지 견학도 하고.

○박성규 위원

거기가 대우재단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같이 합니다, 재단하고 같이.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연구용역이 대우재단이 연구용역업체는 아니죠?

업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아닙니다.

○박성규 위원

연구용역업체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다시 연구용역업체에 재위탁한 겁니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재위탁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왜 수탁기관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합니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맡기는데 왜 수탁기관이 또 다른 업체에다가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우재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향후에 유상 사용도 했고, 향후 15년 동안 지금 대우재단에서도 자기 재단 운영비를 향후 10억 정도를 저희 돌봄센터 쪽에 사업비를 투자할 의향을 문서화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좀 더 도서민건강돌봄센터가 초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우병원에서 자기들도 투자를 한다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재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재단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그러나 잘못된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좋은 일을 하고 욕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성규 위원

좀 신경써주시고요.

행정에서 사전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꼼꼼히 업무를 챙겨주시고요. 도서관돌봄센터가 준공되어 우리 노화, 보길, 소안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기니까 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제306회 2022년도 군정질문답변 제6차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지원사업 중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에 도비보조로 도내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난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꼭 신혼부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기간이나 현재 자녀의 수, 난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님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난임부부, 필수적인 난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한 부부당 20에서 30만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어떻게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남형은 전남도비로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완도형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누락이 없을 정도로 전액 1회당 최저 110만원, 최고 150만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만 해도 현재 지금 지원인원이 67명, 4,2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그리고 또 혼인 예정돼 있는 신혼부부, 청첩장이라든지...

○조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난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그러니까 위원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별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드린 건강검진비 여기는 월 1회 26만원입니다.

부부가 해서 26만원 해서 주민등록 거주지가 완도일 경우에 한해서 전액 신청자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식 위원

답이 충분히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재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도 같이하

고 있는데 완도군에 치매환자와 정신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은 치매가 등록된 1,52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10.1%로 전남과 전국 대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저희들이 고령인구가 35.7%여서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150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2020년도 14명, 2021년 15명인데 현재 지금 2023년만 해도 20명이 정신질환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니까 치매환자가 1,520명이고 정신건강 이쪽으로 156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완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이렇게 1,500명과 150 몇 명이면 1,700명 정도 되는데 인원 수가. 그 인원은 팀에서 몇 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정신관리팀이라고 한 팀에서 치매안심센터팀하고 정신건강센터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는 주무관 1명하고 전문요원 8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는 직원 1명에 전문요원 6명, 청경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유병률이라고 해서 전국과 전남 이렇게 따졌을 때 완도군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22개 시군이 치매나 정신관리팀이 설치나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5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2개 팀, 정신팀, 치매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팀이 있는 시군에서도 센터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원도 협소하고 도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병률도 높고 노령환자가 많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도 우리 증진과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도서지역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 서부권으로 전문요원들이 차량을 가게 되면 하루를 소요를 합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면담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받고 중증환자 같으면 전문병원이라든지 의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마는 치매팀과 정신건강팀을 분리를 해서 디테일하게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갈 수 있도록

록 그렇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선 위원

전에 금일과 신지 실종자가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재선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119하고 경찰서에 넘어가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실종자를 전혀 찾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찾았을 때는 예전에 보면 인식표라고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박재선 위원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일반사람들이 가서 행정에서 달아주면 실질적으로 다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식이 직접 선물하는 걸로 해서 치매환자들한테는 인식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치매지원서비스 노인실종예방에 대해서는 배회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인식표, 지문인식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나 인식표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야만이 이게 부착이 가능하고, 또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식표나 감지기를 달아줄 때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치매환자들이 인원 수가 1,700여 명 되는데 완도군은 현재 1개 팀에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보니까 2개 팀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지난 11월 초에 저희들이 현황과 함께 건의 사항을 해서 행정지원과 관련부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매환자가 실종이 되지 않게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난임부부 시술비가 아니고 또 신혼부부 건강증진사업도 아니고 난임부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자료가 있다면 지원받는 명단이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출석공무원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수산경영과장	김일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전문위원 : 이송현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행정과
 - 시설관리사업소
 - 해양치유담당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행정과
 - 시설관리사업소
 - 해양치유담당관

(10시00분 개의)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9조 및 완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보건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해양치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의 박현옥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의 문재우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의 이미자 팀장입니다. 진료팀의 김진희 팀장입니다. 노화보건지소팀의 황정미 팀장입니다. 보건행정 팀장님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할 거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수거하거나 폐기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구입할 때는 마약관리정부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를 할 때는 저희 보건의료원의 관리부서로 신고를 해서 폐기를 하는데 현품을 보건의료원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소각하기까지 마무리하기까지 폐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완도군 마약방지를 추진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 예방실적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저희가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 매년 2회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철을 이용해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교육이나 캠페인 대상은 외국인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청소년대상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는데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법문제가 된 것이 이슈화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마약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최근 2년 동안 전남부터 115명이 마약사범이 검거됐네요.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최근 해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한 5명 하다가 불법체류자들이 하다가 검거된 사실은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들어봤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군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사범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하고 전체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만 공직자들 경찰하고 합동해서 완도에서는 마약이 전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한건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질의하십시오.

○조인호 위원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 보면 알겠어요? 2023년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의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리군 보건소 진료소장들이 세분이나 들어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취약지원 원격 시범사업을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진료소장 세분하고 공중보건 의사 1명, 담당직원 한명 5명이 시상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원격진료를 하신 주민들의 배가 늘어났고 협진기관이 저희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그러한 공적들이 인정돼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조인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완도 보건의료원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읍면에 가면 진료소에 환자가 없을 때는 놓고 있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원격진료를 해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격려도 해 주고 앞으로 많이 동참하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성병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상대적으로 의료 기반시설에 취약한 완도군을 비롯해 전남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확대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정원확대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높여 주고 그다음 단계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맥락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난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대성병원을 치적으로 삼아 완도군의 취약한 의료기관시설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읽어봤습니다.

○박성규 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 이를 해소해야 된다. 정부방안에 협조해야 하는 기획기사로 보이지만 완도군의 취약한 의료기관시설의 민낯이 전국으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취약한 완도 의료기반실태를

정부에서 체감하고 농어촌의 안정된 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대성병원에서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국비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국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요. 그 속에서 군비만 봤을 때는 약 8억 7,000 정도 됩니다.

○박성규 위원

해년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 군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성병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대성병원의 진료과목은 무엇이고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 수는 몇 명이나 되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대성병원 직원들은 약 100여명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되고 의사는 9명입니다. 진료과목은 6개 과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의사수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군 공중보건위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우리군에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47명이요. 대성병원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대성병원은 공보의 2명 배치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공보의가 2명이요, 공보의 근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3년입니다.

○박성규 위원

만 3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박성규 위원

공중보건위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복무관리는 공공보건기관인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으로 배치된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최근 2년 이내 공중보건위사의 복무지침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군 전체적으로 하면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난 2월중에 신문기사에 대성병원 공중보건위가 전국 공중보건위협협회 회장에 당선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서 진료 등 할 일이 많을 텐데 전국공중보건의 회장으로 활동하려면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박성규 위원

복무는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그 부분은 파악을 관심을 갖고 한번 봤는데 자리를 생각보다 많이 안 비우고 대표 공보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성규 위원

회장으로 활동하려면 많이 공백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은? 가능하면 공백기간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박성규 위원

앞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의사나 원장은 병원에 근무를 공백기간이 없도록 근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공보의나 의사들이 병원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요.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주민제보사항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거 등산로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우리군에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위원장 박병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이미자

지금 진드기기피제 설치기가 11개소에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민 위원

여기 해충퇴치기에 책자에는 311대 나와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이미자

죄송합니다. 제가 진드기기피제로 봤는데 해충설치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사진은 진드기기피제네요.

○지민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제가 답변할게요.

○지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 해충퇴치기가 아니고 등산로에 설치된 그거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해충 퇴치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민 위원

아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그러면 저거 사진과 관련해서 등산로에 이게 점검에 4월 8월에 71대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71대는 없고요. 저거라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민 위원

11대. 올해 점검을 하셨다는 거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71대는 저희한테 없는 숫자입니다.

○지민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지민 위원

책자에 이렇게 있길래 책자에 나온 게 저건 줄 알았습니다. 저거와 관련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작년 가을부터 보건소에 계속 전화를 해서 보충약도 떨어져 있고 고장이 났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진드기분사기거든요.

○지민 위원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봄철부터 장비를 하러 나갑니다.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그러고 하는데 저 부분이 어딘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민 위원

직접 전화도 여러 번 해 봤다고 하는데 위치라든가 그걸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11월 16일날 확인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가 있다고 하니 작년 가을부터 제보를 했으나 지금까지 추가가 되지 않고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 확인 한번 해 봐주시라고 말씀해 주

셔서 올렸는데 점검을 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2, 3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 10월 13일날 완도대성병원 위반내용 있죠? 처분내용.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법정기준 미충족 그랬는데 어떤 내용에서 미충족사유 라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대성병원 그 부분은 응급실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조건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사, 인력당 몇 명을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등급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된 그런 경우입니다.

○조영식 위원

240만원이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과태료.

○조영식 위원

예. 최근에 아주 최근 아닙니까? 11월 1일날

3년 연속 미충족돼서 지역응급의료 나와 있네요. 만약에 지정취소가 되면 응급실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그 부분은 지금 취소는 돼 있고요. 저희가 취소하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바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전과 똑같이 응급을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조영식 위원

앞으로 응급실 간판이나 이런 걸 다 떼어야 됩니까? 지정취소가 됐는데. 기능은 하지만 응급실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조영식 위원

군민들은 다 응급실인지 알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당직의료기관도 똑같이 응급실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국비지원을 차이가 있다는 그것 말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지역 주,야간 응급환자를 이송하게 헬기장을 설치하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우리군 헬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저희 군에는 헬기 이착륙을 하는 헬기착륙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주로 다 도서지역이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청산같은 경우는 헬기장을 기존에 있던 걸 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청산도 헬기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거기 면적을 넓혀서 야간에도 대형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면적확장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려고 그 주위에 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양중리로 부지를 확정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착공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사 진행중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터닥기 끝나고 콘크리트 작업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헬기장 이설해서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당초 저희 계획은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콘크리트를 설치하는데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는 착공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특별하게 주변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 항공대에서 현지 확인하고 위치가 아주 좋다고

○위원장 박병수

기존에 있는 데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설하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기존에 있는 데는 인근 펜션에서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제기를 하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을 넓혀서 해보려고 했는데 땅을 주민들이 잘 안 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장소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사안이 있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빨리 완공이 돼서 혹시 환자들이 더군다나 청산면은 의원도 없죠? 의원도 없는데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하나는 청산면 의원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네 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하나 있고 한의원 하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청산면 여서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넙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청산본도에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위원장 박병수

맞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보건지소 있고.

○위원장 박병수

보건지소에 있고 한의원 있는데 두 군데의 의료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의원이 폐업하고 나서 환자 9월, 10월에 보건지소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폐업을 당초에 의원이 휴업을 한 시점에 저희가 주민들을 계도해서 당분간 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했고, 저희가 약품도 추가로 푸른빛 의원에서 썼던 약품들을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저희 휴업을 하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휴업하기 전보다 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휴업은 했지만, 기초진료과목들에 대한 진료

는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청산면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뭐 있나요? 의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든가 계속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돌볼 것인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저희가 청산면에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도군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의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무튼 도서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대부분 다 물리치료, 링겔, 영양제 그런 거를 많이 맞거든요.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놓거나 그런 역할은 가능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아니요. 그런 역할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할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 환자들이 완도를 나오게 됩니다. 완도를 배를 거의 1시간 타고 나와서 또 택시를 타고 의원들을 찾아서 병원이나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그 어디입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건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보건의료원만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저희 보건의료원 셔틀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은 의료원에서 내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만 갑니다.

○위원장 박병수

대성병원 버스는 지금 지정된 코스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대성병원도 계획에 의해서 대성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저한테 제보가 돼서 그것을 교통행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더니 택시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에서 반발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료원버스나 대성병원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의료원도 코스가 정해서 의료원만 갈 수 밖에 없고 대성병원도 대성병원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성병원은 항만터미널에서 대성병원 갈 환자들은 코스를 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대성병원에서 청산도 주민들을 이렇게 그 부분은 대성병원하고 얘기를 해 볼 부분입니다. 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보니까 청산 자체적으로도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 의원이 설립될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대성병원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대성병원하고 협

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대성병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대성병원 응급실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우리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영식 위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든 간에 응급실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응급실에 국비가 됐든 저희가 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셔서 5억 드린 거하고 응급의료기관 기존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인력 3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의사 한분 간호사 두분요?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법정기준에 미충족돼서 지정취소가 되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정기준에 맞는 간호사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성병원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그것이 몇 명 이렇게 해라 그런걸 아니고 환자를 몇 명 봤으면 환자 본 숫자만큼의 간호사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당시에는 2명이 부족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5억을 응급실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간호사 두 분이 부족해서 과태료 물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B등급으로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식 위원

올해는요. 응급실은 이 지역에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B등급을 받았으니까 다시 재기능을 응급실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바로 진행하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

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정기호 팀장입니다. 장보고유적시설팀 남현우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시설팀 추성우 팀장입니다. 해양관광시설팀 김동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청해진 달빛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개선” 외 4건으로 총 5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해진 달빛 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원형 고무질 기성품인 과속 방지턱은 차량 과속 방지와 안전사고에는 도움이 되나, 방지턱을 넘을 때 폭과 높이로 인하여 차량 진동이 심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기존 과속 방지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과속 방지턱 3개소를 교체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동상 어린이공원 유모차길 및 보관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배수로 옆 동백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유모차길 조성 및 보관시설 설치 필요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장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울기 12분의 1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곳은 경사도가 높아 장보고동상 주차장 화장실 앞 화단이 있는 쪽으로 변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유모차길

앞쪽 옹벽에는 벽화 포토 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부모와 어린이가 휴식 및 산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수대 시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3곳이 설치되었으나, 수돗물을 먹지 않는 관계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 사이 유리 박스를 만들어 정수기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이용객 및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및 음료 등을 완도읍으로 구입하러 다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현재 장애인협회 포함 3개 업체와 협의 결과 2개 업체는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포기하고, 1개업체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험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완료 하여 11월 25일 개장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유적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재설치 요청 제안 사항에 대해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완료하고, 장보고대사 국가표준영정 사진 제작 및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10페이지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완도전천후 게이트볼장 주기적인 청소 관리 제한 사항에 대해 2022년 10월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청소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매년 청소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 해 7월경 지민 의원님과 면담 시 장보고동상 어린이 공원에 파고라와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고, 응급조치로 차광막

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보고공원 또한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 밑에 원형 벤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1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조류센터 빛 연출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해조류센터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가 너무 약하여 인근 주민들조차 인지할 수 없어 이 사업 추진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위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된 사업으로 빛의 밝기가 약하여 사업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해당시설은 광원이 2곳으로 7,000와트, 6,000켈빈으로 2개의 광원을 하나의 원기둥처럼 운영하기 까다롭고, 광원을 개조하여 1개의 광원으로 운영 시 고켈빈 램프가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해조류빛 연출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사업 포기함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빛 연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여서 그때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현장까지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빛이 약해

서 보관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빛 연출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어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사실상 빛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램프를 6,000켈빈 이상의 램프가 제작이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현재까지는 개선이 어렵다는

○최정욱 위원

결론을 말하자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포기로라고 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인데 이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얼마짜리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당초 예산 2억짜리로.....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자료 한번 올려줘 볼래요? 저 때 저 빛을 하겠다고 왔을 때 과연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빛을 쏘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위원들은 일부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직원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꼭 저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빛을 해서 강하게 나왔을 때 그나마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빛이 약해서 안 된다면 저 사업이 저 자리도 어렵거니와 빛이 안 나온다 했으면 시공사에 제안서를 받나요? 어떤 내용에서 저 빛이 나왔는데 저

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지금 밝기의 문제가 아니고 색의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하얀색이 높임으로 인해 파랑빛을 발산할 수 있는데 램프 자체를 파랗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램프를 색 온도에 맞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가 광원이 설치돼 있는데 하나로 한 기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기둥으로 할 수 없고 A자형이나 X자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소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빛과 계획대로 당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당초 생각대로.....

○최정욱 위원

계획대로 안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 지금 틀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저건 끝난 건데 저랬을 때는 시공사에 책임을 미룰 수는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당초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저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소장님 잘 자료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안대로 안됐을 때는 시공사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했던 것인지 시공

사가 한 것인지 잘 모르시죠, 소장님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최정욱 위원

그걸 잘해서 갖다 주시고요. 제게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필요 없는 거 놓을 거 아닙니까? 안되면 철거를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당초 램프를 한 회사가 저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램프를 제작한 회사에 램프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가격이 얼마정도 드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소장님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저기에서 빛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빛에 대한 우리 타워는 높이 있어서 전체 빛을 쏘니까 어디든지 보여요. 저기는 저 빛을 쏜다고 해도 다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소장님이 다시 한 번 해 본다고 하니까 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258개소입니다.

○김양훈 위원

책자에는 292개인데요. 19페이지 보면 29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읍면에 관리 줘서 읍면에서 하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현재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읍면에는 실태조사 이런 것을 좀 하고

○김양훈 위원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올해도 설치를 여러 군데 했어요. 올해도요. 몇 개소나 설치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올해 3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34개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김양훈 위원

하고 있는간 관리가 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매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걸로.

○김양훈 위원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못 돌아보고 가까운 곳을 본거예요. 앉아서 어깨

운동 하는 데 거든요. 의자 같은 거 보면 누가 앉아서 하겠어요? 다 터져서 벌어져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과장님 같으면 앉아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제일 가까운 시설이에요. 바로 도로 옆에 있고 체육관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산속이나 외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많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처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34군데 총 292개는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저런 것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비 오고 먼지 불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민원을 줘도 안 나와요.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김양훈 위원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싹 봤죠? 조례 관련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대장은 잘 관리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관리대장 작성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관리대장 관리하는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운

동기구에 붙어있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관리번호 부터 해서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관리가 하기가 어려우니 저런 거라도 있으면 연락처나 만약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 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저 연락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선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부서로 연락해 주면 손보기가 관리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내년에는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진 않을 겁니다. 꼭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김양훈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에 보면 군수는 야외기구,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계획이 포함돼 있어요. 명시돼 있는데 그 관리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관리대장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가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조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매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산속에나 외곽 지역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거의 사용 안 하는 데다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안 드렸던 게 그런 운동기구들은 사용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옮겨서 신설해주는 것도 좋겠다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사실상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또 신규시설보다는 아까 전에 기존에 있던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한 것도 있는데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서 옮겨서 해놔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람들이 체력 증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해조류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6월에 해조류 리모델링 공사를 9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하

지만 지금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는 완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건물도 멋있고 바닥에 분수나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상 내부를 보고 만족하는 관광객들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조류센터 하루 평균 방문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시설팀장 김동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 방문객은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2500명, 21년도 1900명, 22년도 2400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혹시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양관광시설팀장 김동완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일단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 공간에 화면이 5개가 있습니다. 전부 소리가 5개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결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상 자체 하나하나마다 시작 버튼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기계 모니터가 5개가 있으니까 헤드폰을 직접 하나씩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다 섞여서 들리면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정확한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다음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저거는 기계를 계속 누르죠?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화면도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어디에 고장이나 있다는 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점검을 안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주로 점검은 근무하신 분들이 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씩 해보기는 합니다마는 자세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민 위원

시설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한번 눌러보고 고장이 났든 점검중이든 옆에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얀색 화면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 갔을 때 하얀 벽면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 위에 빔프로젝터가 있었어요. 빔프로젝터에서 화면을 뭔가를 발사해줘야 하얀색 벽면에 뭔가 나타나는데 하루종일 하얀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조류센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정원페스티벌이나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멋있으니까 들어가 보게 돼 있으니 직원 분들께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고장이 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또 한 가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저

거 AR콘텐츠예요. 이거 보려면 아래쪽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죠. 아래 QR코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QR코드라든지 코로나 시기 때 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플을 잘 못 QR코드를 잘 못해가지고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존재하지 않아서 안내판이 검색해 봐도 QR코드를 찍어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안 돼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많이 해 봐주시고 꼼꼼하게 해봐주시고 도대체 9여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시관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참에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매일 매일 출퇴근 하시기 때문에 고장 난 전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수시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체육공원이 아침저녁으로 직원분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세요. 반려견들을 데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산림휴양과에 제안을 해서 해변공원에 배설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해변공원도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체육공원 근방에도 지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고 두 곳의 장소가 거의 똑같

은 운영되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거의 같잖아요. 여기는 배변봉투를 설치를 했는데 체육공원도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면 거기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분들이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세요.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니까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놓으면 의식들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설치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또 다른 화면 있죠? 저거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려견 관련해서 에티켓 설명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에티켓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보기에 안 좋고, 지역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배설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키게끔 돼 있잖아요. 한 가지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돼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단속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청경이라든지 직원들이 합니다.

○지민 위원

그런데 저거를 직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민 위원

CCTV는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CCTV 다 있습니다.

○지민 위원

CCTV 다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 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기로는 이러한 법들이 강하게 돼 있기는 한데 지역민이라든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시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꽤 오랜 간 지나왔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누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CCTV카메라에 잡혔는데 올리겠다. 이런 감정적인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식하기는 하나 얼마간 조심할 때까지 신고제를 도입을 하면 어때요? 어차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사실은 저거 같은 경우 밤에 이용하다 보니까 발견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신고를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현수막에 이러한 부분이 보이면 어디 어디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시설팀 김광호 팀장님입니다. 센터운영팀의 문병민 팀장님, 문병민 팀장님은 인터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마케팅팀의 정상화팀장님,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팀의 지민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조류 스파랜드 배당금 분

배 및 실시 협약 조속추진입니다. 실시협약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16년부터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지만 이익금 배분이 미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고문 변호사와 최종 면담을 통해 수익금 청구의 소 제기를 하였고 지난 11월 21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으나 법원에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 12월 19일 속개 예정입니다. 향후 법원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무직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 양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완도군 조직 운영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직을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로 양성 방안을 권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양성과정 신청자를 접수 받았으나 응시료 부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인원이 저조하였고 일반직 직원 두 명만 신청하였습니다. 공무직 희망자가 없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양치유 센터 프로그램 위탁업체 직원 채용 시 해양치유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해양치유 센터 위탁업체를 통해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치유센터 건립에 관해서 군정 질문 때 잠깐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공사지연 이후로 실정 보고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총괄로 중앙부처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승인은 받았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1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당초 320억 설계 변경되어 군비가 추가된 78억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던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전체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전체 받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못 받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전체 총 공사비는 374억원을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356억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차액은 18억입니다. 그중에서 감리비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시공 공사 부분은 한 8억 정도 7억 정도 된 걸로.....

○최정욱 위원

우리군에서 요청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100%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인테리어 부분이 공사 변경 부분인데요. 이부분을 저희들은 협의 단가로 시공사와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의 단가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기재부 쪽에서는 낙찰률 적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다보니까 전체 승인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 것 어떻게습니까? 담당관 이런 거 예측은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거 예측 못하고 했던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시공사측하고 협의 할 때에는 시공사측에 최대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 변동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고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너무 시공사 쪽에 많은 사업비를 과다 협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증가된 공사 물량 부분에 있어서 협의 단가로 조정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기재부 기약 예규 조건에 단가를 협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한 작업인원 부족 어려움 또 물가 상승, 물류비, 운송비 인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98%의 협의율을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던 말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협의단가 가능한데 중앙부처에서 승인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8%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공사측하고 해서 협의를 너무 높게 했지 않냐. 자기들이 낙찰률은 83%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시공사하고 우리군과의 98% 협의란 얘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기재부에서 한 거 아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기재부는 결국 85% 한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83%

○최정욱 위원

83%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낙찰율.

○최정욱 위원

그럼 승인받는 금액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초 협의단가로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들에게 차액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앞으로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결과 나오는데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중재와 조정이라 함은 어떤 뜻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자 간에 조정해주고 중재해주고 알선해주는 그런 기관이 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 그래서 거기에서 소 제기하기 전에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최정욱 위원

중지와 조정하는 그 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회사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입니다.

○최정욱 위원

기관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가능합니다.

○최정옥 위원

그럼 공사 간접비 또는 공사비 미수령에 따른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런 부분도 중재원 쪽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거론될 걸로 봅니다.

○최정옥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중재원에서 안 되고 한다면 시공사에서는 행정 소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게 조정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 외 지급할 방법은 없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없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런데 항간에 시내 여론도 돌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빨리 행정 소송해서 우리는 빨리 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면 이런 말도 돌고 있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어떻게 하라해서 행정이 빨리 저준다? 행정 소송이라는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야 맞지 않은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서로 항소, 항고를 하지 않으면 1차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게 행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법정이자를 지급도 어차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법정 이자가 생겼다면 우리군에 군비를 정말 필요 없는 돈을 지급하게 된 거나 똑같 거든요? 우리 공무원의 강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준수해야 한다고 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안돼서 결국은 이자나 더 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요. 군비를 축소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가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사업을 성실하게 차분히 장기적으로 보고 순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진행하는 해양치유산업의 성격상 먼저 미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조속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랬을 때 만약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는 어떤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건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옥 위원

결국은 우리 직원들 피해가 있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동안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중앙부처 승인을 빨리 달라 변경계약을 빨리 체결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수차례 시공사측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연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했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6월달.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을 작년 12월

까지 해서 설계변경 자료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4월달에 시공사에 제출을 했고, 감리단에서 또 2개월 검토를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검토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월에 신청 다 했었잖아요? 그거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6월달에. 제가 알기로 심지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법률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시공사측에서 요청한 걸로 아는데 알고계시죠? 그것도?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렇게까지 시공사가 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지금?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담당관님 왜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일을 진행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이제 공사 측에서는 인부들이 또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또 중지하고 그게 얼마나 소요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해결 되려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측에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하면서 합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제가 받는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측의 변경 계약요청에 6월달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변경계약을 하겠다라고 답변 공문까지 시달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금방 담당관님 말과 좀 다르거든요? 하겠다라고 약속한 공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진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게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4월까지 설계변경 자료를 주고 6월에 감리단 검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 적정선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승인을 받으러 가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그 자료를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이제 조달청검토 대상으로 봐야 되냐 기재부로 바로 가야 되냐 이런 검토 기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공사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또 임시 사용기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와 하자 발생으로 시공사 쪽에서 먼저 준공 승인까지 임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데 우리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미비했던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이게 또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입장하신 분들이나 시범운영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만약에 담당관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년간에 건물에 대한 보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하자보수?

○최정욱 위원

하자보수 그거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 밀어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시범운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와 버릴 경우 법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게 하더라도 시범운영기간에 운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완했고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아마 시공 측에서는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공문을 우리군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를 미리 받아서 잘못되면 우리가 행정의 잘못이거든요 미리 시공사측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리가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가지 않겠어요? 서로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임시 운행하면서 이런 거 발생한 거라고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책임의 한계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욱 위원

분명히 그걸 걱정해서 시공사측이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에 가셔도 이것도 잘못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리고 개관식 하기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준공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준공 처리 완료하고 지금 사업 정산중에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래요. 준공이 언제쯤 됐죠? 24일자? 우리가 개관식 며칠이었죠? 개관식 날짜에 됐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준공도 안하고 개관식을 하는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거 밖에서는 많이 알아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면 준공하고 들어가라 준공하고 승인해주고 모든 결국 행정절차는 다 그러는데 우리군이 그런 거를 위법을 하면 안 되죠. 다행히 그나마 24일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준공을 하기까지는 시공사가 준공서를 넣어야 되지 않는가요?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사용승인 요청도 담당 실과의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최정옥 위원

결국은 공사 준공을 시공사에 한다는 건 돈 잔액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서로 협의가 됐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럼 시공사측에서 변경 계약 이런 게 다 상관이 없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모든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중에 요청했던 증액 부분 감 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어쨌든 시공사측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아주 아우성 있는걸. 내가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에서 돈을 지급이 안 되니까 하청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쫓아오네 어쨌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잘 해결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자세한 상황 시설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 준공까지 완료가 됐고 사업정산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산이 조만간 끝나면 돈은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최정옥 위원

언제쯤이나 돼요, 그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건축 정산이 덜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 다음 주면 집행이 될 걸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다음 주에는 집행이 되네요. 문제는 집행이 지금 기재부 승인 한도 내에서만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차액은 못한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무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미 좀 늦은 거 서두르지 말고 문제없이 공사를 추진하라고 주문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다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다음은 스파랜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조류스파랜드는 정부의 신활력지구상 발전 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6월에 준공 완료됐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이 사업은 민자유치로 완도군과 국민통신 83억 800만원 BOT 사업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위원

담당관님 BOT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 해주시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하고 건물을 준공을

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게 BOT 사업입니다.

○최정옥 위원

쉽게 말하면 시공 건물주 사업자가 모든 건 시설은 하고 관리하다 우리들과 협의한 30년 후로는 우리군의 무상 기부 체납한 거였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완도해조류스파랜드 건립으로 괄목할만한 완도군의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초창기에는 많은 관심을 끌고 외지 분들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치유 산업을 하면서 스파랜드에 있는 해수 찜질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세미나도 그쪽 장소에 개최를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는 관심이 좀 부족해서 적자운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정옥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 및 홍보 판로와 3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조류 기능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으로 관광객을 유치, 우리군의 주력 사업인 해조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하며 우리군에 그 때 당시에 저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완도가 이상 이것 갖고 많이 시끌시끌했던 걸로 아는데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2021년 본 위원이 군정 질문 했으며 군정질문시 5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고 하겠습니다. 운영개시 후 협약내용 변경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관리 부분이 좀 많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수익금 배부 관계 때문에 수차례 관계자들도 면담하고 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익금 배분 관련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고 그 소에 결과에 따라서 다음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사실은 이 업무가 몇 년간 방치된 거 담당관님이 받은 지 얼마 안 됐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20년 1월달 조직개편 될 때 업무를 받았고 그전에는 해양치유산업과에서 업무를 받았고 그 전에는 해양정책과에서 했고, 아무튼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고 관리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2000 우리가 2011년도에 개장해서 5년후 그러니까 2016년에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계약상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안돼서 법적검토로 들어갔는가요 아니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법적으로 지금 수익권 배분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법적에서도 국비가 들어간 금액만큼의 배분받는 건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여기도 나와있던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고문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 하죠? 적자라고 지금 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순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은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 난 것도 군에서 부담을 시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계약 당시에는 협의사항은 그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몇 % 그렇게 돼있지, 투자비용에 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투자는 시설이 업주가 하기로 돼있더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다만 거기 그 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배분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사실 스파랜드가 당초 우리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죠? 지금 사업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당초 사업계획을 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많이 있죠, 지금 보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또 안에 리모델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앓고 본인 임의대로 다 해버렸고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파랜드 관련된 금융권 근저당 설정 및 재산변동 사항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등기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회사 내에도 이제 했는데 당초에 1순위가 광주은행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었고 저희들이 2순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은 당초 20억 5,000만원에서 15억 정도 담보 근저당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원한 만큼의 설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협의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되자마자 먼저 설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 사업주가. 그 다음 우리가 2차로 돼버린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건데 2차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2차 의미도 없어 2차는. 만에 하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부채납 시기가 2011년도니까 2033년, 31년, 41년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41년입니다.

○최정옥 위원

41년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요. 받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에 하나 채무를 채무가 있다면 우리 받아봤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업체 측에서 내버려두다 경매가 절차가 들어간다고 보면 건물은 살아있고 땅은 우리땅이잖아요, 이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돼있어요. 먼저 1순위로 그런데 그거를 거기가 먼저 단 며칠만 상관으로 자기들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대로 건물만 우리가 와도 이걸 처리하고 하려면 문젠데 쓸모가 없다 하면 그런데 더군다나 그 빚을 안고 오게 되면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땅이면서도 그 건물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쩍니까? 그걸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이번 소 결과에 의해서 국민레저에서 인정을 하고 누가 됐든 간에 이기든 졌든 간에 인정하고 다시 운영 협약을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협약서 작성 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협약서가 중요하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그 전에 건 이미 우리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해서 우리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한번 했더라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 명의변경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월 21일날 했던 소 법원에서 했던 게 다음 19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저, 국민통신에서 국민레저산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소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연기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이 부분은 국민레저산업으로 변경돼도 이게 승인 돼서 변경된 와 마찬가지로 본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시 당초 처음에 협약서 했던 이름으로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서 등기가 회사자체가 바뀌어져버리면 이것도 화신산업 같은 똑같은 꼴이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간만료 우리군의 소유권 이전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거를 어떻게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부체납 받을 자산이든 땅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

시 매년 기재하면 어때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욱 위원

다음은.....

○위원장 박병수

최정욱 위원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또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최정욱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병수

예. 지금 다른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최정욱 위원

그래요 그럼. 예. 이상으로 할게요.

○위원장 박병수

마칩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우리가 지금 조선대학교 하고 이게 협약 되어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간 우리가 한 30명에서 60명씩 이렇게 한 4개년으로 하겠다고 했죠? 지

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 센터에 근무하는 위탁 직원들 26명 그리고 일반인 1명 해서 27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선 위원

올해 처음 들어가서 하고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첫 교육생들입니다.

○박재선 위원

앞으로도 지금 계속할 계획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것은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인구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위탁근무 들어갔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러면 150만씩 1명당 150만원씩 지금 계산하고 들어가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교육비용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군민들은 무료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관외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했을 때 1인당 150만원입니다.

○박재선 위원

책자에 보면 모집공고는 조선대 홈페이지에서

만 하더라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일반 군민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데 홈페이지 하다보면 관외사람들이 와서 많이 받을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해수부 장관님도 그저께 개관식에 오셔가지고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전국에 몇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랬을 때는 타 지역에서 조선대학교하고 그 협력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보면 200명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양성을 한다면 그때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해수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건국대인가요? 아무튼 2군데가 진행을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 그 교육을 마친 사람의 한해서 치유센터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치유센터에 근무를 하기 위한 분들은 그 교육을 이수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에 결원이 돼서

모집을 한다면 그렇게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 관외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우리 조선대학교 했던 지방 소멸기금으로 교육을 다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타 지역에 해수부에서 했지만은 그분들이 돌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다 취업을 해버리면 우리 소멸기금으로 다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타지 분들은 소멸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재선 위원

본인부담 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본인부담입니다.

○박재선 위원

100% 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 소멸기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우리 완도군이 처음으로 센터가 됐지 않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이런 자격을 많이 취득해서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양성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해양치유센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위탁 직원들 중에 26명 중에 70%가 완도 출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이 됐었고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했고 지금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일자리 창출 뭐 3조원의 파기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박재선 위원

담당관님도 같이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 그분들의 전체 지역민들이 전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소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해양 바이어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조류 특화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가 당초에 연구소 10개 또 스타트업 30개 이렇게 모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됐고 또 계약은 다 됐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18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13개 업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아직 입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입주 못하신 분들 사유를 들었더니 지금 다른 외국에 있는 박람회 참석 또 기업체 사정상 그래서 12월 초까지 계약을 미뤘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김양훈 위원

입주 완료한 업체들까지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입주 완료한 업체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몇 개 업체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13개 업체입니다.

○김양훈 위원

입주 예정인 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조류 식품 제조하고, 미생물 배양하고, 그 다음에 양식 사료 국산화하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김양훈 위원

아, 전체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총 사업비가 102억 정도 들어갔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뭐 건축비, 연구 자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럼 연구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연구장비, 연구장비만 해서 10억입니다.

○김양훈 위원

10억 정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연구 장비는 입주 업체들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동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를 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 전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 따로 받아서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그럼 기업하고 스타트업 업체 선정 했을 때 선정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례상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선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무 위원회를 군에서 구성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번에 선정하면서 우리군에서 관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2개 업체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우리 공동협력 연구소 그 운영 규정을 보면 5조에 보면 입주자 선정을 군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앞전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무 위원회 명단까지 다 구성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다 심의위원회 구성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례 시행 규칙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치유 담당관 또는 바이오 시설물 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게 돼있고 그 다음에 7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서 규정에는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회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입주 업체가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해양바이오 연구소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의 부분만 준 건데 전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도 그 전에 안 됐었고, 전부 우리 쪽에서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실무 이런 구성이 됐다 하니까 다행인데 외부 전문가들도 다 위촉 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바이오산업 진흥원 쪽을 통해서 연구 전문가들을 편성을 시켰고 또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교수들만 있는 겁니까? 그 전문가들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전남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이제 식품산업연구 센터도 있고 나노 바이오 연구센터도 있어서 관련된 분들을 넣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잘하셨는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안돼서 조선대학 때 전부 다 이렇게 위임을 해버렸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광고도 나왔었어요. 그 방송사 언론에 그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조선대학교에서 전부 하는 걸로 나왔어요. 완도라는 글씨는 한자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조선대에서 하는 걸로 알지 완도군은 아

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광고가 1번 나오고 말았어요. 그다음부터 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입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물론 전문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수탁기관이 제일 중요한 업체 선정을 위임했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부분을 위탁하는 게 맞는데 우리군에서 모든 업체 선정하고 군에서 되게 되면 업체에서 이제 운영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할 방침이 있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공동 실험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대 앞에 있는 유효성실증센터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효능검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앞으로 착공을 할 예정인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이용을 해서 기능성 소재를 거기서 생산을 해내서 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연구소 내부적으로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운영 위원회는 지금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우리군관계자들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파견을 팀장급을 한명을 보내서 팀장급 한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그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 가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지금 위원회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는 거기 팀장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거기를 제지할 부분은 제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틀리는 게 그분이 파견 가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서버 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부여를 시켜줬고 지금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우리군이 관리감독 기관이에요. 관리감독 우리군이 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관리감독 기관이 운영위원회 들어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겁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관리감독 어떻게 할까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건실한 업체 입주해서 해양 바이어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위탁업체만 맡기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리고 지난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6월에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해양바이오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이거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일산 킨텍스.....

○김양훈 위원

일산에서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금년 12월까지 해조류 소재 화장품생산 제조 시설 준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것은 조선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김양훈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공정 된 거는 확인이 안됐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잠깐만.....

○위원장 박병수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유효성실증센터에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식 재산권 추론을 25건 했고, 기술 이전이 6건, 학술대회 발표가 27건.....

○김양훈 위원

아니, 담당관님 12월까지 그 제주 시설 준공 한다고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어느 정도 공정이 됐냐는 얘기죠. 제품 어느 정도 만들었냐는 얘기가 아니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실증센터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다양한 해조류 품종이 있습니다. 그 해조류 품종 중에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실증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역할은 연구 개발 지원도 하고, 임상실험 지원도 하고 규제 준수 인증지원, 데이터 분석, 교육 정보제공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소재도 개발하고.

○김양훈 위원

그 역할이 센터 역할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최근 유효성 인증센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지금 조선대 총장으로 당선돼서 취임을 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취임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당선됐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내정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총장 돼서 바이오 산업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하지 않을

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총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더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그래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뭐 이쪽에만 센터에만 신경 안 쓰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부센터장이 상주를 계속 하고 일을 진행을 했었고, 총장이 내정돼있으신 분은 광주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센터장을,

부센터장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여기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250억을 투입해가지고 24년까지 해조류 활성화 소재 인증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이것도 이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어시 적정선 검토를 받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광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연초에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개발현황하고 판매 실적 혹시 나온 거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개발만 하고 지금 치유센터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뭐 판매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특허 출원까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산업화를 위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왜 고민을 합니까? 그 제품이 잘 만들어졌고 특허까지 내고 출원 다 했으면 판매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다고 해서 다 개발해 놓고 판매 안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 치유센터 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시 홍보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너무 좋으니 판매를 좀 해보자는

이런 의견 수렴도 해보고 그래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인증을 그 전에 안 해 봤었어요? 전부 다 해 봤을 거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좋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산업화로 해서 판매를 한가 안 한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제보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지면 대곡리 일원 부지를 많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치유산업 관련해서 매입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바이오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면적이 좀 크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45필지 정도 됩니다.

○김양훈 위원

활용 면적현황 활용 면적이 한 45필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그러면 엄청 많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여기 지금 그 부지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그 산 부지인데 경고판 하고는 다 있어요. 경고문 이렇게 씌어지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방치해 놓다 보니까 뭐 해파리라던가 아니 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많이 날파리 같은 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계획은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것도 이제 아무튼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놔두고 방치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당장 계획이 없으면 정리를 좀 해서 안 되면 저 갈대라도 좀 비우고 해서 이렇게 날파리라든가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땅만 매입해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누가 봤을 때도 위생상 엄청 안 좋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김양훈 위원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이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이 우리 군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이 우려도 됩니다. 전부 다 우리군민들 전체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는 쪽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해양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물 건립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하고 분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미리 우리가 사전 검토 분석이 잘 돼야 또 잘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치유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마치고 현장 확인 점검 및 개별 감사결과 정리를 위한 내일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현장 방문 그리고 집행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

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완도군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점검을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3.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4.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
5.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점검을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조영식 의원 외 4명 발의)
3.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지민 의원 외 3명 발의)
4.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김양훈 의원 외 4명)
5.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박병수 의원 외 3명 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점검을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조영식 의원 외 4명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36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7호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점검을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조영식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통지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사전 의견 제출 및 청구인명부 서명수 미달 시 각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36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영식 부의장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36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부의장 조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 점검’을 위한 2023년 완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라오스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0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일정과 출장국 라오스의 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코프센터는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공군에 의한 폭격 피해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폭발물 피해자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영사실과 전시관이 있었고, 모형 불발탄과 기증된 의족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역사는 식민지배와 내전을 겪는 등 우리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이곳

코프센터는 라오스인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일구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다음은 라오스의 주요 종교인 불교와 관련된 탕 루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탕’이라고 불리는 탕 루앙은 국장과 지폐에 사용될 정도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탑입니다. 탕 루앙 입구에는 이곳을 건설한 썬타티랏 왕의 동상이 있고, 남쪽에는 대형 와불상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이러한 종교시설들이 우수한 관광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불교시설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콕콕메가마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콕콕메가마트는 2020년 장보고한상 대상을 수상한 코라오그룹의 오세영 회장이 설립한 대형마트로 2023년 1월말에 오픈하였습니다. 콕콕메가마트는 완도군과 2022년 10월 업무협약의 후, 2023년 2월과 6월 두차례 ‘라오스 콕콕메가마트 판촉전’을 개최하여 완도의 수산물을 라오스에 선보인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콕콕메가마트의 관계자와 만나 현재 완도군 수산물 판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은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조미김, 김자반 등이 있고, 우리 완도군의 대표 수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전복은 비싼 가격과 홍보 부족으로 현지인보다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 같은 내륙국가의 사람들은 해산물 식문화가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완도군의 수산물을 수출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완도군의 우수한 수산물의 장점을 알리고,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비엡은 라오스 비엔티안성에 있는 조그마한 관광마을입니다. 이곳은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자연을 이용한 액티비티 관광상품들을 즐길 수 있으며, 그 중에 남송강에서의 카약킹과 동굴투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남송강을 따라 빼어난 절경이 있어 잘 조성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방비엡에서는 자연을 보존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여주고, 이를 활용한 레저 액티비티 관광을 앞세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도군의 해양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오스의 야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방비엡과 메콩강변의 야시장은 관광객들이 꼭 한번 이상 들리는 곳으로, 다양한 상품들과 먹을거리 그리고 화려한 조명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방비엡의 야시장에는 주로 수제 전통 의상이나 장신구, 잡화류가 많았고,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야시장은 비교적 큰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더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었으며 상인의 대부분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야시장은 나름의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지만,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길거리 음식이나, 외국인 상인 위주로 이루어진 상권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야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라오스인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최근 우리지역에 오고 있는 라오스의 계절근로자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 경제에 한축이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

순히 많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빠뚜싸이는 세계대전과 독립전쟁으로 사망한 라오스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프랑스 개선문을 모티브로 라오스의 전통양식을 가미해 건설된 건축물입니다. 2004년 두 개의 분수대를 포함한 공원이 빠뚜싸이에 조성되어, 이곳은 시민들의 운동 장소,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과 음악이 나와 인기가 많은 라오스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곳은 마치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와 비슷한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곳을 참고하면 우리군 관광지 경관 개선에 좋은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 외출장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낮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관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는 만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을 통해 느낀 점과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관사업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 수단이지만 사업 차별화의 한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오스는 경관 개선의 아이템이 대부분 관광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홍보, 새로운 스토리 텔링, 관광객 유인책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

군의 사업추진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개선 사업의 중요성 인식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이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에 초점이 이루어져 경관 개선과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역할 확대와 행정의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관사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광경관, 생활경관 등 사업목적을 세분화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유사사업을 연계 시행하며, 행정의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생활습관이 변화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조류가 슈퍼푸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조류 수요 증대에 따라 우리군도 수산물 수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역의 해조류 산업을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신설도 조속히 마련하여 해조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해외의 많은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군의 경관개선과 완도 수산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의회는 이번 공무국 외출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 경

관개선과 수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양질의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지민 의원 외 3명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8호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 주요 방문지, 연수총평 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수일정입니다. 첫날 가든스 바이더 베이를 시작으로 총 21곳을 답사하였고, 주요 방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해양자원 탐방 분야로 보타닉 가든과 센토사섬을 방문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타닉 가든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식물원입니다. 1960년대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곳곳에 정원, 해안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심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도만의 청정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해양치유, 산림치유, 농업치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센토사 섬입니다. 과거 영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다가 1972년 정부의 주도적인 관광지 개발로 지금의

자연친화적인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였습니

다. 섬 전체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특색있게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섬과 연계한 투어 관광상품,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주요 상권 탐방 분야 5곳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오차드 로드입니다. 과거 과수원, 후추 농장으로 가는 이름없는 길에 불과했던 오차드 로드는 1958년 첫 백화점 '탕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상점들이 모여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찾는 쇼핑가가 되었으며, 잘 정비된 가로수는 정원안의 도시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핵심점포를 발굴하고 해양치유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부기스 스트리트입니다. 이곳은 과거 선원, 군인들이 자주 찾는 향락가였으나 1980년대 재개발과 도시계획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길거리 쇼핑센터로 부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상권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클락키는 과거 항구를 잘 보존하여 다양한 컨셉을 가진 레스토랑과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합니다. 12페이지, 뎀시힐입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영국군의 막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뎀시 힐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편집숍, 갤러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합쳐져 도심과 떨어져 있음에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완도만의 특징과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상품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도시 및 건축 탐방 분야 상권 활성화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차이나타운 및 불아사입니다.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여 오늘날 성공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만큼 편의시설과 다국어 지원 등을 갖춘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완도군의 외국인 근로자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URA 시티갤러리입니다. 도시개발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 싱가포르의 역사, 자연환경과 도시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좁은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아래 조성된 도시국가로, 도시계획의 모형을 만들어 싱가포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통해 도시계획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예술 탐방 분야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산업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에 4%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뿐만 아니라 관광 브랜드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관광상품을 패키지화하고 각각에 대해 정체성과 테마를 개발해 매력적인 관광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에스플러네이드입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열대과일 두리안을 닮은 외관의 에스플러네이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상

징적인 건축물이 상권 활성화를 배가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완도만의 문화생활을 대표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수총평에 앞서 먼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총평입니다. 첫 번째,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 기존 건물 중 보존가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구 시청, 법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재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역사유적으로 보존하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한 거리 주변을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등의 역사거리로 지정 및 관리하여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을 위한 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군민의 편리와 이익에 우선을 두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군민들을 위한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한 두가지 배경으로 국토의 약 85%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URA라는 독립적인 도시재개발기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발전 도시계획 수립 시 중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모든 계획과 개발규제에는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50년 장기계획, 10년 계

획, 세부실행계획을 함께 구상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급한 개발우선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근의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확보하며, 신규로 조성된 토지는 즉시 개발하지 않고 주변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의 신규개발로 이미 조성되어 이용중인 인근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대부분 국유지라는 전제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하나, 신도시 조성이 곧 구도심 공동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김양훈 의원 외 4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9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김양훈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저를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들이 완도군 여객선 두부 경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연구개요, 추진과정 순으로

서비스디자인 리빙랩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5단계의 연구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구개요입니다. 완도군의 주요진출입 관문인

화흥포항과 약산면 당목항을 대상으로 부두 주변의 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관광지로 접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완도군 여객선 부두 경관 개선방안을 연구 주제로 지난 7월 부터 10월까지 워크숍, 벤치마킹, 특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2월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 연구단체 등록 8월에 착수하여 워크숍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 과정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리빙랩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 진행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과업범위 및 추진계획에 대한 첫 보고로 경관과 리빙랩 이해교육에 대해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리빙랩과 경관에 대한 이해교육입니다. 경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관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지만, 이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의적 의미를 지니며, 시각적 측면을 위주로 하여 생태적인 측면과 토지공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관의 사용빈도가 많아지는 최근으로 올수록 경관의 의미는 더욱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자어 경관이 '경景'과 '관觀'이라는 두 가지의미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경관의 의미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과, 보는 주체의 행동으로서의 관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란 대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주관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발견하기입니다.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된 배경입니다. 소안, 노화 진출입 관문의 무질서함과 부두 주변의 방치된 어구, 쓰레기 등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배를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 화흥포항 현황입니다. 정체성과 특색이 없는 어수선한 진출입로와 부족한 휴게시설, 정리되지 않은 주변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산 당목항의 모습입니다. 어수선한 진출입로와 대합실, 정보전달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시설물, 도로변의 주차된 차량, 정리되지 않은 어구와 쓰레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의하기입니다. 부산 벤치마킹 전 화흥포항과 당목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페이지, 부두경관의 문제점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으로 해양쓰레기, 폐어구, 조경, 수변 녹지 부족, 무질서한 주차를 꼽았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는 주민들의 어항에 대한 인식부족, 특색 없는 단조로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군 접목방안을 찾기 위한 부산과 남해 벤치마킹 일정입니다. 첫 째날은 갯강이에술마늘과 장림포구항 부네치아, 다대포항 해변공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장림포구항의 경우, 노상에 방치된 어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형형색색의 건물들로 꾸며 항구 주변을 깨끗하게 개선하면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우리 군 실정에 접목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날은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남해의 미조항을 답사하

였습니다. 어항과 호선 등 해안과 관련된 경관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화흥포항 개선방안으로 구역별 여객터미널 리디자인, 길찾기 쉬운 사인시스템과 부두경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목항 개선방안입니다. 당목항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터미널 공간을 정비하고, 사인시스템을 도입, 휴식공간 및 친수공원을 조성하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업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력적인 터미널 공간으로 리디자인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하고, 정보전달이 중요한 시설인만큼 인지성이 높고, 식별이 용이한 안내사인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찾기 쉬운 사인시스템입니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고속도로 바닥의 유도선처럼 목적지별로 색상을 구분하고 안내판 디자인을 통일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로는 머물고 싶은 부두 공간 조성입니다.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함을 덜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네 번째로는 친환경 그린, 블루 네트워크 공간구성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그린, 블루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하여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소통, 만남의 장소로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구 보관 공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1번 사례는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항입니다. 노상에 방치된 어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형형색색의 건물들로 꾸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무라노섬을 형상화하여 항구 주변을 깨끗하게 개선하면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변형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항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어구 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바다의 주인은 어민이고,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어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민들의 생업공간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어구 정리 및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어항의 특징적인 경관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사진은 통영의 상양지향으로 양식에 사용되기 전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정리해 놓은 가리비패각 모습이고, 오른쪽사진은 일본 치바현 가쓰우라의 정리된 그물인데 특별하진 않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정리 정돈만 잘 해 놓는 것만으로도 항구와 잘 어울리는 멋진 경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달하기입니다. 현재 경관 관련 사업으로 30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경관개선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별 국비 지원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좋겠지만 적은 사업비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군에 접목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관리 중점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왼쪽의 3가지는 챗 GPT를 통해 경관 관리방안, 경관이슈, 완도군 이미지에 대한 질문 결과이고 오른쪽은 2030년 완도군 경관계획 보고서 내용입니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환경 보호, 생태도시, 문화유산의 보존, 지속가능성 등이 중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정 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박병수 의원 외 3명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0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도읍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과정, 상권 분석 결과, 개선방안 순입니다. 2페이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완도군의 인구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 상권의 노후화 등 여러 요인으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골목상권의 상업기능이 약화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안정화 하기 위해 상생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관 주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6월 완도읍 상권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8월 주민의 힘으로 상권을 활성화 한 목포 만호동 건맥 1897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전문가 특강 후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계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3일 완도읍 상권 현황 진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 실과장 및 개발위원장,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

롯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인라이팅기법을 통해 완도읍의 상권을 진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워크숍 결과 구도심 침체 이유로는 볼거리 및 체험거리와 먹거리 부재, 인구 감소를 꼽았고, 해결방안으로 테마거리 및 챌린지 샵 등 공간 조성과 이벤트 및 축제, 버스킹, 야시장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8월 완도읍 구도심 상권 관계자 다섯 분과 함께 목포 만호동의 1897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역민의 힘으로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를 재생시킨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사례를 살펴보았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함께하며 건맥 축제 운영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난 8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임석 이사님을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포 만호동 1897 건맥 축제의 성공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완도만의 특색있는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해야 하고, 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상권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완도읍 구도심 상권등급이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중앙시장이 위치하여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구매력은 17.4점 대비 영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4.9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건당 결제 금액의 비중이 높으나 점포별 매출 편차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 유동인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젊은 층 방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콘텐츠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선 방안으로 하드웨어 6가지, 소프트웨어 6가지, 휴먼웨어 2가지로 총 1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 완도읍 구역별 사업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도 인근으로는 빙그레 야시장, 완도 주도 달마당, 빙그레 웃음축제를 연계 추진하고 완도 마을호텔과 중앙시장 게이트 및 쇼핑 편의시설 정비, 빙그레 거리 조성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게이트 및 쇼핑 편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상점이 밀집한 거리를 중심으로 입구 게이트 정비 및 LED 조명을 활용한 상징 게이트를 조성하여 상권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쇼핑카트, 상점 별 공공디자인 등 편의 제공을 통해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금일수협 '빙그레 옥상포차' 조성사업입니다. 수협 수산물 시장과 연계하여 완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옥상포차를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로, 빙그레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도 앞 인도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보자는 내용으로 빙그레 웃는 완도에 맞게 신호등도 웃음신호 등으로 바꿔 완도의 특징을 부각하는 홍보효과를 기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완도 로코노미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로코노미란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함

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맥도날드는 진도 대파 농가와 협업하여 진도 대파크로켓 버거를 판매했고, 스타벅스는 지역별 특산품을 활용한 비밀레시피 음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조류 센터에 대형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킴과 동시에 완도 전복 또는 해조류를 활용한 먹거리를 공동 개발하여 완도읍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화를 지원해보자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유희공간 활용 '만원 프로젝트'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만원 임대사업입니다. 17페이지, 하드웨어 마지막사업으로 '빙그레 마을 호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완도읍 중앙리 주변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호텔의 프론트 데스크를 한곳에 두고, 수직개념의 호텔이 아닌 마을 내 수평적인 호텔 운영 시스템으로, 다른 식당이나 커피숍과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것으로 도시재생이 목적입니다. 이미 정선 등 타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을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소프트웨어 첫번째 사업으로 완도읍 상점가와 이벤트 등을 소개하는 '월간완도' 매거진발행 사업입니다. 완도읍 내 상점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완도 콘텐츠 매거진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권 내 착한 상점을 홍보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선정되지 않은 상점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도출하고 자체적으로 서비스 검증 및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다음은 기념품 및 패키징 '완도 꾸러미' 개발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완도특산품 구매를 유도하는 2인용 전복, 손질된 전복찜 진공포장 등 편의와 휴대성을 고려한 포장 패키징으로 소

비를 유도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투박한 포장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이벤트 첫번째 사업으로 빙그레 야시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도 앞 해변가를 빙그레 거리로 지정하고 야시장을 운영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완도 주도 달마당]입니다. 빙그레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달마다 오는 축제라는 컨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완.또.먹입니다. 완도랑 또 먹자는 뜻으로 매달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빙그레 야시장, 완도 주도 달마당 등 완도군 지역행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내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빙그레 웃음 축제입니다. 기존 축제인 빙그레 웃음축제 리뉴얼을 통해 지역주민 및 상인과 함께하는 빙그레 거리와 상생축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간과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축제 가이드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완도 생활 구독 서비스 사업입니다. 월 구독료로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지역 내·외부에서 소비 창출 기반을 확보하여 완도군만의 새로운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소프트웨어 마지막사업으로 1인관광객 또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1인식당과 야간운영 식당'을 지원하는 식당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맞춰진 완도군 상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여행객을 겨

냥한 완도군 식당 영업방식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도 완도를 즐기고 싶은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야간까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휴먼웨어 사업으로 구도심 상인회 활성화 교육입니다. 제안 사업 홍보 및 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인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로 구축, 밀키트 개발 및 판매, 상인 인식개선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개인 및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완도읍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입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규모 점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도군, 정선군, 창원시, 군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부터 긴 시간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한 단계 더 발전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도읍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지민 의원 발의)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지민 의원 발의)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잠깐만요.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완도군에는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박재선 위원

하나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전에는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재선 위원

그때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완도군 방법대라고 해서 서로 도에서 싸움해서 자기네들 자리다툼이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합됐습니까?

○박재선 위원

예.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지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여성의 경제적 자유와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

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 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7호의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
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련된 조항을 변
경,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
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8항 정수 총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
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위촉일 기
준 위원회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라는 것
을 신설하고 제20조제2항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자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인용되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제안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양훈

보고 다 끝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
위법령의 적용 조문을 정정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
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
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
31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
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근거
하여 2003년 4월 28일 최초로 전남도민남북
교류협의회라고 명칭을 설립하였고, 2019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
요사업으로는 남북교류사업, 평화통일 환경기
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여 민족공동번영과 한반도통일위원회 기
반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우리군을 포함한 전남도 22개 시군은 본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남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2,0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우리군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2,00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

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문구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예산계상 규정과 공모 규정 또 교부 결정에 최소사유에 세부 규정들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있는 조문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정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리와 물가 인상 등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신혼부부 안정적인 정착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전라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의 지원범위를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지원금액도 월 최대 25만원 범위 내의 실제 대출이자 납부액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을 해서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라 합니까?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7년 이내의 부부를...

○박병수 위원

그러면 위로금까지 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대출이자만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박병수 위원

대출이자만 1억원까지.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억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된가요, 그러면?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향만 대출이자 중에서 25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억원 이상.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박재선 위원

실장님.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위원

보니까 대상자가 5명만 밖에 없는데 완도군

에 5명밖에 없습니까?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된 인원을 말씀드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제 명수에 따라 상관없이 예산은 25만원 선에서 계속 해줄 계획이죠?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 31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인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장보고장학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된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하는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장학기금이 192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세분화돼서 찢어져 있습니다. 2억, 3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재무컨설팅을 별도로 받아서 이걸 크게 묶어서 우리가 가능한 이자가 높은 쪽에다가 금융기관에 1금융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같이 장학재단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빠르면 이달 말까지... 금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내년을 좀 넘어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그 용역결과에 맞출 때는 그러면 자체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괄 23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요?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용역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장학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입시제도 변화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지역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도 그러면 내년에 그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것인지?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금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찢어 나뉘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된 건 아니고, 그건 결과가 나와서 아마 내년 초쯤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학사업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내년 초쯤에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업 목표액이 200억이죠?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23억이면 다 끝난가요? 안 그러면...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223억이 되면 일반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부분이고, 지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거의 200억이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금리 수익에 의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아마도 금리가 좀 높아졌습니다마는 실제로 192억에서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5억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비용이 감안해 보면 이자수익 가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과 같이 금액은 조금 더 완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군비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무튼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좀 세심하게 이 사업도, 장학사업도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인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 확보, 해양치유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관에 기재될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의 임용권자, 이사, 감사의 임기, 겸직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 참여제한에 대하여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해양치유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 대행사업수행과 재무회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위원님.

○최정옥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공단 설립 오늘 승인되면 공단 설립이 승인을 받게 된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진행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이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관과 재규정 제정, 이사회 구성, 선임 등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직원 채용과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정옥 위원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건데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직원들 인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이번 조례에 거기가 되면 공단 자율성에 맡기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공단설립타당성을 할 때 정원은 40명이고, 기간제 등으로 해서 51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옥 위원

센터 인원 51명이 아니고 전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51명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즉, 말하자면 타워와 기후센터, 문화센터 다 합쳐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센터는 42명인가요? 해양치유센터인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44명 정도 됩니다.

○최정옥 위원

44명?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공단을 하게 되면 인원에 따라 적자 누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담당관님 보고할 때는, 그때 8억 5,000이었던

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8억 7,000인데...

○최정옥 위원

8억 7,000 여기에 비해서 직원들이 늘어나거나 뭐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위원

10조에 보면 공단을 하면서 상임이사를 뒀더라고요, 보니까. 상임이사는 상주해서 업무를 보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공단에 부장이 됐든 전무가 됐든 어떤 명칭도 있을 건데 상임이사는 임명제거든요.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은 정원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안 두는 걸로 공단설립타당성용역할 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안 둡니다.

○최정옥 위원

여기에는 상임이사 제도가 들어가 있어서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례 내용에는 상임이사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상임이사직은 없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언제든지 늘리면 되야한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럴 가능성도 있고.

○최정옥 위원

그걸 열어놓고 있잖아요, 조례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최초 운영할 때는 상임이사직은 없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빼버리면 어때요, 제도를? 굳이 지금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상황에서 이 내용은 상임이사...

○최정옥 위원

우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최정옥 위원

결국은 이걸 넣는다면 뒤로 직원을 늘리겠다는 보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했거든요 3년 임기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1년을 연장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 위원

왜 3년을 뒀으며, 보통 우리가 연장을 하면 2년 임기로 많이 해서 실적을 보고, 1년씩 연임을 한다든가 보통 그런 게 통상적인데 왜 3년을 뒀으며, 1년 단위면 계속 언제까지 그 사람이 끝가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몇 해에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도 다른 타 공단을 운영하는 조례를 찾아 보고, 검토해 봤는데 거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도 왜 이게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지 그 해답을 못 찾고 돼 있는 부분을 갖고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최정옥 위원

원래 우리가 공단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공단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업종이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활성화 시키느냐에 강점이 달려있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위원

이 서비스업종에 3년의 임기를 두고 가버리면 안 맞고, 적어도 2년은, 1년은 우리가 지켜보고 준비하는 과정, 나머지 1년은 그분의 영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1년씩 연장해서 한다면 이게 맞지 3년을 서비스업종으로 주는 건 안 맞다고 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우리가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시다만 1년 연장하는 거야 우리 의회 승인을 얻을 거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그때 실적을 보고 한 거니까, 그건 토의를 해서 한 것이니까 가능하지만 처음 한사람이 서비스업종 3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 적어도 2년을 두고 그 사람을 봐야죠. 주인의식이 어떤지,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하는 건지 그렇게 봐야지그냥 월급 받는 사람 처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30조에 보면 공단에 직원을 파견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최정옥 위원

공단이라면 자회사며, 어떻게 보면 독립체 회사거든요, 어찌됐든 공단이. 독립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독립성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네들의 영업방법과 관리방법을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킨 의미에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 거예요. 공단을 설립해서 책임한계를 주려고 공단을 해서 이사장도 두고, 직원들 두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파견돼 버리면 책임한계가 한계가 안 나버려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관여하게 되겠죠,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은 지원하고 감독하고 이런 걸 해야지 직접 들어가서 해버리면 뒤로 공단 임원들이고 뭐고 직원들 핑계치고 행정을 핑계 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파견은 안 맞다. 우리들이 도운 거는 도와 주죠. 지원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아무 전문성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해야 되며, 뒤로 책임한계가 정확히 서지 않는다.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견제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같이 근무해 보지 않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파견돼서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애로가 있는 건지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돼서 한다면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건 맞는데 그건 우리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넣어버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벌써 공단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거나 똑같아요, 같이. 그러면 그 공단의 책임한계가 불투명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렇지 않고도 직원 언제든지 파견해서 거기에서 볼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죠, 치유담당관실에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부분...

○최정욱 위원

근데 그거를 넣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관여하게 돼있어요, 간섭하게 돼있고. 그런데 이렇게 명시해 놓고 간섭한 것과 명시 않고 파견해서 간섭한 것과 다르거든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단쪽에 공무원 파견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 부분은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면 독립기관이에

요. 거기는 이사회도 구성돼 있고. 우리가 조례로 명시해서 들어가서 같이한다는 그건 안 맞죠. 담당관님, 공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잘할 수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공단이는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종이에요. 서비스업종이라면 뭐냐면 최대한 관광객이나 누가 왔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최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단으로 가게 되면 준공무원으로 생각해요.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요. 어디 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준공무원으로 알고 행동이 그렇게 반할까 걱정돼요, 사실. 서비스업종 자체는 그래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반대하고 그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부 다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 그것이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하면 본 의원도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해봐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이사장도 딱 들어가면 직원들 편에 서요, 뒤로는. 왜냐면 직원들이 우선 힘들다 어쩔다 하면 편을 안들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의원님께서 임원의 임기 12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건 하나의 규정이지요. 명시는 아니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기업법에 이렇게...

○최정옥 위원

명시가 되어있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법에.

○최정옥 위원

의무로 해야 된다 이렇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방금 30조 관련해서 최정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단을 이사장 체계로 막대한 340억 돈 투자해서 넘긴 건 넘긴 거지만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원들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북주식회사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 역할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당분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공단이 설립이 되고, 직원이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실은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인사담당팀과 별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윤곽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지, 그부분도.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비용추계서지만 여기 영업수입으로 1차년도 게 32억이잖아요. 32억인가요? 32억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전체세출이 41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8억이나 9억 정도 되잖아요. 5개년으로 봤을 때 추계서에 4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영업수입으로 보고 있는 이 금액이 영업수입으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최대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32억 수입은 연중 6만명 정도 방문했을 때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60%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6만명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업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수입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염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쭙봤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래서 다음 조례 설명을 할 텐데요. 가격부분도 너무 저렴해서 하다 보면 이런 수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전체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지민 위원

세입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지민 위원

만약에 영업수입이 발생이 안 된다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군비가 추가로...

○지민 위원

추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제11조 감사란에 보면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감사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거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과 이런 치유센터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로 당연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감사를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감사를 보니까, 감사에 보니까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무 공무 등, 공단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6조 제4항에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또 17조 1항 제일 밑에 단, 대표이사나 이사가 없을 때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단의 대표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또 감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의결권을 가지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견만 진술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감사가 대표이사도 없고, 이사도 사실 분이 없으면 1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항에서는 이사의 소집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반적으로 체계상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다듬기를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이사장이 결원되고 또 다른 분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감사가 대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사회 소집요구권은 아까 이사회 의결권도 없는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10조 상임이사제도 담당관님도 삭제를 인정하신 건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초기에는 상임이사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 수정하고요. 12조는 법적 임기 3년이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하신 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최정욱 위원님 그렇게...

○최정욱 위원

확실히 그게 규정이라는 얘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명시돼 있다는 얘기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위원장 김양훈

그리고 30조 직원파견 부분입니다. 최정욱 위원님은 이걸 없애도 된다고 하시고, 조인호 위원님은 그래도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최정욱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감독도 하고. 문제는 조례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파견하고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해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이미 관여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관여하면서 공단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물을 뭐가 없 뒤로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파견은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굳이 조례에 안 넣고도 파견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 넣어서 파견한 것과는 어떤 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뜻에서 말한 겁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취지는 최정욱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이사장이 지지. 직원 1명 파견된다 이거 우리 직원을 넣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큰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10여년까지 의원하면서 했던 것을 보면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해 주고 한 거 의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다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양치유공단이 잘못된다고 책임지고 있는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통과해서 한 것이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돈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돈 안 들어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까지 봐온 경험에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양훈

이렇게 하시죠. 최정욱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행정지원과 법무팀하고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송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찾아보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재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파견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넣어 놓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안된다고 하면 삭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죠.

○조인호 위원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양훈

그렇게 되겠습니까?

○최정욱 위원

예.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양치유센터 공식 개관에 앞서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치유시설 개관시간 및 이용과 이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정과 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관시간 조정 및 시설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궁금해서 이게 공단이 되잖아요. 공단이 되는데 이런 시간 및 가격 이런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정해주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니까 우리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겠죠. 공단이 운영하게 될 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공단에서 운영을 해나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욱 위원

원래 우리는 조례를 공단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우리가 시간과 가격을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현장에 맞게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공단입니다. 신규, 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표준화된 이 부분은 같이 맞춰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시간도 8시에서 10시에서 8시로 정해졌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8시에서 7시로 1시간이...

○최정욱 위원

예.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8시인데 7시로 지금...

○최정욱 위원

뒤에를 보니까 7시로 돼 있더라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현재 운영요원들이 매니저 포함 26명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금년 연말까지는 연중무휴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의 휴무도 있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 되어서 시간을 당겼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게 서비스업종은 직원들이 너무 벅차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2교대 정도는 하면서 시간과 여유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자를 줄이려다 보니까 인원을 적게 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돼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적자폭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을 사실 원래는 저게 2교대, 3교대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83명까지 했던 것이 반절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저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여기를 때는 아침 일찍 와서 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전에 이용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10시면 정말 애매한 시간이고, 저녁은 여름에는 7시 되면 시원해요.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물론 이것도 공단이 하게 되면 공단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담당관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이 2개에서 4개로 돼 있네요. 기본, 전문, 프리미엄..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혹시 9월달에 개관한다고 했고, 10월달에 한다고 했고, 11월 24일날 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만반의 준비는 다 했겠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9월달에 2만, 기본이 2만 8,000원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3만 6천원으로 올리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9월 말부터 이 앞주까지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00명 정도 시범운영을 체험을 했고요. 한 1,200명 정도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가격이 적합하겠느냐, 거의 1,200명 정도 설문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두 지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1층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2층은 8, 9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설문을 답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2만원, 3만원, 8만원에서 9만원 이 정도라고 하면 할인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진출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단가를 이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저렴하면 이게 저기는 아무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지 않냐, 치유가 전문이지 않고, 그냥 놀러갔다 오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퀄리티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설문결과에 의해서 좀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일단 이번 시범운영하면서 그분들은 다 금액을 내진 않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무료로 체험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무료로 체험 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아마 그분들이 무료로 체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800명 중에 1,200명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군민이고, 나중에 군민들은 할인대상이고 하니까 아, 가격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올렸다는 말은 신빙성이 확 와 닿는 게 없네요. 처음에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 9만 8,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올라갈 특별한 용역을 했다가 나중에 무슨 지표에 의해서 1년, 6개월, 2년 이런 게 아니고 군민들 무료체험하고 시범운영하면서 했던 설문지 갖고 그거를 모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상승했다는 것은 올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런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요금과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의 자

문을 받아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일단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희소성 문제 때문에 자꾸 싸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단가 높여서 관광객들이 정작 발길이 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달 전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2만 8,000원, 저 또한 두 달 내내 2만 8,000원 얘기하고 다녔어요. 위에는 9만 8,000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군민들이나 주위에 만난 분들은 많다,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단가를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마 군민들이나 나머지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또 대처할지 참 난감하네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잘되기를 100% 완공돼서 곧 24일 개관까지 앞뒀으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준비 하셔서가지고 해양치유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박재선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센터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대를 우리가 겨울 동절기, 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박재선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내년 여름철 되기 전에 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간타임을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차후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3146호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아까 30조 직원파견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없어도 파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출연재단 및 공단 이렇게 다 파견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어,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조, 31조 두 조항 문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완도군 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2023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내역으로 2023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추진과정 중에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취득변경 내역으로 기존대비 토지 1필지, 면적 773제곱미터에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축산과 소관 고금 거점 세척소독시설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 1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1번 고금 거점 세척소독시설 추진에 대한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이 안건은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 터널식 소독기, 관리실,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8억 9,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고금 가교리 1138-1번지에서 청용리 991-7번지로 거점소독시설설치 위치를 변경에 대한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면적은 1필지에 1,088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을 포함하여 2,900만원입니다.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부지 본 사업을 착수하고자 지난 3월 마을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을이장과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보성 거점소독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마을임원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제2차 주민설명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할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용리 991-7번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고금면과 협조하여 청용리 마을이장, 인근 월정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청용리마을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졌지만 사전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4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총괄내역으로 먼저 취득내역입니다. 토지 23필지 면적 3만 4,174제곱미터에 14억 5,500만원과 건물 12동에 2,262제곱미터에 28억 5,800만원 입목죽 222주에 3,200만원이며, 취득재산의 총합계는 257건, 면적 3만 6,436제곱미터에 금액은 4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처분내역으로 토지 1필지, 면적 2,466제곱미터에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세부내역으로는 세무회계과 소관 군유지 매각신청에 의한 공유재산처분 등 총 5건입니다. 내역별로는 토지취득 23필지, 건물취득 12동, 입목죽 222주 취득과 토지 처분 1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고금면 주민 김종열 씨께서 본인 주택 인근에 위치한 고금면 덕동리 730-3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면적 2,466제곱미터, 지목은 전으로 신청인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경작해 왔습니다. 또한 당초 임야에서 2018년 용도폐지를 통해 전으로 지목 변경된 곳으로 면제가 되어 사실상 신청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7호에 의거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사용허가 또는 대물을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수의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지 재산 매각신청에 의한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우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도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2번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테마와 접목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서 삼도수군통제영, 객사, 사정터 재건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취득 대상 토지는 총 12필지 면적은 9,061평방미터이며, 건립대상 건축물은 객사 165.96평방미터, 사정터 누정 161.38평방미터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 건축소요예산은 약 24억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황도면상 왼쪽은 객사, 중앙이 삼도수군통제영, 오른쪽은 사정터 부지이며, 근경사진은 객사건립 예정부지입니다. 상세취득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위원장 김양훈

그 땅 부지.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유자하고 논의가 끝난 것은 감정평가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런데 그분들 땅을 팔면서 정확한 가격에 안 나온다 몰라서 땅을 못 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소유자들하고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다음은 안건번호 3번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 재건 대상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은 1521년 설진된 가리포진을 복원하고, 이순신 유적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완도 군내리 총 7필지, 2,815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억 3,900만원입니다. 현황도면 및 자세한 취득내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공유재산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4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 정주환

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공간의 재
생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9월 기본계
획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위치는 청산면 부흥리
등 법정리 6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산초등
학교 동분교 매입 축사 및 빈집정비 등입니
다.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선정된 청산초등학
교 동분교를 8억 4,800만원에 매입 후 신축
하여 세계농업유산 및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
진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산동초 현재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
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축산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확보됐다는 얘기
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사업기간 말입니까?

○박병수 위원

사업비.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사업비는 총 50억 내에 포함된 사업비로 철
거 후 신축하는 사업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사업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축산과

총 50억 사업비 내에 현재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고 있는 것은 매입한 사업비로 총 8억
9,000만원 매입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 매입을 한다 이 말씀이
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축산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활용 용도는 그러면
은?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축산과

신축은 농업유산 이름으로 돼있는 청산구들
장논 세계문화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양쪽을
분리해서 한쪽은 세계농업유산센터를 하고,
한쪽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이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
고, 학교도 상당히 크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예.

○박병수 위원

그랬을 때 그 활용도를 잘 보고, 건물도 몇
평 규모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죠? 몇 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건축면적은 한 2,000평방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입계획입니다. 신축은 별도
로 예산에 맞춰서 금액은 설계용역 중이기 때
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박병수 위원

주민들과 잘 맞춰서.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축산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기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안건번호 5호 농업시험포장 국화 및 꽃묘육성 편입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국화전시회 및 조형물생산, 꽃묘육성, 청년임대농 실습부지 용도로 부지 매입하고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도읍 대야리 172-2번지와 173-11번지에 2필지, 토지면적 1,183평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예정매입비는 2억 3,810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매입하여 국화전시와 꽃묘육성, 청년임대농 실습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심의내역과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편입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20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및 교육,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등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21보통세 세입결산액 결산금 2647만 9천원으로 2024년 우리군 출연금액은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31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9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자 그 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으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대상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으로는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하며 다음 장입니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소유했던 부동산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현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자가 확정통보되면 지방세감면동의안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군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8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등 구성요건을 변경하

였으며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도군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흥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0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복지위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근거법령의 삭제와 기존 복지위원의 역할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대체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이며 출연목적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에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1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2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2024년도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840만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원, 복리후생비 84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3,000만원 출연하여 부족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출기초자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복지재단 출연금이 자체적으로 50억이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그리고 3,000만원을 여기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적혀 있는데 2022년, 23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2024년에는 3,000만원을 추가해서 기금에서 사용해도 될 건데 별도의 군비를 출연합니까? 투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적립된 금액은 60억으로 적립돼 있고요. 그 운영비는 이자 소득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자 이율이라고 해서.

○박성규 위원

이율이 올랐는데 이율이 낮아요? 이율이 많이 올랐는데.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금년에 올랐습니다.

○박성규 위원

금년에 올랐으니까 내년에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전에 이월분이 많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이월이 한 5억 이렇게 이월금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2억 이월 밖에 안 됩니다.

○박성규 위원

직무수행경비에서 이사장 직책보조비가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50만원 아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 지금 80만원입니다.

○박성규 위원

언제부터 80만원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좀 된 걸로 압니다. 초창기 때 50만원이었는데요.

○박성규 위원

그전에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박성규 위원

파견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명입니다.

○박성규 위원

사무국장도 없죠,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성규 위원

그전에 사무국장 보수도 줘야 되고,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예산 없이도 했는데 사무국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사실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월급이 사무국장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직원도 그 당시 때도 사무국장 직원 1명이었는데요. 사무국 직원이 2명입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직책이 다릅니다.

○박성규 위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2024년도 내년

도에는 3,000만원해서 특별히 오른 금액입니까? 그전에 있던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내년 처음으로 출연 3,000만원 운영비로 요구한 겁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보조비도 처음으로 올려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파견공무원 수당도 올려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 3,000만원은 총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박성규 위원

출연금에서 쓸 수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원금에서는 못 씁니다. 60억에서는 지금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자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래도 행복복지재단이 금액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연 한 4억에서 5억 들어오는데요. 그때 그 기금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런 기금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비용은?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운영비로 사용 못하죠, 그것은.

○박성규 위원

1년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온...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운영비로 사용 못 합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합쳐놓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바로 바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올해 들어온 금액은 내년에 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규 위원

그래서 없던 금액이 3,000만원이 올라오니 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전년까지도 안 하고 쪽 안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위원

가능하면 행복복지재단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비가 소요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자금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행복복지재단에 대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뜬금없이 3,000만원 출연해주라고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설립해놓은 장보고장학회 그것도 재단으로 우리군비 출연했었고, 행복복지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50억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파견되고 자체 직원 1명이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 2명입니다.

○박병수 위원

1명 채용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병수 위원

1명은 채용했고 그러면 국장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직급은 팀장인데요. 연수가 되면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때도 두 사람 있다가 국장이 그만두고 안 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 뒤로 채용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안 썼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또 이렇게 직원까지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동안 전부 다 군 직원 1명 파견돼 있고 간사 한 분 있어서 그분 두 분이서 다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비중을 볼 때 사업비 지금 한 6, 7억 정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병수 위원

그런 다면 직원 2명, 3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해왔던 사업들 계속해서 복지사업 배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런데 직원이 1명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직원 급여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파견공무원 지원수당 이것은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비에서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직원 채용 관계는 작년부터 채용돼서 나왔었고요. 예산 부족액은 2022년도에 올 예산할 때는 5억 300만원 이월됐는데 내년에 이월 2억 1,6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감이 돼서 일단 운영비가 부족한 거고요. 직원 총원하는 것은 사업이 늘어납니다.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읍면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직책도 사무국장 1명 승진할 연수가 되기 때문에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은...

○박병수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연 열마나 된가요? 이자수입.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자수입이 1억 4,000 정도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 1억 4,000 가지면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재단운영비가 1년에 한 2억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서 직원 1명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직원 채용 관계는 또 업무가 늘어나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면 그 사업이 뻥하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전부 다 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나눠준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게 머리 쓰고 사업 이렇게 하

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알았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조문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변경하고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완도군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무하여 지정 예정 가능성도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현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내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없고 지정 가능성도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으로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출연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2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3172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사업대상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이며 민법제 32조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해조류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해조류 전복 등을 이용한 간편편의식 및 화장품 제품개발,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군내 영세가공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3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되어 4억 2,000만원으로 현금 출연입니다. 출연사업계획과

2023년 주요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72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2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출자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으로 사업대상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출자목적은 해양치유시설물과 치유자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복리증진, 전문경영 확보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1억원으로 현금출자입니다. 출자사업계획과 산출내역 및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천히 쉬시라고, 제일 뒷장에 보면 동의안을 올리더라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묻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보면 20조 20항에 보면 제1항에도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24조 첨부하거나 해줘야 어떻게 위원들도 알고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미진해서 부탁드립니다. 테니까 동의안이나 오면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는 위원들이 알고 이게 저촉되는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엄쉬엄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늦게 와서 볼 시간이 없어서 볼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옥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전문위원 : 이송현

○속기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6.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5시43분 개의)

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

1.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공 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식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식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남한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의원간담회 때 조례개정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자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2023년 2월 1일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공고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산자부 공문을 보시면 도로이격거리는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 4장의 제20조의 2 발전사업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배부해 드린 자료 신규조문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의2 1항을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또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3항을 보시면서 현재 3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정비법상 도로 면도, 이도, 농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0m 이내 주거지역 5호 이상 주거지역 500m 이내에는 현재 태양광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3항을, 현행 3항을 제1호에 넣고 2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

2호를 보시면 가항은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타용도로 사용한 이후에 복구계획서하고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염해농지 5.5데니지 멘스 이상이 90% 이상 농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이 2019년도에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2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면서 사업장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업, 이 사항을 쉽게 설명 드리면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부지 전체 사업장 소유자는 면 입구에 그러니까 만..... 주민 전체 절반 이상이 조합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장 태양광이 시설이 되면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속하는 마을 만 18세 이상 이 건 성인입니다. 성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면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으로 참여 2분의 1 이상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반경 500m 이내에 만 18세 이상 성인들의 3분의 2 동의를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항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m 떨어져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재해예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이 사항은 개별여건에 따라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재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했고 2차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고금면하고 완도 간척지가 있는 완도읍하고 고금면에서 의견제출이 없었고, 약산면에서 찬성 의견이 연명 서명으로 342명이 서명한 찬성의견이 제출됐고, 또 반대 측에서는 153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식

의안번호 제3162호「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수용성 아까 약산 몇 프로 정도 됐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 연명으로 서명한 사람이 찬성의견이 342명, 반대한 사람이 153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 전에 찬성측에서 약산면 같은 경우, 전체 세대가 약 한 2,100여명 됩니다마는 인구가. 그 중에 한 1556명 약 한 71% 정도 찬성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고금하고 완도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고금하고 완도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없고, 단지 고금면 같은 경우, 고금면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날 고금면사무소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약산은 이슈화가 돼 있었고, 고금하고 완도 화흥포도 계속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잘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미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업자들이 전부 나와서 공청회나 설명회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됐으면 고금하고 화흥포도 부서에서 나가서 여론조사 수용성을 다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약산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고금하고 완도 것도 다 정리를 했어야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농지법 시행령 얘기했는데 5.5 수치 그 깊이가 몇 m 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찾아봤거든요. 현재 농지법상으로 심도가 30에서 60센티입니다.

거기에서.....

○김양훈 위원

그게 위에서 농지법 시행령상으로 지자체 검토하는 것 다르고 농어촌공사에서 검사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깊이가. 여기에 염전은, 아니 염전..... 간척지는 50센티 이상만 들어가면 염도 다 나옵니다.

100프로 나와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복토한 땅 아니고 평지땅은 30센티만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이것은 농지법 시행령 그 염도 수치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눌러서 했냐에 따라서 전부 다 염도 농지는 수치가 다른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같이 고금, 약산, 고금, 완도 하다 못해 우리 완도는 간척지가 대부분이에요. 염도 수치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수용성을 검토해 보시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을 걸 약산 쪽만 지금 올라오다보니 군민들 언성이 높고 반발도 심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혀 주민수용성 안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김양훈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는 솔직히 우리 군민들이 몇 프로나 보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프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저희가 완도읍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별도 이야기를 안 했고, 고금면 같은 경우 현재 면사무소에 입법예고 중이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부 이게 고금면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한테 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것도 할 때는 주민수용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행정에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입법예고 하다가 연장을 시켜서 이번에 올라오는 건데 그때라도 세심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고 찾아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형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을기업 합동조합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다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2분의 1 수용성만 되면 된다, 조합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확실히 면민의 반절이 다 동의 안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 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에서 신안군 이것은 말 그대로 태양광 구조물로 설

치하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주민참여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재생에너지 고무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를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취합을 완료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 게 경제교통과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지역개발과에서 그쪽 부분은 하겠지만 이런 게 상호 먼저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나면 우리가 태양광 예를 들어 태양광 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REC라고 해가지고 다 킬로수가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킬로가 나온다고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전기가 출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다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조례랑 같이 올라와서 군민들한테나 설득을 시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개발행위허가만 내주려니까 이렇게 조례를 하자 이거 안 맞다는 얘기도.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올라왔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서운한 것이고 신안같은 경우얘기를 하시는데 신안은 잘 됐어요. 우리도 우리군에서 신안 거 더빙하는 거예요. 그럴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신안은 백서를 몇 년 전부터 발간을 했어요,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냥 신안 것만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라도 캐치를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의 준비과정이 되고 또 그쪽 것을 참고를 하고 우리만의 조

건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신안 것만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신안하고 우리하고 지역특성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왜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2021년도 도로 2킬로, 주거지.....

○김양훈 위원

왜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인허가 돼다 보니까 마을 민원이 많아서 입법으로 건의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만약에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때로 가서 버섯 재배사라든가 창고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개발행위접수를 했던 게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골머리 아팠었죠, 개발행위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김양훈 위원

어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격거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1킬로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농도, 이도까지 전부 포함돼다 보니까 거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천봉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위원

그랬죠. 그게 제일 문제는 그런 사람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창고 하나 지어서 버섯 재

배 가짜로 해서 태양광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때 최정욱 의원님, 박재선 의원님이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그 과에다 물어보니 거의 들어온 것이 없대요. 그쪽에 안 매달리고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풀어지면 그 부분도 같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조례 개정이 대전제가 태양광을 기존 도로 1킬로 적용을 받되 아까 같이 가, 나, 다 3개 호를 충족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위원

주민참여형으로 갔을 때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주민참여형으로 가고.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격거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간척지 외에는 거의 농어촌공사 규정 그대로 산이나 염해가 없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 기존 조례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완도는 간척지가 다 논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리고 간척지 이 염도 측정 부분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제가 듣기로는 농식품부에서 이걸 심도를 조정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조정된 것도 실제 염해농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량농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을 농지

농식품부 의견을 따라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말고 다시 또 바뀔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바뀌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농지법 제36의 2 농지법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에 보면 2019년도에 이게 개정돼서 5.5데시지멘스 미터 그 염도 이상의 농지가 90% 나왔을 때 그 해당 면적을 허가를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방법이 또 누가 측정하느냐 심도에 따라서 굉장히 염도 차이가 많습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하면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화해서 아마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다 있으니까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런데 말씀드렸드시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형을 3분의 2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조합원 가입은 2분의 1로 하고 또 반경 500m 이내는 저희가 3분의 2로 했습니다마는 마을 인구수를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고금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0명 됩니다.

전체 한 2,000명 정도가 이 조례를 한다면 주민참여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약산면 같은 경우 약 한 2,150명 됩니다마는 여기는 1,000명 넘게 가입을 해야 되고, 완도읍 같은 경우 현재 1만 7,300명 됩니다. 8,60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금하고 약산 같은 경우 500m 이내를 조사를 해 봤어요. 고금 같은 경우 4개 마을에 18세 이상이 373명, 약산 같은 경우 6개 마을에 390명 어차피 이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용성 부분은. 아까 2분의 1은 주민참여형,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인접지 500m 이내 3분의 2 성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제가 다 충족이 돼야 개발행위가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시골에서는 서로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탁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죠. 안목 때문에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도 아는 사이인데 과장님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친하다고 안 찍어주지는 않아요. 찍어줍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거 아닌데 그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면의 반절이다. 그러면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그 2분의 1만 주는 건가요, 조합원 가입된 사람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신안군 같은 경우에 채권형이라고 해서 발전사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민들 채권사에서 회사에서 보존해서 주민들 채권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신안같은 경우 안좌 같은 경우가 한 96메가 됩니다.

저희 약산 같은 경우 150메가 됩니다마는 안좌 같은 경우 태양광은 96메가 발전해서 인구가 한 2,900명 됩니다. 거기는 연간 수익이 50에서 150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자꾸 그런 게 정확하게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군민들한테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차등지급은 되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제시가 됐어야 돼요, 제시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용량하고 우려하는 그 배분방식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결정은 경제교통과에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김양훈 위원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내가 킬로수를 얼마만큼 갖고 왔는지 그 킬로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30% 정도는 환원을 하게 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분배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주세요, 200만원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지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풍력도 소송 걸어서 졌잖아요. 발전금 못 받았잖아요, 6억.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신지 그것은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회사측에서.....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청구를 못해가지고 다 못받고.....

○김양훈 위원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들이 주민들 그걸 몰라서 회사에서 넘겨치기 해버리니까 못받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줬잖아요.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행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식량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저도 찬성은 해요. 정확한 지분계획만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지분계획만 있다고 그러면 농사 지은 것 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낫죠, 수익금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딱 킬로 수 나오잖아요. 킬로 수 몇 킬로 해서 수익금 얼마 대충 다 나와요. 그런 것도 좀 미리서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약산 90 몇 킬로 150킬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 다 좀만 빼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이 정도 되니 군민들한테 이 정도면 혜택도 가고 꾸준히 갈 수 있으니까 같이 이런 것도 개정을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들어왔었으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개발허가를 내주겠다, 산자부 허가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밖에 아니잖아요.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례 경제교통과하고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형 업체들 동의서 받고 또 했을 때 이게 주민참여형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아마 바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생에너지 고무 조례에다가 좀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 만약에 태양광재생에너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어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무분별하게 개발행위허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분별하게 사업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무

분별하게 들어올 텐데 그거 들어올 때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 조례로 본다고 하면 전체 내줘야죠. 그렇죠? 조건만 맞으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래서 일단은.....

○김양훈 위원

이걸 무조건 내주게 되면 나중에는 차후에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도있게 했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과하고 미리서 신안 것 그대로 더빙할 게 아니고 우리군에 맞고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 봐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아쉬운 거고, 참 이거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많이 벌어지겠지만 선로도 도로도 고쳐야 되고, 나중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군민들한테 개발행위허가 이 자체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봐야 됩니다. 산자부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게끔, 이익이 되게끔 그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장 박재선

됐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주요 요점은 김양훈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

에 몇 가지만 제가 할게요. 1킬로로 조례를 한 게 박재선 위원과 저와 공동발의해서 한 건데 했을 때의 취지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토의를 하고 공감대를 갖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근건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사람 앞세워서 부추기고 앞장서서 지역과 갈등시키고 싸움나고 조용하게 잘 사는 지역이 서로가 형제간보다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하면 약산 같은 경우는 해도 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크게 개입은 안 했죠. 우리 화흥포가 막상 딱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찬성하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예요. 젊고, 일하는 사람들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잠을 안 자고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의원인 나한테 연락이 오고, 청년회 회의하면 회의한다고 불러오고 뭐한다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500m 안에는 우리 화흥포가 다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1킬로로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해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지역갈등이 심화돼서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겠구나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때 한 1킬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민수용성을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뭐하는데 그러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행위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행위 일단 이게 된다고 가능하면 업체들이 많이 갖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광 개발행위가 제일 커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개발행위에서 다 막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풀어놓게 되면 당연히 태양광은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김양훈 위원도 말했지

만 그런 것들이 전제하에 됐을 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산업부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막연하게 했을 때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적어도 신안 같이 뭔가 특별하게 확실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수용성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수익성이 간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해야지. 안 돼요. 지금 태양광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몇 사람만 하고 다니면서 말로만 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거 확실하니 마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다시 주민수용성도 갖춰져야지. 언제는 주민수용성이 갖춰지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라 또 막아놓은 지 2년 밖에 안 됐죠? 우리가 조례한 지가 3년 됐나, 2년 됐을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21년도에 했으니까 만 2년 됐습니다.

○최정욱

그렇죠.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게 쉬운 겁니까?

조례에 1킬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과 2년 됐는데 주민수용성, 그때도 주민수용성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는데 업체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런 거예요, 업체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회관에서 토의하고 주민들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

았던 것이니까 주민수용성이 함부로 말을 대고 해서 풀어놓는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격거리는 1킬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지금 대전제는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1킬로 5호 이상 주거지역 500m를 유지를 하되 아까 가, 나, 다 3개 항목을 충족했을 때는 허용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업형들이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되고,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한 100킬로, 200킬로 이렇게 생업용으로 했을 때는 같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렇게 되죠.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저희들 입법취지는 산자부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참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가항이 빠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또 일반 산이라든지 조금 소규모로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읍면 단위가 아니라 마을 300m 이내에 그러면 초토화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묶어서 광역화하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주민수용

성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마을 전체 성인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기업형은 도로 거리가 없어요, 이격거리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이격거리, 아까 같이.....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갖춘 부지라고 하면.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렇죠.

○박병수 위원

바로 동의 형태로 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군외 사후도인가 고마도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고마도에서 해볼란다 하려면 군외면 전체 조합원 가입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같이 풀어줘야지.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주민들한테 풀어주면 항의만.....

○박병수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면 대규모로 했을 때 난립이 안 되가요? 대규모로 했을 때도 .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대규모 간척지 외에는 허가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박병수 위원

참 어렵네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공문 가지고 권고사항을 얘기하는데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박병수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우리군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한 가지만 할게요. 누가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이 앞번에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 간단회 할 때 설명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설명했습니다.

○최정욱

그때 우리 분명히 수용성을 70% 라고 들었거든요. 전체 면 인구, 읍면에 70%를 해야 된단다. 조영식 의원이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해서 저도 더 이상 안 했어요. 70%면 거의 쉽지 않는 거라서.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50%로.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때 처음에 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는 마을 주민참여형으로 3분의 2로 그렇게 해놔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고금면 그때 의회설명회 때 도남리 마을을 갔습니다. 도남

리마을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먼 마을 다 해주면 채워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근접마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것보다 1차 입법예고도 그렇게 나갔다가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남리라든가 고금면 의견이 그 인접마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해 주라 그래서 아까와 같이 주민참여형은 면 단위를 기준해서 절반 2분의 1, 그다음에 지금 거리는 마을수용성은 거리가 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무조건 5호만 포함되면 전체마을 포함해서 성인 3분의 2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다.

○최정욱

그러니까 행정이 이러면 안 돼요. 의원들은 주민대표기관이에요. 여기에서 간담회 했을 때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을 어느 부락에서 거기에서 어떤 걸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바꿔서 의원들한테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의원들은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때는 주민참여 3분의 2로 아마 그때.....

○최정욱

70% 그때 아마 제가 조영식 위원님 분명히 그거를 질의해서 제가 하려다가 조영식 의원이 마침 하셔서 저는 듣고 그냥.....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그때도 3분의 2로.....

○최정욱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면을 한다고 하면 70%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아니요, 아니요.

○최정욱

조영식 그림니까? 맞습니까? 우리 조영식 위원님 그때 했으니까 제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영식 위원

처음에 할 때는 70%를 질의했고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설사 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와서 여기에서 재차 2, 3차 할 때 2분의 1이 됐더라도 그거는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답을 해놓고 가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지켜줘야죠.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격거리는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확실하게 못 박혀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예.

○조영식 위원

산자부 권고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위원장 말씀대로 권고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수익금 배분에서 김양훈 의원님이 물어본 것은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식 위원

조합원을 가입하는 데 주민들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신안군 사례를 참고해서 채권형으로 해서 1,000원인가 1만원 내면 조합을 가입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군이 신안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공을 했는가 어떤지 모르겠는

데 신안군하고 완도군 다릅니다. 지역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 저도 태양광 주민참여형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나 화흥포 이야기 마지막 군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화흥포, 완도읍, 완도군의 마지막 보루 땅이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화흥포까지 전염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지금 많이 잠식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대로 3분의 2가 됐든 2분의 1이 됐든 화흥포, 결국은 마을 5개 500m, 1킬로 이내에 사는 분들은 약 한 700명, 800명 됩니다, 정도리까지 대신리부터.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이면 한 350명에서 400명 받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수용성 해가지고 완도읍만 7, 8,000명되는데 9,000명 받으면 화흥포하고 전혀 상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샌 해주면은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물론 해가지고 이격거리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하는 것은 아주 강제적인 사항이라서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만 반대로 동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부 전혀 피해가 없거나 관련이 없다고 해서 막 하고 다니면 9,000명이 안 넘겠어요? 여태까지 자꾸 2분의 1, 3분의 2 따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주고 산자부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의원간담회에서 조례 수정 들어와서 이러면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다든지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거가지고 간담회 때 여러 번 하고 의원님 만나 뵙고 찾아와서 과장님 이거 목매고 있나 그런 생각 느낌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원님들 다섯 분, 여섯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미뤄 놓은 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조인호 위원

이번 조례가 저도 몇 번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해 갑니다. 무슨 시대가 변해가냐면 일본오염수 방류로 우리 지역에 가면 다 아우성입니다. 이 아우성을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자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중점적으로 나온 얘기가 주민수용성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 부분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지가 먼저 육상풍력 했을 때 모르고 행정한테 짐을 줘야되는데 행정한테 짐을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상풍력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젊은이도 살아야 되고, 어르신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 60, 내일모레 70이 돼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와서 지역이 전자파로 못 살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수용성을 맞춰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의회에서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할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몇 사람 의견만 듣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보고 우리가 차후에 완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내년에 예산이 1,000억이 깎인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바라 봐야지. 서로 이제 인간사회라고 서로 얹혀있 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들도 각자 의견을 다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이게 과장님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 의원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박성규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

저도 여러 번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화로 많이 들어오더 라고요. 그래서 노화 염전은 다 찼습니다. 그 때는 거리제한도 없었고, 누가 그 부분에 대 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저도 조인호 의 원님 방금 말씀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 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향시 젊다고 젊은 것 은 아닙니다. 다 나이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언제까지 묶어놓을 건가 아까 말씀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1킬로 500m 이렇게 하면 잔잔한 업체들은 못 들어 오죠. 그리고 수용성 주민참여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든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 지 않겠는가 주민들 3분의 2 동의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관련 없다고 막 찍 진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3분의 2 절반 이상이 동의해주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 는가 그런 업체들도 말을 해도 3분의 2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지민 의원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민수용

성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도 다 형성이 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제가 그 조례안을 발의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든 보면 그때 당시에 요구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조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주민참여 형이나 수용성이나 전부 다 갖춰진다고 하면 아까 조인호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 게 좋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70% 이 상 받기가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조영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 피해가 없으니까 무조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아까 최 정욱 의원님 말씀하셨죠? 간담회를 하실 때 어떤 조건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정확 하게 하시란 얘기에요. 업체들은 꼭 몇 사람 만 듣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조례안은 의원님 들끼리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습 니까? 이 조례안을 이대로 해서 전에 거리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 고 그 전에 한다고 하고 우리 지역민 전체적 으로 수용성하고 주민참여가 다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규 위원

찬성합니다, 저는.

○최정욱

그런데 그게 저런 식으로 가버리면 뻔한 거 죠.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있어요. 이걸 하더라도 에너지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 추진할 때 한푼이라도 오게끔 해주는 게 우리 임무인데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의회에서.

○최정욱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양훈 의원님도 좋은 말 했는데 개발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서로 해서 제대로 새로운 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행위 자체만 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맡겨야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조인호 위원

의원들이 전문위원 두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공부부를 주민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 정확히 해서 지켜주면.

○최정욱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것을 안을 갖고 좀더 연구해서 어떤 것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계속 저것도.....

○조인호 위원

이 조례가 발의해서 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개정이 된다면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만 해서 수용성하고 주민들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다음 조례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책임지고 나서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끼리 몰래 신안도 한번 가보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가지 말고 행정 몰래 가서 우리끼리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김양훈 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얼마 정도 우리한테 올 것인지 전혀 생각이 안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농사 지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농사 지어서 몇 푼 못 벌어요. 자기 자식들 내 식구 쌀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은 대량으로 하는 애들은 임대위탁을 해서 하는 분들은 괜찮죠. 그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나면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참여형으로 한다고 해서 신안식으로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일단 도장은 찍어줬다, 그런데 얼마 준다고 한가?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단 얘기에요. REC 그쪽에 에너지법에 보면 수익금의 30%, 최대 20%에서 30%는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분을 주겠다 이게 나와 주면 그게 딱 명시가 되고, 정확하게 행정에서도 못을 박아놔야 돼요, 매년. 달씩 못하게끔. 공장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조인호 위원

최정욱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통과하되 선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우리가 요구한 돈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딜레이를 시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부터 전부 묶어서 하지 말고 놔야죠.

○최정욱

나는 주민참여형 진짜 좋아요.

○김양훈 위원

당연히 종죠.

○최정욱

그게 뭐냐면 진짜 지역에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두고 보라고 몇 사람이 앞서서 몰고 다니지 절대 회의하고 토론하고 투명성 있게 절대 안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한 가지이고, 두 번

때는 분명히 이 앞번에 70%라고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 나와 있구만 나와 있어요. 행정 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는 70%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50%라고 모른 척하고 이거를 의원들이 그대로 보고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주민수용성을 했을 때 김양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은 어느 정도 갖고 대화하는 법을 만들게끔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주민수용성 진짜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회에서 다듬고 그걸 제대로 주민들한테 수용성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든 토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런 사항이 올라와서 바로 해버리면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죠. 이 앞번에 70% 하고 50% 와서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알면서도 나는 절대 못 넘어가죠, 그걸 알고 있는데. 의원 앞에서 그렇게 하면.

○조영식 위원

의원님 보니까 이격거리가 도로에서 1킬로 5호에서 500m 했잖아요. 수정안을 보면 항상 법에 보면 조례라든가 다만이 중요하거든요. 1안, 2안, 3안이 전부 다 5호 이상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 놓고 다만 돼 있거든요. 교통안전, 재해예방,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도로로부터 15m, 15m 로 이격거리를 뒀서 15m만 제한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단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많이 안 한단 결론이거든요, 이 법이. 쉽게 말하면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3호안도 마찬가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정확히 명시도 몇 m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항목들이 나중에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를 무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들어와요, 수정안이. 다만 때문에 법이 항상.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지역개발과장님이 원안 우리가 2021년 조례안 개정할 때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이거는 하고 있지만 수정안 내용은 보면 이걸 옆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야 되고 전문위원님 다음 달에 오나요, 하게 되면 ?

○전문위원 황성식

1월 임시회 때.

○위원장 박재선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어차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다 들으니깐 대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공부를 같이 해서 다시 토의를 한 번 더 하시고 보류했다가 경제교통과 하고 지역개발과 같이했을 때 그리고 또 수용성 또 주민참여형 그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게끔 그때 가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정욱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을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위원장 박재선

그러니까 개월수만 한 1, 2개월 더 늦어지는 것 뿐인데 지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류했다가 아니면 여기서 통과시켜주되 거리를 그것을 조정을 하든지 아직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최정욱

저는 보류하고 우리들이 좀 더, 저도 수용성은 찬성합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간 이간질이 안 되고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더 고민해서 그런 제안도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다음에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인호 의원님.

○조인호 위원

이야기.....

○위원장 박재선 그러니까 다들 본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씩은 대답을 하셔야지.

○김양훈 위원

저도 주민참여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그러니까요.

○조인호 위원

만약에 다음 1월달에 이걸 해서 같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위원장 박재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조인호 위원

이거 해주려면 해주지 말고, 막아놔버리고 욕을 먹으려면 서로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준다고 일이 풀리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그때 이 앞전에 변환소 문제도 의원들이 표만 얻어 먹고 빠져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최정욱 의원하고 고인되신 박인철 의원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그렇지. 의원들이 표만 얻어먹으면 안돼요. 또 정리할 때는 정리 딱 해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주면 바로 사업이 시작된

다고 하면 우리도 몇 번 보류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이걸 해준다고 해도.

○위원장 박재선

왜 다들 또 말씀이 없어요.

○조인호 위원

이것만 해가지고 해주면 바로 통과돼버리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사업이 들어간다면 몇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는 것도 선로도 확보해야지 또 주민참여형에 대한 배분도 해야지, 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안 하려면 딱 안 해줘버리고 저거 철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 늦어버리면 계속 데모하는 사람들 전부 다 놓고 있다고요, 회의 중에.

○위원장 박재선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하세요.

○조인호 위원

나는 여기까지.....

○김양훈 위원

참 어렵다.

○위원장 박재선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류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통과시키고 다시 할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조례 발의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이격거리는 1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호 위원

그것이 힘들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박재선

예. 그것은 그대로 가니까 어차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조그맣게 개인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가냐 그걸 따져보고 저희들이 공부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 없습니다. 통과시키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까요?

○박성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최정욱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저도 보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병수 위원

보류 한번 해서 내년 초에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지민 위원님은?

○지민 위원

보류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중단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시는 의무출연금 1억 500만원으로 제출하였습시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2억 5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해당됩니다. 출연기관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재원과 보증업체 부실 발생시 채무변제 등 대출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23년까지 총 17억 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증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36개 업체에 11억원을 특례보증지원하였으며, 46개 업체에 133억원의 일반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출연목적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입니다.

2024년도 우리군 출연금액은 6,01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라남도 3차 중소기업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 단위이며, 완도군에서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에 운용됩니다. 우리군의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도 1개 업체에게 3억원의 융자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하여 수탁기관을 통한 민간영역에서의 글로벌선양사업을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 위탁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사무형 위탁으로써 위탁기간은 4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위탁사항은 장한상어워드공고 및 시상, 민간네트워킹 구축 등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장보고경영아카데미 세계인 장보고비전캠프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등으로 운영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연평균 1억 7,000만원으로 위탁기간 4년과 총 6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산출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장보고선양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정관에 민간위탁사업을, 완도군에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이제 보조사업으로 가다보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감으로써 운영비나 인건비지원도 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완도군에서 좀더 인적자원이 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들 급여는 계속 나갔었죠? 지금하고 계신 분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2023년도에는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3월달에 본인이 사퇴를 하셔서 그 뒤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전에는 계속 나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그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김양훈 위원

위탁자는 선정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선정이 안 됐고, 이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말 많고 탈 많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 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없죠?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전부 다 지금까지 기획 짜고 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돈만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분 아니면 여기를 가꾸고 추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들려요.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 것 돼버렸단 거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위탁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군 것이니까 군에서 좀더 챙겨봐야 되는데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들을 위탁주면서 다 그 말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나중에 물어보면 관리감독 전혀 안 돼

요.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 팽개치고 냅두더라고요. 오히려 직영할 때가 더 잘 되고요.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느닷 없는 모기업인들 장한상어워드하고 이렇게 상생 파트너십 한다고 해서 골프대회까지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 그만뒀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관이에요. 보니까 표창까지 다 받아냈더라고요. 어마 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기업들 다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이번에 골프대회는 내년도 하는 완도에 골프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 기업인들하고 상생 파트너십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충분히 완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군이 여수에 가서 1박2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만약에 위수탁을 주게 된다면 보조금을 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그쪽 사람 것이 돼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탁을 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장한상어워드도 그분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원들이 관리해야죠. 그런데 다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 머릿속 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위탁을 주더라도 진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연말이나 그 연초에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진행상황같은 것도 미리 미리서 전부 다 보고를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잘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그분 것 돼요. 우리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 그 분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면 많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인호 위원

동의를 우리가 해주면 민간위탁하면 공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공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글쎄요. 공모 공고를 안 띄웠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만큼의 사업을 할 만한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의구심은 좀 듭니다.

○조인호 위원

이건 한 사람도 없어요. 과장님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 의원들이 아홉 분인데 의장을 한 번씩 한 사람들은 여수에 한 번씩 가요. 그 외에는 의원들은 전혀 한 사람도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과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성과보

고 본인들이 짜서 하는데 성과보고를 의원들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도 마찬가지로 가면 의회하고 초청하는 것도 없고, 의원들이 개막식 할 때 잠깐 갔다 와도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해버린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앞으로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리고 군수가 그런 생각을 못 가지면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동행을 하든지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동의하면 다인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분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분 것이 돼요. 김양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민간위탁으로 하면 군에서 훨씬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 것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저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아니, 우리 월급 주는 직원으로 쓴 사람도 관리를 못하는데 위탁 준다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 두 번 하는데 위탁동의안 해줘서 제가 12년째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깐요. 내일모레 과장님도 또 해놓고 다른 데로 발령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서길수 면장이 가있지만 서길수 면장도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연구해 봐야 돼요, 공직자들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어찌됐든 그렇게 문제점만 보시지 말고요. 이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그동안 성과를 냈던

부분을 봐주시고 그걸 우리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봐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공고를 해도 그 한 분밖에 공모를 안 한다니까요. 만약에 단수로 공모하면 복수로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릴 거예요, 혹시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일단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아마 재공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재공고를 해도 단독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거기하고 협상을 협약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들어오면 공고하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의회하고 꼭 상의해서 의원들 아홉 명 연명 받아서 하십시오.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절차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박재선

그 절차에 대해서 동의안을 허락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조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예상하는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는 매년 7,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6,0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1억 3,000이 소요됐는데 민간위탁은 1억 6,700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운영비, 운영비가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가 한 1,800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장보고지역혁신사관학교라는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3,7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지금 보조사업 시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올해 작년에 있었던 그분과,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분과 금당면장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결정한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군이 더 개입하고 그동안에 있는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자산화하기 위해서 좀 더 개입을 깊숙이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영식 위원

모든 보조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해양치유센터가 됐든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전문성, 안전성, 지속적, 효율성 안 따진 적은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죠? 판결났습니까? 유용사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직 감사처분 결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진행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내년 두 달도 안 남은 1월부터 공고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 또 재공고해서 하면 또 재공고한다. 제가 분명히 한번 물

어볼게요. 지금 이 일로 결론도 안 난, 누가 잘잘못을 한지도 몰라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한 사람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운영비를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자격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일단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함에 있어서 어느 단체를 생각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몇 가지 더 추진한다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해주면 이 일이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러면 위탁기관에 지금 예정이라는 것이 2024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거는 저희가 안이고, 저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올 연내에 그것들이 마무리 되면 1월부터 진행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분하고 관련이 됐다든가 그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단체가 우리가 보면 대충 알잖아요, 완도 좁으니까. 그럴 때 단호하게 그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한 번 유용한 사람이 우리군 위상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물론 결과가 나와서 상대방 지금 현재 면장님이 잘못했다 하면 그건면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유용, 운영에 관해서 연루가 된 사람을 우리군 이미

지도 안 좋고 하니까 과감하게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과장님,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임기를 위탁자 임기가 4년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최정욱

이거를 2년으로 하고 그 실적보고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하면 어때요? 사실 위원들이 아까도 다 이야기했지만 전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도를 바꿔놔야 다음에 우리도 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고 평가도 해서 다시 재연장을 한다든가 이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부분은 위원님 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2년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후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최정욱

1년씩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년 임기하고 2년하고, 2년 연장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청문회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

로 해야 책임감을 갖고 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지금 해마다 성과보고회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하고 저희 군 집행부도 할 생각이거든요.

○조인호 위원

우리가 4년 임기 주고 2년 재심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은 청문회 제도가 없으니까 그 청문회 제도 대신 의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되게끔 그걸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놔야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방법은 어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안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너무 내용을 모르고 계셨으니 앞으로 의회도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더 깊이 관여해서 점검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해서 성과분석해서 효과가 있으면 연장하고 안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해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군수한테만 보고하면 안 되고, 의회도 심사를 받게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음에 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군수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 중에 하나 3163호요, 전남신용보증재단 동의안을 동의했는데 아까 서류상에는 1억 500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제교통과장님이 2억 500으로 했거든요. 아까 원안대로 했는데 정정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 전문위원 : 황성식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7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출연목적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2024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녹색축산 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축산 분야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당 출연금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31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시26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본 동의안을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복 등 완도 수산물수출 장려를 위하여 2021년 1월 완도항 배후부지에 연면적 2,513평방미터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검역 및 통관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컨테이너의 종합적 관리와 해썬 가공시설을 갖춰 수산물물의 안정성 확보로 일본, 베트남, 대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해 왔으나 건물임대료 산업용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수입과 지출이

더 커서 부족한 예산을 출자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완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대상은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사무로 수출물류센터의 시설물 관리, 통관, 검역 등 수출업무와 수조, 냉동창고, 가공동 등 시설물 운영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지출 부분은 냉동창고 및 수조 이용료 등 수입으로 상기하고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출물류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관계법규 및 7페이지 연간 소요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2페이지, 수입 지출에 보면 상계, 전부 다 지원을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수산경영과장 김일

당초에 3년간 해왔던 사용수익 허가 일종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탁운

영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수출물류협동조합에 줘서 할 수 있게끔 직접 완도군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위수탁이 아니네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위탁입니다.

○김양훈 위원

직접 운영하는데 어떻게 위탁이 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직접 우리군이 관리위탁을 할 경우는 직원들 관리요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렵고요.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을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김양훈 위원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년간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협동조합에다가 모든 걸 주고 협동조합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체수입을 하되, 물류센터사용료만 8,000만원, 전기료 1억 정도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지출이 큰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계속 충당하다보니까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완도군이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김양훈 위원

조합비라는 게 1개월에 1,000만원씩 나왔다는 그랬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출자금.

○김양훈 위원

이거 몇 번, 처음에 한 번 걷고 말았죠, 출자금은?

○수산경영과장 김일

20명 정도가 한 2억 정도 걷어서.....

○김양훈 위원

한 번 걷고 그다음부터 출자금은 없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보통 연간 3,000에서 5,000 정도 부족한 부분을 출자금 2억에서 계속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20명 2억 밖에 아닌데 2억 갖고는 처음부터 출자금 갖고는 이거를 운영을 못 한다고 전부 다 파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명 해서 1,000만원씩이면 2억인데 2억 갖고는 처음부터 상계처리,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기세하고 이런 거 떠나서라고 출자금이 매년 1,000만원씩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처음부터 출자금 1,000만원만 가지고 2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 했다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더라도 계속 적자 날 수 밖에 없는 이 구조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물류센터 1년간 임대료가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그 전에는 전기세는 올리지 않았습시다.

○김양훈 위원

그것은 전기세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세는 다 올랐죠. 가정용도 오르고 일반사업장도 오르고 위수탁 주고 있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전기세는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전기세는 올라 있는 상

태에서 자기네들이 강구책을 한번 더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강구책을 한번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지금 적자나니까 전기세 딱 여기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 전기세 인상 이 두 가지 가지고 그쪽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주세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구조다. 처음부터 2억 출자금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센터 위수탁 준 데가 많은데 거기도 전부 다 전기세 올랐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주라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쪽에서 강구책을 좀 더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 여기 쪽 보면 그분들이 익사업이잖아요.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줬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쪽 사람들은 전부 수익배당이 다 될 것이고, 또 수익금이 있을 것인데 자기네들이 번 이익금에서 좀 더 내놓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 전혀 없이 부족한 대로 다 달라하는 거예요.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줘야 되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조 이용료, 냉동창고 사용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이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그 부족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계속 충당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여기 지출에 보면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다 있어요, 여비, 교통비까지. 이게 맞냐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관리위탁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완도군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맞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도, 지금 직원들 5명 정도 들어갑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4명이요.

○김양훈 위원

4명, 우리 직원 아니고도 그쪽에서 정원을 구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다면 완도군에서 직접 그 4명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군청 직원들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김양훈 위원

아니요. 꼭 군청직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퇴직금 다 지출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업자들, 어가들이겠죠? 어가들인가 조합인가 그 밑에 센터 밑에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 받고 해버리는 게 안 나아요? 이렇게 다 해주느니.

○수산경영과장 김일

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습시다. 받았는데 수입이 실제로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김양훈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출자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방법을 다르게 바꿔봐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 직원들 4명 있으면 그 4명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출하고 자기 업자들 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분네들이 와서

우리가 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원리에요. 지금 이 형태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전체 그대로 위탁을 받는 형태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대신 정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양훈 위원

정산처리는 당연히 해야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조합 출자금 1,000만원 내에서 부족분을 내고 매월 그 조합원들이 30만원씩 더 걷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지출해가면서 3년 버텼었는데 더 이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은 종사자분들이 그쪽에서 지금 구한 종사자들이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아마 그대로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한 3년간 관리해 왔고 외부에 관리했던 직원들이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사무실 사용료는 뭐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층이라 사무실이 4동이 있습니다. 수출협회, 유통협회, 남도유통협회 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김양훈 위원

사무실만 따로 이렇게 받는 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거기는 우리가 수입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1년에 임대료를 센터에서 얼마씩 갖고 오나요, 군으로?

○수산경영과장 김일

여기 사무실 임대료요?

○김양훈 위원

예.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2,200만원이니까 4개 동이면.....

○김양훈 위원

처음에 위탁할 때 얼마씩 군에다 주는 거 있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처음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 7,500만원 정도. 지금은 6,5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김양훈 위원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겠네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감가상각에 의해서.

○김양훈 위원

소모품이 있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수리해주고 하는데 감가상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니요. 그것은 법정감가상각 계산법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지한 대로 그쪽 법대로 하고, 이쪽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오해의 소지가 외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어찌됐든 물류센터 위탁을 받아서 3년 운영을 해 왔습시다마는 사실 전기세가 작년은 한 1억 정도, 재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 전기세가 거의 배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7, 8,000 내고 이러면 고정비용, 인건비, 더 이상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이런 구조라 자기들도 3년은 잘 버텨왔는데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완도군에 관리위탁을 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전에 센터가 생겨서 수출을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수출을 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개인들이 할 때.....

○김양훈 위원

개인들이 할 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개인들이 자기 갖고 있는 조그마한 특수한 유통창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경영인들이 왔을 때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출물류센터 자체에다 보관해서 하니까 바이어들 와서도 좋고, 시설도 있고, 또 검역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전에도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나면 그전에도 센터 없을 때도 잘 관리하고, 돈 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애기를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 생기면서 더 벌 것인데 기간도 단축되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지원을 해주냐 이런 여론들이 바깥에 나가면 엄청 많이 들려요. 과장님도 그런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어민들 중재를 할 수 있게끔 12월 안에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박병수 위원

조합원들이 운영하면 보니까 이용료 수입은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거기 냉동창고가 있으면 사용료, 수조가 12개 있거든요. 수조 사용료, 가공동이 있습니다, 2층에가. 가공사용료, 이런 사용료들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특별하게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가 상무 인건비, 주임 인건비 해서 1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보수 받은 세 분 무슨 일을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출자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30만원씩 한 달에 그렇게 냈는데 실제로 이 운영은 상무, 주임 2명, 총무가 모든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었고요. 또 거기 수조동 청소를 사실 인부들 사서 해야 되는데 이 네 사람들이 사무행정을 보면서도 모든 관리를 다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청소하고, 임대료 받고.

○박병수 위원

수출물류를 사다가 저장해서 판매를 하죠? 아니, 수출을 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는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수조에다가 활전복을 보관했다가 검역기간을 다 거친 이후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 때 잠시 보관을 한 겁니다.

보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보관료가 1억 9,400이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보관료가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전기료, 인건비 이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 외에도 기타경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이용료 수입이 적으면 나머지 이런 거 직접 경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출 부분은 우리 완도군이 직접 저걸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고 모든 관리를 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군비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사용수입허가로 협동조합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한 50% 이상 올라버렸고 또 센터 사용료가 7,8,000만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3년

간 조합비로 매꿔보다가 못 버티니까 위탁관리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1억 9,400 외에는 수입이 없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냉동창고 사용료, 수조 임대료, 가공동 이용료, 냉각수 사용료, 2층 사무실 사용료 이 부분이 수입 부분입니다.

더 이상 수입 발생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참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큰 건물 80억 예산이 투자됐는데 1억 9,400 수입이 돼서 군비를 투자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건물지어줬지, 이렇게 전기세, 인건비 지원해주지 우리군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우리군이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사용수익을 주려고 하면 아까 전에 임대료, 사용료 부분을 배 이상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일반업체들 이용료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업체들의 보관료와 같거나 같게 해야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는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출물류센터 그 역할이 그런 큰 물류센터가 있으므로 해썹시설도 돼 있고 또 검역기간을 단축시키고 가이드들이 왔을 때도 깨끗한 시설에 보관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에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역할이.

○박병수 위원

지금 위탁방법을 보면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나요,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저 물류센터를 사용수익으로 가고 저희들이 전국에 공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수출물류센터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출물류센터의 건립목적이 우리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이나 광어를 우리 완도업체들이 운영하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저희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완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풀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희망자들이 있다면 어차피 완도에 대신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 전복, 광어 그렇게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단순히 양식어가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같이 연계돼 있는 유통업체들도 같이 공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데 처음 시작하니까 이것을 3년 정도 해서 또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위탁기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서 3년 정도 해보고 운영이 잘됐을 때는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시다마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위탁을 협동조합에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이에요? 운영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사용수익 허가하고 위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3년간은 사용수익허가를 줘가지고 직접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영해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사실 전기세가 21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최정욱 위원

아까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렇게 그런 비용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들도 출자금 대는 것이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사용수익이 어렵다. 그래서 관리위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우선 과

장님 생각은 그래도 협동조합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이 하게 되면 문제없이 두고 보자고 했을 때 위탁과 우리가 그분들이 적자 해서 차라리 수입금이 7,000 얼마인가 들어오잖아요, 임대료가. 그걸 지원을 해주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걸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한 것과 차라리 그 돈을 거기로 지원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위탁은 뭐가 문제냐 4명 인건비 자기들이 운영했을 때는 4명 갖고 해요.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걸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군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 사람, 여기도 혼자 피곤하다고 하면 여기 더 줘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이제 두고 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그만큼을 지원을 해버리면 수입금으로 들어온 게 6,7,000 된다고 하면, 임대료가. 그걸 차라리 협동조합에 지원해줘버리면 자기들이 그런 거 가지고 알아서 지금 운영하듯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위원님,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예산과 전기세 한 6,7,000 정도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상태에서는 군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법적으로.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서 위탁하는 거, 우리가 운영업체 그 돈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지원을 전혀 못 하게 돼 있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7,000만원 주고 사용수익하게끔 하면 되는데 여러 방법을 찾아봤는데.

○최정욱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협동조합에. 이미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물류센터, 우리군 임대료 6, 7,000만원 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 50% 감면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정욱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용승인을 해서 우리 건물을 사용승인하게 해줘서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수출물류센터를 협동조합에다 임대료를 한 거예요, 임대계약.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형태입니다.

○최정욱 위원

금방 사용승인이지 임대하고 다르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용승인허가라는 것은 임대형태입니다. 임대계약을 맺었거든요.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하고 협동조합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하면 그게 안 돼요? 그걸 될 것 같은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협동조합을 주려면 그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정욱 위원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7,000만원 지원해주고 떼어내는 게 좋은데.

○최정욱 위원

위탁하면 직원들은 머리 아플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직원 조금만 여기도 필요하다, 저기도 필요하다 계속 그럴 겁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저게 사실 임대료만 제대로 받게 되면 다시 사용수익허가로 갈 수 있는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는데요. 그것만 가능하다면 다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을 간접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미래

예. 수익이 나면 군에 수익금을 기부를 한다
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군비가 1억 5,000 정도 1년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상계하게 돼 있어요, 다시 군으로 낼 때 돼 있어요.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수익금을 조합원이 일체 못 갖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보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 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체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건물 지어줘, 돈 지원해줘, 인건비 지원해줘 다 지원해주고 그분들은 개인적인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개인적으로 20개 업체가 각자.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사용료 내고 다 합니다. 의무사항은 다 지킵니다.

○조영식 위원

건물 80억 지어줘서 땅에다 건물 지어줬죠? 그러면 이렇게 다 쓰고 수익도 앞으로 수출 간접지원만 한다는 명분 하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 때 아까 50% 감면해줬다고 했죠, 사용료를?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감면 해주니까 그분들은 이제 더 큰 걸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혜택 다 받고 50% 감면 받고, 우리가 자본도 잠식되고 수습, 자본이 없으니 우리도 더 이상 안 하겠다, 김양훈 위원님 말에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해주고 나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또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준다는 이 내용 자체가 동의안 한번 하면 이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수산경영과장 김일

조합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합원들은 단지 특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임대를 할 수 있었던 조건.

○조영식 위원

그것이 수출에 대한 완도수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간접지원에 들어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완도군이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한테 줘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완도군이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인사권이나 뭐다 이런 것은 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인력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는데요. 당장 인력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
에.

○조영식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용승인수익허가를 쫓을 때는 본인들이 조합에서 당연히 인원도 뽑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용승계를 해요, 어쩔수 없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나중에 4명이면 되냐는 말이에요, 이분들. 우리도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까 최정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그 인력부분은 공무원처럼 기간제로 뽑는다든가 할 때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을 수출물류센터에서 직접 뽑았기 때문에 군에다 요구해서 정규직 시켜주라 이렇지는 못합니다.

○조영식 위원

아니요. 현재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넣어서 그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방만경영 같은 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럴것죠? 인원 관리감독도 잘하고,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되면 완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조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감독하려면 여태까

지는 조합에서 했는데 조합장 체제하에서 했는데 수산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그때 가서 나중에 관리감독하니까 한두 명 충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원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의안 해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출물류센터 전담업무만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게 사업을 승인해 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관리위탁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군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걸 잘 염두에 두십시오. 그쪽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군에서는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승인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승인을 하든 부

결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기간부터, 기간부터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으로 할 건가 3년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면 기간부터 조정돼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욱 위원

전문위원님 직원들 협동조합에 지원해줄 수 없다고, 저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못 하나요?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임대형태 자체가 사용수익허가, 임대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죠.

임대형태로 가는 것 자체가 사용수익허가도 임대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정욱 위원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수출물류센터가 아닌 수출협회에 지원을 한단 얘기에요. 자기가 어차피 거기를 운영하니까.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그 시설 자체가 군 시설이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지원한단 얘기죠. 수출물류센터는 아닌데 우리가 수출협회에다가 협동조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저 사람들이 우리군 업무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할 거 같아서.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공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대신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임대해주고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최정욱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지원하듯이.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문화원은 군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정욱 위원

그렇게 다른가?

○의정지원팀장 김귀창

예.

○김양훈 위원

복잡하네요.

○박병수 위원

지금 직접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협동조합이 구성돼야 되잖아요.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직영.....

○김양훈 위원

건물이 전체적인 관리를 직영한다는 얘기죠.

○최정욱 위원

이렇게 보면 위탁은 모든 걸 돈 다 대주고 협동조합은 관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대고 협동조합이 끌고가는 가되 지금 말하자면 편하게 하는 거고, 이 앞번에는 자기들 돈 조금씩 투자하면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이름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그 방법이었으면 그렇게 쥐버리면 그거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인건비를 아껴가

면서 하겠죠.

○조영식 위원

애초부터 전기세만 지원해주라 했거든요. 8,000만원인가.

○박병수 위원

여기 건물에서 수입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 자기들이 물류센터 임대사용료 수익 그 외에는 수익이 없다고 하니 자기들이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이용료 수익이에요, 이용료 수익.

○위원장 박재선

개인적인 수입 하는 것은 자기가 벌어먹고요. 거기에 사용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수입으로 자기네는 지출로 내죠, 우리는 수입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관했던 보관료만 내놓고 나머지 수입은 자기들이 다 버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발생한 수입액이 있으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운영경비에 보태서 써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최정욱 위원

이 구조 자체가 수입을 논해버리면 의논자체가 안 돼요. 수입을 논하려면 저 건물을 누구한테 통째로 임대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돈을 벌죠. 이런 거, 저런거 안 따지고.

○박병수 위원

1억 9,000이구만.....

○최정욱 위원

저것이 공공성으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수입을 놓고 봐버리면 지원 자체가.....

○조영식 위원

그러면 계속 감가상각 때문에 해마다 들어오는 이용료는 적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해마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최정욱 위원

그건 위탁으로 가면 각오는 해야 돼요.

○위원장 박재선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송현

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거는 전문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자료를 3층 회의실에 와서 봤습니다. 지금 이런 동의안이 하루만에 와서 논의가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잠깐 느꼈을 때는 이 조합원들이 자구책이 있어야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자기네들 자구책은 하나도 없이 영업이 안 되니까 손해보니까 군비를 지원해달라 이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것 같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먼저 했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고 사실은 이 동의안이 와야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을 상기해보십시오.

○최정욱 위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위탁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박성규 위원

절차가 잘못됐어요. 위탁 동의안 전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 책자에 들어있어요.

○김양훈 위원

들어있어요,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박성규 위원

진작 했어야 됐는데 예산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재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성규 위원

예산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안은 해주시고 예산은 다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최정욱 위원

예산 삭감이 안 되면요.

그러면 뭘로?

○박성규 위원

예산 삭감하면 되죠.

○최정욱 위원

동의 해주면 예산 줘야죠.

○박성규 위원

삭감할 수 있죠.

○김양훈 위원

동의가 되면 지원해줄 동의를 마련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죠.

○박성규 위원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거죠.

○최정욱 위원

다음에 가서 준 만큼 미비하거나 뭐한다고 하면 그땐 우리가 할 수 있죠.

○박성규 위원

100% 삭감 안 하고 50%라도 삭감할 수 있죠. 왜 못하죠.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안 맞고.

○최정욱 위원

위탁해주고 삭감하면.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조인호 위원

동의를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1년 동안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다음 예산에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물류센터 이것은 완도전복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줘버리고 소문 나면 어민들은 모르고 의회에서 수출도 안 되게 한다고 발목잡는다고 이렇게 여론을 만든다고요, 이 조합원들이.

○최정욱 위원

그런데 해주려면 우리가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데 뒤로 가서 자른다면 안 한다고 하면 자기들 못한다고 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해주려면 예산 가지고는 논의할 것이 아니에요. 해주고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맞죠. 위탁은 그야말로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 테니 관리만 해라 이거거든요.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좋은데 수출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여론이 금방.....

○최정욱 위원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대안이.

아까 금방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줘버리려고, 임대 지원부분 해주면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을 5년을 하지 말고 2년으로 한다든가 3년은 길고.

○위원장 박재선

아까도 3년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과장님이.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오면 동의안을 승인해주자고요.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위원장 박재선

그렇까요? 어차피 회기동안은 예산도 어서

해야 되니까.

○조인호 위원

이렇게 해요. 들어오라고 해서 2년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고.

○위원장 박재선

이것은 어떤가요? 그쪽 조합에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가 사실은 있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 직원이 파견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직원을고용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조인호 위원

여기도 주식회사 같이 파견을 안 나가도 서류는 볼 수는 있어요.

○위원장 박재선

서류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 거기에서 해버리니까.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 돼요.

○최정욱 위원

사실은 이거 할 때 김양훈 위원도 알겠지만 분명 2, 3년 안에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자 그래서 조례로 더 이상 지원 없다고 막은 거예요. 조례를 막아도 뭐가 걱정이냐, 위원님들 다 아니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조례도 풀어주라고 결국은 풀어주고 조례도 다시 만들었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알고 우리도 예상했던 건데 어차피 위탁을 주려면 예산 자른다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맞아요. 한 2년 정도 두고 그런 걸 갖고 나서 이거는 다시 조정을 해라, 안 되면 다른 업체에 줘라 이런 방법을 찾으면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전문위원실 안 거치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 맞는가?

○전문위원 이송현위원

동의안은 전문위원 의견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뭐가 그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고 올라와야 위원들이.....

○조인호 위원

검토보고가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실 2층에 안 들리고 위원들한테 다 이렉트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고 동의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양훈 위원

제일 문제는 이 동의안도 문제지만 이번 회기 때 계속 그러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동의안 그냥 던져줘요.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가면 통과시켜주겠지 이거부터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계속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통과시켜주니까 그래요.

○조인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돼요.

○최정욱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정신없이 바쁘고 전문위원실에 모든 걸 위임하는데 전문위원실에 올라와야 우리가 그나마 보고 한 건데 이걸 안 거치고 왔다는 자체는 이건.....

○김양훈 위원

5일 전에 갔다 줘야 돼요, 동의안도. 5일 전에 미리 검토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조인호 위원

의회가, 의회가.....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회기규칙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5일 전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안건들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안건이 그렇게 못 거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 하여튼 모든 안건은 5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촉박해서 들어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쪽 사정이죠. 의회 기본적인 게 있죠.

○조인호 위원

최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앞으로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실 검토를 하고 나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게끔, 일절 우리한테 먼저 못 가져오게 해야 돼요.

○최정욱 위원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면 전문위원이 내린 정의가 맞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너희 말은 이래도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박재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안 거치고.

○최정욱 위원

이거 한번 미루시다.

○위원장 박재선

그렇게 하죠.

○최정욱 위원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위원장 박재선

어차피 회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산도 해야 되고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시간동안 검토도 예산하면서 검토할 시간도 갖고 예산도 여기에서 수산과하고 바로

진행된 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위원장 박재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김양훈 위원

검토가 필요하니까 부결이 아닌 보류를 시켜놔요.

○최정욱 위원

그것도 명시하세요. 전문위원실 안 올라오고 다이렉트로 올라온 건 앞으로 안 한다고요.

○위원장 박재선

예.

○박성규 위원

모레가 수산경영과 예산..... 이걸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최정욱 위원

아니, 마지막에 해도 되니까요.

○박성규 위원

예산 통과시키고 이걸 해요?

○최정욱 위원

아, 예산.

○위원장 박재선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축조심사가 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축조심사 있지 않습니까?

○박성규 위원

이거 예산 먼저 통과시킨다고요?

○위원장 박재선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조인호 위원

축조심사 절차는 이것 위탁동의안은 별개로 하고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하긴 하되 그렇게 해서 해줘요.

○위원장 박재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정욱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위원장 박재선

아까 여기는 5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5년인데 조인호 위원님처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시간 그런 것도 조율해 보고 동의는 해주더라도 그런 조건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이 갖다주고 동의안 주면 이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최정욱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보게요. 어차피 협동조합에 주는 걸로 하되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김양훈 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박병수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집행부 출자출연 동의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기간이 다른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법령검토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분명히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적을 해도 넘어가 버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세심히 검토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자료가 안 온대요, 전문위원실로. 동의안 자료가 안 온다는데.

○최정욱 위원

솔직히 우리들이 올라오면 여기 와서나 보거든요. 그나마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몰랐다고 하니까.....

○김양훈 위원

이렇게 합시다. 동의안 통과하면 무조건 해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방법.....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실에서 더 검토해 보고 그 안대로 찾아보자니까요. 아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다음은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테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영식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 민

○출석공무원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회 의 록 서 명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서명의원	지 민		
서명의원	최 정 욱		
사무과장	최 정 환		